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4호 2009. 6

차례

특집 극영화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전쟁관
-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전쟁영화의 역사재현과 왜곡을 중심으로

박진한 | 특공영화의 표상전략과 전후 일본사회의 '특공' 인식 7

강태웅 | 원폭영화와 '피해자'로서의 일본 39

한정선 | 전후 일본의 곡쟁이 - 일본 '반전' 영화에 나타난 여성 61

이택광 | 전쟁과 타자 - 할리우드는 어떻게 일본을 재현하는가? 87

논문

최덕수 | 근대 계몽기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보호국론' 비교 연구 113

채미하 |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143

정병준 |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177

최진열 |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 -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209

최재영 | 唐代 長安의 朝貢使節의 변화와 鴻臚寺의 기능 257

양은경 |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의 관계 30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62

Contents

Special Issue Cinema and Post-war Japan's War Images: Representation and Distortion of History Reflected in Asia-Pacific War fare Films

- Park, Jinhan | Strategy of representation in Tokkō Films and Cognition on Tokkō (Kamikaze) of Post-war Japanese society 7
- Kang, Taewoong | Atomic-bomb films and the Japanese as 'victim' 39
- Han, Jungsun | Designated Weepers of Postwar Japan : Women Represented by Japanese Anti-War Films 61
- Lee, Taekgwang | War and Otherness : How does Hollywood Represent Japan? 87

Articles

- Choi, Deoksoo |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cognition of a protectorate theor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113
- Chai, Miha | Acknowledgement of Dongmyung in Goryeo Era : focused from the national rite 143
- Cheong, Byungjun | Military Groups of the Koguryo People during the Tang Dynasty 177
- Choi, Jinyeoul | The Ruined Koguryo People's Identification Acknowledged by the Chinese in terms of Koguryo's Nick Name(Chosun, Samhan, Buyo, and Jinhan) in Tang Period 209
- Choi, Jaeyoung | The Activities of the Tributary Envoys at Changan and the Fuction of Honglusi during Tang Dynasty 257
- Yang, Eungyeng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guryo clay figures and the Chinese ones 301

특 집

극영화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전쟁관

-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전쟁영화의 역사재현과 왜곡을 중심으로 -



특공영화의 표상전략과 전후 일본사회의 '특공' 인식

박진한 |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I. 머리말

전후에 제작된 일본의 전쟁영화¹⁾는 크게 두 가지 장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쟁 말기의 '특공'과 '원폭'을 각각 소재로 삼은 특공영화와 원폭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가 주로 전쟁 긍정의 입장을 취한 영화인들에 의해 제작된 반면, 후자는 반전의식을 호소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²⁾ 하지만 양자 모두 전쟁 말기 (실제 전장이 아닌) 후방을 무대로 일본인의 비극적 체험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다지 큰 차이점을 갖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1) 여기서 말하는 전쟁영화란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소재로 전후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를 지칭함을 미리 밝혀 둔다. 아울러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8년 8월 27일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가 주최한 2008년도 학술대회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전쟁관-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상물의 역사 재현과 왜곡을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2) 木下昌明, 2007, 「映畫から見えてくる世界(第13回) 二つの特攻隊ものについて-〈俺は、君のためにこそ死ににいく〉・〈TOKKO 特攻〉」, 『東京』283, 東京自治問題研究所, 35쪽.

이 가운데 특공영화는 푸른 창공, 하얀 구름, 붉은 빛꽃 등의 이미지 연출과 총력전에서 인간병기가 갖는 '덧없음', '무상함'을 '무사도' 혹은 '야마토 다마시[大和魂]'라는 이름으로 재현하여, 군의 조직적인 명령과 지시에 따라 수행된 특공작전을 '특공사상'에 따른 병사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나 권력주체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3년에 개봉한 「아! 결전항공대[ああ決戦航空隊]에서 이른바 '가미카제[kamikaze, 神風]'의 특공작전은 미군의 필리핀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격수단이 아니라 '1억 특공'·'옥쇄'의 전범인 동시에 '패전의 교훈으로부터 일본을 일깨우기 위한' 행위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영화 속 자살공격은 미군함정에 대한 공격수단이라는 전술적 가치를 넘어서 명예로운 죽음 내지 패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표상됨으로써, 합목적성을 따지지 않고 죽음 그 자체를 명예로 여기는 무사도적인 행위로 (일본) 관객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무사도를 자국의 전통과 정신으로 간주하는 관객들의 심정적 동의를 얻기 위해 특공은 고귀한 희생 내지 아름다운 죽음으로 그려졌던 것이다.

무사도를 매개로 삼아 특공의 비장미를 그려내려는 특공영화의 표상전략은 최근에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의 야마토」(2005)에서는 특공을 앞둔 병사들에게 “무사도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이라며 죽음에 임하는 자세로 무사도를 언급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하지만 최근의 특공영화에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재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바로 특공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치로 존재했던 천황과 국가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천황'과 '국가'의 부재는 최근에 제작된 특공영화를 '반전' 영화로 평가하려는 이들의 주된 근거가 되곤 한다. 하지만 국가나 천황의 빈자리에 '가족'과 '여성'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화라는 매체가 갖는 사회성에 주목하여 특공영화 속에 구현된 재현양식을 단순히 제작자나 감독 개인의 것이 아닌 동시대의 사회적 결과물로 파악해, 특공영화의 미학 내지 표상전략에 대한 분석 방법을 통해 특공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중의 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약 30년 간의 간극을 두고 제작된 두 편의 작품, 즉 「아! 결전항공대」와 「남자들의 야마토」를 통해 특공의 표상전략과 시기적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 두 작품은 대중적인 흥행과 함께 무사도에 기초한 특공의 가치와 미학을 가장 잘 표상한 영화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전후에 제작된 특공영화의 장르적 특징과 계보를 살펴보고(제2장), 무사도적 심성을 이용한 특공의 표상화가 가장 잘 반영된 영화라 할 수 있는 「아! 결전항공대」를 소재로 특공사상의 미학화 과정을 검토한 다음(제3장), 「남자들의 야마토」와 같이 최근에 제작된 특공영화에서 가족과 여성이 특공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대상으로 재배치되는 이유에 대해(제4장)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특공에 직접 참가했던 당사자의 기술과 무관한 또 하나의 전쟁기억이 스크린을 통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실상 특공영화가 오늘날 어떻게 전장동원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II. 특공영화의 장르적 특징과 계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의 자살공격은 '특별공격대'의 육탄(肉彈)공격, 즉 '특공' 작전이란 명목하에 전개되었다.³⁾ 특공작전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해

3) 최초의 특공작전은 1944년 10월 20일 필리핀 중부의 레이테(Leyte)만에 상륙을 개시한 미군 함정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제1항공함대 사령관으로 특공작전을 입안한 오니시 다카지로[大西瀧治郎] 중장은 최초로 특공작전을 수행한 시키시마[敷島]부대에 '가미카제[神風]'라는 칭호를 수여했다고 한다. 특공작전과 특공대원을 '가미카제'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1951년 오니시의 오른팔로 활약했던 이노구치 리카헤이[猪口力平], 나카지마 다라시[中島正]가 특공대의 활약을 기술한 『신평특별공격대(神風特別攻撃隊)』를 저술한 이래, 이 책이 영어·프랑스어·중국어 등으로 번역, 각국에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가미카제는 미국인을 포함한 서구인이

군의 함상 전투기인 제로센[零戰], 잠수 어뢰 가이텐[回天], 로켓 폭탄 오카[櫻花] 외에 글라이더, 모터보트 등의 다양한 기동장비에 다량의 폭탄을 장착한 채, 조종자가 직접 적함에 돌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우발적인 전투 행위가 아닌 작전수행을 목적으로 정규군대에서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 특공을 수행한 예는 세계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 당시 특공작전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군 상층부는 '지원'이란 형식으로 특공대원을 선발했다. 하지만 부대 통솔과 유지를 위해 장교와 고참 조종사는 제외한 채, 전투경험이 일천한 20대 전후의 해군비행예과 학생, 학도병 출신의 예비·견습사관 등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했다. 1944년 10월 20일 필리핀 중부의 레이테(Leyte)만에 상륙을 개시한 미군 함정에 시키시마[敷島]부대가 첫 특공작전을 감행한 이래, 이들의 죽음은 '지는 사쿠라'에 비유되어 천황과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으로 미화되었다.⁴⁾ 심지어 출격하지 않은 특공대원마저 '살아 있는 신'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죽어서만이 야스쿠니의 '신'으로 현창되는 일반 병사와 달리, 확실한 죽음을 명령받은 특공대원은 특공을 지원한 순간부터 '신'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공대원을 포함한 전몰학도병의 수기를 담은 유고집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이들이 전쟁과 정부에 대한 의문, 고뇌와 비애, 절망 등을 가슴에 품고 출격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특공이라는 애국주의적 행위의 이면에 감추어진 특공대원 내면의 번민과 반국가주의적 정서가 밝혀지게 됨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천황숭배에 경도된 군국주

조우한 적들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상대'인 일본인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물로 선전·유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적함에 맹렬히 돌진하는 '가미카제'의 이미지는 13세기 여몽연합군의 침략에서 일본을 구한 신비로운 태풍처럼 천황과 국가를 위한 자발적인 죽음으로 특공대원을 표상하고자 했던 이노구치 등의 군 수뇌부의 노력과 일본에 대한 서구사회의 적개심과 공포심이 낳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2003,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미의식과 군국주의』, 모멘토, 281쪽.

4) 총력전 체제하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사쿠라'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이 어떻게 병력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2003, 위의 책 참조.

〈표 1〉 일본에서 상영된 주요 특공영화

제작 연도	영화	감독	배급사	원작	흥행수익과 순위
1950	きけ!わだつみの聲	關川秀雄	東横映畫	日本戦歿學生手記編集委員會編, 1949, 『きけ!わだつみのこえ』, 東大協同組合出版部.	2,015만 엔 / 11위
1952	雲ながるる果てに	家城巳代治	松竹	白鷗遺族會編, 1952, 『戦歿飛行子備學生の手記-雲ながるる果てに』, 日本出版共同株式會社.	
1953	戦艦大和	阿部豊 · 松林宗恵	新東寶	吉田滿, 1952, 『戦艦大和ノ最期』, 創元社.	1억 3,601만 엔 / 7위
1954	神風特別攻撃隊	小石榮一	東映		
1955	人間魚雷回天	松林宗恵	新東寶	津村敏行, 1954, 『人間魚雷回天』, 大和書房.	
1957	空ゆかば	堀内眞直	松竹	阿川弘之, 1957, 『雲の墓標』, 新潮社.	
1960	あゝ特別攻撃隊	井上芳夫	大映		
1967	あゝ同期の櫻	中島貞夫	東映	海軍飛行子備學生十四期會編, 1966, 『あゝ同期の櫻』, 毎日新聞社.	2억 322만 엔 / 7위
1968	人間魚雷あゝ回天特別攻撃隊	小澤茂弘	東映	毎日新聞社編, 1967, 『人間魚雷-回天特別攻撃隊員の手記』, 毎日新聞社.	1억 7,984만 엔 / 9위
1968	あゝ子科練	村山新治	東映	毎日新聞社編, 1967, 『青春の遺書-子科練戦没者の手記』, 毎日新聞社.	3억 1,005만 엔
1970	花の特攻隊 あゝ戦友よ	杉良太郎	日活		
1970	最後の特攻隊	佐藤純彌	東映		2억 엔 / 9위
1974	あゝ決戦航空隊	山下耕作	東映	草柳大藏, 1972, 『特攻の思想-大西瀧治郎傳』, 文藝春秋.	3억 3,800만 엔 / 9위
1993	月光の夏	神山征二郎		毛利恒之, 1993, 『月光の夏』, 汐文社.	

1995	きけ!わだつみの聲	出目昌伸	東映	1950년 關川秀雄 감독에 의해 제작된 「きけわだつみの聲(1950)」의 리메이크작.	10억 1,000만 엔 / 9위
1995	君を忘れない	渡邊孝好	日本ヘラルド映畫配給	長谷川康夫, 1995, 『君を忘れない: Fly boys, fly!』, 角川書店.	
1995	The Winds of God	奈良橋陽子	松竹	今井雅之, 1995, 『ウインズ・オブ・ゴッド: 零のかなたへ』, 角川書店.	
2001	ホテル	降旗康男	東映		23억 3,000만 엔 / 9위
2003	ゼロ 零	井出良英	ケイエスエス		
2005	男たちの大和	佐藤純彌	東映	邊見じゅん, 1983, 『男たちの大和 上・下』, 角川書店; 『決定版, 2004, 男たちの大和 上・下』, ハルキ文庫.	약 50억 엔 / 5위
2006	出口のない海	佐々部清	松竹	横山秀夫・三枝義浩畫, 1996, 『出口のない海: 人間魚雷回天特攻作戦の悲劇』, 講談社.	
2007	俺は、君のためにこそ死ににいく	新城卓			
2007	特攻-tokkō	リサ・モリモト			

* 佐藤忠男, 1974, 「特攻隊映畫の系譜」, 『シナリオ』 30-9; 佐藤忠男, 2006, 「映像文化とはなにか(26)-特攻隊を扱った映畫」, 『公論』 43-10; 福間良明, 2007, 『殉國と反逆-特攻の語りの戦後史』, 青弓社 등을 참고하여 주요 특공영화만을 정리·작성함.

** 흥행수익과 순위는 일본의 대표적 영화잡지인 『キネマ旬報』의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 (www.walkerplus.com/movie/kinejun) 참조.

의자가 아니라 전시하의 ‘강제 지원’으로 작전에 차출된 희생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후 군 수뇌부의 전쟁책임을 고발하고 전쟁에 희생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전쟁이 주는 잔혹성을 상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공과 관련된 다양한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특공을 소재

로 한 영화는 전후 일본의 전쟁영화 가운데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하며 반복적으로 제작·상영되었다(표 1).

사실 전시 중에 일본 군부는 전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공대원의 활약을 담은 극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에 대한 모독'이란 이유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⁵⁾ '신에 대한 모독'으로 제작되지 못한 특공영화가 전후에 특정한 영화 장르를 형성할 만큼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영화면서도 시종일관 자신의 불운에 대한 사변과 연민, 미화에 머물 수 있는 흔치 않은 장르"일 뿐만 아니라 "살해한 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둘러댈 수 있는 장르"였기 때문이다.⁶⁾ 다시 말해, 특공영화는 영화를 관람하는 (일본) 관객들로 하여금 국가와 군의 명령에 따라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특공대원과의 자기 동일시를 통해 전쟁에 대한 가해자의식과 자기반성을 수반하지 않은 채 자기연민에 빠질 수 있는 감정의 회로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이같은 장르적 특성에 더해서 특공체험의 다양성 역시 사후적 해석을 달리 하는 특공영화가 계속해서 제작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학도병, 해군비행예과 학생 등의 각기 다른 병적을 가진 특공참가자는 그들이 자라온 환경의 차이에 따라 열렬한 애국주의에서 자유주의, 반국가주의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 편차를 보이는 특공체험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⁷⁾ 이러한 다양성은 영화감독이나 시나리오작가에게 특공체험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 이를 발췌·편집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사후적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시점과 내용을 달리하는 특공영화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는

-
- 5) 中村秀之, 2006a, 「特攻隊表象論」, 倉澤愛子 外編, 『戦場の諸相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 5, 岩波書店, 315쪽.
- 6) 佐藤忠男, 1974, 「特攻隊映畫の系譜」, 『シナリオ』 30-9, 86쪽.
- 7) 특공대원의 수기나 편지 등을 소재로 이들의 사상경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주요 연구로는 森岡清美, 1995, 『若き特攻隊員と太平洋戦争—その手記と群像』, 吉川弘文館; 大貫恵美子, 2003, 『ねじ曲げられた櫻 美意識と軍國主義』, 岩波書店; 大貫恵美子, 2006, 『學徒兵の精神誌』, 岩波書店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大貫恵美子の 저서는 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2003, 앞의 책; 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2007, 『죽으려면 죽으리라—가미카제 특공대의 사상과 행동』, 우물이 있는 집으로 번역되었다.

것이다.

전후에 제작된 특공영화는 특공에 대한 인식과 수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패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특공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이 확립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영화로는 1950년과 1952년에 제작된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 [きけ, わたつみの聲]」와 「구름이 흘러가는 저 끝에서[雲ながるる果てに]」를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전몰병사의 수기를 바탕으로 이들의 생생한 전쟁체험을 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영화의 제작 의도와 사회적 인 반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는 한국전쟁 발발(1950년 6월)과 경찰예비대 창설(1950년 8월) 등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전쟁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전적인' 학도병상을 스크린 위에 그려냄으로써 정부의 언론 통제와 재군비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있던 일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으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⁸⁾ 이에 반해 「구름이 흘러가는 저 끝에서」는 동명의 전몰병사 수기집⁹⁾을 토대로 본인 역시 특공대 출신인 시나리오

-
- 8) 1947년 東京제국대학 출신 전몰학도병 37명의 수기를 엮은 『머나먼 산하에-도쿄대 전몰학생의 수기』는 전몰병사의 기록을 발췌해 간행한 첫 번째 시도였다. 전장의 병사가 남긴 생생한 목소리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머나먼 산하에-도쿄대 전몰학생의 수기』의 판매부수는 20만 부에 이를 정도였다. 이에 1949년 도쿄대 이외의 학도병이 남긴 유고집을 모아 76명의 수기를 편집한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일본 전몰학생의 수기』가 발간되었다. 그 해 베스트셀러 순위 4위를 기록한 이 책은 전사한 젊은이들의 전쟁과 정부에 대한 의문, 비애, 절망 등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 줌으로써 반전적인 학도병상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전쟁체험자인 독자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협력의 기억을 회상시켜 회한의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극영화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는 그 전해에 간행된 동명의 전몰 학도병 수기집 가운데 특공대원의 기록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는 전쟁 중에 연인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소재로 삼은 전후의 전쟁영화와 달리 일본군의 폭력과 독단주의를 고발하려는 목적에서 '충명한 학도병'과 '무지·폭력적인 직업군인'이라는 이항대립관계를 주된 모티브로 삼아 군대 내부의 모순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福間良明, 2007, 『殉國と反逆-特攻の語り』の戦後史, 青弓社, 26~28쪽).
- 9) 『구름이 흘러가는 저 끝에서』(유고집, 1952)는 전쟁 말기 베테랑 비행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속성비행 훈련과정을 통해 조종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에

작가 나오이 킨야[直居欽哉]의 개인적 체험이 더해져 군국주의로 인한 희생자적 측면보다는 마지막 출격을 눈앞에 둔 젊은이들의 갈등과 변민에 초점을 맞추어 특공대원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¹⁰⁾ 다시 말해, 이 영화는 특공에 대한 관객의 시선을 특공대 내부의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내면의 심리묘사에 고정시킴으로써, 특공 역시 침략전쟁하의 전투행위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시키는 한편, 단지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만을 문제삼아,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특공영화의 장르적 특징인 '자기연민의 감정회로'를 선구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원을 회피할 수 없는 심정에까지 몰려 지원한 다음 출격하기까지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는¹¹⁾ 스토리 라인은 특공영화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로 자리잡게 된다. 이처럼 1950년대의 특공영화는 대다수가 전쟁체험자이지만 후방에서 패전을 맞이한 대중의 욕망, 즉 전장의 특공체험에 대한 호기심과 전몰병사에 대한 연민의 정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와 군부에 의한 희생자로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그들 역시 전쟁의 협력자이자 조력자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에 반해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도에이[東映]영화사를 중심으로 「아! 동기의 사쿠라」(1967), 「인간어뢰 아! 가이텐[回天] 특별공격대」(1968), 「아! 요카렌(予科練)」(1968), 「최후의 특공대」(1970), 「아! 결전항공대」(1974)가 연이어 제작·상영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무렵에 상영된 특공영화는 주로 야쿠자영화를 제작하던 도에이영화사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출현배우뿐만 아니라 스토리 라인에서 발견되

서 모집한 해군비행 예비학생 제13기생의 수기를 모은 것이다.

10) 영화는 열렬한 황국정신의 소유자인 오타키 중좌와 특공의 비인간성에 의문을 갖는 후카미 중좌가 서로 반복하는 가운데 양친의 면회 직전 특공의 명령을 받고 고뇌하면서도 결국은 출격을 결심하는 오타키의 인간적인 모습에 동지적 연민을 느낀 후카미 역시 오타키의 뒤를 이어 출격한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11) 佐藤忠男, 2006, 「映像文化とはなにか(26) - 特攻隊を扱った映畫, 『公論』 43-10, 98쪽.

는 야쿠자영화와 특공영화 사이의 동질성은 고도경제성장기 동안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피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영웅주의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이다. 종전 50년이 되는 1995년을 전후로 제작된 일련의 특공영화는 이제 더 이상 특공의 역사적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관객들에게 특공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93년에 제작된 「월광의 여름」은 '비겁하게 살아 돌아온 특공대원의 감추어진 이야기를 끄집어냄으로써 '특공=죽음'이라는 일본사회의 특공신화를 비판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특공=국가와 민족을 위한 죽음'이라는 공식적이고 지배적인 '특공신화'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자, 한편에선 이에 맞서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희생으로 특공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¹²⁾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특공영화는 국가와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집합적인 기억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사회세력 간의 치열한 '기억의 정치학'이 작동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종전 60주년, 러일전쟁 기념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을 전후로 해서 제작된 대작 영화들이다. 이들 영화는 막대한 제작비를 바탕으로 호화출연진과 특수효과 등의 볼거리를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회상형식으로 특공의 기억을 재현하면서 현재의 생존자가 과거 특공참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12) 2001년 9·11 사태 당시 일부 서구 언론은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알 카에다의 비행기 테러공격을 '가미카제' 또는 '제2의 진주만 기습' 등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일본 내 보수세력들은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행위와 전시 중의 일본군이 행한 특공을 같은 맥락에 놓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는 한편, 일본 내 젊은이들 사이에 특공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을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도쿄도지사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真太郎)는 "전쟁이라는 가혹한 시대에 제각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혹은 주저하면서, 고뇌하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갔던 젊은이들의 진혼을 위해, 오늘 날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훨씬 농도 깊은 그들의 청춘 찬가"(2005년 8월 27일 영화기획발표 회견)로 영화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간다(俺は、君のためにこそ死ににいく)」를 제작하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공통된 서사양식을 취한다. 특공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특공의) 생존자가 불현듯 먼저 간 동료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점에서 이들 영화는 특공에 대한 사회적인 '의례'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이처럼 특공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련의 특공영화는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세계화로 인한 국민적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통의 존중과 애국심의 육성을 강화하려는 자민당 및 일본의 보수세력이 보여 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과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특공사상과 무사도 :

「아! 결전항공대[ああ決戦航空隊](1974)」

야마시타 고사쿠[山下耕作] 감독의 「아! 결전항공대」는 특공의 입안자이자 책임자인 오니시 다키지로[大西瀧治郎] 중장의 일대기를 담은 논픽션물인 「특공의 사상-오니시 다키지로 전기[特攻の思想-大西瀧治郎傳]」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이다.¹⁴⁾ 야마시타 감독은 이미 여러 편의 특공영화가 제작·상영된 상태

13) 中村秀之, 2006b, 「儀禮としての特攻映畫〈男たちの大和/YAMATO〉の場合」, 『前夜』7.

14) 1966·1967년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다양한 특공체험을 발굴, 이를 「아! 동기의 사쿠라(ああ同期の櫻)(해군비행 예비학생 제14기의 유고집, 1966), 「인간어뢰-가이텐특별공격대원의 수기[人間魚雷-回天特別攻撃隊員の手記]」(수중어뢰 '가이텐[回天]'에 탑승한 학도병 및 해군비행예과 연습생의 유고, 1967), 「청춘의 유서-예과련전몰자의 수기[青春の遺書-予科練戦死者の手記]」(해군비행 예비연습생의 수기, 1967)라는 일련의 수기집으로 간행했다. 이후 이들 수기집은 도에이[東映]영화사에서 동명의 영화로 제작하여 적지 않은 관객동원에 성공, 특공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특공을 명령받은 자'들의 특공체험만이 이야기되고, 더욱이 이를 바탕으로 '특공=덧없는 죽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

에서 또다시 특공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특공의 사상』을 언급하며 종전의 특공영화가 ‘특공을 떠난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데 반해, 이번 영화는 ‘특공을 떠나보낸 자’의 논리를 재현할 목적으로 제작에 임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¹⁵⁾ 특공영화 「아! 결전항공대」의 차별성은 죽음을 눈앞에 둔 특공대원의 개인적인 고뇌와 변민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에서 벗어나, 특공의 입안자이자 책임자인 오니시 다키지로[大西瀧二郎] 중장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영화는 ‘특공을 떠나보낸 자’인 오니시의 특공사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그의 행적을 따라 필리핀과 타이완에서 특공작전을 입안·시행하는 전반부와 일본으로 돌아와 철저항전을 주장하는 후반부로 구

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위해 ‘특공을 지시한 측의 논리’ 역시 구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2년 구사야나기 다이쿠리[草柳大藏]는 특공의 입안자이자 책임자인 오니시 다키지로[大西瀧治郎] 중장의 일대기를 담은 논픽션물인 『특공의 사상-오니시 다키지로 전기[特攻の思想-大西瀧治郎傳]』(文藝春秋, 1972)를 간행했다. 서문에는 “특공을 명령받은 젊은이들의 수기가 연이어 출간되는 상황에서 특공을 지시한 측의 논리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저작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요컨대, 『특공의 사상』은 다양한 특공체험자의 수기에 대한 일종의 대항의식에서 비롯된 반응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福間良明, 2007, 앞의 책, 162쪽).

15) 山下耕作, 1974, 「特攻隊映畫-監督のつもり」, 『シナリオ』 30-9, 89쪽.

16) 주인공 오니시역은 야쿠자영화에서 인자한 중간보스역을 주로 맡아온 쓰루타 고지[鶴田浩二]가 맡았다. 쓰루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오니시 중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도 프로세스로서 사실이다. 따라서 오니시 다키지로라는 사람이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일로 자신의 본의(本意)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오니시 역시 군 조직에 의한 희생자일지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鶴田浩二·須藤久, 1974, 「終戦記念獨占會見 新しい天皇制批判映畫となるか-〈ああ決戦航空隊〉が描くもの: 天皇に一言だけいって欲しかった」, 『映畫評論』 31-10, 23쪽). 실제 영화에서도 오니시는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군 조직 내의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따라 특공작전을 입안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수동적 존재로 그려진다. 이에 따라 오니시는 한 점의 흔들림 없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특공작전을 추진하는 강인한 지도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었으되 불리한 전황의 타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특공을 입안·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저하고 고뇌하는 인물 상으로 묘사된다.

성된다. 특공작전의 시행을 앞두고 고뇌하는 오니시의 내적 갈등에 대한 묘사로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그림 1>).¹⁷⁾ 영화 전반부는 국지적인 전술 차원에서 시작된 특공작전을 마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하면서 특수촬영의 스펙터클한 전투장면 속에 특공의 비장함을 더



<그림 1> 특공작전의 시행을 앞두고 고뇌하는 오니시의 내적 갈등에 대한 묘사

해 관객들에게 극적인 긴장감과 재미를 안겨 준다. 이 가운데 1945년 1월 타이완 타이난[台南]기지에서 오니시가 행한 연설 장면은 다음과 같이 특공의 전술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어 흥미롭다. 오니시는 출격을 앞둔 특공대원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이 특공이 되어 장기지구전을 버티면서 모든 수단방법을 써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적을 죽인다면 인명소모를 두려워하는 미국은 반드시 항복할 것이다. …… 지상전투에서 한 명이 적 백 명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항공대 비행기 1대는 적 백 명과 함께 적함 1척을 침몰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 …… 미국 역시 일본과의 화평을 생각할 것이다. 전쟁은 무승부가 되는 것이다. 무승부가 되면 일본의 승리, 승리라 할 수 없어 도 지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역설하며 “특공이야말로 (적에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특공의 전술적 가치를 주장했다. 이처럼 영화 전반부에서 오니시는 1944년 7월 괌을 빼앗긴 이후 거세지는 미군의 공격에 대한 전세 전환을 위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안겨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전술수단이란 점에 특공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영화 후반부는 1945년 5월 더이상 특공으로 출진시킬 비행기가 남아 있지

17) 미군의 필리핀 상륙작전에 맞서기 위해 1944년 10월 제1항공함대 사령관에 임명된 오니시가 천황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기 위해 황거의 긴 회랑을 걷어가는 동안 회상 형식으로 전개되는 해군 내 특공작전에 관한 팽팽한 찬반양론은 실은 특공작전의 실행 여부를 놓고 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심리적 갈등에 대한 묘사라 할 수 있다.

않은 상황에서 군령부 차장으로 일본 본토에 귀국한 이후의 경과를 담고 있다. 귀국 후 오니시는 해군 내에서 미국과의 전쟁종결을 위해 화평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과의 종전협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해군대신 요나이[米内]에게 오니시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패전을 맞게 되면 군인으로서 할 말이 없다”고 반박하며 “남은 2,000만 명의 일본 남자들이 특공을 전개한다면, 일본이 설령 진다 하더라도 망국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더욱이 특공에 회의를 품은 아쓰키[厚木] 항공대 사령관 고조노[小園] 대좌로부터 “특공은 필승의 길이 아니라 필패의 길이 아니었는가?”라는 힐난을 듣게 되자, 그는 “설령 전쟁에 진다 하더라도 선불리지게 되면 일본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혼(魂)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당당히 싸웠다는 정신을 보여 주어야만 지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재기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이처럼 전술수단으로써의 가치가 퇴색해 버린 특공의 가치를 “일본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혼”에서 찾으려는 오니시의 자기정당화가 실은 「주신쿠라[忠臣藏]」 등을 통해 형상화된 무사도의 사생관과 동일한 심성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에 의해 일본정신 내지 전통으로 새롭게 발견된 ‘무사도’는 총력전 체제하에서 와쓰치 데쓰로[和土哲郎]에 의해 “무사도란 죽음을 찾아내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다시 말해, 와쓰치는 에도시대 병학자인 야마모토 쓰네토모[山本常朝]의 『하가쿠레[葉隠]』에서 찾아낸 ‘순사(殉死)’야말로 주군에 대한 몰아적 헌신인 동시에 무사도의 숭고한 행위이며 천황제 국가 체제에서는 천황을 위한 고결한 자기희생, 즉 가치판단을 따지지 않는 죽음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이처럼 죽음 그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미학화시킨다는 점에서 총력전 체제하에서 병력동원의 이데올로기로 변용된 ‘무사도’와 ‘아! 결전항공대’에서 표상화된 ‘특공사상’ 사이의 심정적 연결고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¹⁸⁾ 다시 말해, 비록 지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일본 민족의 자긍

18) 에도막부[江戸幕府]에 의해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무사간의 사적인 일체의 전

심과 혼을 위해 죽는다”는 오니시의 특공사상은 합목적성을 따지지 않고 죽음 그 자체를 명예로 여기는 무사도적인 심성을 매개로 (일본) 관객들에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영화 속 특공사상은 '전후 일본의 재건' 내지 '일본민족의 자긍심과 혼'이라는 자기정당화의 논리를 갖게 됨으로써, 천황과 국가를 위한 '순국(殉國)'의 애국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특공=덧없는 죽음'이라는 반국가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심정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절친항공대」의 차별성은 특공영화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해 왔던 종결 방식, 즉 하얀 머플러를 목에 두른 조종사가 활짝 핀 벚꽃을 한 손에 들고 자신을 배웅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며 창공으로 날아가는 장면¹⁹⁾을 거부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종전선언이 라디오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방송된 이후에도 패전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 항전을 주장하는 아쓰키(厚

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주군에 대한 순사, 복수로 인한 죽음 등이 무사다운 죽음으로 예찬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이유와 목적을 따지지 않고 죽음 그 자체야말로 무사의 진정한 명예로 간주하는 심성구조가 무사사회 일부에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사도'가 일본 고유의 도덕이념이나 문화원형으로 이야기되면서 새로운 '국민'에게 요구되는 '국민도덕'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박진한, 2006, 「무사도의 창안과 현대적 변용—근대 일본의 '국민도덕' 만들기」, 『역사비평』 참조.

19) 하얀 머플러를 목에 두른 조종사가 활짝 핀 벚꽃을 한 손에 들고 자신을 배웅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며 창공으로 날아가는 모습은 특공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상투적인 장면으로 오늘날까지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나카무라 히데유키(中村秀之)는 “구름에 대한 몽상은 육체라는 물질성과 책무라는 사회성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소망”을 반영한다는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탈물질학’에 관한 개념을 빌어, 특공의 표상 장치로 이용되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은 특공대원 자신에게 육체와 책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타자, 즉 관객에게는 (신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특정 이미지를 심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中村秀之, 2006a, 앞의 글, 320쪽). 다시 말해, 특공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데 이용되어 온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의 이미지는 사실상 관객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을 통해 의례적인 표상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木] 항공대 사령관 고조노[小園] 대좌 일행의 반란행위를 담고 있다. 아쓰키 항공대 조종사인 가에다[改田] 중위가 “사기(死期)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유언을 남긴 채(그림 2), 비행기를 몰고 날아가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며 적함이 아닌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오니시의 특공사상을 그야말로 유감없이 보여 준 장면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여기서 가에다 중위는 비행기 1대로 “적 100명과 함께 적함 1척을 침몰”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기(死期)를 잃어 버리지 않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바다로 돌진한 것이다. 이같은 장면은 미군이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삽입해 적함에 돌진하는 특공대의 최후를 보여 주고 특공의 가치를 관객에게 되물으면서 대미를 장식하던 여타 특공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죽음의 재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공대원의 죽음은 적함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었는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뿐, 특공으로 인한 죽음 그 자체가 보다 본질적인 가치이자 의미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특공의 죽음은 적에 대한 공격 혹은 특공대원 자신의 의미부여와 상관없이 죽음 그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더욱더 커다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사실 특공행위의 사상적 근거를 전쟁 말기의 비이성적 광기나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시공을 초월한 일본적 전통이나 가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이미 영화의 원작인 구사야나기의 『특공의 사상』에 배태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 2〉 칠판에 적어놓은 가에다의 유언. “사기(死期)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랜 동안 보내 준 두터운 정에 깊이 감사한다”는 내용



〈그림 3〉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가에다 중위의 모습

서문에서 “특공이 한계상황에서 생겨난 일시적인 사상적 산물인지 아니면 우리 일본인의 정신구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특공사상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는 왜 전쟁이라는 한계상황과 함께 ‘일본인의 정신구조’ 속에서 특공의 사상적 요인을 찾고자 고민해야만 했던 것일까?

이같은 고민은 그가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60년대 후반 일본사회는 미일동맹관계에 기초한 자민당 중심의 기성정치체제에 대한 강한 염증과 분노를 갖고 있었다. 이같은 혁신의 에너지는 전공투(全共闘)²⁰⁾를 중심으로 폭력을 수반한 급진적인 학생운동을 통해 기성체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고도경제성장 속에서 상실되어버린 일본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근대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 11월 25일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할복자살사건인 이른바 ‘미시마 사건’²¹⁾과 1972년 12월 연합적군에 의해 촉발된 ‘아사마산장[淺間山莊] 사건’은 폭력을 동반한 좌·우 양 진영의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

20) 전학공투회의(全學共闘會議)의 약칭인 ‘전공투’는 기존의 학생 자치회 연합조직인 ‘전학련’, 즉 ‘전일본 학생자치회연합’을 반대하며 조직된 학생단체로, 이미 기득권 세력화한 일본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미·일 제국주의 타도’와 ‘제국대학 도쿄대 해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쿄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학생운동세력을 말한다.

21) 신제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태평양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미시마는 1961년 『우국(憂國)』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2·26사건(1936년 2월 26일에 발생한 황도파 청년 장교의 쿠데타)에 가담하지 못한 다케야마 신지[武山信二]가 동료애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보여 주기 위해 자신의 처와 함께 자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70년 11월 25일, 미시마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미 예견한 대로 천황을 지키다는 명목하에 조직한 ‘방패모임[楯の會]’의 회원 4명을 이끌고 육상자위대 본부 총감실을 점거한 후 자위대원의 각성과 결기를 촉구했으나, 이에 호응하지 않자 할복자살하는 이른바 ‘미시마 사건’을 일으켰다.

22) 1970년 11월 25일 미시마 유키오의 할복자살사건인 이른바 ‘미시마 사건’과 1972년 12월 ‘연합적군’에 의한 아사마산장 사건은 폭력을 동반한 좌·우 양 진영의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이 종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양자가 1969년 5월 13일 도쿄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만나 토론을 주

던 이같은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은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로 하여금 ‘근대사회의 병폐’와 ‘잃어버린 일본적 가치와 정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공의 사상 기원을 일본적 정신이나 가치에서 구하려는 구사어나기의 노력 역시 미시마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일본문화 내지 사상의 부활을 통해 근대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결을 같이하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 결전항공대」의 차별성은 무엇보다 ‘천황제 비판’을 타이틀로 내세운 최초의 일본영화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특공의 책임을 기껏해야 군 내부의 중견간부층에 묻던 종전의 전쟁영화와 달리, 영화선전을 위한 예고편에서 “천황에게 전쟁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연 이전부터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패전 이후 줄곧 ‘천황’과 ‘천황제’의 전쟁책임론을 주장해 온 공산당 내지 좌익세력과 달리,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극영화에서 ‘천황제 비판’을 선전 문구로 내세우게 된 사회적 동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에 대해 후쿠마 요시아키[福間良明]는 1971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쇼와 천황의 구미 순방을 중요한 계기로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는 동안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서구인의 목소리와 항의행동은 패전 이후 25년 동안 이에 대해 침묵해 온 일본인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준엄한 시선’에 의해 천황과 군부의 전쟁책임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²³⁾ 영화 「아! 결전항공대」는 바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천황제 비판’을 흥행전략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 개봉과 함께 천황제 비판을 내세운 「아! 결전항공대」는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비난의 주된 요지는 ‘야쿠자영화의 스타 배우

고반고 기록한 후기를 통해 그들이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근대의 극복’이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시마 유키오·기무라 오사무 외 지음, 김향 옮김, 2006, 『미시마 유키오 對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새물결.

23) 福間良明, 2007, 앞의 책, 182~183쪽.

를 기용해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야쿠자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진정한 전쟁의 피해자인 아시아 민중에 대한 전쟁책임의식이 결여된 까닭에 천황제 비판에 앞서 정작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한 비판, 즉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내용으로 모아졌다. 그런데 이같은 비판에 앞서 과연 영화에서 되묻고자 했던 천황의 책임이 무엇이며,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니시역을 맡은 쓰루타는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간선언을 한 천황이라면 자신을 위해 전장에서 죽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들 영령을 위해 (책임을 지고) 일부 관저를 팔아서라도 전몰병사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한 기금을 내는 것이 어떤가?”라고 대답했다. 그의 답변을 통해 영화에서 타이틀로 내세운 천황의 책임이란 다름 아닌 천황을 위해 싸우다 전장에서 산화한 전몰병사에 제한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천황의 책임은 오니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만약 천황과 군 수뇌부가 포츠담선언을 수락한다면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어 간 특공대원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만다. 따라서 설령 패배하더라도 죽은 자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황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두 특공으로 죽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이처럼 영화는 특공에 대한 천황의 책임을 제기하지만 결국 그에 대한 해법 역시 천황 스스로의 특공에 의한 죽음으로 귀결시키고 만다. 이같은 특공의 책임에 대한 논리적 귀결은 일찍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지적대로 “개개인의 자유로운 주체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행동의 제약은 자신의 양심 속에 지니지 않고 보다 상급자(궁극적 가치에 가까운 사람)의 존재에 의해 규정”시키고 마는 근대 일본의 사상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와 관련해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니시의 자결 장면(그림 4) 역시 상징적이며 시사적이다.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하면 주군에 대한 진정한 충의

24)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김석근 옮김, 1997,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한길사.

는 단지 주인의 의사를 따르는 공순과 묵종(默從)이 아닌, 간쟁과 간언에 있었다. 충절을 모르는 자는 그 뜻을 거스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²⁵⁾ 이러한 점에서 오니시의 자결 행위는 다름 아닌 주군인 천황의 잘못, 즉 특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천황에 대한 간언의 행위인 동시에 신하된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최대의 충성인 셈이라 할 수 있다.²⁶⁾ 영화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오니시는 자결을 통해 특공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리고 만다. 결국 이러한 결말을 통해 「아! 결전항공대」는 ‘천황제 비판’이란 타이틀과 달리 특공의 책임을 오니시 개인의 죽음으로 해소시켜 버림으로써 천황, 나아가 일본사회의 전쟁책임 역시 무화(無化)시켜 버리는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오니시의 자결 장면

IV. 가족과 여성의 재배치 :

「남자들의 야마토[男たちの大和]」(2005)

지난 2005년 일본에선 종전 60주년을 기념하여 4편의 대형 전쟁영화가 제작되었다.²⁷⁾ 이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대의 승조원과 배수량을 자

25)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박충석·김석근 공역, 1998, 『충성과 반역』, 나남출판.

26) 이러한 측면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비행기와 함께 바다로 돌진하는 가에다 중위 역시 무사도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충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지난 2005년 일본에서는 「남자들의 야마토」를 포함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 측의 세 번째 원폭 투하를 저지하려는 일본 잠수함의 영웅적 행위를 그린 「로렐라이」[ロ-

량하던 전함 야마토의 '수상특공'을 다룬 「남자들의 야마토」(이하 「야마토」로 약칭)는 개봉 이후 총 입장객 400만 명과 흥행수입 50억 엔을 기록하며, 그 해 개봉된 전쟁영화 가운데 최고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 성공은 '일본 영화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인 「킹콩」을 조기 종영하면서까지 다수의 상영관을 확보한 메이저 영화배급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소리마치 다카시[反町隆史]를 비롯한 인기 배우의 출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⁸⁾ 하지만 영화 「야마토」의 인기는 단지 영화자본의 전폭적인 지원과 스타 마케팅을 넘어서, '전후 60년'을 맞이해 2005년 초부터 시작된 이른바 '야마토 붐'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흥행 성공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야마토 붐은 2005년 4월 해상자위대가 위치한 구레[呉]항 근방에 4층 규모로 건립된 '야마토박물관'의 개관이 불씨가 되었다.²⁹⁾ 야마토박물관의 개관은 패전국 젊은이의 굴절된 자존심을 반영해 1960년대 아동 만화에서 '일본해군의 자존심'으로 그려진 전함 야마토와 1970년대 마쓰모토 레이시[松本零士]의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묘사된 「우주전함 야마토」를 동경하며 자라난³⁰⁾ 오늘날 40~50대 중장년층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³¹⁾ 이렇게 시작된 야마토의 인기는 그해 9월 NHK의 인기 역사

레이시]와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북한 공작원에 맞선 해상자위대의 활약을 담은 「망국의 이지스[亡國のイージス], 전국(戰國)시대인 1549년으로 시간 이동을 한 자위대원 사이의 전투를 소재로 한 「전국자위대[戰國自衛隊] 1549」가 연이어 개봉했다. 이 가운데 전쟁 기억의 상품화에 관해 「로렐라이[ロレライ]」를 분석한 논문으로 한정선, 2008, 「상품화된 기억-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과 영화 <로렐라이>, 『역사비평』 82을 들 수 있다.

28) 『씨네 21』(2005년 12월 29일).

29) 구레시해사역사과학관은 1/10크기로 축소 제작된 전함 야마토 모형을 건물 중앙에 배치하여 야마토의 건조계획과 제작, 진수에서 침몰에 이르는 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통상 '야마토박물관'으로 불린다.

30) 夏目房之介, 1997, 『マンガと戦争』講談社 現代新書 1384, 講談社, 108~113쪽.

31) 애니메이션 「우주전함 야마토」는 야마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난 2005년 11월 4일부터 이틀간 도쿄 롯폰기[六本木] 도호시네마즈[TOHOシネマズ]에서 재개봉되었다. 당시 개봉을 앞두고 어린 시절 「우주전함 야마토」를 보고 자란 40~50대의 문

다큐물인 「그때 역사가 움직였다[その時歴史が動いた]」에서 야마토의 수상특공을 소재로 삼은 '전함 야마토의 비극-시대를 따르지 못한 대함 거포주'라는 프로그램이 수차례에 걸쳐 방영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심지어 야마토의 높은 인기를 이용해 실제 크기의 1/250으로 축소된 모형을 부록으로 끼워 주는 잡지가 출간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2005년 내내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군 '야마토 붐'이야말로 평소 영화관을 찾지 않던 중장년층 남성 관객의 발길을 「야마토」로 향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영화 「야마토」는 '침몰로부터 60년', '일본해 해전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을 맞이해 시작된 일본사회의 '야마토 붐'의 대미를 장식하는 총결산물이었던 것이다.³²⁾

개봉과 함께 인터넷을 포함한 온-오프상의 각종 매체에서는 영화에 관한 수많은 비평과 감상이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어, 사토 준야[佐藤純彌] 감독과의 인터뷰를 게재한 어느 주간지는 「남자들의 야마토는 반전영화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같은 시기 개봉한 「망국의 이지스」, 「로렐라이」와 같은 전쟁 영화가 애국과 위기관리만을 호소하는 선전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반해 애국익찬영화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진솔하게 반전의식을 그리는 영화”라 평했다.³³⁾ 일반인들의 영화평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국가와 전쟁, 죽음과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반전영화로 평하는 견해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물론 이에 반대되는 입장 역시 적지 않게 개진되었다. 일례로, 젠더 연구가인 와카쿠와 미도리[若桑みどり]는 “전쟁을 경험한 적 없어 기억조차 갖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향해 과거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것의 의미를 가르치는 영화”라 규정했다.³⁴⁾

의가 쇠도했다고 한다. 『씨네 21』(2005년 10월 27일).

32) 北原恵, 2005, 「アート・アクティヴィズム(48)純愛のファルスー戦艦大和ブーム」, 『インパクション(Impaction)』149.

33) 佐藤純彌・森達也, 2006, 「男たちの大和/YAMATOは反戦映画か!?', 『金曜日』602, 8쪽.

인터넷상에 올라온 (일본)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과 인물로 수상특공에 나서는 승조원들에게 '죽음에 임하는 자세[死二方用意]와 '무사도'의 가치를 설파하는 우스부치[臼淵] 대위를 뽑는 경우가 상당수 눈에 띈다.³⁵⁾ 영화 속에서 그는 무사도와 사도의 차이를 묻는 부하의 질문에 "무사도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 사도란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남는 것"이라 대답한다. 그의 대답은 무사도를 중세 이래 헌신의 도덕이자 죽음에 대한 각오를 중시하는 '무사도'와 전투가 없는 에도시대 치자가 가져야 할 윤리사상으로 기능했던 '사도'로 구분한 다음, 전자야말로 무사의 본분이라 규정한 철학자 와쓰지 테쓰로의 정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스부치는 영화 「야마토」 공식 사이트에 따르자면 '무사도에 정통해 소년병들에게 죽음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 설정된 극중 인물이라 할 수 있다.³⁶⁾ 다시 말해, 전쟁이란 애초부터 부조리한 상황이기에 이를 문제삼거나 의문시하기보다는 기왕에 죽을 운명인 이상 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무사도'적인 자세야말로 진정한 병사의 본분임을 제시하는 인물로 설정된 것이다. 사실 우스부치를 통해 제시되는 특공관 내지 사생관은 앞서 살펴본 「아! 결전항공대」에서 재현된 특공사상의 반복 내지 차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일

34) 若桑みどり, 2007, 「ジェンダーの視点で読み解く戦後映畫－「男たちの大和」を中心に」, 『東西南北 2007』(和光大學總合文化研究所年報).

35) 영화 속에서 그는 "무사도에 정통하여 소년병들에게 죽음에 임하는 자세의 방법을 일러 주지만 지나친 정신주의에는 비판적으로, 장차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패배를 통해 자각하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우스부치는 출항에 앞서 수상특공의 전술적 가치를 놓고 논쟁을 벌이며 싸움을 벌인 청년 사관들에게 "진보가 없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패배하여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길이다. …… 일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패배를 통해 깨닫는 것 이외에 다른 수가 없다. …… 신생 일본을 위해 먼저 산화한다"며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저지라는 수상특공의 작전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전쟁 종결 이후 일본의 개생을 위한 희생으로 특공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스부치는 전쟁이란 비록 등장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물자 부족으로 목적지인 오키나와에 도착할 분량만큼의 기름을 적재한 채 전투기의 호위 없이 사실상 '수상특공'을 수행하는 야마토 승무원들에게 죽음, 즉 특공의 가치를 제시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이야기 전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6) <http://www.yamato-movie.jp/cast/index.html>.

본의 관객들이 이처럼 구태의연한 인물과 대사에서 감동을 느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단지 일본인이 라면 응당 가슴으로 공명해야 할 무사도를 표상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영화에서 우스부치는 나이 어린 소년병과 일반 사병들에게 무사도의 가치를 논한 다음(그림 5), “고향을 향해 이별을 고향하는 것”

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자세’를 다잡는 방법이라며, 각자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도록 권유한다.

이에 병사들은 각자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목청껏 외치면서 눈물짓는다(그림 6). 바로 고향의 어머니,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장면에서 평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일본) 관객들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평화로운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되새기면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³⁷⁾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영화는 특공의 목적이 국가나 천황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가족과 연인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망 후 지급될 군인연금을 가난한 가족의 생계에 보탬 요량으로 특공에 지원 하는 병사의 일화를 삽입하기도 한다. 영화 「야마토」가 오늘날 일본에서 반전 영화로 인식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같은 재현을 통해 특공의 죽음이 국가나 천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연인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가치전도를



〈그림 5〉 우스부치 대위가 나이 어린 소년병과 일반 사병들에게 무사도의 가치를 설파하는 모습



〈그림 6〉 고향의 어머니,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병사들의 모습

37) <http://blog.livedoor.jp/sluggger97/archives/50806714.html>.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특공영화의 표상전략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 보수세력이 학력향상과 애국심 교육 강화를 골자로 추진해 온 교육 기본법 개정 움직임과 결을 같이하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6년 12월, 60년 만에 개정된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공교육 실패를 전제로 가정교육의 재생을 주장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앞세우기보다 일본이라는 사회집단(국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³⁸⁾ 개정된 교육기본법 가운데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0조에 '가정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가정교육, 즉 가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³⁹⁾ 다시 말해, 국가가 아동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단위를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교육을 빌미로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가족을 국가나 사회라는 공동체의 하부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품경제의 붕괴로 중류사회의 해체와 함께 비롯된 양극화 현상 속에서 '프리터'라 불리는 일본 내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의 확대, 저소득층 가족의 해체와 같은 사회불안 요소를 실제적인 사회·경제 정책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가족'의 복권과 '도덕교육' 강화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해결하려는 보수세력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공영화의 재현 논리 속에 포섭된 가족의 재배치는 앞서 살펴본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가정교육의 강화'와 결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무'를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환치시켜, 결국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하부단위로 가족을 위치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족 이데올로기'의 영화적 표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38) 한용진·박은미, 2007, 「일본 교육개혁의 보수화 논쟁과 교육재생회의」, 『한국교육학연구』 13-2.

39) http://www.kyokiren.net/_recture/date060428.pdf.

40) 교육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과 교직원에 대항하여 아베 내각을 도와 교육기본법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새로운 교육기본법을 요구하는 모임'의 주

결국 최근의 특공영화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족과 여성을 위한 죽음은 와카구와의 지적대로 사랑하는 이와 가족의 복권을 통해 전쟁동원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재군비파의 방침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 분담에 기초한 가족의 재건을 통해 재군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최근의 특공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 내지 비평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적지 않은 이들이 극중 인물이나 이야기가 아닌 세트나 모형 등의 소재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기법 자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영화적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평론가인 구로다 구니오[黒田邦雄]는 “전함 야마토의 실물 크기 세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해 그러한 위풍과 아름다움을 맛보려는 듯이 그랬기”에 “전함 야마토 모형에 폭 빠져 버린 듯한 감각에서 이 영화는 사랑받게 될 것”이라며 「야마토」의 최대 볼거리가 다름 아닌 거대한 선체를 자랑했던 야마토의 사실적인 재현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¹⁾ 영화 촬영을 위해 등신대의 야마토 선체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 사토 감독은 “컴퓨터 그래픽이 판치는 시대에 왜 그런 걸 만드냐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젊은 배우들이 야마토를 실제로 느껴 체험했던 것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들 역시 전쟁을 알지

된 구성인물인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사카모토 겐지[坂本研二],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미화시키는 데 앞장 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상희, 2006, 「평화헌법보다 더 위험한 교육기본법 개정」, 『월간 말』 245, 2006년 11월호.

41) 黒田邦雄, 2006, 「特集 男たちの大和作品評② 戦争ヒューマニズムのむずかしさ」, 『キネマ旬報』 1446, 59쪽.

못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현장의 분위기[臨場感]를 가지고 유사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⁴²⁾ 다시 말해, 등신대의 촬영 세트는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젊은 관객들에게 가상체험일 수밖에 없는 전쟁의 사실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촬영 세트가 야마토라는 전쟁병기의 미학화에는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감독의 의도대로 전쟁이란 극한 상황을 관객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정작 도움이 되었는지는 미지수다.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비참함을 호소하는 휴머니스틱한 장면을 스펙터클한 전투장면이 능가"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⁴³⁾ 이처럼 급격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전우애나 휴머니즘을 표방하면서도 과도한 테크놀로지와 충격적인 전투장면에 집착해 정작 당초 의도했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펄 하버(Pearl Harbor)」와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비롯해 최근에 제작된 여러 편의 전쟁영화에서 적지 않게 목격한 바이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고 삽입되는 스펙터클한 전투장면과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이미 할리우드식 블록버스터 영화에 익숙해진 관객들을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등신대의 모형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을 동원해 재현해 낸 사실은 이미 현실로서의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전의 특공영화는 특공대원의 수기나 유고에 바탕을 두고 이들의 전쟁체험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최근에 제작된 특공영화는 실제 수기가 아닌 생존자나 주변인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창작된 가공의 서사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영화제작에 앞서 당시 관계자의 취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 野村正昭, 2006, 「佐藤純彌監督インタビュー」, 『キネマ旬報』1446, 54쪽.

43) 黒田邦雄, 2006, 앞의 글, 59쪽.

사토 감독은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취재하지 않았다. …… 실제로 당시 관계자와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보다 진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헨미 준[邊見ジュン]의 드라마를 토대로 했을 따름임을 밝힌 바 있다.⁴⁴⁾ 전쟁의 사실성을 보여 주려 했다는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최근의 특공영화는 특공을 강요했던 국가나 권력주체에 대한 아무런 비판 없이 전쟁병기인 야마토의 승고미나 전투장면의 관능미만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로서의 특공과 따로 떨어져 이를 아름답게 재현하려는 ‘예찬물’이 되고 만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44) 野村正昭, 2006, 앞의 글, 53쪽.

참고문헌

〈저서〉

- 기 드보르 지음, 이경숙 옮김, 1996,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김석근 옮김,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박충석·김석근 공역, 1998, 『충성과 반역』, 나남출판.
 미시마 유키오·기무라 오사무 외 지음, 김향 옮김, 2006, 『미시마 유키오 對 도쿄대
 전공투 1969-2000』, 새물결.

- 夏目房之介, 1997, 『マンガと'戦争' 講談社 現代新書 1384』, 講談社.
 森岡清美, 1995, 『若き特攻隊員と太平洋戦争—その手記と群像』, 吉川弘文館.
 大貫恵美子, 2003, 『ねじ曲げられた櫻 美意識と軍國主義』, 岩波書店(한국에서 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2003,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미의식과 군국주
 의』, 모멘토로 번역, 출간).
 大貫恵美子, 2006, 『學徒兵の精神誌』, 岩波書店(한국에서 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2007, 『죽으려면 죽으리라—가미카제 특공대의 사상과 행동』, 우물이 있는
 집으로 번역, 출간).
 高橋哲哉·大内裕和, 2006, 『教育基本法改正を問う』, 白澤社.
 倉澤愛子 外編, 2006, 『戦場の諸相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5』, 岩波書店.
 五十嵐恵邦, 2007, 『敗戦の記憶 身體・文化・物語 1945~1970』, 中央公論新社.
 佐藤忠男, 2007, 『草の根の軍國主義』, 平凡社.
 福間良明, 2007, 『殉國と反逆—'特攻'の語りの戦後史』, 青弓社.

〈논문〉

- 박상희, 2006, 「평화헌법보다 더 위험한 교육기본법 개정」, 『월간 말』 245.
 박진한, 2006, 「무사도의 창안과 현대적 변용—근대 일본의 '국민도덕' 만들기」, 『역사
 비평』.
 한용진·박은미, 2007, 「일본 교육개혁의 보수화 논쟁과 교육재생회의」, 『한국교육학
 연구』 13-2.
 한정선, 2008, 「상품화된 기억—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과 영화 <로렐라이>」, 『역사비
 평』 82.

- 佐藤忠男, 1974, 「特攻隊映畫の系譜」, 『シナリオ』 30-9.
- 鶴田浩二・須藤久, 1974, 「終戦記念独占會見 新しい天皇制批判映畫となるか-《ああ 決戦航空隊》が描くもの: 天皇に一言だけいって欲しかった」, 『映畫評論』 31-10.
- 山下耕作, 1974, 「特攻隊映畫-監督のつもり」, 『シナリオ』 30-9.
- 北原恵, 2005, 「アート・アクティヴィズム(48)純愛のファルス-戦艦大和ゲーム」, 『インパクトン(Impaction)』 149.
- 黒田邦雄, 2006, 「特集 男たちの大和作品評② 戦争ヒューマニズムのむずかしさ」, 『キネマ旬報』 1446.
- 佐藤忠男, 2006, 「映像文化とはなにか(26)-特攻隊を扱った映畫」, 『公論』 43-10.
- 佐藤純彌・森達也, 2006, 「男たちの大和/YAMATOは反戦映畫か!？」, 『金曜日』 602.
- 野村正昭, 2006, 「佐藤純彌監督インタビュー」, 『キネマ旬報』 1446.
- 中村秀之, 2006, 「儀禮としての特攻映畫〈男たちの大和/YAMATO〉の場合」, 『前夜』 7.
- 木下昌明, 2007. 8. 9, 「二つの特攻隊ものについて-〈俺は、君のためにこそ死にに
い〉・〈TOKKO特效〉」, 『東京』.
- 若桑みどり, 2007, 「ジェンダーの視点で読み解く戦後映畫-‘男たちの大和’を中心
に」, 『東西南北』 2007(和光大學総合文化研究所年報).

[ABSTRACT]

Strategy of representation in *Tokkō Films* and Cognition
on *Tokkō* (Kamikaze) of Post-war Japanese society

Park, Jinhan

In this essay, I explore popular perceptions on kamikaze pilots in Japanese society. Focusing on the visual medium of films and its social role in reproducing certain ideas and symbols, I will examine the strategies and aesthetics of the film medium in representing kamikaze pilots. For this purpose, I will first examine the genealogy and characteristics of kamikaze genre. Second, I will probe the process in which the ideas of bushido (武士道) are aestheticized by focusing on the film, *Aa Kessen Kokutai* (1974). The film is acclaimed as the representative film in the kamikaze genre.

Finally, I will examine the recent films on kamikaze pilots including, *Yamato : The Last Battle* (2000) in order to locate the reasons that family and women are positioned as the supreme value for the kamikaze activities. By reviewing films on kamikaze produced for the last 30 years in Japan, I argue that these films play the ideological role in mobilizing Japanese society for wars abroad.

keywords

kamikaze, *Tokkō* (特攻), *Tokkō Film* (特攻映畫), strategy of representation (表象戰略), bushido (武士道), war memory (戰爭記憶)

원폭영화와 '피해자'로서의 일본

강태웅 | 광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I. 머리말

해외에서 출판되면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가해자라고 불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만든 것도 우리들이니까, 이제부터 바뀌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강조점은 인용자).¹⁾

이는 히로시마[廣島] 출신 만화가 고노 후미요[こうの史代]의 말이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 문제는 원폭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폭자(被爆者)의 이야기를 담은 그녀의 작품,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夕の街, 櫻の國]』(2004, 雙葉社)라는 만화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생겼다. 번역을 맡은 한국 측 출판사(문학세계사)에서 원작에 없는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 책은 그 때 일본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자 또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1) 隅田佳孝, 2005. 10. 14, 「被爆描いた漫画 韓國で翻譯出版」, 『朝日新聞』(夕刊).

지이다”라는 문장을 책의 첫머리에 첨부하기를 요구했다. 고노 후미요는 이러한 한국 측의 반응을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를 전쟁의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²⁾ 여기서 원폭으로 인해 형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로부터 전쟁의 가해자를 연상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거부감 또는 금기를 읽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폭의 버섯구름 사진과 길거리에서 해방의 기쁨을 외치는 사람들의 사진이 병렬로 배치되는 것은 한국인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미국에서도 원폭의 버섯구름 사진과 전쟁의 종식을 기뻐하며 포옹하는 남녀의 사진이 같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의 병치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위화감’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위화감’에는 원폭이 초래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앞에 두고 어찌 기쁨을 보이는 사진을 같이 배치할 수 있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³⁾ 하지만 사진 속의 인물들이 기뻐하는 것이 원폭투하가 아닌 종전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일본의 원폭에 대한 평가는 그것 하나만 분리해서 보려는 ‘탈역사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의 참상을 ‘공유’하지 못하는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비판받기도 한다.⁴⁾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러한 원폭이 가져온 가해자/피해자 인식의 착종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은 원폭박물관과 같은 전시로, 추도회와 같은 모임으로, 문학에 의한 글로, 회화와 만화와 같은 그림으로, 영화와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표현되어 왔고, 일본에서는 전쟁 전체를 대표, 아니 대신할 만큼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원폭에 의한 가공할 만한 피해 때문이겠지만, 일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이야기될 때 가장 큰 근거인 측면도 있다. 일본에서의 원폭에 대한 표현에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2) 결국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에는 위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고, 책의 띠지[帶紙]에 실리게 되었으며, 그 글의 주체는 한국의 출판사로 되었다.

3) 후지와라 기이치 저, 이숙종 역, 2003, 『전쟁을 기억한다-히로시마·홀로코스트와 현재』, 일조각.

4) 예를 들면, 山中千恵, 2006, 「讀まれえない『體驗』·越境できない『記憶』, 吉村和眞編, 『はだしのゲン』がいた風景』, 粹出版社.

단절되어 있고, 이러한 단절은 일본의 피해자 인식을 강화한다. 존 다위의 표현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기억한다는 것은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가해적 사건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⁵⁾ 따라서 이러한 문화장치에서 일본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원폭은 '반전'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소재로 활용되었다.⁶⁾ 이러한 원폭에 대한 일본의 기억과 망각의 열개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깔려 있는 일본인의 '피해자' 의식구조를 분석해 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원폭이 일본인의 전쟁과 관련된 역사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그것이 가져오는 전쟁관의 왜곡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폭과 관련된 연구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원폭이 일본의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잊게 하고, '피해자'로서 기억시키는 핵심적 '아이콘'이 된 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많다.⁷⁾ 하지만 원폭에 관한 일본의 대중적인 인식을 알 수 있는, 최근의 대중문화와 관련시켜 논한 연구는 국내에는 거의 없었다. 또한 원폭을 다룬 영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원폭영화의 범위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이외에도, 1954년 미국 비키니섬에서 실험된 원폭 그리고 원폭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거나, 피폭자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하는 미래를 다룬 영화에까지 확대하기도 한다.⁸⁾ 이런 연구에는 「고지라[ゴジラ]」와 「세계대전(世界大戦争)」과 같은 SF영화도 포함된다.⁹⁾ 이처럼 원폭만

5) John W. Dower, 1996, "The Bombed : Hiroshimas and Nagasakis in Japanese Memory," *Hiroshima in History and Mem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3~124.

6) '원폭기념공원'이 아니고 '평화기념공원'인 것처럼, 연결성이 애매한 원폭과 평화라는 단어가 호환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의의제기는 米山リサ, 2005, 『廣島-記憶のポリテイクス』, 岩波書店, 序章 참조.

7) 최근 한국에 번역된 원폭 관련 서적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안 부루마 저, 정용환 역,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후지와라 기이치 저, 이숙종 역, 2003, 앞의 책; 다카하시 데쓰야 저, 이목 역, 2008,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8) ミック・プロデリック 編, 1999, 『ヒバクシャ・シネマ』, 現代書館; Jerome F. Sapiro, 2001, *Atomic Bomb Cinema*, Routledge 등이 그러하다.

을 역사적 인과관계에서 절단시켜 본다면 원자폭탄에 관한 전인류적인 우려가 혼재됨으로써,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그것이 가져온 '타자'의 피해는 더욱 흐릿해질 뿐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하여 원폭이 여타 다양한 전쟁의 기억, 주로 가해적이고 침략적인 기억을 생략하고 전쟁에 대한 기억을 단일화시켜, 내셔널적인 기억으로 수렴시키는 과정, 다르게 말하면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피폭 내셔널리즘(被爆 nationalism)'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했던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이 작품은 원작만화의 출판에 이어, 2007년 영화화되어 일본에서 개봉되었다(감독 사사베 기요시[佐々部清]). 또한 앞서 살펴본것처럼 한국에도 번역되어 출판될 정도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크다. 뿐만 아니라 원작만화는 제8회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만화부문 대상[文化廳メディア芸術祭マンガ部門大賞], 제9회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신생상[手塚治蟲文化賞新生賞]을 수상했고, 영화도 문부과학성, 문화청, 히로시마현지사, 도쿄도지사, 히로시마시,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 일본 PTA 전국평의회, 청소년 영화심의회, 일본영화 팬클럽 등의 지원과 추천을 받았을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기에, 최근의 인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기존의 원폭 관련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시점으로 원폭 문제에 접근한 작품으로 일본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 측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작품을 원폭영화의 계보 속에 넣음으로써 그 변화상과 변하지 않는 내러티브를 발굴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대중적, 교육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상미디어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9) 「고지라」는 1954년도 영화로 미국의 수소폭탄실험으로 돌연변이한 공룡 고지라가 일본을 습격한다는 내용이고, 「세계대전쟁」은 1961년도 영화로 핵전쟁이 실제 일어나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등의 도시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II. '새로운' 시점의 반핵 피폭자 영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2부로 나누어져, 제1부의 제목이 「저녁뜸의 거리」이고, 제2부의 제목이 「벚꽃의 나라」이다. 저녁뜸[夕]은 해안지방에서 저녁 무렵에 해풍(海風)이 육풍(陸風)으로 바뀌면서 무풍상태가 될 때를 말한다. 「저녁뜸의 거리」란 바로 그러한 지역인 히로시마시를 가리키고, 「벚꽃의 나라」는 일본을 의미한다.¹⁰⁾ 최초의 원폭영화는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하였지만 전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원폭 관련 영화는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한다.

제1부인 「저녁뜸의 거리」는 원폭 투하 후 13년이 지난 1958년(원작에서는 1955년)¹¹⁾의 히로시마시에 있었던 '원폭 슬럼(原爆 slum)'을 배경으로 한다. 제1부의 주인공 히라노 미나미[平野皆實]는¹²⁾ '원폭 슬럼'의 비가 새는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 원래는 5인 가족이었으나 원폭으로 인해 아버지와 여동생은 죽고 어머니와 미나미는 피폭당했다. 남동생 히라노 아사히[平野旭]는 친척 집에 피난 가 있어 피폭을 모면하고, 패전 후에는 그 친척 집의 양자(이름이 이시카와 아사히[石川旭]로 바뀜)로 들어가게 되어 미나미와

10) 이 제목은 작가 오타 요코[太田洋子]의 작품에서 빌려온 것이라 한다. 오타의 『夕の街と人と』(1955)는 만화의 배경이 되는 '원폭 슬럼'을 취재한 글이고, 『櫻の國』(1940)는 중일전쟁 발발 1년 후의 중국과 일본을 무대로 한 소설이다. 고노 후미요의 만화와 오타 요코의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水島裕雅, 2005. 3, 「戦争と女性作家－太田洋子を中心として」, 科研報告書, 『戦争・他者・美意識－美意識における異文化理解の可能性』, 72~81쪽에 자세하다.

11) 원작과 영화 사이의 3년 차이는 원작(2004)과 영화(2007)의 발표된 간격과 일치한다. 히라노 미나미의 50주기를 맞아 동생 아사히가 히로시마로 찾아가는 행위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정으로 보인다.

12) 히라노 미나미역을 맡은 배우 아소 구미코[麻生久美子]는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감독의 「간장선생[カンゾー先生]」(1998)으로 유명해졌다. 이 영화는 아소 구미코가 바다에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어 생긴 버섯구름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 아소 구미코라는 배우의 영화 속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의 피폭자 배역도 정해졌다. 金澤誠, 2007, 「佐々木清監督 インタビュー」, 『キネマ旬報』, 8월 상순호, 59~61쪽.

어머니와는 떨어져 살게 된다.

당시 살 곳을 잃은 피폭자와 인양자(引揚者) 그리고 재일조선인에 의해 형성된,¹³⁾ 불법주택이 즐비한 ‘원폭 슬럼’에는 불법점거 퇴거를 요구하는 종자들이 붙어 있다. 어느날 그 거리의 한 대중목욕탕에 미나미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갔을 때, 여탕 안의 모든 여성은 피폭의 상처=켈로이드(keloid)를¹⁴⁾ 한 명도 빠짐없이 팔이나, 다리, 등, 어깨 등에 지니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는 비춘다. 거기서 미나미는 아무도 ‘그것[あの事]’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지만, 이 또한 어머니와의 대화가 아닌 독백일 뿐이다.

‘그것’이 이야기되기 위해서 ‘원폭 슬럼’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난 외부인이 등장한다. 그 역할은 미나미를 좋아하는 회사동료 우치코시[打越]가 맡는다. 우치코시의 접근에 답하려 할 때마다 원폭에 의해 희생된 여동생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와, 그녀는 우치코시의 접근을 뿌리친다. 몇 번의 뿌리침을 겪고 나서 둘이 키스하려고 할 때도 역시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제야 미나미는 결심한 듯 피폭의 경험을 우치코시에게 털어놓는다. 미나미의 피폭 체험은 내레이션으로 처리되고, 화면은 실제 원폭투하 장면과 파괴된 히로시마 시내의 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이 피폭자임을 외부인에게 알리고 나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피폭자 영화의 장르적 관습으로,¹⁵⁾ 이 영화에서도 반복된다. 피폭자임을 알려 주고 나서 몸져 눕게 된 미나미는, 결국 병문안을 온 우치코시 그리고 남동생 아사히와 함께 강가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조용히 죽는다. 죽으면서 “13년이 지났지만 원폭을 떨어뜨린 사람은 나를 보고, ‘해 냈다, 또 한 명 죽였다!’라고 생각해 주려나”라는 독백을 남긴다.

13) 영화에서 인양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언급과 묘사는 없다.

14) 피폭자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피부병으로, 피부가 융기하여 껍질질을 닮은 형상을 띤다.

15) 영화의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공식(formula), 관습(convention), 도상(iconography) 등이 있다. 장르 영화에서 공식이 서사구조의 전체적인 틀에서 반복을 가리킨다면, 관습은 비교적 작은 행위의 반복을 말한다. 토마스 소벽 저, 주창규 외 옮김, 2004, 『영화란 무엇인가』, 거름, 213~215쪽.

제2부인 「벚꽃의 나라」에서는 그로부터 50년 뒤인 현재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여, 「저녁뜸의 거리」의 주인공인 미나미의 동생 아사히와 그의 딸 나나미 [七波]가 주인공이 된다. 나나미는 갑자기 어딘가 전화를 하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서는 아버지 아사히를 미행한다. 이 미행에는 나나미의 친구 도네 도코 [利根東子]도 동행하게 된다. 도코는 나나미의 동생과 사귀었지만, 도코의 집안에서 피폭 2세¹⁶⁾ 집안과는 사귄 수 없다고 반대하여 헤어진 상태이다. 히로시마까지 미행하게 된 둘은, 미나미라는, 나나미가 만난 적 없는 고모의 50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를 미행하여 히로시마까지 오는 여행을 통해 나나미는 어릴 적 죽은 어머니를 생각한다.¹⁷⁾ 나나미의 어머니도 피폭자였지만 아버지는 결혼하기를 원한다. 할머니(미나미의 어머니) 역시 피폭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폭자가 아닌 아들 아사히가 피폭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혼하지만 나나미의 어머니는 피폭의 영향으로 일찍 죽고 만다. 이러한 과거회상 장면이 그 당시 존재치 않았던 현재의 나나미가 화면에 등장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테이트 장면, 할머니와의 갈등, 결혼 프로포즈 그리고 나나미를 임신하게 되어 행복했던 순간의 회상 장면이, '적극적'으로 과거의 신(scene)에 침범하여 나나미가 그들을 바라본다. 과거의 장면에 출몰하는 나나미의 존재는 마치 유령과 같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다. 게다가 나나미는 이 과거의 풍경이 처음 보는 것이 아닌 이미 보았던 것이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로 자신이 결정했다는 독백을 한다. 즉, 피

16) 일본의 '전국 피폭 2세 단체연락협의회'가 가리키는 피폭 2세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피폭자원호법에서 정의하는 피폭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피폭자원호법에 따르면 피폭자는 ① 직접 원폭피폭을 당한 자, ② 원폭투하 후, 2주일 이내에 폭심지에 들어간 자, ③ 피폭자를 간호하거나 구원활동에 참여하여 피폭당한 자, ④ 원폭 투하 후, 피폭자의 태내에 있던 자이다. 따라서 피폭 2세라 함은 "피폭자가 양친 또는 어느 한쪽이고, 양친 또는 어느 한쪽이 피폭 후에 낳은 자"로 정의된다. 全國被爆二世團體連絡協議會・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編, 2001, 『被爆二世の問いかげ』, 新泉社, 16~19쪽.

17) 원작만화에서는 이 부분이 '벚꽃의 나라' 1부로 독립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미나미의 회상으로 처리된다.

폭자의 피를 잇는 피폭 2세로서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피폭 2세가 운명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능동적 자세로 과거를 꺼안는 것이다. 그녀와 동행했던 도쿄 또한 헤어졌던 나나미의 동생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이 작품은 기존의 원폭 관련 작품과의 연결성보다는 '차별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 작품과 '원폭만화의 정전(正典)'이라 할 수 있는 「맨발의 겐[はだしのゲン]¹⁸⁾과 비교한 가와구치 다카유키[川口隆行]와 같은 경우, 「맨발의 겐」이 원폭이 가져온 참상을 잔혹하게 묘사하여 공포의 환기를 통한 '공갈의 평화'를 제창하였던 것과 달리,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에는 그러한 잔혹한 묘사가 억제되어 있고, 정치적 주장 또한 전면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⁹⁾ 또한 사토 다다오[佐藤忠男]도 이 영화를 기존의 피폭자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시점을 던져주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사토에 의하면 피폭자는 반핵운동의 심벌이었지만, 차별과 자기비하에 시달리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피폭 2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원폭의 아이[原爆の子]'라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려고 하고, 더 나아가 주인공 자신이 일부러 그러한 운명을 선택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사토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상'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²⁰⁾

기존의 히로시마시의 시설이었던 '히로시마 원폭자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국립 히로시마 원폭사물자 추도평화기념관'이 건립되었고, 이

18) 「맨발의 겐[はだしのゲン]은 1973년 6월부터 『주간소년 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에 연재되어 후에 단행본 10권으로 발매된 만화이다. 피폭자를 다룬 대표적인 만화로 영화와 드라마로도 수차례 만들어졌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맨발의 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福間良明, 2006, 「原爆マンガ」のメディア史, 吉村和真 編, 『はだしのゲンがいた風景』, 梓出版社에 자세하다.

19) 川口隆行, 2005, 「メディアとしての漫画, 甦る原爆の記憶」, 『原爆文學研究』 제4호, 84~85쪽. 가와구치가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의 새로운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표현의 부재와, 히로시마라는 도시의 역사적·사회적 문맥이 '불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구치 글의 초점이 텍스트의 분석보다는 인터넷상의 수용자의 평가분석에 놓여져 있어, 이 글의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

20) 佐藤忠男, 2007, 「作品評：原爆の子であることに積極的な意義を感じとる視点」, 『キネマ旬報』, 2007년 8월 상순호, 62~63쪽.

듬해인 2003년에는 나가사키에 '국립 나가사키 원폭사몰자 추도평화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이는 기억의 전승을 국가 차원에서 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이벤트는 갈수록 대규모화되어 가지만, 피폭자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피폭자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폭 2세'로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한 같은 피폭자끼리도(미나미 어머니=나나미 할머니의 경우) 그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고발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입장에서 있다는 점에서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가 이제까지의 영화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글의 처음에서 제기했던, 전쟁과 '피해자'의 표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과연 가와구치와 사토의 표현처럼 이 영화는 '새로운' 것일까?

III. 평화의 파괴자, 그 이름은 원폭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이상과 같이 '새로운' 시점으로 원폭을 다룬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영화 이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원폭영화는 어떠한 것이었나를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1950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원폭영화의 배경은 히로시마가 아닌 나가사키였지만, 1952년 이후 제작된 원폭영화는 그 배경을 주로 히로시마로 하고 있어 표현의 빈도에 있어서 '히로시마 우위, 나가사키 열위'라는 도식이 성립하게 된다.²¹⁾

21) '히로시마 우위, 나가사키 열위'는 영화 표현의 빈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폭과 관련된 관심도에도 적용될 것이다. 다카하시 신지[高橋眞司]는 이를 '열등피폭도시 나가사키'로 표현하였다. 그는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가 원폭의 위력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하는 히로시마, 기도하는 나가사키'라는 기본적인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는 피폭자의 처참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그려내는 영화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영화들이 미국의 원폭 투하를 '잔혹행위'로 고발하지는 않는다. 대신 원폭은 단지 자연재해와 같이 그리고 피폭은 백혈병과 같은 불치병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나중에 상술하게 되는 피폭으로 인해 죽게 되는 젊은 여성의 사랑을 그린 '원폭 처녀[原爆乙女]'물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서구가 오히려 일찍부터 원폭 투하를 '잔혹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상물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비극'으로만 받아들였다. 도널드 리치는 그 이유를 일본문화적 바탕에서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われ]」로 설명하고 있다.²²⁾ 물론 리치의 말대로 일본문화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글의 논지에서 보자면 '잔혹행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투하주체인 미국이 이야기의 전면에 나와야 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따라서 원폭이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묘사된다면, 전쟁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떠나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피폭자의 처참함을 고발하기보다는 원폭이라는 사실 자체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영화가 나온다. 즉, 원폭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가 적어짐에 따라 기억의 전송단계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 평론가의 표현을 빌면, “반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교과서라는 무덤에서 소생시키는 방법”으로써 영화화가 선택되는 것이다.²³⁾ 이상과 같은 원폭영화의 변화 흐름을 염두에 두고 21세기에 제작된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를 분석해 보자.

인 태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나가사키가 이렇게 된 것에는 원폭 피해자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전후 최초로 원폭을 그린 소설 『나가사키의 종[長崎の鐘]』이 제시한, 원폭은 '신의 섭리'라는 주장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高橋眞司, 2001, 「『祈りの長崎』批判—劣等被爆都市から'平和の祈り'へ」, 『世界』9월호, 75~83쪽.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영화의 배경 문제에 대해서는 福間良明, 2006, 『『反戦』のメディア史』, 世界思想社에 자세하다.

22) Donald Richie, 1999, 「ものあわれ—映画の中のヒロシマ」, ミック・ブロードリック編, 『ヒバクシャ・シネマ』, 現代書館.

23) 馬場廣信, 2004, 「『父と暮せば』作品評」, 『キネマ旬報』8월 상순호, 118쪽.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 역시 피폭자의 처참함과 고발에는 관심이 없는 면에서 1990년대 이후의 경향을 따르고 있고, 전쟁이라는 맥락이 결여되고, 「평화의 파괴자」로 원폭을 그리는 면에서는 전후 일본의 원폭영화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원폭은 미나미의 5인 가족의 일상적인 삶을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괴해 버렸고, 현재까지 피폭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판에서 책의 띠지에만 있을 뿐,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지당한 것이다. 전쟁이란 역사적 맥락을 상실한 영화 속의 원폭은 단지 「평화의 파괴자」에 불과하여, 주인공 미나미가 「언제나와 같이」 학교에 갔을 때, 히로시마 상공에 「출현」²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에 만들어진 다른 영상물에서 더욱 극적으로 그려진다. 2005년에 방영된 「히로시마 쇼와 20년 8월 6일[廣島昭和20年 8月 6日]」(TBS 텔레비전)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임신한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학교에서 발레를 연습하고 있는 소녀들을 비추어 주고, 그 다음에 원폭이 투하된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를 파괴하고 전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의 「시작」으로 원폭은 그려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저녁뜸의 거리」에서의 미나미의 마지막 대사처럼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질문을 국가나 전쟁에 묻지 않고 원폭을 투하한 개인에게 묻는 것과 같이, 영화 속의 원폭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국가 차원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는 맥락과 미국이라는 투하 주체를 상실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희석되고 개인의 피해자적 상징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또 다른 최근의 영상물의 경우에는 원폭의 이야기가 일본적 내러티브에 흡수되어 버린다. 2004년에 제작된 「아버지와 산다면[父と暮せば]」(구로키 가즈오[黒木和雄] 감독

24) 「출현」이라는 표현은 전후 최초로 만들어진 원폭영화인 「나가사키의 종[長崎の鐘]」(1950)에서 가져왔다. 이 영화에서 원폭이 투하되는 장면과 더불어 “원폭의 출현은 전쟁에 미친 군벌에 대한 최후의 경고가 되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독)을 보면, 원폭에 대한 이야기를 '일촌법사(一寸法師)'라는 일본의 전래동화로 바꾸어 히로시마의 일촌법사가 원폭을 떨어뜨린 '아카오니[붉은 귀신, 赤鬼]와 싸우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적 내러티브에 함몰된 영화들은 일본인 이외의 피폭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담론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7만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에 대해서도 전혀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²⁵⁾ 이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도 그렇고, 앞서 언급한 다른 최근의 영상물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와구치에 의하면 「저녁뜸의 거리」 배경인 '원폭 슬럼'은 그곳에 모인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표현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결여=배제를 통한 일본인의 '배제공간의 배타적 점유'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러한 배타성이 하나의 '피폭 내셔널리즘' 양태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IV. '원폭 처녀'와 '새로운' 위령

앞서 언급했듯이 원폭영화에는 피폭으로 고통을 당하는 젊은 여성을 그린 '원폭 처녀'물이라는 장르가 존재한다.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바로 이 장르를 차용하고 있다. 이 장르에서 일본의 '피해자'적 표상을 강화하는 것은 주인공 젠더 역할의 명확한 구분이다. 원폭의 희생자인 젊은 여성은 한편으로는 순결과 순진무구가 제시되면서, 또 한편으로 피폭에 의한 불치의 병이라는

25) 한국에는 피폭 2세가 8만 명 정도 있다고 한다. 全國被爆二世團體連絡協議會·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編, 2001, 앞의 책, 62~65쪽. 한국의 피폭 2세에 대한 평전으로는 전진성, 2008, 『원폭2세 환우 김형률 평전-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휴머니스트 참조.

26) 川口隆行, 2005, 앞의 글, 89~90쪽.

‘더럽힘[汚れ]’이 대조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녀들은, 우치코시의 접근을 뿌리치는 미나미처럼, 금욕적으로 고통을 인내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체현한다. 전투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성이 원폭의 희생자로서 더 ‘적합’한 것이고, 가정에서 남녀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 제품으로 교환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원폭 처녀’ 이야기는 불치의 병을 앓는 주인공의 이야기로도 교환가능하다. 원폭의 희생이 된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부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²⁷⁾

‘불치의 병’과 함께 ‘원폭 처녀’에게는 침묵이 강요된다. 「저녁뜸의 거리」의 주인공도 피폭과 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한다. 침묵을 외부인에 밝힌 경우는 앞서 보았듯이 죽음이 기다린다. 침묵을 지키고 외부인의 침범을 막으려는 할머니(미나미의 어머니)는 다른 피폭자와는 달리 80세까지 살게 된다. 이러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주목과 정부의 지원을 갈망하는 실체의 피폭생존자에게 그리 달갑지 않지만, 국가보상문제 차원에서 피폭생존자를 위한 법개정에 난색을 표해 왔던 일본정부에게는 형편이 좋은 것이다.²⁸⁾ 물론 영화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러티브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안전한’ 내러티브가 선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쟁의 주체가 되는 남성을 중심에서 소외시키고, 모든 피해를 여성에게 집중시킨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구도는 기존 사회가 갖는 ‘전통적’이고 ‘안

27) 마야·모리오카·ト데スキーニ, 1999, 「死と乙女—文化的ヒロインとしての女性被爆者, そして原爆の記憶の政治學」, ミック・ブ罗德リック 編, 『ヒバクシャ・シネマ』, 現代書館, 199~222쪽.

28) 상징적인 것은 1989년에 결성된 ‘전국 피폭 2세 단체 연락협의회’이다. 이들은 피폭 2세들에게도 피폭자와 같이 피폭자 원호법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정부의 지원은 없고 차별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피폭 2세, 3세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을 정의하는 행위가 되므로, 불안을 증대시키고 차별을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로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피폭 2세 단체는 차별은 조사의 결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비과학성 그리고 문제를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이 불안을 증대시키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극력 주장하고 있다. 全國被爆二世團體連絡協議會・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編, 2001, 앞의 책, 18~19쪽.

전한' 젠더 역할의 재확인이다. 즉, 역사와 정치, 욕망과 단절되어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일을 하는 여성, 이에 반해 피폭을 면하고 역사적 기억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은 남성이 맡아, 수동적인 여성과 능동적인 남성이라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이 '원폭 처녀'라는 장르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의 역할구분은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에서 인내하고 침묵하는 미나미와 기억을 전달하는 아사히 그리고 우치코시, 「히로시마 쇼와 20년 8월 6일」의 세 자매와 남동생과 남자친구, 「아버지와 산다면」에서 원폭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려는 도서관 사서인 여주인공과 자료를 찾으러 온 남자 등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 보았을 때,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기존 일본의 원폭영화의 내러티브 특성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가 원폭영화의 공식과 관습을 잘 따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영화와 비교될 때 잘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 밤은 잊을 수 없다[その夜は忘れない]」(1962년, 吉村公三郎 감독)에서는 원폭 17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취재를 온 한 잡지사의 기자(기억의 전달자이므로 남성)가 피폭자를 만나 취재를 한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한 명의 피폭 여성은 이미 여러 번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자신의 피폭체험과 '기형'으로 된 신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여성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하던 기자는 친구의 소개로 가게 된 바 '오담'의 마담 아키코[秋子]에게 반하고 만나. 아키코가 기동서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구해 줌으로써 둘 사이는 가까워져 가지만, 아키코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날 아키코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자 아키코는 기모노를 벗고 가슴을 내보인다. 가슴 가운데에 바로 피폭의 상흔이 남아 있고, 화면은 그녀 가슴의 피폭 상처와 원폭의 버섯구름으로 연결된다. 이제까지 침묵하며 피폭의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녀가 기자에게 피폭의 체험을 전달한다. 「저녁뜸의 거리」의 미나미와 같이 외부인에게 피폭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의 죽음을 의미한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도쿄로 떠나는 기자와 기차역에서 이별한 후 그녀는 급격히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만다. 여기서 피폭의 체험을 인내하지 않고 언론에 노출되는 여성은 바람직하지

않게 그려지고, 반면 여주인공과 같이 끝까지 말 그대로 가슴 속에 피폭의 체험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여성, 그것도 기모노에 싸인 단아한 여성이 이상적으로 그려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영화에서 피폭 2세가 적극적으로 자신과 일본의 과거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닐까?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전쟁의 참상에 대한 경각심과 그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의 일본관객에게 보여 주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일본적 위령의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동생과 도쿄를 다시 만나게 주선해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나나미는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나나미가 뒤를 쫓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간의 사정을 딸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저녁땀의 거리」 주인공인 누나 미나미의 사진을 꺼내 딸 나나미에게 보여 주며 “나나미와 미나미가 닮았다. 그러므로 나나미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대사를 함으로써 나나미와 미나미의 동일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그러면서 화면에는 미나미의 사진 속의 얼굴과 나나미의 얼굴이 이중 인화되어 둘 간의 동일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 동일성을 확대해석하면 나나미가 꿈이나 상상이라는 설명도 없이, 유령처럼 과거회상 장면에 출몰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나나미는 살아 있지만 죽은 미나미와의 동일성을 통하여 유령과 같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토 다다오는 이를 '아름다운 환상'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와의 동일성 그리고 그 교감은 바로 위령의 문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 영화는 미나미로 대표되는 피폭자에 대한 위령의 문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령이라는 테마는 미나미의 50주기를 기억하기 위한 아사히의 여행을 그린 「벚꽃의 나라」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이가 단지 위령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 있는 자와 소통하고 있고 재현=표상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토 준[江藤淳]의 말을 인용해 보자.

일본인은 주변의 풍경을 바라볼 때에도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또 하나

의 보이지 않는 시선, 즉 죽은 자들의 시선을 동시에 감득(感得)하는 것에 의하여, 그로부터 기쁨과 안정을 얻어, 죽은 자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이 통하게 한다. …… 일본이라는 국토, 일본인이 보는 풍경, 일본인의 생활 영위는 항상 죽은 자와의 공생감 속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은 자와 ‘공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 같아 보여도, 실은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감각이 일본문화의 근원에 있다.²⁹⁾

이러한 에토 준이 말하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와의 ‘공생’을 토대로 한 일본문화론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일본문화적 특징으로 한정시켜 정당화하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³⁰⁾ 하지만 이러한 시선적 특성이 일본문화와 일본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공존은 「아버지와 산다면」에서 원폭으로 죽은 아버지의 유령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피폭자 여성을 다룬 영화에서도 되풀이된다.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의 여주인공인 미나미=나나미는 죽은 이와 살아 있는 이가 교환가능한 일본문화론적 토대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일본의 ‘풍경’을 인식하는 것이고, 결국 이 영화는 죽은 이의 위령으로 수렴되는 내셔널 내러티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9) 江藤淳, 2004, 「生者の視線と死者の視線」, 『新版靖國論集』, 近代出版社, 15~17쪽.

30) 이러한 에토 준의 일본문화론적인 위령론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카하시 데쓰야 저, 현대송 율김, 2005,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사에 자세히 나온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에토가 말하는 죽은 자와의 공생감이 일본문화의 근원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왜 야스쿠니신사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필연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만들어진 원폭영화를 살펴보았다.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피폭이 세대를 넘어선 문제이고 피폭자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피폭 2세를 그림으로써, 일본에서 '새로운' 시점의 원폭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 전쟁이 가져오는 참상과 그 지속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의 관객에게 다시금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기존 원폭영화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를 반성없이 답습함으로써 '피폭 내셔널리즘'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영화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상실하고 일본적 내러티브 안으로 원폭을 끌어들이함으로써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원폭과 전쟁에는 주체와 타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본은 타자와 역사가 부재한 내러티브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다카하시 데쓰야 저, 이목 역, 2008,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 다카하시 데쓰야 저, 현대송 옮김, 2005,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사.
- 이안 부루마 저, 정용환 역,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 전진성, 2008, 『원폭2세 환우 김형률 평전—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휴머니스트.
- 토마스 소벌 저, 주창규 외 옮김, 2004, 『영화란 무엇인가』, 거름.
- 후지와라 기이치 저, 이숙중 역, 2003, 『전쟁을 기억한다—히로시마·홀로코스트와 현재』, 일조각.

- 大江健三郎, 1965, 『ヒロシマ・ノート』, 岩波新書.
- ミック・プロデリック 編, 1999, 『ヒバクシャ・シネマ』, 現代書館.
- 全國被爆二世團體連絡協議會·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編, 2001, 『被爆二世の問いかげ』, 新泉社.
- テッサ・モリス=スズキ, 2004, 『過去は死なない: メディア・記憶・歴史』, 岩波書店.
- 濱野成生 編, 2004, 『日米映像文學は戦争をどう見たか』, 日本優良圖書出版會.
- 新藤兼人, 2005, 『新藤兼人・原爆を撮る』, 新日本出版社.
- 米山リサ, 2005, 『広島—記憶の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 福間良明, 2006, 『反戦のメディア史』, 世界思想社.
- 吉村和眞編, 2006, 『‘はだしのゲン’がいた風景』, 粹出版社.

- Hein, Laura ed., 1997, *Living with the Bomb : American and Japanese Cultural Conflicts in the Nuclear Age*, New York : M. E. Sharpe.
- Sapiro, Jerome F., 2001, *Atomic Bomb Cinema*, Routledge.
- Orr, James J., 2001, *The Victim as Hero*, University of Hawaii Press.

<논문>

- 佐藤忠男, 1970, 「原水爆映畫の歩み」, 『日本映畫思想史』, 三一書房.

- 長野秀樹, 1999, 「原爆は『神の攝理』か」, 『紋鏡』 21호.
- 川口隆行, 2001, 「'原爆文學' という問題領域」, 『Problematique II : 文學/教育』 2호.
- 高橋眞司, 2001, 「祈りの長崎批判 - '劣等被爆都市' から '平和の祈り' へ」, 『世界』 9월 호.
- 江藤淳, 2004, 「生者の視線と死者の視線」, 『新版靖國論集』, 近代出版社.
- 栗原淑江, 2004, 「死者たちとともに生きる : 映畫 <父と暮せば> に寄せて」, 『世界』 9월 호.
- 川口隆行, 2005, 「メディアとしての漫畫, 甦る原爆の記憶」, 『原爆文學研究』 제4호.
- 紅野謙介, 2005, 「起源としての '原爆' 」,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 5, 岩波書店.
- Osteen, Mark, 1994, "The Big Secret : Film Noir and Nuclear Fear,"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22, summer.
- Dower, John W., 1996, "The Bombed : Hiroshimas and Nagasakis in Japanese Memory," *Hiroshima in History and Mem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vanaugh, Carole, 2001, "A Working Ideology for Hiroshima," *Word and Image in Japanese Cine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폭을 다룬 영상물 리스트〉

- 「長崎の鐘」, 大庭秀雄 監督, 1950년.
- 「原爆の子」, 新藤兼人 監督, 1952년.
- 「長崎の歌は忘れじ」, 田坂具隆 監督, 1952년.
- 「長崎の子」, 木村莊十二 監督, 1952년.
- 「ひろしま」, 關川秀雄 監督, 1953년.
- 「その夜は忘れない」, 吉村公三郎 監督, 1962년.
- 「地の群れ」, 熊井啓 監督, 1970년.
- 「はだしのゲン」, 山田典吾 監督, 1976년.
- 「はだしのゲン」, 眞崎守 監督, 1983년.
- 「この子を殘して」, 木下恵介 監督, 1983년.
- 「夢千代日記」, 浦山桐郎 監督, 1985년.
- 「さくら隊散る」, 新藤兼人 監督, 1988년.

「黒い雨」, 今村昌平 監督, 1989년.

「八月の狂詩曲」, 黒澤明 監督,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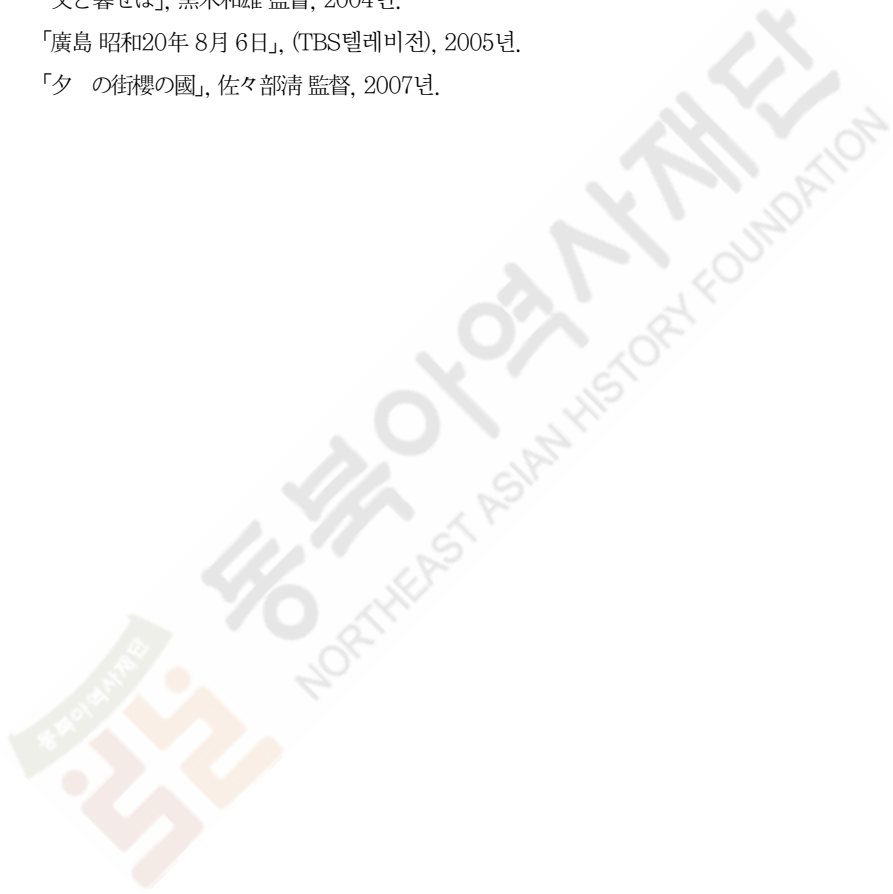
「TOMORROW/明日」, 黒木和雄 監督, 1998년.

「鏡の女たち」, 吉田喜重 監督, 2003년.

「父と暮せば」, 黒木和雄 監督, 2004년.

「廣島 昭和20年 8月 6日」, (TBS텔레비전), 2005년.

「夕 の街櫻の國」, 佐々部清 監督, 2007년.



[ABSTRACT]

Atomic-bomb films and the Japanese as 'victim'

Kang, Taewoong

Japan's 'unique' experience of Hiroshima and Nagasaki made the Japanese war 'victimhood'. This research analyzes recent popular atomic bomb films to demonstrate how basic themes of war 'victimhood' are reflected and reinforced. In those films the atomic bombings are depicted having little historical connection with the World War II. That could conceal the Japanese aspect of victimizer in that war and stress the aspect of 'victim'.

Yunagi no Machi, Sakura no Kuni provides the ideal example of atomic-bomb film genre in which Japanese civilians are innocent victims of the anonymous forces of war. This work will show *Yunagi* and recent atomic-bomb films use the narratives lacking the notion of historical liaison and the Japanese want to consume that sort of narratives backing *hibaku* nationalism or atomic bombed nationalism.

keywords

atomic-bomb film, atomic bombed nationalism, war victim, Hiroshima, Nagasaki

전후 일본의 곡쟁이

- 일본 '반전' 영화에 나타난 여성 -

한정선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I. 머리말

전쟁은 극한의 집단 폭력과 파괴가 허용되는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극적인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은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야기는 용기, 희생 그리고 상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통해 죽은 자들을 불러내서 집단기억을 만들어내고, 이는 후세대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 때 지적·감성적 저류를 형성한다. 전쟁이야기와 전쟁기억은 또 다른 전쟁을 행하는 정치 및 사회 조직과 문화로 흘러 들어간다. 즉, 전쟁행위는 전쟁이야기를 규정짓고, 또 전쟁이야기는 전쟁행위를 규정짓는다.

특정 이야기와 특정 집단의 행위가 서로를 규정지으면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구성요소가 된다면, 그러한 특정 이야기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의 역사적 존재와 역할이 부여된 표상(경우에 따라 이미지, 신화, 이념 또는 개념) 시스템으로, 그 자체의 논리와 엄밀함을 지닌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

다.¹⁾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표상 시스템으로 정의한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는 ‘의식’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오히려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그들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즉, 인간과 그들의 실제적인 존재 조건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와 상상의 관계 사이의 중층 결정(overdetermined)의 결합체이다. 이데올로기 내부의 실제적인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상의 관계, 즉 (보수적·순응적·개혁적 또는 혁명적) 의지, 희망 또는 노스탤지어(nostalgia)를 표현하는 관계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²⁾

전후 일본의 전쟁이야기는 무의식과 표상체계에 의존한 ‘상상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의 많은 전쟁이야기로 구현된 일본 이데올로기는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자라는 트라우마에 의존한 ‘피해자 의식’ 속에서 서사된 ‘반전주의’와 ‘평화주의’로 나타난다.³⁾ 이러한 전쟁이야기는 많은 경우 이분화된 성역할에 근거하여 서사된다. 여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전쟁이야기-전쟁’이라는 순환구조 속에서 객체화되었다. 왜냐하면, 여성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남성공동체 중심의 극한 폭력 상황 속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전쟁행위에서 배제된 여성은 전쟁이야기에서도 주체로 설정되기보다는 객체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객관적 비극 (objective tragedy)’⁴⁾으로 규정되었다.

1) Louis Althusser, 1970, “Marxism and Humanism,” *For Marx*, New York : Vintage Books, p. 231.

2) Louis Althusser, 1970, 위의 글, pp. 233~234.

3) 이와 관련해서는, Yoshikuni Igarashi, 2000, *Bodies of Memory : Narratives of War in Postwar Japanese Culture, 1945~1970*,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mes J. Orr, 2001, *The Victim as Hero : Ideologies of Peace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war Japa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참조.

4) Paul Virilio, 1984, *War and Cinema : The Logistics of Perception*, London : Verso, p. 22.

고대 이래 서양의 여러 사회는 전쟁이라는 집단 폭력과 파괴를 '정의로운 전쟁'으로 정당화하면서 남성을 '정의로운 전사'로 재현하는 한편, 여성을 폭력과 파괴라는 전쟁 가치와는 상반되는 평화를 재현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리곤 했다. '아름다운 영혼'은 평화, 인내 그리고 대의를 위한 희생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행하는 '객관적 비극'을 재현하는 객체로 설정되어 왔다. 서구의 이러한 상징체계와 서술구조 속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즉 남성을 위한 여성의 눈물과 애도는 전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목적'이기도 하다.⁵⁾ 다시 말해, '상주'인 국가에 의해 고용된 '곡쟁이(designated weeper)'로 객체화된 여성은 전쟁과 전쟁이야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⁶⁾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억의 전수자로서의 여성, 일본국가를 위해 죽어 간 전사들에 대한 '비극'을 후세에 전해 주는 여성은 전후 일본사회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 글에서는 ① '객관적 비극'을 체현하는 여성이 전후 일본의 전쟁 관련 영상매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② 패전 이래 현재까지 애도와 기억을 체현하는 여성 표상 스타일에 변화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을 위해, 남성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는 여성을 중심으로 전시기의 후방을 묘사한 전후 '반전' 영화를 분석할 것이다.

전쟁과 성의 문제를 영상매체를 통해 분석하려는 이유는 현대사회는 "스펙터클 사회(society of spectacle)"라고 명명될 정도로 시각 중심의 영상매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⁷⁾ 스펙터클이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매체의 표현양식이란 것을 상기하면, 현대사회에서 영화가 갖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NHK의 조사에 의하면, 16세에서 39세까

5) Jean Bethke Elshtain, 1987, *Women and Wa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특히 제2장 및 p. 49 · 58 · 105 참조.

6)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곡쟁이'는 위의 Elshtain 연구에서 사용된 'designated weeper'를 번역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7) Guy Debord, 1995,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New York : Zone Books.

지의 연령층은 전쟁에 대한 성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만화, 만화 영화, 영화'라고 대답할 정도이다.⁸⁾

이와 관련하여 1954년에 개봉된 기노시타 게이스케[木下惠介] 감독의 「24개의 눈동자[二十四の瞳]」는 “일본의 남녀노소를 울게 한” 영화로, “보수파도 진보파도, 지식인도 노동자도 전쟁은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싫다라는 점에서 감정 일치를 시킨”, “전후 일본인의 평화주의 상징”이 된 영화로 평가 받고 있다.⁹⁾ 이 영화는 원래 츠보이 사카에[壺井榮]가 창작동화로 1952년 발표한 것을 영화로 제작한 것으로, 오이시[大石]라는 여교사의 눈으로 전시기 후방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소설과 영화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재군비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 속에서 “국민적 규모의 반전 감정을 고양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¹⁰⁾ 이 영화는 1954년 개봉 당시 2억 3,287만 엔의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였고, 문부성 특선영화로 선정되었다. ‘반전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영화는 지금도 비디오 대여점에서 쉽게 빌려 볼 수 있게 지속적으로 유통·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7년에 영화로 리메이크되고, 2005년에는 ‘종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TV드라마로 리메이크되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상징’이 된 「24개의 눈동자」가 여성을 중심에 두고 전쟁기억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성 관련 담론이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전전과 전후 일본에서 전개된 전쟁과 여성에 관련된 담론의 흐름을 소개하고, 이어서 1954년에 개봉된 「24개의 눈동자」와 1987년 및 2005년에 리메이크된 「24개의 눈동자」를 분석하겠다.

8) 福間良明, 2006, 『‘反戦’のメディア史：戦後日本における世論と輿論の拮抗』, 東京：世界思想社, 66쪽 재인용.

9) 佐藤忠男, 2006, 『日本映畫史 2：1941~1959』, 東京：岩波書店, 288쪽.

10) 佐藤忠男 編, 2007, 『日本の映畫人：日本映畫の創造者たち』, 東京：日本アソシエーツ, 203쪽. 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과 ‘반전영화’에 관해서는, 한정선, 2008, 「상품화된 기억：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과 영화 <로렐라이>」, 『역사비평』 82호(봄호) 참조.

II. 전시기 및 전후 일본의 여성 담론 형성과 전개

최근 10여 년간에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분석틀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전쟁과 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개된 총력전 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전시기 일본이 직면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전시기 일본은 '현모양처'로서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생활을 담당해야 할 여성을 총력전 체제라는 공적 영역에 동원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시 일본은 여성을 국민을 재생산하는 어머니로서, 국민인 병사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로서만 동원하였다. 이것은 병력 부족이 심각해진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도 일본이 여성 징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¹¹⁾ 총력전 체제는 국민 총동원을 시도하면서도 근대에 들어오면서 성립된 남녀의 역할 분담을 무너뜨리지 않았다.¹²⁾

그러나 전쟁은 제한적이거나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자명성이 소실되는 영역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종군간호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일전쟁기에 동원된 종군간호부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일반 군인의 그것과 동일한 형태인 ‘용감한 여대(女隊)’”¹³⁾ 등의 묘사가 있다. ‘용감한’ 여성은 근대 일본이 구축한 전통적인 여성성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 정체성의 분열과 혼란은 전시기의 “잡지 등의 문체가 보다 감정적이 되고, 선동적이 되는 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성/남성성의 구분이 동요하자 보다 소리를 높이고, 동의 반복을 반복하고, 의미가 공허해졌다. 성별 역할

11) 우에노 치즈코 저, 이선이 역, 1998, 『내셔널리즘과 젠더』, 26쪽.

12) 일본의 총력전과 젠더에 관해서는, 우에노 치즈코 저, 이선이 역, 1998, 위의 책; 成田龍一, 2002, 『戦争とジェンダー』, 小森陽一 外編, 『感情記憶戦争』, 東京: 岩波書店 참조.

13) 龜山美知子, 1984. 3, 『戦争と看護婦』, 『歴史評論』 407, 57쪽.

분담을 강조해서 주체화=동원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만, 성별 역할분담의 무근거성을 노정하고, 감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전시기에는 남성 중심의 그러나 불안정한 국민화가 강제되면서, 여성은 ‘이등국민’ 또는 ‘제3의 성’으로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전후에는 총력전 체제가 내포한 남성성/여성성 모순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패전 직후에 일본 사회에서 전개된 민주주의 열풍 속에서 여성은 근대국가가 만들어낸 봉건적·가부장적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억압되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전후의 많은 매체들은 이와 같은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자립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192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이는 ‘국민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여성이 생활을 담당하는 성역할 분담을 문제시한 것이 아니고(여성의 ‘부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여성이 의식주 생활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에서, 생활의 영역을 정치화하여 공적 의론의 논점으로 문제를 설정하였다”는 것이다.¹⁵⁾ 다시 말하면, “전후 민주주의의 여성상은 남성/여성의 이항대립을 전제로 하여 양자를 본질주의적으로 구분한 위에서, 하위의 항목으로 주변에 위치한 여성을 타자화하고, 양자의 관계를 묻는 문제 설정”이었다는 것이다.¹⁶⁾

이 과정에서 여성은 근대 일본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억압되었고, 억압된 존재로 전쟁에 말려든 일종의 피해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은 전쟁책임의 문제로부터 제외되었다.¹⁷⁾ 영화평론가 야지

14) 成田龍一, 2002, 앞의 책, 18~19쪽.

15) 成田龍一, 2002, 앞의 책, 34쪽. 1920년대 제기된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Laurel Rasplica Rodd, 1991, “Yosano Akiko and the Taisho Debate over the ‘New Woman’,” Gail Lee Bernstein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참조.

16) 成田龍一, 2002, 앞의 책, 48쪽.

17) 이와 같은 ‘피해자사관’은 여성의 주체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시기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여성들의 전쟁지지와 참여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최근의 일본 여성사 학계는 여성의 전쟁참여 및 책임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에노 치즈코 저, 이선이 역, 1998, 앞

마 미도리[矢島翠]는 이와 같은 흐름을 전후 일본영화 제작과 소비 풍토와 관련 지어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폐전은 ‘부(父)’를 고발하는 기회를 일본에게 주었으나, ‘모(母)’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다.” 즉, 일본영화에서 “‘모’는 상처받지 않은 채 전후를 맞이하였다”는 것이다.¹⁸⁾

동시에 ‘상처받지 않은 모’는 ‘상처받은 남성성’ 또는 ‘거세된 남성성’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했다. 이러한 심리적 필요성은 전후 일본사회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은 모’를 갈망하게 만들고, 이들을 ‘아름다운 영혼’으로 숭배하게까지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상처받지 않은 모’는 일본사회의 페티시(fetish)로까지 발전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연구가 보여 주듯이, 남성(주체)성은 여성을 ‘거세(castration)’된 객체로 인식하면서 형성된다. 즉, 남성성은 거세를 부정(denial of castration)하면서 성립된다. 이는 뒤집어보면, ‘거세(또는 근원적 결핍)’를 여성 신체에 투영함으로써, 즉 자기 자신의 내부에 위치한 원치 않는 부분을 타자에 투영함으로써 남성으로서의 자기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페티시즘은 이러한 남성의 거세 가능성을 부정하고, 이를 여성에게 투영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난다. 즉, 페티시즘은 유아기에 접한 거세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그 대체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중국의 풍습인 여성의 발을 불구로 만들어 놓고, 불구가 된 발을 물신(fetish)처럼 숭배한다”고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국 남성이 여성이 (대신) 거세되는 것에 굴복한 것에 감사하는 것 같다.”²⁰⁾

의 책, ; 若桑みどり, 2000, 『戦争がつくる女性像：第二次世界大戦下の日本女性動員の視覚的プロパガンダ』, 東京：ちくま學芸文庫 참조.

18) 矢島翠, 1979, 『出會いの遠近法』, 東京：潮出版社, 17쪽.

19) Kaja Silberman, 1992,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New York : Routledge, pp. 44~45.

20) Sigmund Freud, 1973, “Fetishism (1927)”,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 The Hogarth Press, pp. 152~157 · p. 157.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형성 그리고 페티시즘 병리적 증상에 대한 프로이드의 무의식 분석은 전후 일본사회의 저변을 관통하는 분위기를 분석하는데도 유효한 시점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패전은 남성성의 위기로도 인식되었고, 이는 특히 점령기 미군과 접하면서 극대화되었다.²¹⁾ 이러한 분위기는 영화계에도 흘러 들어간다. 기노시타 게이스케와 구로자와 아키라를 전후 일본영화의 원조로 위치지으며, 야지마는 이들의 대표작에서 나타나는 '이상화된 어머니'는 패전으로 인해 야기된 '남성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야지마는 “패전으로 남자들은 남성으로서의 감각이 동요되었고, 이를 벌충하고자 어머니로 수렴된 여성상을 시대의 동요를 넘어서는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고자 했다. 이는 구로자와와 기노시타 이후 전후 영화의 여성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²²⁾

전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성, '상처받지 않은 모'로 수렴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성은 전시에는 후방에서 파괴와 상실에서 오는 고통을 인내하는 자로, 전후에는 폐허 속에서 인고하며 동시에 상처받은 남성성을 위로하는 자로 설정된다. 다시 말하면, '상주' 일본에 의해 고용된 '곡쟁이'로서 전후 여성상이 설정되었다. 이처럼 인고하며 대신 울어 주는 여성성은 패전으로 '거세'된 일본의 남성성이 여성의 신체에 투영되면서, 즉 남성성 내부의 원치 않는 부분이 여성 타자에게로 이전되면서 '상처받은 남성성'이 치유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치유과정은 평화와 반전이라는 새로운 일본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필요조건이기도 하였다. 전후 일본의 영상매체는 이와 같은 '상처받은 남성성'의 치유를 위한 수단으로 '상처받지 않은 모'라는 전후 여성성 재정립을 시도하였고, 이를 '감상적 상상력(melodramatic imagination)'을 통해 극적으로 재현하였다.

21) John Dower, 1999, *Embracing Defeat :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Inc. 특히 제4장 “Cultures of Defeat”에서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다위는 135쪽에서 상처받은 일본 남성성이 부상병으로 재현되고, 이 부상병이 건강한 미군 병사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일본 여성을 대면하는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22) John Dower, 1999, 위의 책, p. 30.

Ⅲ. 신여성에서 곡쟁이로 - 「24개의 눈동자」에 나타난 패전국 일본의 여성성

'감상적 상상력'은 근대적 감수성을 재현하는 중요한 표현양식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감상적 상상력은 "감정에 호소하고, 선과 악의 양극적인 도덕 체계, 극단적인 상황과 행동, 명백한 악에 의한 선 박해, 선의 최후의 승리,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감정 표현, 암울한 구성과 긴장, 운명의 급전" 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²³⁾ 이러한 표현양식은 신이라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도 사형선고를 내림으로써 '모든 견고한 것이 사라져 버리는' 근대성을 포착하는 한 유형으로, 특히 대중문화의 지배적인 표현양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치의 혼돈과 혼란으로 점철된 근대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한 양식으로, 개인의 감정과 성격에 기반한 표현양식이다. '지극히 인격화(characterized)된' 개인들의 감정 갈등을 통해 현실 뒤에 숨겨진 신성화된 그 어떤 것을 갈구함으로써 불변하는 진리를 제시하려는 서술구조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감상적 상상력을 통한 근대성 재현은 근대화를 경험한 많은 대중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영화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시각문화는 특히 감수성을 자극하는 감상적 상상력을 주요 표현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관되게 일본영화의 '감상성'을 비판한 감독 마스무라 야스조 [増村保造]는 "일본영화 감독은 감상적인 사랑 혹은 모성애에 대한 시적인 묘사를 풍경 등의 자연이라는 서정적인 것과 조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섬세한 감수성을 더욱 윤이 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감상성은 "결국 그들의 시적인, 비현실적인 태도는 사회생활의 가혹함으로부터 적극

23) Peter Brooks, 1976,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pp. 11~12.

24) Peter Brooks, 1976, 위의 책, p. 16.

적으로 도피함으로써 생성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²⁵⁾

‘눈물’에 호소하는 감상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전후 일본의 ‘반전’과 ‘평화’의 감수성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 고전적인 영화 중의 하나가 바로 기노시타 게이스케 감독의 「24개의 눈동자」이다. 기노시타 감독은 감상성의 극대화를 통한 반전사상을 고취하려던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어쨌든 이 영화는 슬픈 이야기다. 나는 처음부터 감상적 미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 영화가 감상적이라는 비평은 내 의도를 잘못 읽은 것이다. …… 나는 아름다운 세토 나이카이(瀬戸内海)를 배경으로 자신의 운명을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리고 나는 이보다 더 강렬하게 반전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하는 방법은 없다고 믿는다.²⁶⁾

이 영화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체로 설정되는 것이 여교사 오이시이다. 그녀는 1928년 세토 나이카이에 있는 쇼토지마[小豆島]의 조그마한 어촌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임된다. 오이시는 1년생 12명 학생들의 담임이 된다. 오이시는 이후 이들이 성장하면서 전시기에 겪게 되는 역경을 증언하고, 또한 살상과 파괴에서 오는 상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자이다. 영화는 1946년까지 다루는데, 전후에는 전사한 학생들의 묘 앞에서 울고 있는 오이시를 아이들은 ‘올보 선생님[泣きみぞ先生]’이라고 부른다. ‘올보 선생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는 시청각자료로 영화는 어촌의 정경, 빛 바랜 사진 그리고 다양한 노래를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영화는 어촌의 정경을 화면에 담으면서 시작된다. 풍경에 파묻힌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난다. 아이들은 새로 부임하는 젊은 여교사 오이시를 만나게 되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깊어지는 정을 중심으로 영화는 전

25) 増村保造, 1999, 「日本映畫史」, 藤井浩明 監修, 『映畫監督 増村保造の世界』, 東京: ワイズ出版, 78쪽. 増村保造와 관련해서는, 四方田太彦, 「慾望と民主主義」, 齊藤綾子 編, 2003, 『映畫女優 若尾文子』, 東京: みすず書房 참조.

26) 木下恵介가 『週刊朝日』 1954년 행한 인터뷰 내용을 재인용, James J. Orr, 2001, 앞의 책, p. 116.

개된다.

카메라의 눈으로 담아내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이상향으로 재현된다. 영상화된 어촌은 과거의 어딘가에 있었을 듯한, 그러나 어디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1950년대 일본은 이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영화들이 주로 도시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24개의 눈동자」는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인 시골 마을을 '신화적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완만한 곡선의 산들, 구불구불한 시골길, 햇살이 내리쬐는 바다의 물결 등을 서정적으로 담아내면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으로의 회귀를 유도하고 있고, 관객들은 향수를 경험하게 된다. 이상향으로 재현된 어촌은 영화 속에서 전시기에도 직접적인 파괴를 경험하지 않은 채 보존된다.

기노시타의 닫혀진 공간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일본의 한 영화평론가는 기노시타의 공간 재현에서 고립된 "공동체와 그 외부세계를 가르고 있는 벽의 강고함"을 관찰하고, 그 "격벽(隔壁)이 행하는 여과장치 및 정화장치로서의 기능"을 "그 벽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구체적인 사상(事象)들을 소거시킨 후, 몇 가지의 보편적인 것으로 순화시켜 추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⁸⁾ 즉, 「24개의 눈동자」에 등장하는 어촌은 탈역사화된, 탈정치화된 공간으로 재현된 것이다. 나아가 탈역사화된 어촌은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 역사를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는 이처럼 시공간적으로 고립되고, 탈역사화되어 버린 어촌의 정경을 배경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갖는 행복한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영상에 담고 있다. 영화의 전반부에서 교사 오이시는 전통적 이상향으로 재현되고 있는 어

27) ミツヨ マルシアーノ, 2007, 「戦後日本のメロドラマ: 『日本の悲劇』と『二十四の瞳』」, 岩本憲兒 編, 『家族の肖像: ホームドラマとメロドラマ』, 東京: 森話社, 300~302쪽.

28) 波多野哲郎, 1998, 「木下恵介の『家』-木下映畫はなぜ忘れられたか」, 『黒澤明と木下恵介-素晴らしき巨星』(キネマ旬報臨時増刊號), 90쪽 참조.

촌의 정경과 감성에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녀는 어민들과는 대조적으로 서양식 복장과 화장을 한 매우 도시적인 여성, '모던 걸'로 나타난다. 양장을 한 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자면서 양장을 한다” 또는 “여자면서 자전거를 탄다”라는 식으로 어촌의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다정다감한 젊은 여교사로서 어린 학생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인간적인 교육자로 묘사된다.

시공간으로부터 분리된 어촌의 이미지와 병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는 여교사와 아이들이 갖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 사진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변해 가는 환경과 분리되어, 순진무구한 아동기의 한 시점을 영속화시키는 이미지로 굳어진다.

이 사진은 교사 오이시가 고학년 남학생들의 장난에 휘말려 발목 부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를 쉬게 되자,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힘들게 찾아가서 함께 한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저마다 이 사진을 한 장씩 소지하고,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의 가난과 역경을 견디게 된다.

청각자료로 이 영화는 당시 일본 소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인 심상소학교 창가 및 문부성 창가 등을 편집하여, 아이들의 합창, 아이들과 선생님의 합창, 또는 관현악을 사용한 배경음악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삽입곡들은 '아오게바도토시[仰げば尊し]', '후루사토[故郷]', '고조노 츠키[荒城の月]', '나나츠노 코[七つの子]' 등인데, 이러한 노래와 음악은 “일본국가가 계획 실시한 국민적 감성=미학의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소학교 창가의 기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고, 동시에 “공감하는 것에 의해 국민으로 귀속하는 개인을 심급에서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⁹⁾ 패전 후에 이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부른 노래를 들

29) 酒井直樹, 2007, 『日本/映像/米國：共感の共同體と帝國的國民主義』, 東京：青土社, 165쪽; Keiko I. McDonald, 1983, *Cinema East: A Critical Study of Major Japanese Film*, London: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pp. 231~254.



橋山の 黃帝陵 사당

으면서 또 한번 '공감 공동체'를 상상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향수를 통해서이다.

이처럼 특정 영상과 음향의 편집을 통해 이 영화는 '감상적 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감상적 미'를 체현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영화의 중후반으로 가면서는 성인 남성, 특히 청년층의 남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오이시의 남학생들은 청년이 되면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이시의 남편 역시 주변화되어 있다. 남성 부재는 전쟁 장면 부재와도 관련 있다. 이 영화는 전투와 전장을 보여 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라디오의 전쟁 보도, 고조되는 군국주의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강화되는 탄압, 출병하는 오이시의 남편 그리고 징집되는 남학생들을 환송하는 '대일본국방부인회' 모습 등을 통해 일본의 전쟁을 그리고 있다.

주변화된 남성 대신에 오이시와 성장해 가는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오이시는 '모던 걸'의 시기를 거쳐 한 남자의 부인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로 변모해 간다. 신분 변화와 함께 그녀의 복장도 바뀐다. 결혼 후 오이시는 전통적인 일본식 복장을 주로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전쟁의 기운이 가난이라는 형식으로 후방에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오이시는 여학생들이 겪게 되는 역경을 증언하고 함께 슬퍼하고 인내하는 자로 그려 간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신여성 오이시를 '올보' 오이시로 재설정해 나간다. 예를 들면, 그녀의 여학생

중의 하나가 불운한 가정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울고 있을 때에서 오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불행은 네 책임도, 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책임도 아니란다.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단다. 그러니 네 자신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 너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선생님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선생님도 달리 해 줄 이야기가 없구나. 대신에 울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선생님에게 와라. 선생님도 함께 울어주마.³⁰⁾

또 다른 여학생이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마을의 친척집에 일하러 떠나게 될 때도 오이시는 함께 눈물을 흘린다. 전시 중에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여학생을 위로한다. 이 여학생은 폐병으로 사망하고, 오이시는 그녀의 죽음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린다.

오이시 자신에게도 전쟁의 비참함은 찾아온다. 그녀는 국가의 군국주의적인 교육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학교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를 그만둔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면서 남편은 출병하게 되고, 이후 남편은 전사하고, 홀로 세 아이를 어렵게 키운다.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시의 궁핍함 속에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막내딸은 과일을 따 먹으려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전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죽어 간 사람들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모던 걸’에서 ‘올보’로 전개되는 오이시의 변화는 ‘문화적 거세’라고도 할 수 있다. 주체적인 ‘모던 걸’이었던 오이시는 ‘함께 울어주는 자’로 ‘거세’되어 지역공동체에 의해 ‘곡쟁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³¹⁾ 이처럼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문화적 거세를 거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어머니 오이시의 불행과 인고가 겹치면서 이야기는

30) 木下惠介 監督, 1954, 〈二十四の瞳〉, 18 : 1 : 31 : 52.

31) 齊藤綾子, 2006, 「失われファルスを求めて: 木下惠介の『涙の三部作』再考」, 長谷正人・中村秀之 編, 『映畫の政治學』, 東京: 靑弓社, 95~96쪽 참조.

‘어머니 이야기[母もの]’ 형식을 띄게 된다. 모성으로 일원화된 여성성을 재현하는 ‘어머니 이야기’는 일본영화에서 하나의 서브-장르를 형성할 정도로 자주 다루어지는 대중적인 서사구조이다.³²⁾ 이 이야기 형식은 자식(주로 아들)을 위해 인고하고 희생하는,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어머니’를 감상적 상상력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1950년대에 전성기를 맞는다. 기노시타 감독은 「24개의 눈동자」를 발표하기 한 해 전인 1953년에 「일본의 비극[日本の悲劇]」이라는 ‘어머니 이야기’를 흥행시키기도 했다.³³⁾ 관객들은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위안을 받는 한편, 전후의 상실과 가난을 증언하고, 인고하는 ‘어머니’로 재현된 ‘피해자’ 일본인들에 대한 감상적 연민을 공유하게 된다.

전쟁 ‘피해자’ 일본인에 대한 감상적 연민을 한층 심화시키는 장면은 영화의 끝부분에서 연출된다. 전쟁 후에 오이시는 다시 학교 선생님이로 복직한다. 그녀는 전사한 남학생들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녀를 ‘울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어느 아름다운 오후, 오이시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남학생들과 그리고 전쟁의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은 여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는 빛 바랜 사진을 함께 보면서 향수에 젖는다. 살아 돌아온 남학생 한 명도 사진을 들여다본다. 그는 전쟁에서 시력을 잃었다. 즉, ‘상처받은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더듬으면

32) 일본영화에서의 ‘어머니이야기’에 관해서는 Ian Buruma, 1984, *Behind the Mask : On Sexual Demons, Sacred Mothers, Transvestites, Gangsters, Drifters, and Other Japanese Cultural Heroes*, New York : Pantheon Books, 제2장 참조; 전쟁영화와 ‘어머니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晏妮, 2006, 12, 「母である女, 父である女-戦争中の日本映畫における母親像」, 齋藤綾子 編, 『映畫と身體・性』, 東京: 森和社; 강태웅, 2006, 「전시기 일본영화의 표현공간: ‘어머니 이야기[母もの]’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51호 참조. ‘멜로 드라마’로서 ‘어머니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岩本憲兒, 2007, 「日本映畫に見る家族のかたち」, 『家族の肖像: ホームドラマとメロドラマ』, 東京: 森話社; ミツヨ マルシアーノ; 岩本憲兒 編, 2007, 앞의 글 참조.

33)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남편이 전사한 후에 홀로 남아 패전 후의 빈곤 속에서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지만, 성장한 자식들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결국 어머니는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서, “한 가운데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다케이치와 니쿠타가 함께 있고, 선생님의 오른 쪽에는 맏짱이 서 있고, 그 앞에는 후지코짱이 있고 ……”라며, 사진 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낸다. 그를 보면서, 함께 한 여자들은 눈물을 흘린다. 여자들은 동시에 ‘상처받은 남성성’을 위로하는 ‘곡쟁이’이기도 한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후반까지 약 20여 년에 걸친 세월을 연대기적으로 촬영한 이 영화는 여교사의 눈과 눈물로 후방에서 겪는 전쟁의 비참함을 서정적, 감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곡쟁이 여교사는 동시에 ‘상처받은 남성성’을 위로하는 상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상처받지 않은 모’를 ‘아름다운 영혼’으로 재현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영혼’의 눈물을 통해 ‘상처받은 일본’을 위로하는 문화적 여과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여과작용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고조된 ‘반전’ 여론과 맞물리면서, 전후 일본의 ‘반전평화주의’ 정체성을 감상적으로 지탱하는 데 기여했다.

IV. ‘종전’을 기념하는 곡쟁이

1983년에 NHK에 의해 실시된 조사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1위로 꼽힌 것 바로 기노시타의 「24개의 눈동자」이다.³⁴⁾ ‘국민영화’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영화는 1987년에는 영화로, 2005년에는 TV드라마로 리메이크되면서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본이 패전한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은 고전적인 ‘반전’ 영화가 리메이크되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반전’ 영화로 ‘전방’을 다룬 「버마의 하프(ビルマの豎琴)」가 1985년 리메이크되었다. 1985년에 개봉된 「버마의 하프」는 이치

34) 齊藤綾子, 2006, 앞의 글, 62쪽.

가와 곤(市川崑) 감독이 1956년에 만든 것을 40년이 지난 시점에 같은 감독에 의해 리메이크된 것이다. 「24개의 눈동자」가 후방을 다루면서 '반전' 영화의 시각문화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버마의 하프」는 버마라는 전선을 다루면서 전후 '반전' 영화의 계보를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⁵⁾

리메이크된 「버마의 하프」는 1956년 개봉된 영화에서 미흡했던 '사실성'의 극대화를 시도했다. 1956년판이 1주일 정도의 현지 촬영을 기반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1985년판은 전촬영을 현지 촬영하여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성'의 추구가 호평을 받아 29억 5,000만 엔의 배급수입을 거두면서 1985년 영화 1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4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전쟁, 패전, 점령의 기억이 일본사회에서 풍화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히려 전쟁의 요인 및 책임의 문제, 침략전쟁의 성격 등이 '원경(遠景)'으로 처리되고, 전선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체험하는 병사의 경험이 '특권적'으로 묘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³⁶⁾

리메이크된 「버마의 하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수익을 창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987년에 개봉된 「24개의 눈동자」(朝間義隆 감독, 田中裕子 주연)는 당초 예상과 달리 흥행에 실패하였다. 이는 1987년판의 감독이나 주연 배우가 모두 원작의 감독과 주연배우만큼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인물들이 아닌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시에 1987년판의 영화 전편 구성 및 촬영 방식이 1954년판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즉, 1987년판 「24개의 눈동자」의 흥행 실패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전후세대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³⁷⁾

그러나 2005년에 TV드라마로 리메이크된 「24개의 눈동자」(이하 드라마 「24개의 눈동자」)에서는 전쟁기억의 서술방식에서 이전 영화와의 차이점을

35) '반전' 영화로서의 「버마의 하프」의 문제점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福間良明, 2006, 앞의 책; 酒井直樹, 2007, 앞의 책 등 참조.

36) 福間良明, 2006, 앞의 책, 61쪽. 또한 이 영화의 시대별 특징과 수용과정에 대해서는, 馬場公彦, 2004, 『ビルマの豎琴をめぐる戦後史』,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참조.

37) 福間良明, 2006, 앞의 책, 64~66쪽.

보여 주고 있다. 드라마 「24개의 눈동자」는 오이시의 삶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전개한 기노시타의 영화와는 대조적으로 플래시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

드라마는 1942년 청년들이 징집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때 청년들을 부르는 여교사 오이시가 사진 한 장을 청년들에게 나누어주며,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환송한다. 이어서 영화와는 대조적으로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전쟁장면이 삽입된다. 밀림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참호 속에서 한 청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살아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밀림의 한 참호 속에 갇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또 장면이 바뀌면서, 영화는 1943년 후방을 재현하고, 이야기는 오이시가 같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15년 전에 12명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드라마 「24개의 눈동자」에서 나타나는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이 드라마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사회가 이전보다는 전쟁에 보다 유연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한 1990년대 걸프전쟁과 2000년대 아프간, 이라크 침공 등에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일본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쟁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에 관여하면서, 전쟁은 1950년대와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전쟁드라마 제작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드라마 「24개의 눈동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드라마가 영화 「24개의 눈동자」 보다 플래시백(flashback)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래시백을 통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미지들의 편집은 지각 장의 이질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질성은 이미지들이 컨텍스트로부터 보다 쉽게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어 이미지들의 파편화를 가속화한다. 파편화된 이미지는 그 의미의 변화와 전환이 용이한 정보가 된다. 모든 정보처럼,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 자체의 의미와 권위가 약화되고,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파편화된 이미지는 사

용자가 그 앞 또는 뒤에 어떤 이미지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³⁸⁾

플래시백을 통해 재편집한 드라마 「24개의 눈동자」는 어떤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 것일까? 전쟁 장면과 군 내부의 폭력을 담은 이미지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24개의 눈동자」는 '반전영화'의 계보를 잇는 것보다는 사제 간의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진 한 장을 둘러싼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편집을 통해 선생님의 살아 돌아오라는 당부가 한 청년이 전장의 살상을 극복하고 살아 돌아가는 유일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청년의 옆에서 죽어 가는 동료 병사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 꼭 살아 돌아가라”고 당부한다. 드라마 「24개의 눈동자」는 영화와 비교해 볼 때 '반전'의 의미는 희석되고, 대신에 '사제 간의 애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묘한 변화는 일본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현대 일본사회는 전후세대가 이미 인구의 90%를 점하게 되었다.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는 현재의 필요성에 의한 선택과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상기하면,³⁹⁾ 전후세대의 사회 전면 등장에 따른 전쟁기억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일본사회가 전쟁을 기억하는 과정에는 전후세대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삽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쟁기억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 불황을 거치면서 일본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고용제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및 교육제도에서도 표출되고 있다.⁴⁰⁾ 사제 간의 애정을 강조하는 전쟁 기억은 전후세대를 새로

38) John Berger, 1977, *Ways of Seeing*, London : BBC and Penguin Books, pp. 24~26.

39) Pierre Nora,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Representations* 26, Spring ; E. J. Hobsbawm, 1972, “The Social Function of the Past : Some Questions,” *Past and Present*, No. 55(May) 참조.

40)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 한중일 젊은이들의 갈등 읽기』, 삼인 ; William W. Kelly and Merry I. White, 2006, “Students, Slackers, Singles, Seniors, and Strangers : Transforming a Family Natio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ishi eds., *Beyond Japan : The Dynamics of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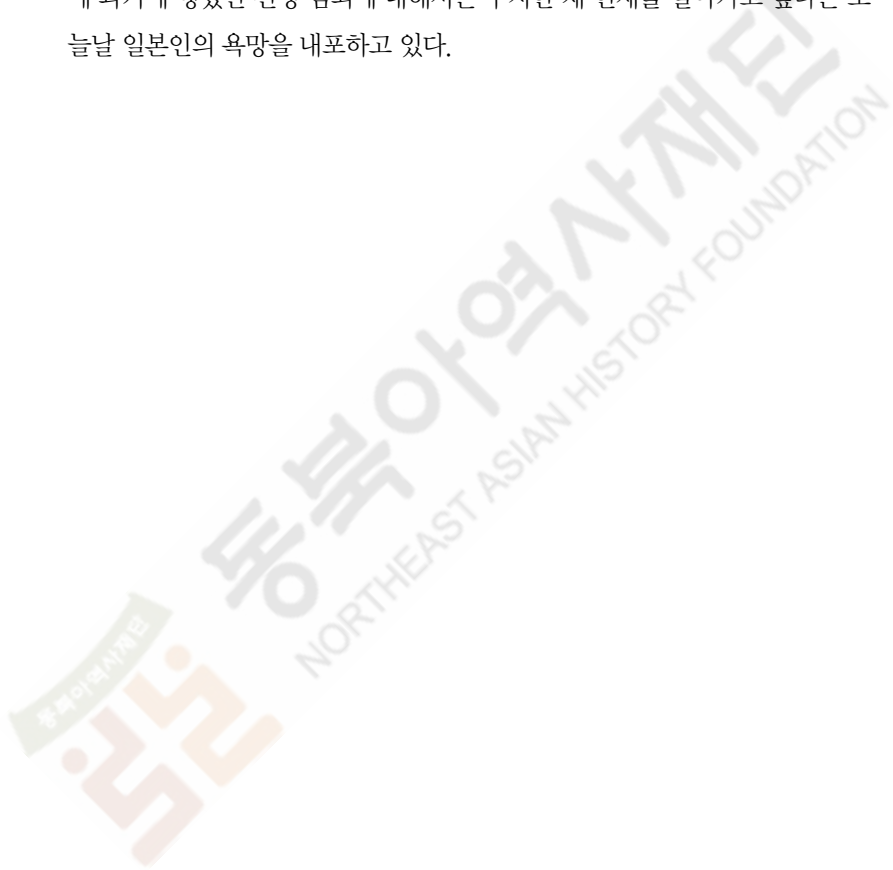
은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표상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제 간의 애정이 극대화된 드라마 「24개의 눈동자」에서 여교사 오이시가 학생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현대 일본에 더욱 애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패전한 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흘리는 오이시의 눈물은 단순히 전쟁 ‘피해자’로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젊은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에 저항한 여교사의 눈물로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다.

V. 맺음말

영화 「24개의 눈동자」와 드라마 「24개의 눈동자」는 감상적 상상력을 통해 전쟁을 악으로, 전쟁의 역경을 견뎌 내며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전’의 감수성을 시각화하고, 20세기 초반에 경험한 일본의 전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체현하는 것은 ‘객관적 비극’인 여성으로서, 이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목격하고, 인내하고, 파괴로부터 오는 상실을 애도하고, 대의를 위해 사라져 간 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남성성’을 지닌 채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재현된다. 다시 말하면, 전후 일본사회는 여성의 눈물을 통해 감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전후 일본사회가 ‘반전 평화주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비극적 객체’로서의 여성과 이들의 눈물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다. 여성의 눈물로 만들어진 감상적 공동체의 기본 정서는 유년기의 순진함 그리고 이 순진함에 대한 향수다. 이는 영화

Asian Regionalism,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한정선, 2008. 9,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 한류와 협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사회」, 『동북아역사논총』 21호 참조.

와 드라마 모두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삽입되는 유년기에 찍은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년기의 사진이 만들어 내는 순진한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일반 일본인들은 국가와 군이 행한 전쟁 범죄로부터 결백하다는 증언을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각화된 순진함은 동시에 과거에 행했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현재를 살아가고 싶다는 오늘날 일본인의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저서>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 한중일 젊은이들의 갈등 읽기』, 삼인.

우에노 치즈코 저, 이선이 역, 1998,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赤松良子, 1977,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III』, 東京 : ドメス出版.

鹿野政直, 1992, 『戦前・「家」の思想』, 東京 : 創文社.

酒井直樹, 2007, 『日本/映像/米國 : 共感の共同體と帝國的國民主義』, 東京 : 青土社.

佐藤忠男 編, 2007, 『日本の映畫人 : 日本映畫の創造者たち』, 東京 : 日本アソシエーツ.

佐藤忠男, 1995, 『日本映畫史 2』, 東京 : 岩波書店.

福間良明, 2006, 『反戦のメデイア史』, 東京 : 世界思想史.

福間良明, 2007, 『殉國と反逆 : 特攻の語りの戦後史』, 東京 : 青弓社.

村上信彦, 1983, 『大正期の職業婦人』, 東京 : ドメス出版.

矢島翠, 1979, 『出會いの遠近法』, 東京 : 潮出版社.

吉田裕, 2005, 『日本人の戦争観 : 戦後史のなかの變容』, 東京 : 岩波書店.

若桑みどり, 2000, 『戦争がつくる女性像 : 第二次世界大戦下の日本女性動員の視覺的プロパガンダ』, 東京 : ちくま學藝文庫.

Anderson, Joseph L. and Richie, Donald eds., 1982, *The Japanese Film : Art and Indust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Althusser, Louis, 1970, *For Marx*, New York : Vintage Books.

Berger, John, 1977, *Ways of Seeing*, London : BBC and Penguin Books.

Bethke Elshtain, Jean, 1987, *Women and Wa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oks, Peter, 1976,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Buruma, Ian, 1984, *Behind the Mask : On Sexual Demons, Sacred Mothers, Transvestites, Gangsters, Drifters, and Other Japanese Cultural Heroes*, New York : Pantheon Books.

- Debord, Guy, 1995,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New York : Zone Books.
- Dower, John, 1999, *Embracing Defeat :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Inc.
- Igarashi, Yoshikuni, 2000, *Bodies of Memory : Narratives of War in Postwar Japanese Culture, 1945~1970*,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cDonald, Keiko I., 1983, *Cinema East : A Critical Study of Major Japanese Film*, London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Orr, James J., 2001, *The Victim as Hero : Ideologies of Peace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war Japa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ilberman, Kaja, 1992,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New York : Routledge.
- Standish, Isolde, 2000, *Myth and Masculinity in the Japanese Cinema : Towards a Political Reading of the 'Tragic Hero'*, London : Curzon Press.
- Virilio, Paul, 1984, *War and Cinema : The Logistics of Perception*, London : Verso).

〈논문〉

- 강태웅, 2006. 12, 「전시기 일본영화의 표현공간 : '어머니 이야기[母物]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51호.
- 한정선, 2008, 「상품화된 기억 : 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과 영화 <로렐라이>」, 『역사비평』 82(봄호).
- 한정선, 2008,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 한류와 혐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사회」, 『동북아역사논총』 21호.
- 龜山美知子, 1984, 「戦争と看護婦」, 『歴史評論』, 407.
- 増村保造, 藤井浩明 監修, 1999, 「日本映畫史」, 『映畫監督 増村保造の世界』, 東京 : ワイズ出版.
- 馬場公彦, 2004, 『'ビルマの豎琴'をめぐる戦後史』, 東京 : 法政大學出版局.
- 成田龍一, 小森陽一 外 編, 2002, 「戦争とジェンダー」, 『感情 記憶 戦争』, 東京 : 岩波書店.
- 四方田太彦, 四方田太彦, 「欲望と民主主義」, 齊藤綾子 編, 『映畫女優 若尾文子』, 東

- 京：みすず書房.
- 内藤壽子, 2005, 「戦争と看護：従軍看護婦の位相」, 早川紀代 編, 『軍國の女たち』, 東京：吉川弘文館.
- 齋藤綾子, 長谷正人, 中村秀之 編, 2006, 「失われフアルスを求めて：木下恵介の涙の三部作再考」, 『映畫の政治學』, 東京：青弓社.
- 晏妮, 2006, 「母である女, 父である女—戦争中の日本映畫における母親像」, 齋藤綾子 編, 『映畫と身體・性』, 東京：森和社.
- 岩本恵兒, 2007, 「日本映畫に見る家族のかたち」, 『家族の肖像：ホームドラマとメロドラマ』, 東京：森話社.
- ミツヨ マルシアーノ, 2007, 「戦後日本のメロドラマ：『日本の悲劇』と『二十四の瞳』」, 岩本恵兒 編, 『家族の肖像：ホームドラマとメロドラマ』, 東京：森話社.
- Freud, Sigmund, 1973, "Fetishism(1927),"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 The Hogarth Press.
- Hobsbawm, E. J., 1972, "The Social Function of the Past : Some Questions," *Past and Present*, No. 55 (May).
- Kelly, William W. and White, Merry I, 2006, "Students, Slackers, Singles, Seniors, and Strangers : Transforming a Family Nation," Katzenstein, Peter J. and Shiraishi, Takashi eds., *Beyond Japan : The Dynam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Nora, Pierre,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Representations* 26 (Spring).
- Rodd, Laurel Rasplica, "Yosano Akiko and the Taisho Debate over the 'New Woman'," Bernstein, Gail Lee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ABSTRACT]Designated Weepers of Postwar Japan : Women
Represented by Japanese Anti-War Films

Han, Jungsun

This essay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wa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the imaginary institution of gender and sexuality. For this purpose, it explores how women are visualized in the film medium by focusing on the film, *The 24 Eyes*. The film has been identified as a representative anti-war film in postwar Japan. First, the essay introduces the questions of gender, sexuality, and women's war responsibility in wartime and postwar Japan. Second, the essay examines the film, *The 24 Eyes*, directed by Kinoshita Keisuke, to identify the strategies and symbols that constructed women as 'designated weepers' of postwar Japan. Third, the essay probes changes and continuities in representing women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different versions of *The 24 Eyes*, re-made in the 1980s and the 2000s. In doing so, I argue that the 'anti-war' film of *The 24 Eyes* effectively objectified women as designated weepers in order to console the wounded masculinity of a defeated Japan. At the same time, the tears of women were the necessary condition for postwar Japan to re-imagine itself as a pacifist nation.

keywords

‘Anti-war’ movie, Gender, Sexuality, Designated Weeper, objective tragedy, Community of sensibility



전쟁과 타자

- 할리우드는 어떻게 일본을 재현하는가? -

이택광 | 경희대학교 영미문화전공 조교수

I. 머리말

전쟁은 타자를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전쟁의 폭력성은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전쟁으로 인해 초래한 외상(trauma)은 협소하게 본다면 임상심리학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집단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기도 하다.

● 마음의 상처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중요한 문화정치학적 범주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지적대로, “환상의 주체는 대타자가 입을 외상의 자리에 스스로 생산한 어떤 대상(object a)과 마주해 있다(김상환, 2002 : 167).” 여기에서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작은 타자(a)’를 의미한다. 대타자(Other)는 근본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다른 것’을 뜻하지만, 작은 타자(other)는 항상 자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반영적이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이 대상은 욕망의 대상이자 곧 원인이요, 상징계의 질서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그 질서의 논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정치

학적인 방식으로 영화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대처로 출몰한 다양한 욕망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일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라는 재현의 형식은 서사의 전략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시각효과에서 정체성 정치와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 형식은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그 형식을 발현시킨 사회역사적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연구에서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다. 따라서 영화라는 하나의 장르는 단순한 소비나 유희의 대상이라기보다, 개념적인 담론을 통해 드러낼 수 없는 감각의 측면, 다시 말해서 미학적인 매개를 통한 정치성과 역사적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차원들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작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타자성(ootherness)의 개념이다. 타자성의 의미는 이론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이 글에서 중요하게 근거하고자 하는 정신분석학적인 범주로서의 타자 또는 타자성은 일종의 대(大)타자의 작용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무의식(the unconscious)의 작동을 의미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은 대체로 미지의 장소이며 ‘다른 장면(*autre scene*)’을 의미한다(루디네스코, 2005 : 384). 이런 맥락에서 타자성은 ‘자기의식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타자 개념은 자기의식과 타자성의 변증법에 대해 일찍이 고찰한 헤겔(G.W.F. Hegel)의 논의에 크게 빛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현상학(*The Phenomenology of Spirit*)』에서 헤겔은 자기의식성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존재가 자기의식성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자체를 구성하는 타자성”이라고 주장했다(Hegel, 1977 : 111). 그렇다면 자기의식성은 어떻게 타자성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것일까? 타자성을 하나의 지각 대상으로 보았을 때, 감각적 확실성은 “자기의식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정적 성격’”을 갖는다(홍준기, 2007 : 116). 그러므로 “대상이 자기의식과 통일성을 이룰 때 진정한 자기의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대상과 의식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헤겔은 ‘욕구(*need*)’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은 정신분석학적인 욕망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자기의식과 타자성의 변증법

에서 정체성(identity)은 자아성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정성에 대항해서 만들어지는 내적 논리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타자성이라는 것은 자기-동일화(self-identification)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내부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발견하는 로망스적 서사전략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기도 하다.¹⁾ 이런 서사전략은 궁극적으로 외부의 적이 강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기 동일성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 영화장치들을 활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외부의 적을 강하게 보이도록 해서 내부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태평양전쟁을 다루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는 많다. 1943년에 만들어진 「에어 포스(Air Force)」나 「목적지 도쿄(Destination Tokyo)」 같은 선전영화들은 할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이런 선전영화의 특징은 일본인이거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 경멸에 중첩해, 일본이 미국의 영토를 침공한 '강한 적'이기 때문에 응징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클레이턴 콕스(Clayton R. Koppes)와 그레고리 블랙(Gregory D. Black)이 지적하듯이, 할리우드는 소극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쟁영화 제작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다(Koppes and Black, 1990 : vii).

이 글은 당시 할리우드 전쟁영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을 재현하고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시켰는지를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글은 이런 전쟁영화의 내적 형식들이 어떻게 현재의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바꾸면서 '장기 지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까닭은, 리처드 몰트비(Richard Maltby)의 주장처럼, "할리우드에서 …… 역사의 교훈

1)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Fredric Jameson,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 Cornell UP 참조. 제임슨에 따르면 로망스는 "현실적 모순에 대한 상상적 해결책"으로 "나의 적이 어떻게 악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대답"이다.

은 언제나 현재의 필요성에 맞춰 다듬어졌기” 때문이다(Maltby, 1995 : 317).

이런 관점에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과거의 이미지를 밝혀 보는 것은 지금 미국의 내면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 연구는 전쟁 중에 당대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전형적인 태평양전쟁 영화보다도 199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재성의 요구에 따라 과거를 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삼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어떻게 일본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 기술(description)의 문제와 그 왜곡의 방식을 해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재현은 왜곡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점은 특정한 입장이 어떻게 일정한 재현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이런 논리는 현실에 대한 무의식적 왜곡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위해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되고 있는 ‘역사극’에서 일본과 전쟁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전형적인 전쟁영화를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도 최근 스펙터클의 비중이 높아지고 역사에 대한 실증적 관점을 소거시키는 영화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해서 판타지의 작동방식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들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앞으로 살펴볼 영화들은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Snow Falling on Ceders)」, 「진주만(Pearl Harbor)」, 「아버지의 깃발(Flags of Our Father)」,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Letters from Iwo Jima)」로, 이를 통해 일본의 모습이 미국에게 어떻게 타자성의 범주로 포섭되고, 또한 이런 재현의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진실을 은폐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할리우드 역사영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선형적 역사인식을 통해 포착할 수 없는 비선형적이고 변증법적인 차원들을 드러내기 위해, 정신분석의 방법론을 텍스트 분석에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할리우드 영화의 서사전략에 내포되어 있는 욕망의 변증법을 규명하고, 이런

재현의 과정에 어떤 역사인식과 왜곡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유사 역사성의 재현 - 「진주만」

월트 디즈니사가 제작하고, 마이클 베이(Michael Bay) 감독이 만든 영화 「진주만」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던 당일에 무작위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눈에 보이는 항구의 동향을 물어본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본다면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장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자못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앨런 파커(Alan Parker) 감독의 「천국을 와서 보라(Come See the Paradise)」라는 영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영화에서 파커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마이클 패리스(Michael Paris)의 주장처럼, “1941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뒤에 할리우드는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구분의 최소화에 일조하는 영화들을 만들어 내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배제된 인종집단이 바로 미국 거주 일본인이었다(Paris, 2007 : 105). 패리스는 이런 배제가 상당히 ‘음모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타격은 미국에 물리적 충격만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조장했다. 이렇게 “미국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초래한 것은 해군과 공군에 대한 물질적 손해였다기보다,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Paris, 2007 : 106). 이런 정황을 통해 미국인은 일본인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로 인식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인식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의 표상으로 그려졌고, 이런 관점은 자본주의의 질서에 들어 오지 않는, 심지어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아시아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하고 있었다(Konzett, 2004 : 328).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전제 군주를 숭상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인종으로 아시아인을 묘사하는 것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한 일이고, 이런 현상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동양을 타자로 만드는 ‘오랜 선동’은 골드 러시로 인해 빚어진 경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흑인 소수집단을 억압했던 백인 다수집단의 전략이 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TenBroek, 1954 : 11). 처음에 이런 차별의식은 중국인에게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의 전형이라고 부를 만한 코드들이 형성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은 급기야 1882년 ‘중국인 배제법령(Chinese Exclusion Act)’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법령으로 인해 중국인의 거주는 차이나타운에 한정되었다.

중국인은 투표권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백인 다수집단의 불안과 적대감의 표출 대상으로 쉽게 호명당했다. 문제는 중국인의 배제를 통해 발생한 노동력의 공백이었는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고용주들은 일본정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벌였다(TenBroek, 1954 : 22). 일본인은 중국인이 떠난 자리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쏟아졌던 백인 다수집단의 편견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인은 중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쿨리(coolies)’나 ‘아시아틱(Asiatics)’ 또는 통칭해서 ‘몽고인(Mongolian)’이라고 불렸다(TenBroek, 1954 : 23).²⁾ 모두 피부색이나 지능을 근거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호칭들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편견은 아시아 전

체에 대한 폄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단순하게 백인집단의 부도덕성이나 반윤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암시하는 것처럼,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권력의 우위를 점하는 문제이다(Elvin, 2008 : 84). 말하자면, 식민지 개척 기간 동안 유럽이 직면했던 문제는 군사력의 우월성을 믿고 자행한 부정의한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편견은 백인 주류집단의 심성 문제라기보다 권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지적처럼, 다른 무엇도 아닌 “언어와 정치의 입법 구조가 당대적 권력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다(Elvin, 2008 : 7).³⁾ 불행하게도 이런 입법 구조를 벗어난 자리에서 아시아인들이 새로운 주체를 구성할 수 없다. 즉, 외부에 대한 상상을 통해 이런 구조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담론의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역사적 현재(the historical present)’에 대한 비판적 계보학을 통해 우리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보편화’하고 ‘합법화’하는 기제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영화, 그 중에서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재현되고 있는 일본인의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이 분석은 영화의 재현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담론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영화 「진주만」이 보여 주는 것은 앞서 논의한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의 편견이다. 진주만 습격 이후에 여론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잠재적인 제국의 스파이로 생각했고, 뿌리 깊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은 직접적 공격의 피해자였던 하와이에서 더욱 확고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풍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일본의 공격을 돕기 위해 통신망을 파괴하고 군 시설을 선제공격했다는 이야기였다.

2) 아시아티어나 쿨리 외에도 ‘노랭이(yellow)’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3) 이런 버틀러의 지적은 라캉과 푸코(Michel Foucault)의 주체이론에 대한 변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타자-권력은 주체의 조건이자 동시에 지배자이다.

1943년에 만들어진 「에어 포스」는 일본의 필리핀 침공을 다루고 있지만, 진주만의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을 보여 준다. 이런 이야기가 의도하는 것은 명백하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인을 일본인보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춘 존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은 비열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이를 통해 미국은 도덕적인 면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국가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정체성의 확보는 재현적인 것으로 권력을 전제한다. 일본인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판타지를 선취하기 위한 21세기적 로망스(Romance)가 흥미롭게도 「진주만」인 셈이다. 이데올로기의 생경함을 무마하기 위해 이 영화는 남녀 간의 ‘로맨스’를 삽입한다. 「진주만」에서 로망스라는 문제적 서사는 사랑과 타자의 담론으로 자신을 현신시킨다. 결론적으로 「진주만」은 겉으로 보기에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미국의 도덕적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에 개봉했던 「진주만」은 그 해 발생한 9·11테러로 인해 “두 번이나 국가적 심리에 주입”되었던 영화이다(White, 2002 : 97). 진주만 공습이라는 ‘역사적 과거’는 9·11테러로 인해 다시 현실의 충격으로 되살아났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진주만」은 전쟁과 타자에 대한 미국인의 심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출발부터 심각한 역사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답지 않다. 영화 개봉 뒤에 역사적 사실과 영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가 바로 「진주만」이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잠재운 결정적인 지원은 미국 해군으로부터 왔다(White, 2002 : 99). 미국 해군이 전투장면들의 사실성을 보증해 준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성보다 전투장면의 사실성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실감효과(reality effect)’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성을 사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런 특징은

4) 이 실감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택광, 2007, 「픽사, 미메시스, 그리고 유토피아주의 :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다양한 역사영화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경향을 초래한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이다. 이 영화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전쟁영화의 전통을 “특수효과, 독창적인 카메라 워크, 사실성과 감화력을 극대화하는 동작선”을 통해 전쟁영화의 전통을 새롭게 쓴 영화로 평가받는다(Burgoyne, 2008 : 51).

이런 영화들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전쟁영화와 달리 역사적 사실이나 고증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대체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특수효과와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실감효과를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역사를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부터 컴퓨터 그래픽의 사실성을 보증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기묘한 조합이 만들어 내는 재현은 그 대상이 비어 있는 일종의 유사 역사성(pseudo-historicity)을 발현시킨다.

한마디로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판타지적인 사실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현상은 영화 테크놀로지, 특히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찍기’라는 영화 고유의 특징을 ‘그리기’라는 새로운 특질로 바꾸어 놓은 매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현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왜곡은 할리우드 영화제작 시스템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내용의 논리가 형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진주만」과 같은 할리우드 역사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영화 「진주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 내부의 시선으로 일본인에 대한 재현과 인식을 성찰하는 영화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진주만」이 일본이라는 타자에 대한 소극적 시선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타자성을 활용한다면, 성찰적 영화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소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런 재현방식이 ‘전복적인 상상력’과 조우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방외자의 시선에 비친 타자 -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은 미학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백인과 일본인의 사랑을 직조해 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은 법과 주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법제도의 문제는 주체의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는 곧바로 권력과 지배의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 영화가 형식적이거나 ‘법정영화’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인 이주자들의 충성도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실제로는 일본인을 강제 소개시키기 위한 핑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전시에 일본인 이주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라는 명목으로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TenBroek, 1954 : 302).

이 영화는 일본인에 대한 백인의 편견을 비판하지만, 직접적인 진술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영화의 구조는 너무도 단순하고 오해를 만들어 낸 동기도 그렇게 단단하게 엮여 있지 않다. 영화는 도입부에서 백인들이 어떻게 특정 사건의 원인으로 아무 의심 없이 일본인을 지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비가 오는 야간에 어로작업을 나갔던 백인 어부 칼(Carl)의 죽음은 곧바로 일본인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한다. 이 과정은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직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고, 이는 곧바로 일본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관념으로 추인된다.



백인 어부의 죽음을 일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장면을 보여 주는 영화의 도입부는 마치 극장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 극장에서 주인공 이스마엘(Ishmael)은 이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이다. 이 영화를 시종일관 ‘관찰’하는 이스마엘은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딕(Moby-dick or, The Whale)』에 나오는 진술자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모비딕』과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은 각각 소설과 영화라는 매체 특성의 차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진술방식을 택한다. 이들은 ‘관찰자’이지만, 그 관찰의 방식이 영화의 경우에 더 직접적이다. 말하자면,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에서 이스마엘은 서사가 아니라 시각을 통해 백인의 인종주의를 지켜본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의 이스마엘은 소설의 이스마엘에 비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영화의 이스마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팔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저널리스트가 되지만 아버지의 명성에 값하지 못하는 나약한 아들이다. 팔을 잃은 이스마엘은 미국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를 상실한 존재처럼 보인다. 이것을 일종의 거세(castration)라고 본다면, 이로 인해 이스마엘은 남성성을 상실한 남성일 수 있다. 그러나 거세 문제를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징적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⁵⁾ 이스마엘은 나약한 남성이라기보다, 공동체의 밖에서 법의 이상 작동을 감시하는 법의 집행자로 드러나는 것이다. 영화에서 그는 고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영화 형식의 전개는 그가 궁극적으로 법을 체현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마엘은 지역 공동체의 바깥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스마엘은 일본인 이민자라는 소수자(minor)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그래서 이들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미국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그의 이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스

5) 라캉에게 거세는 욕망의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이상스(jouissance)’를 제거하는 행위이다. 이 제거를 통해 주체는 어떤 향유의 대상을 상실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다는 ‘결여(lack)’를 보유했다.

마엘이라는 이름은 ‘추방자(outcast)’ 또는 ‘방외자(outsider)’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스마엘의 존재는 서양문학 전통에서 면면히 묘사되어온 무리의 밖에서 무리의 타락을 꾸짖는 ‘광야의 예언자’라는 상징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⁶⁾ 따라서 이스마엘은 미국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소수자 일본인 이민자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소수자이지만 동일한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이들의 소수성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스마엘의 도움으로 카즈오(Kazuo)가 법정에서 누명을 벗게 되자 일본인 이민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이스마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장면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마엘이 미국 주류사회의 수치를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스마엘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암시이다. 이스마엘은 추방당한 존재이지만 양심도 없이 편견의 노예가 되어 일본인을 박해하는 미국인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민자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선한 존재인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이민자들이 법정에서 누명을

6) Merriam-Webster, 2002, "Ishmael,"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nabridged ; <http://unabridged.merriam-webster.com>(24 Aug. 2008).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방외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일본인 이민자들이 재판장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이 영화는 일본인 이민자들을 무의식적으로 미국사회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암시는 이스마엘이 이들 일본인 이민자를 돕는 이유가 과거의 사랑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스마엘의 옛사랑은 카즈오의 아내인 하츠에인데, 이스마엘은 아직도 하츠에에 대한 연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영화는 이스마엘의 사랑을 하츠에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인으로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의 편견을 지목하고 있다. 카즈오를 구해 줌으로써 이스마엘은 하츠에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토록 원하던 포옹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포옹의 의미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화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대적인 집단 간의 화해처럼 보인다. 물론 이 화해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도덕적 우월성을 전제하는 불평등한 조건 위에서 가능하다.

일본인 이민자와 일본에 대한 미국인의 편견을 비판하는 이런 방식의 논리 전개는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뿐만 아니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나 「아버지의 깃발」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와 「아버지의 깃발」에서 어떻게 양심적인 미국인의 시각이 일본인들을 재현하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 왜곡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반성의 시선과 타자 – 「아버지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진주만」과 같은 영화는 기존 전쟁영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혁신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전투장면은 ‘왕년의 전쟁’에 대한 향수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했다(Burgoyne, 2008 : 3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런 혁신적인 전쟁영화가 의존하는 스토리 라인이다. 이런 스펙터클한 영화들이 채택하는 서사는 선(善)과 악(惡), 적(敵)과 아(我)의 구분이 명확한 로망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문화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다음과 같이 로망스를 정의한다.

본래의 형식으로 보자면, 로망스는 현실적 모순에 대한 상상적 ‘해결책’ 또는 어떻게 나의 적이 악(말하자면, 나 자신과 달라서 절대적 차이로 표시되는)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하는 강압적 질문에 대한 상징적 대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대답은 그 인물의 행동이 나의 행동과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 그 악의 성격이 결정될 때 제기되는데, 이런 동일성 — 명예, 도전, 힘 겨루기의 지점들 — 은 거울 이미지처럼 그도 반영한다(Jameson, 1981 : 118).

전통적인 전쟁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진주만」은 선명하게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인은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영웅으로 그려지고, 일본군은 무지하고 야만적인 비열한 존재들로 묘사된다. 「천국을 와서 보라」와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이 보여 준 인종주의에 대한 ‘반성’의 관점은 「진주만」에서 자연스럽게 과거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진주만」에서 묘사하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이 훨씬 한국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라는 사실 말이다. 이런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인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의 이미지가 일제 식민시대에 형성된 ‘선형적 이미지’뿐만 아니

라 할리우드 영화에서 재현된 일본의 이미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할리우드 영화에 재현된 일본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인의 심리에 박혀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를 알아보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논리들을 반추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주만」에서 재현된 일본의 이미지는 최근 제작된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의 영화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영화는 미국인의 관점과 일본인의 관점을 각각 차용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 주는 독특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태평양전쟁 당시에 있었던 이오지마 전투를 현재 시각으로 다시 불러 낸 것이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종류의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쟁영화와 상당히 다른 효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영화는 확실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현재의 해석'이라는 그 기억에 대한 왜곡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기억의 왜곡 문제는 재현이라는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전쟁이라는 폭력성과 일본이라는 타자성에 대한 21세기 미국인의 내면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헤겔적 명제, 자기의식과 타자성의 변증법이라는 정신분석학적인 주제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두 영화는 이 지점에서 다큐멘터리의 형식성을 통해 은폐되어 있던 영화 본연의 욕망을 자기해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두 영화가 보여 주는 동일한 전투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타자성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진지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자. 「아버지의 깃발」은 양각촬영(low angle)을 사용해 일본군의 입장에서 미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반대로 부감촬영(high angle)을 사용해 궁지에 몰린 일본군의 모습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 나타나는 미군의 이미지이다. 「아버지의 깃발」은 시종일관 미군의 곁에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만, 「이오지



마에서 온 편지」는 다시 양각촬영을 통해 미군의 이미지를 위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의 깃발」이 미국인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가 일본군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설정은 흥미를 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깃발」이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모두에서 일본군은 '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깃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강인한 일본군 때문에 발생한 외상 문제가 아니라 나약한 일본군을 상대로 벌인 '쓸모없는 전쟁'에 대한 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전쟁 자체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은 구체적인 역사의 순간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전쟁'의 문제로 전환되어 버린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의 깃발」은 태평양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유명한 사진 한 장에 대한 기억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영화에서 전쟁은 마치 사진 한 장처럼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전쟁영화라기보다, 어떻게 미디어가 전쟁영웅을 만들고 미국사회가 그 이미지를 정치적 선전(propaganda)으로 활용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참전 병사들의 기억을 통해 재현되는 일본군의 이미지이다. 일본군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하는 전우를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불가해한 타자이다.

일본군은 공포의 대상이면서 또한 외상의 원인으로 영화에서 묘사된다. 또한 이런 일본군의 특징은 비열하고 열등한 존재이다. 물론 「아버지의 깃발」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자행한 행위들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반성은 철저하게 미국인, 그것도 백인의 내면으로 향하고 있을 뿐, 일본이나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영화에서 드러나는 관점이 「진주만」처럼 이에 찬성하는 영화에서 견지되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진주만」은 전쟁을 통해 어떻게 미국 내의 인종갈등이 봉합되고 '하나의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깃발」은 이런 영웅주의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진주만」과 다르지만, 두 영화 모두 일본을 통합과 반성을 위한 타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깃발」과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어떨까? 이

영화는 1996년 이오지마에서 발견된 편지 묶음을 통해 이야기를 회상조로 풀어나간다.

섬을 총괄하고 있던 사령관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애뜻한 편지의 휴머니즘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사령관을 비롯한 다양한 일본군 구성원들의 관점을 번갈아 오가며 구성된다. 또한 모든 대사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이 영화의 실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런 현실성은 이 영화에 내장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아버지의 깃발」과 마찬가지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도 미국 백인의 관점이 이야기 구조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영화에서도 사령관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일본의 엘리트로서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수행해야 할 전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령관은 미국인과 다른 내면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미국인의 시선에서 사령관은 전형적인 일본 무사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패배할 줄 알면서 그리고 그렇게 패배함으로써 조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극명하게 대립하는 ‘낯선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두 영화는 태평양전쟁을 다룬 과거의 전쟁영화와 크게 구분할 수 없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령관은 미국사회를 직접 보고 미국식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된 사람이지만,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일본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편지들은 결코 그의 패배와 소멸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편지들은 제국주의를 위해 제거되어야 했던 어떤 가치, 다시 말해서 사령관이 미국에 가서 배웠던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조건 때문에 실현시킬 수 없었던 개인의 불행에 연민을 보내게 만드는 매개라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할리우드 전쟁영화에서 재현되는 일본의 이미지는 상당히 평면적이고, 인습적인 편견 위에서 구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편견은 미국 백인사회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본의 이미지가 「삼나무 숲에 내리는 눈」이나 「천국을 와서 보라」는 영화에서 그려지는 '일본인 피해자'의 이미지와 충돌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모순된 욕망 때문이다. 엘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쩌면 전후 세계 경찰로서 자기도덕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Elvin, 2008 : 85), 전쟁과 인권에 대한 미국 내 정치세력들의 의견 대립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벗어나 본다면, 이런 충돌은 모종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8월의 광시곡」[八月の狂詩曲]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것이다. 「8월의 광시곡」에서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외상을 입은 원폭의 피해자로 그려진다. 이 영화에서 미국인 친척 클라크는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에게 상징적으로 사과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아키라의 영화가 잘 보여 주듯이, 할리우드 전쟁영화 역시 일본을 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피해자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일본을 아시아 일반으로 보고 이를 통합의 대상이라기보다 배제의 대상으로 보는 미국의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은 신비한 것이자 미지의 대상이다. 언제나 이와 같은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백인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이런 문제는 미국의 주류 백인사회를 도덕적 범주의 판단을 넘어서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의 구성은 항상 대타자에 대한 관계 설정을 통해

발생한다. 이 대타자를 손쉽게 적으로 표상하고 통합적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야말로 가장 편리하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다. 이런 과정에서 통일성에 저항하는 현실의 균열은 상상적 해결책을 통해 봉합되어 버린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영화들이 균질적인 방식으로 상상적 이미지를 구성해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화가 드러내는 진실의 함량들이 모두 정도차를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자의 재현방식은 다를지라도 메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일본이라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미국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더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버틀러의 말처럼 “재현 바깥은 없다 (Butler, 2006 : 7).” 재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왜곡의 추적은 사유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현재’는 끊임없이 권력관계와 담론구조에 간섭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영화에 등장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그 재현과정이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본보기이다.

참고문헌

〈저서〉

- 루디네스코, 엘리자베트, 강웅섭 외 역, 2005, 『정신분석대사전』, 백의.
- Burgoyne, Robert, 2008, *The Hollywood Historical Film*, Oxford : Blackwell.
- Butler, Judith, 2006, *Gender Trouble*, London : Routledge.
- Freud, Sigmund, 2004, *Mass Psychology and Other Writings*, Underwood, J. A., Trans. London : Penguin.
- Hegel, G.W.F, 1977, *The Phenomenology of Spirit*, Miller, A.V. Trans., Oxford : Oxford UP.
- Jameson, Fredric,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 Cornell UP.
- Koppes, Clayton R. and Black, Gregory D., 1990, *Hollywood Goes to War : How Politics, Profits, and Propaganda Shaped World War II Movies*, Berkeley : U of California P.
- Lacan, Jacques, 1991,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Harmondsworth : Penguin.
- Lacan, Jacques, 1992,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Porter, Dennis, Trans, New York : Norton.
- Lacan, Jacques, 1993,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I : The Psychoses 1955~1956*, New York : Norton.
- Lacan, Jacques, 2006, *Écrits*, Bruce Fink, Trans, New York : Norton.
- Maltby, Richard, 1995, *Hollywood Cinema : An Introduction*, Oxford : Blackwell.
- TenBroek, Jacobus, Barnhart, Edward N, and Matson, Floyd W. 1954, *Prejudice, War and the Constitution :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Evacuation of the Japanese Americans in World War II*, Berkeley, U of California P.

〈논문〉

- 김상환, 2002, 「라캉과 데카르트」,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
- 홍준기, 2007,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라캉 : 강박증 임상」, 『라캉과 현대정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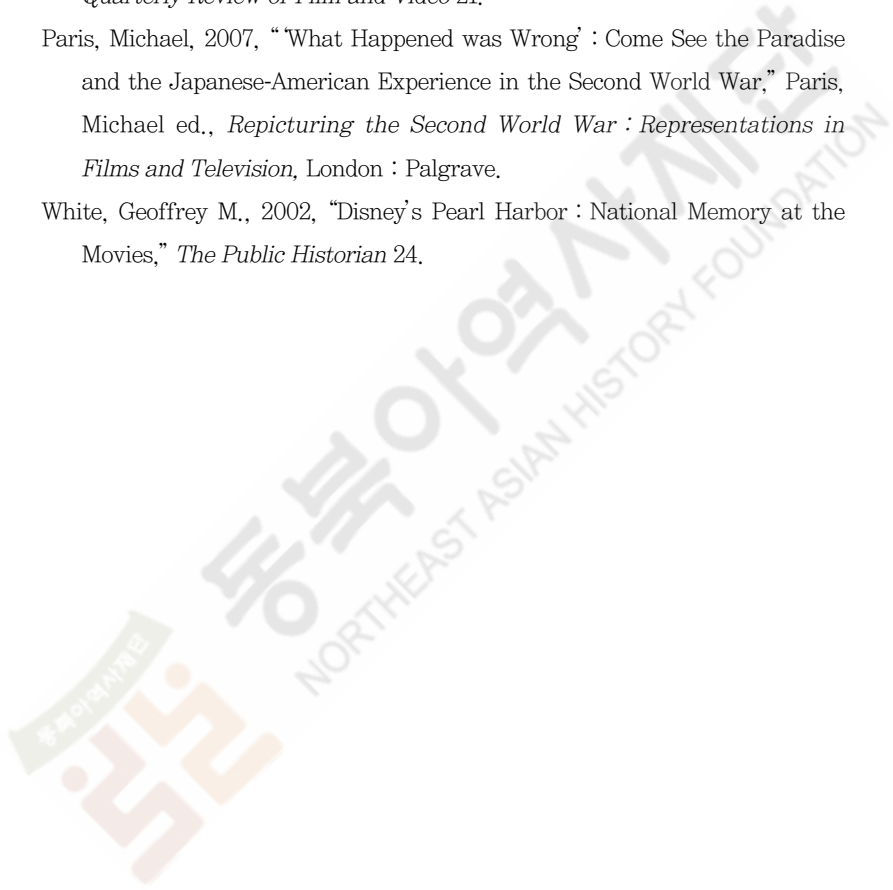
석』 9.2.

Elvin, Mark, 2008, "The Historian as Haruspex," *New Left Review* 52.

Konzett, Delia, 2004, "War and Orientalism in Hollywood Combat Film,"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21.

Paris, Michael, 2007, "What Happened was Wrong' : Come See the Paradise
and the Japanese-American Experience in the Second World War," Paris,
Michael ed., *Repicturing the Second World War : Representations in
Films and Television*, London : Palgrave.

White, Geoffrey M., 2002, "Disney's Pearl Harbor : National Memory at the
Movies," *The Public Historian* 24.



[ABSTRACT]

War and Otherness : How does Hollywood Represent
Japan?

Lee, Taekgwang

The aim of the essay is to analyze the way in which Hollywood war film represents the image of Japanese including Japan as the other. The representation always already stipulates the image of the other as an enemy. What I would like to argue is that such an operative way is firmly related to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power — I adapt the psychoanalytic and Foucault's theory revised by Judith Butler to explore the formality of Hollywood film ; the theoretical inquiry into the Hollywood imaginative solution for the split of subjectivity lies in to some extent the historical contexts of World War II, in particular, the war between Japan and United States. The investigation consists of two fold : first, i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presentational pursuit to establish the unity of identity ; secondly, it also has to dig into the hidden impetus behind a reflexive perspective imbued in the liberalist idea of Japanese. For this reason, the essay deals with *Pearl Harbour*, *Snow Falling on Ceders*, *Flags of Our Fathers*, *Letters from Iwo Jima*. In conclusion, the essay argues that the represented image of Japanese in Hollywood war movies is flat and conventional. More seriously, the image is used for compensating Japan's victimization of themselves.

keywords

Hollywood, representation, war film, psychoanalysis, subjectivity



논문

근대 계몽기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보호국론' 비교 연구

최덕수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 왜 '보호국론'을 비교하는가?

이 글은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보호조약)' 체결로 현실이 되었던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보호국 체제'를 당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皇城新聞』은 조약 체결 사흘 뒤 사설 「是日也放聲大哭」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는 “…… 저 개돼지만도 못한 우리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사사로운 영화를 바라고 …… 아 원통하고도 분하다.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여”라고 당시 지식인의 분노와 탄식을 토로했다. 이 글로 인하여 『皇城新聞』은 정부로부터 3개월의 정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복간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인 다음해 3월 당시 일본 국제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의 「보호국론」을 이틀(15일과 16일)에 걸쳐 사설로 게재했다. 이 사설은 아리가 나가오가 1개월 전 『外交時報』 99호에 발표했던 「保護國研究」를 번역하고 끝부분에 짧게 논평을 덧붙인 것이었다. 그런데 논평은 보호

조약 체결 당시 사설의 자세와 달리 “상하 국민에게 고하노니 마음을 바꾸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약 4개월 지난 시점에 발표되었던 사설에서는 보호국 체제라는 현실에 대해 미묘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보호국화 정책이 현실로 나타났던 시기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보호국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한국사 분야에서 종래 한국 지식인의 보호국 인식에 대해서는 김도형의 선구적인 연구¹⁾를 비롯하여, 박찬승, 김효전²⁾ 등의 연구가 있고, 일본에서도 다나가 신이치[田中愼一],³⁾ 운노 후쿠쥬[海野福壽],⁴⁾ 히라이시 나오키[平石直昭]⁵⁾ 등의 연구가 있다. 김도형은 ‘문명개화론자’의 현실인식을 제국주의 침략과 민중의 의병전쟁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었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인식을 주로 보호국 체제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근대주의적 입장에서 보호국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던 세력과 ‘민중경쟁적’ 입장에서 비판적인 세력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었다. 나아가 박찬승은 보호국화 보호 정치에 대한 인식을 각기 대한협회 계열, 황성신문 계열, 대한매일신보 계열, 청년학우회 계열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했다.

이와 같은 연구에 힘입어 대체로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 노선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입장에서 보호국에 관한 논의가

-
- 1) 金度亨, 1994, 『大韓帝國期の政治思想研究』, 知識産業社.
 - 2)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 3) 田中愼一, 1976, 「保護國問題—有賀長雄・立作太郎の保護國論爭」, 『社會科學研究』 28-2,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田中愼一, 1977,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1)」, 『社會科學研究』 29-3,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田中愼一, 1978,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2)」, 『社會科學研究』 30-2,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 4)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 5) 平石直昭, 2007, 「한국 보호국론의 諸様相에 대하여」,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Ⅱ, 아연출판부.

전개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보호국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연구는 각기 한국과 일본 국내에 한정하여 당시 보호국에 관한 인식과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보호국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 지식인의 보호국론을 비교·검토했다. 즉,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자국의 보호국 인식 형성과정을 밝힌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양국 지식인의 보호국을 비롯한 세계인식이 왜, 그리고 어떤 계기와 통로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당시 다양하게 전개된 양국의 사상 상황을 한 편의 글로 담을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제한된 시기와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II. 한국과 일본 '보호국론'의 기원과 변천(1894~1904)

일본정부 내에서 조선을 일본의 保護國化하려는 정치적 구상은 1880년대 전후부터 등장했다. 기존 연구⁶⁾들은 조선 보호국화 논의를 당시 參事院議官 兼 內閣書記官長이었던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나 外務大書記官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朝鮮中立化' 정책으로 설명했다.⁷⁾ 한편, 최근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는 이 시기 중립화 구상이 이노우에 코와시뿐만 아니라 조선에 주재했던 淸國, 일본, 나아가 구미 열강의 외교 실

6) 長谷川直子, 1994,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大澤博明, 1995, 「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1882~1884年」, 『熊本法學』 83; 朴熙琥, 1996, 「日本人이 提起한 1880년대의 韓國中立化論」, 『東國史學』 30.

7) 최근 국내에서는 이 시기 일본측의 중립화 구상이 실제로는 무력개입을 바탕으로 한 사실상 조선보호였다고 평가한 연구도 있다. 유바다, 2008, 「1883年 金玉均의 借款交渉과 淸·日의 朝鮮保護論」,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무자 사이에서 폭넓게 진행되었음 밝히고 있다, 특히 갑신정변 이후 조선보호론은 러시아의 남하와 프랑스의 동아시아 진출을 조선이 스스로 막아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열강의 공동보호 구상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⁸⁾

하지만 외교정책 차원에서 조선보호가 입안되고 검토되었던 것은 청일전쟁 발발 이후였다. 또한 일본인 학자 가운데 일본의 대외팽창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전시의 국제법이라든가 식민지 경영이 현실정치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것은 조선에서 청국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이었으며, 전후 타이완에 대한 식민 통치정책 수립과정이었다. 특히 보호국에 대한 논의는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 제국주의 열강의 관심이 집중되고,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진행되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승리를 발판삼아 조선의 개혁에 간섭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때의 시도는 조선의 '이집트化'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관 공여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두고 1905~1910년 한국에 실현된 보호국화의 준비작업으로, 그 후 가속화된 日本의 아시아 대륙 침략정책의 원형으로 주목한 연구가 등장하기도 했다.⁹⁾ 반면, 이와 같은 해석을 두고 일본의 의도와 결과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라며 비판하는 연구도 등장했다.¹⁰⁾ 그리고 이 연구는 당시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내에서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의도와는 달리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경우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이때 일본은 統監府와 같은 통치기구는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청일전쟁 후 삼국간섭으로 인하여 조선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난 뒤에도 러일전쟁 직전까지 끊임없이 차관, 이권을 매개로 조선보호국화를 시도했음을 밝힌 연구¹¹⁾도 있어 1894년 당시 일본의 조선보호국화 정책은

8) 岡本隆司, 2008, 『朝鮮保護の歸趨』, 『世界の中の日清韓關係史』, 講談社, 124~136쪽;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出版會.

9) 柳永益, 1990, 『甲午更張研究』, 一潮閣.

10) 왕현중,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1905년까지 이어지는 보호국화 작업의 원형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1905년 조선보호국화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보호국 논쟁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자는 다나카 신이치[田中愼一]이다. 그는 일련의 연구¹²⁾를 통해 보호국이 사실상 식민지 상태였다는 고전적 연구¹³⁾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1874~1943]와 같은 당시 국제법 학자들의 보호국 논쟁을 분석하여 보호국 논리가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는 데 작용했음을 밝혀 내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운노 후쿠슈[海野福壽],¹⁴⁾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¹⁵⁾도 보호국 논쟁을 분석했다. 큰 틀에서는 다나카 신이치의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특히 아리가 나가오의 논거를 중심으로 보호국이 지닌 이중적 특성에 주목했다. 즉, 보호국 체제가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완전한 독립국이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로 몰락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보호국 체제가 지니고 있는 유동성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이 후세 연구자가 보호국 논쟁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호국 체제가 완전한 독립까지도 바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1894년 청일전쟁 단계에서 대두된 보호국 정책의 침략성을 드러낸 연구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히라이시 나오아키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루어진 보호국 논의와 정책이 과연 조선독립을 위한 것인지 식민지화로 가는 길인지가 불분명해진다. 다만, 천지명은 보호국 정책의 '병합'으로의 전환에 주목¹⁶⁾하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호조약 체결 이후 1907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가시화된 일이었다. 즉, 보호조약을 전후로 한 시기의 보호국 논쟁은 여전히 유동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11)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2) 田中愼一, 1976, 앞의 글; 田中愼一, 1977, 앞의 글; 田中愼一, 1978, 앞의 글.

13) 山邊健太郎, 1966,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14) 海野福壽, 2000, 앞의 책.

15) 平石直昭, 2007, 앞의 글.

16) 천지명, 2007,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 인식」, 『역사와현실』 66.

이러한 혼란은 1905년 보호조약이 체결되던 바로 그 시점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나타났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제시하는 보호국이 과연 한국의 독립을 의미하는지, 식민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들 역시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그 혼란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즉,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과 같은 형태의 반응만 나타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문제의식 핵심이다.

계몽기 지식인들은 실제로 장지연같이 보호국 체제에 대하여 저항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고, 상당수는 친일 협력으로 간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보호국 체제를 두고 여전히 '독립'에 대한 기대를 품고 용인하다가 결국 '병합'까지도 수용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한국 지식인들의 보호국 논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보호조약을 전후로 한 시기 지식인들의 논의를 당시 신문, 잡지를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소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¹⁷⁾ 일본에서의 보호국 논쟁의 수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계몽기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대 세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한국인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의 수용과정은 번역, 번안 그리고 창작과정 등으로 나타난다. 1차로 이용하였던 번역과정은 새로운 사상의 발견과 발명과정이다. 새로 발견된 생각, 사상의 독자성은 번역 이전의 그것과 엄밀히 비교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자료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外交時報』를, 한국측 자료로는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 등 기타 계몽기 학회지 등을 주로 이용했다. 그 중 『外交時報』는 당시 일본국내에서 발행되었던 잡지 가운데 국외정세를 다룬 전문잡지로, 지식인과 일반인들의 대외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매체다. 그리고 이 시기 보호국 문제를 다룬 매체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

17)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백동현, 2008, 「대한협회 계열의 보호국 체제에 대한 인식과 정당정치론」, 『韓國思想史學』 30.

었다.¹⁸⁾ 잡지에 글을 썼던 필자들은 아리가 나가오, 다치 시쿠타로,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1861~1935],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 1870~1939] 등 당시 일본 내 국제법, 외교사 분야의 권위자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 잡지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로 당시 한국 국내의 신문과 학회지가 『外交時報』를 종종 인용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분석시기는 대체로 1904년부터 1907년까지를 다루었다. 시기를 위와 같이 한정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한일관계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잡지와 신문 등에 보호국 논의가 전면으로 등장한 것이 한일의정서(1904. 2) 체결 이후였으며, 1907년을 고비로 보호국 조선의 정치 현실이 그 전과 다른 차원에 들어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신고는 1904년 9월 20일 발행의 『外交時報』 82호에 「한국의 장래」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다. 나카무라 신고의 이 논설을 『皇城新聞』은 1904년 10월 1일 이를 게재했다. 『外交時報』 82호는 목차 다음 쪽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앨톤 브룩 파커(Alton Brook Parker)와 헨리 고소웨이 데이비스(Henry Gossoway Davis)의 초상을 게재하고, 기사로는 외교 관련 단신 기사 외에 「對韓經營의 序幕」, 「米國民政黨의 大會」, 「튀즈바덴의 萬國植民會議」 등을 게재했다. 논설로는 「韓國顧問官」, 「러일전쟁에 대한 印度人の 觀感」, 「日本移民論」, 「韓國의 將來」, 「滿洲善後策을 말함」, 「蒙古도 마침내 淸國의 것이 아닌가」를 실었다. 그리고 외교 공식문서로 「日韓協約」(목

18) 이 당시 『外交時報』에 실린 보호국 논설은 다음과 같다. 有賀長雄 譯, 1898, 「朝鮮に對する日本及露西亞の聯合保護」, 『外交時報』 4; 有賀長雄, 1904a, 「韓國保護權의 將來」, 『外交時報』 75; 有賀長雄, 1906a, 「保護國의 研究」, 『外交時報』 99; 有賀長雄, 1906b, 「日韓協約と強迫問題」, 『外交時報』 102; 有賀長雄, 1907, 「保護國의 類別論」, 『外交時報』 110; 戸水寛人, 1904a, 「埃及と朝鮮」, 『外交時報』 77; 有賀長雄, 1904b, 「英人の植民地」, 『外交時報』 81; 有賀長雄, 1904c, 「韓國顧問官」, 『外交時報』 82; 有賀長雄, 1904d, 「埃及と緬甸」, 『外交時報』 84; 有賀長雄, 1904e, 「對韓策의 進歩」, 『外交時報』 85; 有賀長雄, 1905a, 「チュニスと朝鮮」, 『外交時報』 89; 有賀長雄, 1905b, 「韓國의 經營」, 『外交時報』 97; 立作太郎, 1905, 「保護國論」, 『外交時報』 93; 有賀長雄, 1906a, 「有賀博士의 保護國論」, 『外交時報』 107; 宋宮春一郎, 1906, 「日韓保護條約締結의 顛末」, 『外交時報』 98; 中村進午, 1904, 「韓國의 將來」, 『外交時報』 82; 有賀長雄, 1905c, 「日韓協約을 讀む」, 『外交時報』 97.

차에는 일한의정서로 게재함), 外交私談으로는 「일러 第2回 外交關係」, 끝으로 잡보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관련 기사와 논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카무라 신고는 한국의 장래와 만주정책을 동시에 집필하고 있으며, 도미즈 히론도는 한국의 고문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나카무라의 한국의 장래에 대한 글이 당시 만주정책과 한국정책의 관련하에 게재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나카무라의 이 글은 일본에서 시보가 발간된 지 열흘 만에 『皇城新聞』에 거의 전문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당시의 출판 상황, 즉 東京에서 출간된 잡지가 서울로 전달되어 번역되고 소개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皇城新聞』은 출간 직후 이를 읽고 번역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皇城新聞』은 『外交時報』에 실린 나카무라의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日本外交時報 第八十二號에 法學博士 中村進午氏가 韓國의 將來라 題하고 論述함이 大概 如左하니 日韓議定書가 成立함이 或은 其性質에 迷하야 其運用이 何如함을 疑懼하난 者가 甚多함으로 當時 我輩가 一文을 岫하야 韓國이 一部主權國됨을 主張하고 併히 韓國外交를 日本의 保護下에 置함이 韓國을 爲하야 利益됨을 述하얏더니 又八月二十二日에 成立한 日韓協約을 據한則 日本이 推薦한 日本人 一名을 財務顧問으로 聘用하고 又日本이 推薦하난 外國人 一名을 外交顧問으로 聘用하난 事外에 又最히 重要한 如左一事가 有하니 日 韓國政府가 外國과 條約을 締結하거나 其他重要한 外交案件(卽外國人에 對하야 特權讓與 或 契約)等을 處理하난 事에 關하야난 預先 日本政府와 協議할 事라 하얏스니 曩日 日韓議定書로써 韓國이 我的 保護國됨을 置疑한 者라도 此協約을 見하면 必然 韓國이 我的 保護下에 一部 主權國됨을 認定할 것이니 法國과 安南의 關係가 此 協約과 類似하고 且 千八百八十四年의 美杜條約이 多히 此 協約과 類似한지라.¹⁹⁾

19) 『皇城新聞』, 「別報」, 1904년 10월 1일. 『皇城新聞』의 경우 『外交時報』의 원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中村進午, 1904, 앞의 글, 571~574쪽, “그러나 우리들의 의견에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오류가 된다고 지정하여 가르침을 주

위 부분은 나카무라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한일의정서 체결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제 재무와 외교 고문이 초빙되는 것을 보면 조선이 명확하게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한국이 일본의 '일부 주권국'이 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관계가 이와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계속하여 나카무라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大抵 我邦이 韓國을 我的 保護下에 置하는 趣意난 韓國의 文化를 補助하고 韓國의 利益을 增進하기 爲함이라 萬若 韓國으로 해야곰 新協約을 締結하던 以前狀態에 仍存케 하면 韓國의 內治外交가 皆 紊亂錯雜하여 其腐敗함이 極度에 達할 것이오 獨히 韓國의 獨立이 維持되지 못할 뿐 아니라 極東의 平和가 此로 由하여 攪亂될 터이기로 日本이 此를 憂하여 韓國을 保護함이라.

“韓國의 內治 外交가 모두 紊亂錯雜하여 그 腐敗함이 극도에 달할 것이오 홀로 韓國의 獨立이 維持되지 못할 뿐 아니라 極東의 平和가 이로 인하여 어지럽게 될 터이기로 日本이 이를 憂慮하여 韓國을 保護”한다는 주장은 이 시기 통감부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세계적으로 조선과 같이 보호국이 되었던 국가들의 사례를 4가지로 들고 있다.²⁰⁾

신 식자가 자못 많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다. …… 한국이 과연 이상의 여러 예에 해당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온전히 한국의 마음가짐 여하와手腕 여하에 있다[而して我輩의 意見의 足らざる을 補ひ又誤謬なりと 指定して 教を 垂れたる의 識者 頗ル多かりし ことを 多謝せずんば ならず. …… 韓國が 果して 以上の 諸例に 該當することを 得るに至る 或否やは 全く 韓國の 心掛如何と 手腕如何と 在り].”

20) 『皇城新聞』, 『別報』, 1904년 10월 1일, “古來他國의 保護下에 在히 國家中에 其勢力을 回復키야 保護的關係를 一掃한 者가 頗多하나 其二三前例를 摘記하건던 (一) 阿富汗斯坦은 元來 英國保護下에 在하다가 千八百七十九年에 獨立國이 되었는디 此例는 阿富汗斯坦이 獨力으로 保護를 免함이 아니오 俄國이 英國에 對抗하는 政策

논설은 결론부분에서 조선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한일협약의 실행을 위해 조선주재 외국공사관을 철수시키고, 아울러 해외에 나가 있는 조선의 외교공관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장래’라는 이 글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조선은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을 통해 명확히 주권의 일부(외교권)를 일본에게 위임한 보호국이므로, 당면한 과제는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1905년 ‘保護條約’ 체결 이전부터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근거로 이미 日本-韓國 간의 보호관계를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나카무라의 이 글은 청일전쟁 이래 한국을 일본의 세력권 밑에 두려는 일본정부와 재야세력의 공식적인 언급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朝鮮의 獨立支援’, ‘東洋의 平和’를 앞세우면서도 ‘保護’를 명분으로 한국에 영향권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皇城新聞』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嗚呼라 我韓이 自 太祖開國以來로 五百餘年을 雖藩服中國하야 受其誥命이나 歲時慶節에 行幣聘貢獻之禮而已오 至於內政外交하야난 無不自主而專行之하고 未嘗受一毫干涉之弊하니 是난 名雖屬邦이나 其實은 卽獨立自主之國이러니 往在開國五百三年에 因日淸戰役之結果하야 擺脫屬邦之名하고 確爲完全獨立之國하야 與世界列邦으로 互派使節하야 公認平等之權하니 國家之榮譽一於斯大矣라. …… 至于今日하야 獨立之名稱이 僅不過十許年而日本人이 公然以保護二字로 騰諸報章하야 佈諸國會하고 又非徒文字論議之間만 爲然이며 證之以近日行事컨던 內政外交之權을 靡不干涉하야 自主之權이 損失無餘하니 是난 名雖獨立

中 一策으로 英國으로써서 其保護를 免케 하얏고 (二)亞非時尼亞는 千八百八十九年 五月二十五日 우지아리條約을 因하야 伊太利의 保護國이 되얏더니 千八百九十六年에 伊太利에 對하야 動兵하고 千八百九十六年 十月 二十六日 아지스아베바 媾和條約을 因하야 伊國의 羈絆를 脫하야 獨立國이 되얏고 (三)婁美尼亞는 土耳其의 保護國이러니 千八百七十八年 伯林條約을 因하야 獨立國이 되얏고 (四)塞維比亞는 千四百五十四年 以來로 □國 或 七國의 保護國이러니 千八百七十八年 伯林條約을 因하야 獨立國이 된지라.”

이나 實與屬國一例오 保護國도 尙不應如此리니.²¹⁾

『皇城新聞』은 한국이 開國한 이래 500여 년 동안 중국의 屬邦이었으나 그것은 이름뿐이었고 실제로는 內政과 外交를 自主로 행사하던 獨立國이었으며 청일전쟁의 결과로 확실한 독립국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한국을 두고 일본이 '保護'라 칭하고 內政과 外交의 권리에 간섭하여 사실상 속국과 같이 만든 상황을 두고 분개하고 있었다. 즉, 『皇城新聞』도 이미 한일의정서 체결(1904년 2월)로 일본이 한국 보호국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해인 1905년 11월 20일에 게재하는 「是日也放聲大哭」²²⁾의 절박한 논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선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이때부터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계몽기의 대표적인 신문인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서는 나카무라가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을 근거로 일본의 한국 '보호'를 말하기 이전 한일의정서 체결(1904년 2월) 단계부터 그것의 정치적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고 비판적인 논설을 싣고 있었다.

又日爲日本之容易行動하야 與其十分便宜라 하고 又日軍略上 必要地 占을 隨意收用이라 하니 其日容易 日必要 日隨意等 句語가 果有何等 絶大之關係 而一一准施에 任其專斷하니 從茲以往으로난 彼之軍事上 行動이 無一均碍於我하야 要陋重地에 自意收用이라도 無辭而扞抗矣리 니 是난 名雖獨立이나 卽保護國之實例也라.²³⁾

이른바 '시정개선에 대한 일본의 충고', '일본의 용이한 행동을 위한 충분한 편의 제공',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수용' 등으로 압축되는 한일의

21) 『皇城新聞』, 「論說：又警告」, 1904년 10월 3일.

22) 國史編纂委員會, 1970, 『高宗時代史』 6, 1905년 11월 20일조, “何面目으로 強硬하신 皇上陛下를 更對하며 何面目으로 二千萬同胞를 更對하리오 嗚呼 痛矣며 嗚呼 憤矣라 我二千萬爲人奴隸之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檀箕以來 四千年 國民精神이 一夜之間에 猝然 滅亡而止乎아 痛哉 痛哉라 同胞아 同胞아.”

23) 『皇城新聞』, 「論說：論韓日協商條約」, 1904년 3월 1일.

정서의 내용을 ‘용이, 편의, 필요, 마음대로’라는 표현의 자의성을 근거로 비판하면서, 이 사항들이 사실상 ‘명분은 독립이나 곧 보호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大韓每日申報』도 한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5회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하기도 했다.²⁴⁾ 특히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공사가 외국인으로 고문관 임명할 일을 대황제 폐하의 알외에 윤택하옵시기를 청하였는디 일본사는 목하씨는 탁지고문관으로 고빙하여 세입 지정을 관할하게 하며 미국인으로 외부고문관 임명할 일인디 만일 이 두 사람 고용하는 거시 사무에 연속하고 학식이 유여하면 가히 나라에 유조할 듯하도다. …… 지금에 한국 권리가 점점 쇠하여 가는 거슨 일본서 한국 강토와 독립자주를 보증한다고 약조를 성립한 후 조국의 보호하는 권리를 이 나라에 행하여 마음대로 하여 한 일어든지 방하지 지휘하며 한국을 관할하여 무슨 일이던지 의향대로 행하논디, 쳇지 장삼씨의 항무지 기간 소견 제출함은 한국 토지를 장중에 너으라 흠이 분명한지라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실로 반디함이 아니라 일본도 한 나라 인즉 아모조록 호의를 두며 극진이 공경할 터이로되 …… 우리도 이런 사람과 같이 일본서 한국에 디하여 불법으로 행하는 일이 잇기에 열심으로 론박하여 반디함이니 …… 우리는 실로 일본을 반디하여 소요하게 흠이 아니요 우리 신문에 진술한 바와 갓치 일본 외교관의 수단이 한국에 디하여 소망하니 버딤 대단이 어그러진 고로 아모조록 씨다라 함당이 녀이도록 하려하여 이러함이로다.²⁵⁾

이 당시 『大韓每日申報』는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하여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시정개선’ 및 ‘고문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보호’에 대한 『大韓每日申報』의 입장은 일본이 한국에서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일본에 호의를 가지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즉, 보호 자체에

24) 『大韓每日申報』, 「논설 : 한국에 일본위력이라」, 1904년 9월 2, 3, 5, 6, 7일.

25) 『大韓每日申報』, 「논설 : 한국에 일본위력이라」, 1904년 9월 6, 7일.

대해서는 큰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가운데 현실을 인정하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만은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호국 체제에 대한 『大韓每日申報』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영국의 이집트 보호에 대한 다음의 논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급은 원리 지정에 규모가 업서 극빈한 고로 영국에서 세무사와 갖치 세입 세출과 각항 국용에 제반 규측을 시로 편성하야 감독 주찰케 하여 인도국과 갖치 부국이 된 거시 영국서 감독한 일은 모도 그 나라에 유조하야 지보가 되게 하리라. …… 일본서는 기전한 이후에 한국에 유조함은 고사하고 군용경비 드는 거슬 한국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는 일이 분명한 거시 …… 제반 스업상 이익을 조그 슈중에 너어 광산과 어업을 차지하고도 유위보족하야 황무기간이라 칭하고 한국 농업까지 취하야 …… 그와영 영국서 이급을 취하야 그 나라에 아모소록 기명 진보가 되게 하야 빅성들로 하여금 광대한 이익이 만허스되 즉금 일본으로서 한국에 진보되게 한다는 거슨 다만 조그나라에만 유조하게 함이 분명한 듯 하도다.²⁶⁾

여기서 『大韓每日申報』는 영국의 이집트 보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피보호국에 '진보'됨이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였다. 다만, 이 신문은 일본의 경우는 영국과 다르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는 일본에 이익이 될 뿐 조선에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서술했다. 즉,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는 비판했으나, 제국주의 열강의 '보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피보호국의 '진보'를 담보할 수 있다면 보호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는 한국의 '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大韓每日申報』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은 같은 시기 『皇城新聞』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外交時報』 89호에 실린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의 「튀니스와

26) 『大韓每日申報』, 「논설 : 영국과 일본에 비교할이라」, 1904년 9월 14일.

조선에 대한 『皇城新聞』의 보도²⁷⁾ 등이 그러하다. 『皇城新聞』은 도미즈가 일본의 조선보호국 기도를 프랑스의 튀니지에 대한 보호와 비교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했다.²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皇城新聞』의 비판은 한국인에 대한 愚民觀과 무단적 탄압정책에 대한 비판이 핵심인데, 이와 같은 비판은 일본 내 보호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보호국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같은 글에서 “지금 戶水 씨는 그렇지 않아 기왕 아라사를 정벌하는 宣詔文과 한일의정서의 주지를 위반하여 돌연히 한국을 병탄하는 논의를 선포하여 말에 거리낌이 없고”라고 서술함으로써 앞의 비판과 모순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皇城新聞』의 보도는 한국을 프랑스의 보호하에 있는 아프리카의 튀니지와 비교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조선 지배를 목표로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일본정부의 선전포고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조선의 자주와 독립’ 나아가 ‘동양의 평화’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Ⅲ. ‘보호조약’ 체결과 보호국 인식의 변화(1905~1907)

한일의정서 체결로부터 ‘보호조약’ 이후 일본 내 한국 보호국화에 관한 논의를

27) 『皇城新聞』, 「別報」, 1905년 4월 21일. 이때 도미즈 히론도는 당시 프랑스가 튀니지에 행하고 있었던 보호 역시 관용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에 더욱 내정을 간섭하여 중국에는 사실상 병합(식민지)해 일본인의 한국 이민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平石直昭, 2007, 앞의 글, 320~321쪽.

28) 『皇城新聞』, 「辨外交時報倭니스國之論」, 1905년 4월 22일. 『皇城新聞』의 戶水寬人에 대한 비판은 “戶水씨의 안중에는 우리 한국의 국가가 없고 우리 한국의 인민을 모두 야만 土氓으로 인식하여 핍박의 수단과 몽둥이의 기구로써 이를 다스리며”에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개관할 때 일본 내에서 진행되었던 한국보호국론의 전개 양상은 크게 한국보호국화 정책의 모델로 이집트 모델, 튀니지 모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²⁹⁾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는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의 튀니지 모델론³⁰⁾에 반대하여, 한국 황제는 존속시킨 채로 일본 총독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양쪽에서 일본 관리가 통치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보호국론에서 나아가 실질적 병합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미즈 히론도의 대한정책에서 보이는 주요한 특징은 조선 인민을 통치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조선의 문명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와 관련하여 저항에는 무력으로 진압하면 그만이라는 무단정치에 대한 의존이 있었다.

이에 반해 아리가 나가오는 지구상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보호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국에 대한 상세한 사실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국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아리가 나가오는 조선을 제2종 보호국으로 분류하고, 제2종 보호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약하면 제2종 보호국은 천차만별, 제1종 보호국과 다른 점은 제1종 보호국이 사실에 있어서 외교 방침은 다소 속박을 받지만 법률적으로 주권을 전유하고 또 이것을 스스로 행사하는 데 반하여, 제2종 보호국은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능력을 결하고 또는 그 능력을 갖더라도 강국을 두려워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강국이 피보호국을 대신하여 주권의 일부를 행사한다.³¹⁾

29)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에 대한 소개를 통해 보호조약 체결 전후 일본의 조선보호국론의 개략은 平石直昭, 2007, 앞의 글을 참조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앞장에서 언급한 도미즈 히론도는 위의 두 모델이 보호국에 한 직접적인 영토 지배 및 이민, 농업경영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모델의 적용을 비판하고, 대신 이른바 미얀마 모델이라는 제3의 선택지(영토화론)를 제시했다.

30) 아리가 나가오는 프랑스의 튀니지에 대한 외교권 장악 방법을 언급하면서 1904년 3월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이미 튀니지 등을 모델로 한 보호국 구상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 有賀長雄, 1906b, 『保護國論』, 早稻田大學出版部, 159쪽. 아리가 나가오는 그의 이와 같은 보호국론을 정리하여 1906년 9월 早稻田大學 출판부에서 『保護國論』으로

제2종 보호국은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국이 문명국으로서의 의무를 위해 조약을 통해 피보호국의 동의를 얻어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고, 특히 대외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리가 다가오는 보호국론에 보이는 주요한 특징은 열강이 피보호국과 맺어 온 보호관계가 무척 '다양'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히 간섭을 심화시키는 방향과 반대로 피보호국을 다시 독립시키는 상반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일관계도 그러한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도미즈 히론도가 조선의 장래를 궁극적으로는 식민지로 병합하는 주장이었던 데 반하여, 아리가 다가오는 보호관계를 병합과 독립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보호관계를 설정할 때 필요한 여러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의 근대화의 노력과 독립 유지 능력의 발달에 따라 재독립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³²⁾

'保護條約'에 대한 강한 비판을 「是日也放聲大哭」을 통해 쏟아냈다가 정간되었던 『皇城新聞』이 복간된 뒤 소개한 아리가 다가오는 보호국론에 관한 사설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³³⁾ 『皇城新聞』은 1906년 3월 15일

간행했다. 『보호국론』은 크게 보호국사실편(4장)과 보호국법리편(11장)과 부록(보호조약집) 등으로 구성된 475쪽에 달한다. 이 책의 총론에서 아리가 다가오는 보호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을 따라 보호국을 4종으로 분류했다. 요약하면, 제1종은 약소국이기에 때문에 타국의 보호를 받으나 세력균형이라는 조건 때문에 독립은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고(모나코 등), 제2종은 보호국이 피보호국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형태이며, 제3종은 원주민의 반항이나 외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옛 군주를 그대로 두나 실제로는 속국이 지나지 않는 타입이다(인도 토후국 등). 제4종은 장래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열강이 지도상에 설정한 보호령으로 처음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32) 平石直昭, 2007, 앞의 글, 323~339쪽.

33) 이를테면 『皇城新聞』은 아리가 다가오는 『保護國論』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었다. 『皇城新聞』, 「保護國研究論」, 1906년 3월 13일, “日本 法學博士 有賀長雄氏가 外交時報에 保護國의 研究라 題하야 論述호를 概據호 則 …… 又同一호 國이 終始同一호 狀態를 維持호는 者가 少호야 其保護者된 國에 對호 關係가 時時變遷호니 假令 安南 及 杼尼스는 愈益 法國의 干涉을 受호라 호고 曾時英國의 保護國되얏던 杜國 及 伊國의 保護國이 되얏던 아비시니아는 今에 名實이 皆完全호 獨立國을 成호지라.”

에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日本法學博士 有賀長雄氏가對我韓問題하야 有保護國研究論一篇하니 保護之名이 雖吾輩之深耻者나 …… 今其論에 有日 其保護者國에 對하야 關係가 時時變遷故로 將來韓國之如何變遷함을 不可不 准究한다 하얏고 又引安南부니스等 諸國事例하야 以爲證考하얏스니 蓋變遷二字가 卽全篇之主脈也라 …… 然則不出幾年에 將變遷而爲獨立國矣리니 …… 記者는 對此保護國研究之論하야 不勝感發於中故로 所以提告於上下國民 而望其改心易慮也하노라.³⁴⁾

『皇城新聞』이 보호국에 관한 일련의 사설을 통해 시종일관 강조한 것은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이라는 점이었다. 보호국 체제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보호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염려를 바꾸기를 바라노라”고 권고했다. 보호조약 체결에 대한 개탄과 전면적인 비판을 견지했던 「是日也放聲大哭」과 비교해 보면 현실인식에 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皇城新聞』을 통해 소개되었던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은 이후 국내 계몽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잡지와 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金志倪이 『太極學報』에 소개한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이었다. 이 글은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의 서장 부분을 충실히 번역한 것이었다.

한편, 계몽기 국내 지식인 가운데 정치사상 분야의 대표적인 논객이었던 金成喜는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34) 『皇城新聞』, 1906년 3월 15일.

35) 金成喜, 1908. 11. 25, 「論外交上經驗的歷史」, 『大韓協會會報』 8. 피보호국도 제3국에 대해서는 독립국이지만 能保護國에 대해서는 독립국이 아니라는 아리가 나가오의 의견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품고 있었다. “總之컨디 保護國之關係는 雖各不同하는 旣認獨立則獨立은 一也어늘 學者輩每欲苦心分別하야 對於愛禾利之被英保護에 克約伯路氏는 指爲半主權國하고 資威氏는 稱爲獨立國하며 對於突尼斯之被法保護에 普列樵華鐵氏는 稱爲獨立國하고 其他 學者는 或謂半主權國或

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희가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피보호국도 完全自由獨立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夫 此四種은 專爲外觀上勢力強弱而區別者오 非爲民族의 國家之國民主義而論者也라. 何也오 保護之下에 亦有自由獨立完全獨立호니 其 例는 一八一五年 英俄奧普聯合條約에 愛禾尼亞諸島를 實於英國直接保護下 而其所頒憲法에 明記其自由獨立호고 一八四七年에 法國이 與塔喜齊條約에 亦直接保護者而其所頒憲法에 明記其自由獨立호고 一八六三年에 又與突尼斯로 爲保護條約而其所頒憲法에 明記其獨立君主國호고 一八八八年에 英國이 與塞拉瓦克, 普爾納으로 爲保護條約而其所頒憲法에 明記其自由獨立호니 如此之例는 不遑枚舉也로다.³⁶⁾

한국이 비록 보호국이 되었어도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그가 비록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 구분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였지만, 보호국이 언제든지 실력만 갖추면 독립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과 동일한 입장이었다. 즉, 보호를 받더라도 독립국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김성희의 인식은 사실상 아리가 나가오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호국 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인식은 보호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지식인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被保護國 此란 國家主權이 不完全호야 對外主權의 行使를 條約에 依호야 他國에 讓與호거나 又는 制限호 바 | 되야 其 國의 保護에 依호야 國家의 成立을 保維호는 者 | 니 蓋 其 保護國 及 被保護國의 關係는 專主히 條約의 規定如何를 因호야 一定호 範圍以內에서 制限을 受호는 바 |

謂殖民地호며 英人 菲利姆羅氏는 以爲保護國이 猶有獨立之資格이라 호고 日本 有賀長雄氏는 特準民法上 保佐人後見人之理호야 以爲第三種保護國은 對於第三國에는 爲獨立國이나 對於能保護國에는 不能爲獨立國이라 호니 諸說之紛拏에 不惟其莫衷一是라. 有賀氏之說은 尤爲大不倫矣로다.”

36) 金成喜, 1908. 11. 25, 위의 글.

니 或은 被保護國의 對外主權 一部만 保護國에서 行使하는 者 | 有하며 或은 被保護國의 內政도 干涉하는 保護國이 不無하나 然이나 保護國과 被保護國의 關係난 元來 服從的 關係가 有해야 保護國의 一部를 成하는 者 | 아니라 故로 保護國의 行使하는 者 對外主權은 其 自國을 爲함과 被保護國을 爲하는 等 二種의 關係가 有함시오 決코 同一한 對外主權의 行使로 混視함이 不可한 바 | 라. 因하여 保護國이 縱令外國과 戰爭을 開始하는 境遇에 在하여도 被保護國은 當然히 中立國의 地位를 保守함을 得하는 바오 保護國과 同一한 地位에 處하는 者 | 아니니 此는 保護國과 被保護國이 各各 別立한 國家로 從出하는 바로 또한 國際法上 被保護國이 保護國의 屬國되지 못함을 證明한 바 | 니 此에 對하여 自來의 實例가 不尠하나 茲에 省略하노라.³⁷⁾

피보호국이 비록 능보호국에 대하여 국가주권이 불안전하고 내정을 간섭당하나 결코 屬國은 아니라는 어느 한 法律讀書人의 글에서 보호국 체제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비록 일본의 보호를 받더라도 독립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당시 한국 지식인들은 보호국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그러한 희망과 달리 현실은 대한제국의 완전한 해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IV. 맺음말 - '보호'에서 '독립'으로의 기대

이 글은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보호조약)' 체결로 현실이 되었던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보호국 체제'를 당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당시 한국과 일본 내에서 전개되었던 보호국 논의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

37) 法律讀書人, 1909. 5. 25, 「主權國의 種類」, 『大同學會月報』 16.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그간 일본과 한국에서 ‘보호국’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모든 연구가 일본 측 연구는 일본의 국제법 이론가들의 논의를 분석하는 데 한정되었던 것처럼, 한국 측 연구 또한 한국 측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논리를 찾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었다.

즉, ‘보호국’이라는 주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사적으로도 초미의 정치적 현상이었고, 일국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각기 국내의 상황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 글은 1차적으로 당시 양국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양측의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공간적으로는 양국 지식인의 논의의 상관성과 차이점에, 시기적으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논의의 변화 양상에 주목했다.

비교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그리고 현실정치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이른바 보호국 체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보호국화 정책도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호국 체제’에 대한 이론과 주장도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국내 국제법학자들의 보호국론을 전체적인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단히 다양한 입장에서 일본 내 보호국 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한정된 시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양국의 보호국 논의는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관련 사실과 정보를 전달 수 용함으로써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보호론’이 초보적 형태로나마 등장했던 시기는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서 청국과 일본의 세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구 열강이 조선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1880년대 전반부터였다. 구체적으로는 임오군란에서 갑신정변에 이르는 시기 청국과 일본의 정치지도자 사이에서 나타났다.

일본이 조선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가 구체적인 외교정책과 연관을 갖고 등장했던 시기는 역시 청일전쟁 단계부터였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대한정책의 기초를 '조선보호국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청일전쟁 시기 조선보호국화 정책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과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의 유무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끝으로 일본 내에서 조선에 대한 보호국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동아시아 전역이 열강의 세력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던 시기와 일치했다. 곧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 의한 조선보호국 편입 기도가 현실로 드러나던 시기였다. 당시 양국 지식인이 보호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을 거치면서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상황과 그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정책에 대해 이전 시기와 달리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 글의 주자료로 사용했던 『外交時報』,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 주는 매체라 할 수 있다. 위의 잡지와 신문들에 실린 외교 관련 기사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로 다루고 있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이전과 달리 방대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보호국 논의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보호국 확대 사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보도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일본 측 자료로 주로 사용했던 『外交時報』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당시 일본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법 학자였던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 나가무라 신고[中村進午] 등은 각기 다양한 입장에서 보호국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등장한 보호국의 전형적인 모델이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통치와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통치 등이었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었던 신문과 잡지에서도 신속하게 그 내용이 소개되었고, 이 내용을 둘러싸고 논평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국 내에 소개되었던 일본의 보호국론을 일본 국내의 보호국 논쟁의 전개과정과 비교해 보면 특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위의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특히 국내의 신문과 잡지에 가장 크게 인용되었던 인물이 아리가 나가오였다. 국내 신문과 잡지의 편집자들이 그의 보호국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그의 보호국론이 다른 이론가들과 달리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현실정치에서의 관계가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시기에 따라 '보호하는 국가'와 '보호를 받는 국가' 사이의 관계가 '보호를 받는 국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성과에 의해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 점에 있었다. 즉, 비록 '능보호국'에 의해 지금은 '피보호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개혁 여부에 따라 관계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 한국 내 지식인들이 주목하게 되면, 그 결과는 현실로 나타난 보호국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의 내면적 약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민지라는 현실에 대한 저항과 비판도 무디게 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통감부의 조선 지배정책에 주요한 전환기였던 1907년 정미조약 이전을 주로 다루었다. 앞으로 시간적으로는 정미조약 이후 조선의 통치체제가 해체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기 전후까지, 공간적으로도 동시기 조선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이집트, 베트남 등에 대한 보호국론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구상과 자치론을 비롯한 조선인의 현실인식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보호국' 관련 일본 측 주요 자료 목록〉

- 有賀長雄, 1896, 『日清戰役國際法論』, 陸軍大學.
- 有賀長雄, 1906, 『保護國論』, 早稻田大學出版部.
- 有賀長雄, 1906, 『戰時國際公法』, 早稻田大學出版部.
- 有賀長雄 譯, 1898, 「朝鮮に對する日本及露西亞の聯合保護」, 『外交時報』 4.
- 有賀長雄, 1904, 「韓國保護權の將來」, 『外交時報』 75.
- 有賀長雄, 1906, 「保護國の研究」, 『外交時報』 99.
- 有賀長雄, 1906, 「日韓協約と強迫問題」, 『外交時報』 102.
- 有賀長雄, 1906, 「保護國論を著したる理由」, 『國際法雜誌』 5-2.
- 有賀長雄, 1907, 「保護國の類別論」, 『外交時報』 110.
- 有賀長雄, 1908, 「日露開戰初に於ける韓國の法律上の地位」, 『國際法雜誌』 7-3.
- 竹越三叉, 1906, 『比較植民制度』, 讀賣新聞社.
- 竹越三叉, 1904, 「朝鮮における半上落下の政策」, 『太陽』 10-14.
- 竹越三叉, 1905, 「妹方力勝國力」, 『讀賣新聞』, 1905년 11월 24일.
- 竹越三叉, 1905, 「植民教育起こすべし」, 『教育時論』 741.
- 竹越三叉, 1906, 「如何にして妹方を治めん乎」, 『太陽』 12-1.
- 竹越三叉, 1906, 「韓人教育に就ての謬見」, 『教育時論』 746.
- 戸水寛人, 1904, 「埃及と朝鮮」, 『外交時報』 77.
- 戸水寛人, 1904, 「英人の植民地」, 『外交時報』 81.
- 戸水寛人, 1904, 「韓國顧問官」, 『外交時報』 82.
- 戸水寛人, 1904, 「朝鮮の處分」, 『國際法雜誌』 3-1.
- 戸水寛人, 1904, 「埃及と緬甸」, 『外交時報』 84.
- 戸水寛人, 1904, 「對韓策の進歩」, 『外交時報』 85.
- 戸水寛人, 1905, 「チュニスと朝鮮」, 『外交時報』 89.
- 戸水寛人, 1905, 「滿韓政策」, 『東京經濟雜誌』 1309.
- 戸水寛人, 1905, 「日韓新協約」, 『報知新聞』, 1905년 11월 25일.
- 戸水寛人, 1905, 「韓國の經營」, 『外交時報』 97.

- 戸水寛人, 1905, 「韓國の處分」, 『中央公論』 20-12.
- 立作太郎, 1930, 『平時國際法論』, 日本評論社.
- 立作太郎, 1905, 「保護國論」, 『外交時報』 93.
- 立作太郎, 1906, 「有賀博士の保護國論」, 『外交時報』 107.
- 立作太郎, 1906, 「保護國の類別論」, 『國際法雜誌』 5-4.
- 立作太郎, 1907, 「保護國論に關して有賀博士に答ふ」, 『國際法雜誌』 5-6.
- 立作太郎, 1907, 「日韓協約及韓國經營」, 『太陽』 13-12.
- 高橋作衛, 1907, 『平時國際法論』, 日本大學.
- 高橋作衛, 1904, 「朝鮮國中立の價値」, 『國際法雜誌』 2-5.
- 高橋作衛, 1904, 「朝鮮の地位に關する英國學者の意見」, 『國際法雜誌』 3-1.
- 宋宮春一郎, 1905, 『最近の韓國』, 早稻田大學出版部.
- 宋宮春一郎, 1906, 「日韓保護條約締結の顛末」, 『外交時報』 98.
- 秋山雅之介, 1908, 『國際公法：平時』, 法政大學.
- 中村進午, 1904, 「韓國の將來」, 『外交時報』 82.
- 中村進午, 1905, 「日韓協約を讀む」, 『外交時報』 97.

〈'보호국' 관련 한국 측 주요 자료 목록〉

『皇城新聞』

- 「論韓日協商條約」, 1904년 3월 1일.
- 「別報」, 1904년 10월 1일.
- 「別報」, 1905년 4월 21일.
- 「辨外交時報주니스國之論」, 1905년 4월 22일.
- 「保護國研究論」, 1906년 3월 13일.
- 「論保護國研究問題」, 1906년 3월 15일.
- 「又一警告政府」, 1906년 3월 24일.
- 「術安南近事大略」, 1906년 5월 3~4일.
- 「哀安南」, 1906년 5월 5일.

『大韓每日申報』

- 「한국에 일본위력이라」, 1904년 9월 2~7일.
- 「영국과 일본에 비교홀이라」, 1904년 9월 14일.
- 「時局情形」, 1905년 8월 23일.

- 「平和談辨」, 1905년 8월 24일.
 「警論」, 1905년 9월 16일.
 「韓國位地」, 1905년 9월 17일.
 「漢城通信」, 1905년 9월 26일.
 「請議保護」, 1905년 9월 30일.
 「保護權之實質」, 1905년 10월 18일.
 「論保護國性質」, 1905년 10월 25~27일.
 「保護提議」, 1905년 11월 18일.
 「保護」, 1906년 2월 28일.
 「保護韓國者日本」, 1906년 7월 11일.
 「日本行爲에 對한 國際法解釋」, 1906년 11월 1일.
 「韓國事」, 1907년 1월 8일.
 「雜報」, 1907년 1월 16일.
 「스토리氏受書」, 1907년 1월 23일.

- 金成喜, 1906, 「金成喜」, 『大韓自強會月報』 7.
 金成喜, 1908, 「論外交上經驗의 歷史」, 『大韓協會會報』 8, 1908년 11월 25일.
 金志侃, 1908, 「保護國論」, 『太極學報』 21.
 남정훈, 1907, 「국법상 국가와 국제공법상 국가의 차이」, 『대한구락』 2.
 法律讀書人, 1909, 「主權國의 種類」, 『大同學會月報』 16, 1909년 5월 25일.
 「保護國論」, 『朝陽報』 9~11, 1906년 11월 10일, 11월 25일, 12월 10일.

2. 연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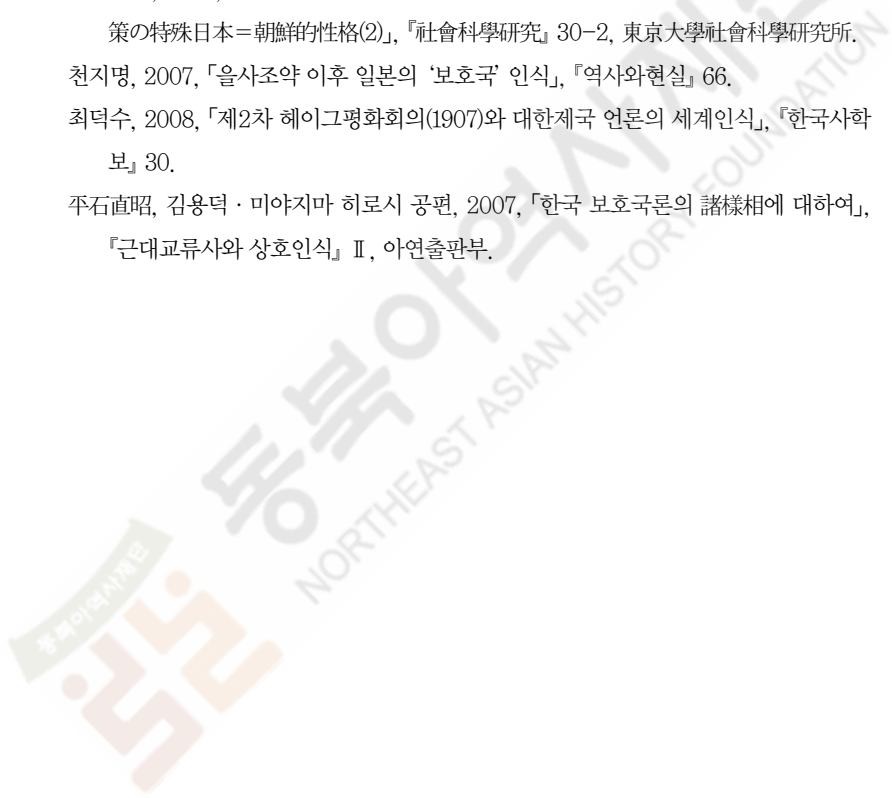
- 金度亨, 1994,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研究』, 知識産業社.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柳永烈, 1997, 『大韓帝國期의 民族運動』, 一潮閣.
 李松姬, 1986, 「大韓帝國末期 愛國啓蒙學會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李泰鎮 편, 1995, 『日本의 大韓帝國 強占』, 까치.
 박찬승, 1992, 『한국 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白東鉉, 2004, 『大韓帝國期 民族認識과 國家構想』,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용하, 2004,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사회사』, 나남출판.
- 愼鏞廈, 1987, 『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一志社.
- 이태진 편, 2001,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7,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 趙恒來 편, 1993, 『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亞細亞文化社.
- 崔起榮, 1991,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 一潮閣.
- 崔起榮, 1997, 『韓國近代啓蒙運動研究』, 一潮閣.
- 최덕수, 2005,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선인.
-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정재정 역, 2008, 『한국 병합사 연구』, 논형.

3. 논문

- 金東澤, 2008, 「大韓每日新報에 나타난 ‘民族’ 개념에 관한 연구」, 『大東文化研究』 61.
- 金素伶, 2008, 「한말 계몽운동기 教科書 속의 ‘國民’ 인식」, 『大東文化研究』 63.
- 大澤博明, 1995, 「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1882~1884年」, 『熊本法學』 83.
- 李泰鎮, 1996, 「일본의 대한제국 國權 침탈과 조약 강제 ; 한국병합 不成立을 논함」, 『韓國史市民講座』19, 一潮閣.
- 李昊宰, 1977, 「露日戰爭을 前後한 韓國人의 對外認識 變化」, 『社會科學論集』 6,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 朴熙琥, 1996, 「日本人이 提起한 1880년대의 韓國中立化論」, 『東國史學』 30.
- 백동현, 2008, 「대한협회 계열의 보호국 체제에 대한 인식과 정당정치론」, 『韓國思想史學』 30.
- 유바다, 2008, 「1883年 金玉均의 借款交渉과 淸·日의 朝鮮保護論」,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상찬, 1995,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역사비평』 31.
- 長谷川直子, 1994,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 田中愼一, 1976, 「保護國問題－有賀長雄・立作太郎の保護國論争」, 『社會科學研究』 28-2,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 田中愼一, 1977,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1)」, 『社會科學研究』 29-3,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 田中愼一, 1978,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2)」, 『社會科學研究』 30-2,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 천지명, 2007,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 인식」, 『역사와현실』 66.
- 최덕수, 2008,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1907)와 대한제국 언론의 세계인식」, 『한국사학보』 30.
- 平石直昭,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2007, 「한국 보호국론의 諸様相에 대하여」,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I, 아연출판부.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cognition of a protectorate theor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Choi, Deoksoo

In this thesis, I will attempt to analyse the recognition and the response of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about Japan's protectorate over Korea by the second Korean-Japanese Agreement on November 17th, 1905. I use articles, which were written between 1904 and 1907 on *Revue Diplomatique*, which had been published in Japan, and *Hwangseong Sinmun* and *The Daehanmaeil Sinbo*, in Korea. I will be concerned with two points ; one is the difference and relationship of argument about Japan's policy on Korea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tellectuals as the spatial factor, the other is the process of changing argument according to changing circumferential condition as the time.

In comparison between articles in Japan and Korea, there were variable phases in the Korean situation and prospect of protecting Korea hereafter because discussion about Japan's protectorate over Korea among Japanese intellectuals was carried on under the East Asia international situation. Though Korean intellectuals seemed to be understood the Japanese argument without the dramatic gap, it would be known that the Japanese argument had been accepted by them in great variable view critically when we go into the details of it.

Japanese scholars of the day grasped that Japan's policy toward protectorate over Korea started to be carried ou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n-Japanese Protocol on February 23th, 1904. Korean intellectuals, on the other hands, gave important political meaning to the third provision "Japanese government have to certainly grant the independent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Korea" on that protocol. They, for example, took notice of Ariga Nagao's theory, who was a representative legal scholar of the that hour ; he insis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 protected state and a sovereign state could be altered by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fore, they accepted his idea and emphasized that the change of Korea's international status, from a protected state to a sovereign state, would depend on a result of Korea's internal reforma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from a course of accepting foreign news, there was discriminative recognition between *Hwangseong Sinmun* and *The Daehanmaeil Sinbo*. The former had stressed the reformation of Korea in the protectorate system,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had assum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protectorate system, though they had held an optimistic view of the British international policy including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on August 12th, 1905.

keywords

a protectorate(a protected state), a sovereign state, *Revue Diplomatique*, *Hwangseong Sinmun*, *The Daehanmaeil Sinbo*, Ariga Nagao, Anglo-Japanese Alliance, The Korean-Japanese Protocol, The second Korean-Japanese Agreement (Ulsa Agreement, the Protectorate Treaty)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

채미하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고려 중기 고구려 시조 東明에 대한 인식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¹⁾ 그렇다면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저술할 수 있었

1) 이와 관련해서 이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규보는 시대에 편승하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역사교훈을 전파할 수 있는 『동명왕편』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하려 하였다고 하기도 하고(김인호, 1993, 「이규보의 현실 이해와 정치·경제개선론」, 『學林』 15), 동명왕 신화를 유교에 못지 않은 聖人으로 확인하고 우리 문화의 기원을 하늘과 연결하여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과 영웅서사시에서 혈연공동체·문화공동체를 인식하여 민족의식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도 한다(박광용, 1991, 「한국인의 역사의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그리고 『동명왕편』은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국가의식의 표출로 보거나(박창희, 1990,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3), 『외대사학』 3),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운 저항정신의 구현이라는 평가도 있다(이우성·강만길 편, 1978, 『한국의 역사인식』(상), 창작과비평사). 이규보는 최씨무인정권하에서 그 체제를 인정하고 영합하면서 『삼국사』 인식으로 회귀를 주장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명왕편』은 『삼국사기』와 같은 귀족인 의식의 질곡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했다고 하기도 한다(강성원, 1995, 「역사서와 역사인식」, 『한국역사인문』 ②-중세편, 풀빛, 304쪽).

던 문화적 배경 중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고려 초부터 고구려 시조 동명에 대한 제사가 국가제사의 하나로 거행되었던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국가제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고려사』 예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고,²⁾ 다음으로 고려시대 국가제사 체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³⁾ 이러한 고려시대 국가제사 체계에 대한 관심은 雜祀가 어떤 내용의 국가제사였던가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⁴⁾ 그리고 雜祀 중에서는 도교와 산악·성황신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⁵⁾ 잡사에 편제되어 있는 동명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⁶⁾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국가제사의 하나로 고구려 시조 동명에 대한 제사를 지낸 이유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 시조 동명이 고구려에서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 글에서는 고려의 국가제사 중 잡사에 실려 있는 동명제사에 대한 실체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 동명숭배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동명에 대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고려시대 고구려 시조 동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원구, 1969, 「고려사 예지의 편년적 고찰」, 『이홍직회갑논문집』; 이범직, 1991, 『한국중세 예사상 연구』, 일조각.

3) 김태영, 1973, 「조선 초기 사전의 성립에 대하여」, 『역사학보』 58; 한우근, 1976, 「조선 왕조 초기에 있어서의 유교이념의 실천과 신앙·종교」, 『한국사론』 3.

4) 이세현, 1984, 「麗代의 잡사와 그 신앙성에 대한 연구」, 『군산대논문집』 7; 김혜영, 1994,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사전」, 『국사관논총』 55.

5)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김철웅, 2001,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4쪽;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참조.

6) 고려시대 동명숭배와 관련하여 김창현, 2005a,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숭배와 민간 신앙」, 『역사학보』 188이 주목된다.

II. 東明聖帝祠의 실체

다 알다시피 주몽=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이다. 고구려에서 그에 대한 제사는 시조묘와 동맹제에서 행해졌고, 신묘에서는 고등신으로 모셔졌다.⁷⁾ 그렇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통일신라시기에 그와 관련된 제사라든가 그것에 대한 전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고려시대 동명왕에 대한 제사 기록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이 주목된다.

A. 肅宗十年 八月甲申 遣使祭東明聖帝祠 獻衣幣 …… 睿宗十一年 四月丁卯 遣使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 及西京木覓東明祠 道哲岳梯淵 …… 忠烈王四年 九月辛卯 遣使于平壤享太祖東明木覓廟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위의 사료 A에 따르면 숙종 10년(1105) 8월에 사신을 보내 東明聖帝 사당에 옷과 폐백을 드렸고, 예종 11년(1116) 4월에 사신을 보내 上京川의 상류인 松岳, 東神의 여러 신묘와 朴淵 및 서경의 목멩신, 동명신사와 道哲, 암제연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충렬왕 4년(1278) 9월에는 사신을 평양에 보내 태조묘·동명묘·목멩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한다.

『고려사』 세가에는 다음의 기록들이 있다.

- B-1. 加平壤木覓橋淵道知巖東明王等神勳號 (『고려사』 4, 세가 4, 현종 2년 5월 정해)
2. 遣同知樞密院事許慶 祭平壤木覓東明神祠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4년 하4월 을유)
3. 命贊成事元傳等祀聖容殿東明平壤木覓廟 (『고려사』 28, 세가 28, 충렬왕 4년 9월 신묘)
4. 王至西京 謁聖容殿 分遣人 祭平壤君祠東明王及木覓廟 (『고려사』

7) 이와 관련하여 재미하, 2006,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참조.

30, 세가 30, 충렬왕 19년 동10월 무신)

위의 사료 B-1에 따르면 현종 2년(1011) 평양의 木覓, 橋淵, 道知巖, 동명왕 신들에게 勳號를 더하였고, B-2에서는 예종 4년 同知樞密院事 許慶을 보내 평양, 목덕, 동명 등 신사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B-3을 보면 충렬왕 4년 贊成事 元傳 등에게 명령하여 聖容殿, 동명묘, 평양 목덕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B-4에서는 충렬왕 19년 왕이 서경에 이르러 성용전에 참배하고 사신을 나누어 平壤君祠, 동명왕묘 및 목덕묘에 보내 제사지내게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고려사』 예지와 세가의 동명왕에 대한 제사 내용을 보면 예지와 세가는 서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그리고 다음도 관심을 끈다.

C. 東明王墓 ①在府東南中和境龍山 俗號眞珠墓 ②又仁里坊有祠宇 高麗以時降御甲行祭 朔望亦令其官行祭 ③邑人至今有事輒禱 世傳東明聖帝祠) (『고려사』 58, 지 12, 지리 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위의 사료 C를 보면 동명왕의 祠宇는 서경의 仁里坊에 있었는데, 때로는 御甲을 내려 제사하였고, 음력 초하루와 보름인 朔望에도 官에서 제사를 행하였다고 한다. C에서는 서경민들도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였는데, 세상에 전해지기를 ‘東明聖帝祠’라 하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동명성제사⁹⁾에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모셔져 있고, 음력 초하루와 보름인 삭망에는 官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왕이 보낸 사신이 제사지내기도 하였다. 이로 볼 때 동명성제사에서는 삭망의 정기적인 제사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진 비정기적인 제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경민들

8) 이 중 중복되는 것은 충렬왕 4년 기사인데, 예지에는 태조묘로 나오고 세가에는 성용전으로 나온다. 여기의 태조묘는 성용전이다(주 82 참조). 이것은 예지와 세가의 저본이 다름을 말해 주는 것이다.

9) 동명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대한 명칭은 동명성제사, 동명(신)사, 동명(왕)묘 등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동명성제사로 통일한다.

도 여기에서 기도를 하였다. 그렇다면 동명성제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명왕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러한 동명왕에 대한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앞의 사료 B-1을 보면 현종 2년 동명왕에게 혼호를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늦어도 현종 2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동명왕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도 관심을 끈다.

D. 創法王王輪等十寺 于都內兩京塔廟肖像之廢缺者 並令修葺 (『고려사』 1, 세가 1, 태조 2년 3월)

위의 사료 D에 따르면 태조는 2년 3월에 兩京의 塔·廟·肖像 중에 훼손된 것을 수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경은 『자치통감』 271, 梁 鈞王 龍德 2년(922)에 태조 왕건이 즉위하여 “開州로 동경을 삼고 평양으로 서경을 삼다”¹⁰⁾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동경인 개주(개성)와 서경인 평양이 양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경과 서경의 훼손된 탑·묘·초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었을 것이다.

이 중 廟가 관심을 끄는데, 묘의 사전적인 뜻은 ‘조상이나 여러 훌륭한 성인의 신주·영정 등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다. 이 중 서경, 평양에 있었던 廟로 떠오르는 것은 고구려의 神廟이다. 『복사』와 『주서』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시조 주몽인 고등신과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녀 부여신을 모시는 신묘를 세우고 이를 수호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¹¹⁾ 이것은 평양천도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¹²⁾

이러한 고구려의 신묘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알

10) 『자치통감』 271, 梁 鈞王 龍德 2년.

11)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 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복사』 94, 열전 82, 고구려); 又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登高神 云是其始祖 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與朱蒙云(『주서』 49, 열전 41, 이역(상) 고려)

12) 이와 관련해서는 재미하, 2006, 앞의 글 참조.

수 없다. 그렇지만 후삼국시기 태봉정권이 고구려를 표방한 것으로 볼 때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한 추송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은 일찍부터 평양을 중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이 주목된다.

E. 諭群臣曰 平壤古都 荒廢 雖久 基址尙存 而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 因而侵掠 邊邑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屏爲百世之利 遂爲大都 護 遣堂弟式廉廣評侍郎列評守之 (『고려사』 1, 세가 1, 태조 원년 9월 병신)

위의 사료 E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태조가 ‘平壤古都’, 즉 ‘평양 옛 서울’이라 하면서도 고구려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것은 고구려와 고려가 서로 연결된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³⁾ 그리고 태조는 자신의 세력기반이었던 黃州, 鳳州, 海州, 白州, 鹽州 등의 백성들을 사민시켰으며, 평양을 대도호부로 하고, 사촌 아우인 왕식렴과 광평시랑 열평에게 그 땅을 지키게 하였다.¹⁴⁾

태조 2년(919) 10월에는 평양에 성을 쌓고,¹⁵⁾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켰다.¹⁶⁾ 태조 5년에는 서경에 행차하여 관청과 관원을 새로 배치하고 在城을 쌓았으며,¹⁷⁾ 태조 13년에는 세 차례 서경에 순행하여 학교를 설

13) 『고려사절요』 1, 태조 원년 9월조에 따르면 태조는 즉위 직후 여진인의 활동지역으로 변한 평양을 개척하여 새로운 북진의 전진기지로 건설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徙民관계 기사는 『고려사』 기록에도 보이는데, “이 해에 대승 質榮과 行波 등의 부형 자제 및 여러 군현의 양가 자제들로 서경을 채웠다(是歲 徙大丞質榮 行波等 父兄弟及諸郡縣良家子弟 以實西京(『고려사』 1, 세가 1, 태조 5년))”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14)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참고된다. 王謂群臣曰 平壤古都 荒廢已久 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 因而侵掠 宜徙民實之 以固藩屏 遂分黃鳳海白鹽諸州人戶居之 爲大都護 遣堂弟式廉廣評侍郎列評守之 仍置參佐四五人(『고려사절요』 1, 태조 원년 9월).

15) 城平壤(『고려사』 1, 세가 1, 태조 2년 동10월).

16) 태조 4년 10월에 ‘서경’에 행차한 것으로 미루어 幸西京(『고려사』 1, 세가 1, 태조 4년 동10월 임신) 평양대도호부는 태조 4년 무렵에 서경으로 승격된 것으로 보인다.

17)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고려사』 1, 세가 1, 태조 5년) 『고려사』 88, 후비전 1 태조 대서원부인,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59쪽.

립하고,¹⁸⁾ 태조 21년에는 서경에 나성을 쌓았다.¹⁹⁾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F. 諭群臣曰 頃完葺西京徙民實之冀憑地力平定三韓 將都於此 ……
(『고려사』 2, 세가 2, 태조 15년 5월 갑신)

위의 사료 F에서 태조는 군신들에게 諭示하기를 서경을 도읍으로 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태조 15년은 신라의 포섭 및 후백제와의 쟁패전으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태조대 평양에 대한 관심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한 추모시설이 태조대에 두어졌을 것이다.²¹⁾ 아마도 태조 2년에 개경과 서경의 탑·묘·초상 등을 수선한 것은 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도경』 사우조에 보이는 東神聖母之堂의 정전에는 장막을 치고 신상을 모셔두었는데, 이는 고구려 시조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녀로 전해진다.²²⁾ 문종 11년(1057) 예부의 건의 중에 동신당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²³⁾ 동신당은 고

18) 夏五月壬辰 幸西京 六月庚子 至自西京 冬十二月庚寅 幸西京創置學校(『고려사』 1, 세가 1, 태조 13년).

19) 築西京羅城(『고려사』 2, 세가 2, 태조 21년 추7월).

20) 이것은 평양을 이념상의 도읍이 아니라 현실적인 國都로 삼기 위한 준비로, 또한 그곳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진출하여 고구려의 옛 땅, 즉 동명의 옛 강토를 수복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1) 김창현, 2005a, 앞의 글, 115쪽. 그리고 태조 16년 중국 後唐에서 고려왕을 책봉하는 문서에 따르면 왕건이 땅을 차지해 평양이라 칭하고 주몽 啓土의 祥瑞를 계승해 君長이 되었다고 한다[唐遣王瓊楊昭業來冊王詔曰 …… 咨爾權知高麗國王事建身資雄勇智達機鈴冠邊城以挺生負出圖而開出 山河有授基址克豐踵朱蒙啓土之禎爲彼君長履箕子作蕃之跡 宣乃惠和俗厚知書故能導之以禮義風驍尙武故能肅之以威嚴 …… (『고려사』 2, 세가 2, 태조 16년 춘삼월 신사)].

22)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幣幕蔽之 不令人見 神像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舊例 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如禮崧山神式(『선화봉사고려도경』 17, 동신사).

23) 禮部奏 自孟夏雨澤愆期 又廣州報田野乾焦殆失歲望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고려사』 8, 세가 8, 문종 11년 5월 무인).

려 초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동신당은 宣人門 안에 있는데, 선인문은 개경으로 들어가는 문 중의 하나였다.²⁴⁾ 그러하다면 태조대 서경에는 동명성제사가, 개경에는 그와 짝하는 동신사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典校令 尹紹宗이 昌王에게 올린 내용에 따르면 ‘本朝舊制’에 圓丘, 宗廟, 社稷, 山陵, 眞殿, 神祠 등의 제향축문 그리고 道殿, 佛宇의 詞疏는 典校寺의 관원 한 사람이 齋戒하고 써서 올리면 임금은 목욕재계하고 친히 押印하였다고 한다.²⁵⁾ 여기에서 ‘本朝舊制’는 『상정고금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²⁶⁾ 고려시대 神祠에서 거행된 제사 역시 고려의 국가제사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神祠들은 고려의 국가제사 체계 중 雜祀에 편제되어 있다. 잡사는 『삼국사기』 제사지,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에는 없는 항목으로, 고려 국가제사 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고려의 국가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²⁷⁾ 『고려사』 예지 길례에 의하면 잡사 부분은 대·중·소사와는 달리 의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연대기만 남아 있다. 연대기 자료는 제사 거행 사실, 祠廟의 건립, 祀典에 대한 언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고려사』 예지에 보이는 잡사를 연대기 자료를 바탕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4) 『고려사』 56, 지 10, 지리 1 왕경개성부조에 羅城에 축조된 성문에 대하여 大門 4, 中門 8, 小門 13 등 전체 25개를 기술하고 있다. 이 중 선인문은 황성 동문으로 여겨지는데(신안식, 2000a, 「고려시대 개경의 나성」, 『명지사론』 11·12; 신안식, 2000b, 「고려 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고려도경』에서 선인문을 나성의 정동문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157~158쪽).

25) 辛昌立 陞典校令 與同僚奏 本朝舊制 凡圓丘宗廟社稷山陵眞殿神祠 祭享祝文 道殿佛宇詞疏 本寺官一人 每月轉直 清齋寫進上 齋沐親押 天地宗社 則必親祀 佛宇道殿神祠 則或命大臣攝行 近以祈禳猥多 或命正字小臣代押 其源一開 今唯四時大享親押 其餘則皆代押 甚遠誠敬之義(『고려사』 120, 열전 33, 윤소중).

26)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 141~142쪽; 김철웅, 2007, 앞의 책.

27)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2001, 앞의 글; 김철웅, 2007, 앞의 책.

G. 壓兵祭, 醮, 南海神, 城隍神祠, 川上祭, 老人星, 五溫神, 名山大川, 箕子祠, 東明聖帝祠, 藝祖廟, 祿祭, 蠶祭, 天祥祭, 東神祠, 松岳廟, 木覓神祠, 道哲, 崑梯淵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위의 사료 G에 보이는 잡사 중 그 중요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이 醮祭인데, 초제는 옛 제도에 나라에서 왕왕 천지와 경내산천을 대궐마당에서 두루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²⁸⁾ 『고려사』·『고려사절요』에서 道場과 親祀, 祀, 禱, 幸 등은 제외하고 親醮, 大醮, 醮, 齋醮로 표기된 것만을 뽑으면 191회에 해당되며,²⁹⁾ 靈寶道場이나 국왕의 행차를 초례 사제로 포함시키면 초례는 222회에 달한다.³⁰⁾ 동신당의 경우는 송에서 사신이 오면 들러서 참배할 정도로 고려의 대표적인 신사로,³¹⁾ 그 규모도 커서 걸채만 하더라도 30간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H-1. 其神祠在百里內者 四時遣官 祠以太牢 (『고려도경』 17, 사우)

2. 奏告 其日五鼓後 王躬詣景靈殿 享告如儀 太廟及別廟神祠 遣使奏告 大觀殿陳設 臨軒遣使 並如封冊儀 (『고려사』 66, 지 20, 예 8, 嘉禮 王太子稱名立府儀)

위의 사료 H-1에 따르면 개경 내의 신사는 太牢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고려의 사직, 태묘, 선잠, 선농, 문선왕묘, 풍사 등의 희생이 모두 豕로만 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³²⁾ 그리고 H-2에 의하면 “왕이 몸소 경령전에 나아가 享告하기를 儀式과 같이 하고, 태묘 및 별묘, 신사에는 사신을 보내어 奏告한다”고 하였다. 대사인 태묘 및 별묘와 함께 신사에서 국가의식의 사실을 奏

28) 顯宗三年 七月 大醮于毬庭 國家故事 往往遍祭天地及境內山川于闕庭 謂之醮(『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29) 김철웅, 2007, 앞의 책, 70쪽.

30) 서경전·양은용, 1985, 「고려 도교사상의 연구」, 『원광대논문집』, 68~69쪽 참조.

31) 윤이훈, 1986, 『『고려도경』에 나타난 종교사상』, 『한국종교연구』 1, 119쪽.

32) 『고려사』 61, 지 15, 예 3 및 『고려사』 62, 지 16, 예 4, 길례 중 사직, 태묘, 선잠, 선농, 문선왕묘, 풍사 참조.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사가 국가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³³⁾

『고려사』纂修高麗史凡例에 따르면 圓丘, 籍田, 燃燈, 八關 등과 같이 常例로 있는 일은 처음 나왔을 때만 기록하여 그 실례를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만, 만일 왕이 직접 행할 경우는 빠짐없이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⁴⁾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고려사』에 보이는 동명성제사는 비정기적인 제사로 사신이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앞의 사료 B-2를 보면 예종 4년에는 同知樞密院事 許慶이, B-3을 보면 충렬왕 4년 贊成事 元傳가 제관으로 파견되었다. 동지추밀원사는 종2품관이고 찬성사는 정2품관이다. 고려의 국가제사 중 환구, 태묘, 선농은 친사, 친향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헌관은 태위이다. 환구제와 태묘의 제향이 섭사로 행해질 경우 초헌관은 太尉가 되는데, 태위는 ‘宰臣爲之’로 註記되어 있다. 태위는 고려의 재신, 즉 2품 이상의 재추에 해당하는 관위이다. 이로 볼 때 동명성제사에 정·종 2품관이 제관으로 파견된 것은 환구와 태묘의 섭사에서 재신이 초헌을 맡았던 사실과 비교된다. 이것은 동명성제사가 고려의 환구, 태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려시대 국가제사로 동명왕에 대한 제사는 고려 초부터 있었으며 지방관이 삭망으로 지내기도 하고 사신을 보내 지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명성제사는 고려 국가제사 체계 중 잡사에 편제되어 있는데, 잡사는 고려 국가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로 볼 때 동명성제사가 고려시대 국가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33) 이로 보아 개경 내의 신사, 즉 송악신사와 동신사는 대사에 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김철웅, 2002, 앞의 글, 144~145쪽; 김철웅, 2007, 앞의 책).

34) 如圓丘籍田燃燈八關等 常事 書初見以着其例 若親行則必書(『고려사』纂修高麗史凡例).

Ⅲ. 東明崇拜의 諸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명성제사는 잡사에 편제되어 있다. 잡사는 고려 국가제사 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고려의 국가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고려 국가제사 체계에서 대·중·소사에 편제된 것이 유교적 길례의례라고 한다면, 잡사에 편제된 것은 전통제례라고 한다.³⁵⁾ 즉, 고려는 토착적·전통적 제사들을 중국적 예제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국가제사 체제로서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도교적인 성격의 제사와 기타 토착신앙과 관련을 가진 제사들이다. 잡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제가 도교적인 성격을 지닌 제사라고 한다면, 동명성제사는 토착신앙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앞의 사료 C-3에서 동명성제사에 서경민들이 와서 빌었다고 한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명성제사는 국가제사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앞의 사료 A를 보면 예종 11년(1116) 4월 정묘일에 사신을 보내 上京川의 상류인 松岳, 東神의 여러 신묘와 朴淵 및 서경의 목멱신, 동명신사와 道哲, 암제연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것은 동명성제사와 짝하는 동신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종 11년(1057) 동신당을 비롯한 5개소에서 7일에 한 번씩 기우제를 지내게 한단든가,³⁶⁾ 『고려사』 오행지에는 동신당에서 祈晴祭나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여러 번 보이고 있다.³⁷⁾ 이러한 사실은 동명왕과 동신이 비를 조절하는

35)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2007, 앞의 책, 5·149쪽.

36) 앞의 주 23 참조.

37) 禮部奏 自孟夏雨澤愆期 又廣州報田野乾焦 殆失歲望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各行祈雨 制可(『고려사』 8, 세가 8, 문종 11년 5월 무인); 文宗十一年 五月戊寅 禮部奏 謹按今自孟夏雨澤愆期又廣州牧報 田野乾焦殆失歲望 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每七日一祈又令廣州等州郡各行祈雨 制可(『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禱雨于大廟八陵及松嶽東神祠(『고려사』 11, 세가 11, 숙종 5년 6월 을묘); 肅宗五年 六月乙卯 禱雨于大廟八陵及松嶽東神祠(『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禱雨于松嶽東神祠(『고려사』 12, 세가 12, 예종 2년 3월 갑신); 睿宗二年四月 旱 戊辰 禱雨于朴淵 甲申 禱于松岳東神祠(『고려사』 54, 지

힘을 가진 신으로 여겨졌음을 보여 준다.³⁸⁾

서경에는 동명성제사 외에도 동명왕과 관련된 추모시설이나 유적이 다수 있다.³⁹⁾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관심을 끈다.

I-1. 乙密臺(臺在錦繡山頂 臺下層崖之旁 有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 內有巖出沒潮水 名曰朝天石) (『고려사』 58, 지 12, 지리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⁴⁰⁾

2. …… 熊然遇女 來往翩翩 江心有石 曰朝天臺 …… 生日 壯麗之觀 則有龍堰闕九梯宮 膠葛廣敞 高明窮崇 翕闕宇宙 冥迷西東 天不能奪其拚 鬼不得爭其功 遊觀之所 則多景跨蒼海 清遠撐半空 浮碧臨浩蕩 永明架山穹山窮 (『三都賦』)⁴¹⁾

위의 사료 I에서 우선 구제궁은 ‘동명왕의 궁’으로 전해지는 것으로,⁴²⁾ 동명왕이 아홉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왕래했다는 것을 기념한 건물이고⁴³⁾ 그 정

8, 오행 2 금); 肅宗四年 八月丙子 祈晴于松岳東神川上諸神廟朴淵等五所(『고려사』 54, 지 8, 오행 2 목); 睿宗十一年四月丁卯遣使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嶺梯淵(『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仁宗八年四月 旱 戊子詔再雩祈雨 太史奏 必先祈川上松岳東神諸神廟栗浦朴淵而後再雩可也宜當兩京內外公私罷土木興作之役 從之(『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38) 특히 고구려에서 하백녀가 농업신으로 신앙되었음을 생각할 때(김철준, 1990,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한국 고대사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54~62쪽) 동신의 이러한 성격은 고구려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9) 이하와 관련해서 김창현, 2005a, 앞의 글, 114~123쪽이 참고된다.

40) 다음도 참고된다. 乙密臺 卽錦繡山頂 平坦敞豁 臺下層岸之上 有樓曰浮碧 觀覽之狀不可勝記 旁有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 內有巖出沒潮水 名曰 朝天石 諺傳東明乘龍 從堀中登朝天石 奏事天上 李承休 所謂往來天上詣天政 朝天石上巖 卽謂此也(『세종실록지리지』 평양도 평양부).

41) 崔滋, 『三都賦』, 『동문선』 2 所收.

42) 高麗睿宗詩 路險東明厥 停輪解絕駕牛 古城橫絕巘 高閣枕寒流 藻殿常開戶 珠簾不下鉤 勝遊真可惜 後約更高秋(『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고적 구제궁). 고려 예종은 구제궁을 東明關이라 했다. 그리고 구제궁을 고성이라 묘사했는데, 이것은 오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金克己詩 …… 飛梯九級 綠雲中仰面 初驚路不通 臺殿忽臨飛鳥上 却疑仙界住剛風(『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고적 구제궁). 고려인들은 대개 구제궁의 九梯를 김극기의 시에 梯九級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듯이 하늘로 오르는 아홉 개의 사다리

전은 천흥전이였다. 기린굴은 동명왕이 기린을 사육했다는 굴인데,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로 들어가 대동강의 조천석으로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⁴⁴⁾ 기린각은 그것을 기념해 세운 건물로 보이는데, 서경을 방문한 왕과 신하들의 학술토론 장소로 이용되었다.⁴⁵⁾ 영명사는 동명왕의 궁으로 전하는 九梯宮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동명왕의 초상이 모셔진 진전사원이 아니었을까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고직조에 따르면 구제궁은 영명사 안에 있었고,⁴⁶⁾ 불우조 영명사에 실린 곽역의 시를 보면 영명사는 舊帝宮, 즉 九梯宮과 서로 連해 있었다.⁴⁷⁾ 그리고 영명사는 대동강에 연한 절경인 부벽루를 끼고 있다.⁴⁸⁾ 천하의 절경인 부벽루는 영명사의 남현으로 본래 興上人이 창건한 건물이었으나, 예종을 호종한 이오가 부벽이라 명명한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⁴⁹⁾

고려시대 국왕들은 서경에 巡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J.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脉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고려사』 2, 세가 2, 태조 26년 하4월)

위의 사료 J는 태조의 훈요 10조 중 제5조로, 태조는 서경의 수덕이 순조

(계단)로 받아들이고 있다.

- 44) 『고려사』 15, 세가 15, 인종 5년 3월. 麒麟窟(在九梯宮內浮碧樓下 東明王養麒麟馬于此後人立石誌之 世傳王乘麒麟馬入此窟從地中出朝天石 升天其馬跡至今在石上)(『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고직).
- 45) 『고려사』 15, 세가 15, 인종 5년 3월 및 『고려사』 16, 세가 16, 인종 10년 3월.
- 46) 九梯宮(東明王之宮 舊在永明寺中)(『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고직)
- 47) 郭輿詩 佛宇相連舊帝宮 松楸千古有遺風 …… (『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불우 영명사). 이로 볼 때 구제궁은 영명사 소속이기보다는 병렬적 관계였을 것이다.
- 48) 永明寺(在錦繡山浮碧樓之西 麒麟窟之上)(『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불우); 浮碧樓(在乙密臺下永明寺東)(『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누정).
- 49) 『파한집』 증권에 따르면 본래 興上人이 창건한 영명사 南軒은 대강에 임한 천하 절경으로 예종이 신하들과 宴飲唱酬했으며, 李顥가 玉堂 소속으로 호종했을 때 '부벽'이라 명명되었다고 한다.

하여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므로 풍수지리설상 대업만대의 땅으로 해마다 2, 5, 8, 11월에 왕이 그곳에 가서 100일 이상씩 머물 것을 말하는 등 후대의 왕들에게까지 평양을 중요시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태조 3년(920)부터 17년까지 태조는 서경에 9회 행차하여 州鎮을 순력하거나 齋祭를 지냈고,⁵⁰⁾ 후계자들은 그렇게 하거나 近臣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도록 하였다.⁵¹⁾

평양을 순주한 고려 국왕들은 동명왕의 원찰인 영명사를 찾아 분향하며 동명왕을 추모했고, 동명왕의 계승자로서 구제궁에서 거처하며 정무를 보았다고 한다.⁵²⁾ 우선 영명사와 관련해서 선종은 성종 4년(1087) 10월 정해에 서경 관

50) 『고려사』 세가 1, 2 태조 및 『고려사절요』 1, 태조조를 보면 북계를 포함하면 11회였다. 장상훈은 서경 재제가 고구려 계승과 고구려지역 호족 통합을 위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장상훈, 1996, 「고려 태조의 서경정책」,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166~167쪽).

51) 서경에서 행해진 제제는 모든 제사를 포함하지만, 국왕이 봄과 가을에 서경에 행차하거나 사신을 보내 행한 제제는 대개 태조가 혼요에서 당부한 연등회·팔관회와 관련 있다고 한다(김창현, 2005b, 「고려 서경의 사원과 불교신앙」, 『한국사학보』 20, 30~33쪽). 한편, 정종 2년(947)에는 지리도참설에 의한 천도지로 궁궐을 짓는 역사까지 착수되었으나(築西京王城(『고려사』 2, 세가 2, 定宗 2년 春) 王疾篤召母弟昭內禪移御帝釋院薨 在位四年壽二十七 王性好佛多畏 初以圖讖決議移都西京徵發丁夫令侍中權直就營宮闕 勞役不息 又抽開京民戶以實之 群情不服怨讎胥興(『고려사』 2, 세가 2, 定宗 4년 3월 병진)), 정종의 붕어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역대 제왕들도 지리도참설을 신봉하여 자주 서경에 순주하고 옛 궁을 수리하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 문종 35년(1081) 서경 본궁을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참설에 따라 좌우 두 궁을 조영하기도 하였다(辛酉制 西京宮闕年久頽毀頗多 宜募工修葺 且去京東西各十餘里 更卜地構左右宮闕 以爲省方巡御之所(『고려사』 9, 세가 9, 문종 35년 8월)). 이 두 궁은 본궁 좌우 10여 리 되는 곳에 용궁, 주궁으로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종 때에 승 묘청과 일관 백수한 등이 들고 나온 상경인 개경의 지기쇠왕설 및 서경의 지덕설, 뒤이어 서경 천도를 중심으로 하여 발발한 묘청의 난이 일어난다. 묘청의 난은 서경 풍수지리의 지덕설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는 서경기라는 막강한 서경의 행정구역 명호가 해체되고 서경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끝났다. 서경의 기구와 체제는 묘청의 난 이후 대폭 개편되면서 독립성을 상실하고 점차 土官職으로 변모되었지만, 이곳은 국초 이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하현강, 1967, 「고려 서경고」, 『역사학보』 35 : 36 ; 하현강, 1988, 『한국중세사 연구』, 일조각, 293~345쪽 참조).

52) 『동문선』 12, 칠언율시, 西都九梯宮朝退休于永明寺(서도 구제궁에서 조회하고 물러나와 영명사에서 쉬며).

풍정 및 구제궁을 유람하고 영명사에 행차해 行香하였다고 한다.⁵³⁾ 숙종은 숙종 7년(1102) 8월 갑자에 영명사에서 행향하고 나서 구제궁에 나아가 영명사, 부벽루, 구제궁 시를 兩京의 유신과 주고받더니 용선을 타고 신하들을 연회했다.⁵⁴⁾ 예종은 예종 11년(1116) 4월 경오에 금강사, 흥복사를 거쳐 영명사에 돌아와 누선을 타고 연회하면서 자작시를 신료에게 보여 주었다.⁵⁵⁾

구제궁은 현실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인종 5년(1127) 3월 임자에 구제궁 천흥전에 이어했고, 둘째 날 『서경』 흥범을 강독하도록 했고, 셋째 날 기린각에서 『서경』 열명과 周官을 강독하도록 했고, 넷째 날 척준경 등을 유배하고 기린각에 이어해 정지상에게 『서경』 무일을 강독하도록 했고, 다섯째 날 병진에 대동강에 나아가 선상연회를 열었고, 여섯째 날 관풍전에 이어해 유신 교서를 반포했다.⁵⁶⁾

53) 王游覽觀風亭及九梯宮 遂幸永明寺行香 御龍船至大同江入夜乃還(『고려사』 10, 세가 10, 선종 4년 동10월 정해); 서경에 행차한 성종이 微行으로 영명사에서 놀려고 하자 서희가 간언하고 있다(成宗二年由佐丞拜兵官御事從幸西京 成宗欲微行遊永明寺 熙上疏諫乃止 賜鞍馬以賞之 後改內史侍郎(『고려사』 94, 열전 7, 서희전)). 서희는 국왕의 영명사 행차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행이라는 방식을 반대한 것이라고 한다.

54) 幸興福永明兩寺行香 遂御九梯宮 留題永明寺 浮碧樓九梯宮 詩各一首 命兩京儒臣和進 遂御龍船宴群臣(『고려사』 11, 세가 11, 숙종 7년 8월 갑자).

55) 幸金剛興福兩寺還至永明寺御樓船宴諸王宰樞侍臣復以御製仙呂調臨江仙三闋宣示臣僚(『고려사』 14, 세가 14, 예종 11년 하4월 경오); 이 외 다음도 참고된다. 幸觀風殿巡視太祖行在所 遂御九梯宮及晚移御 永明寺東閣召諸王及郭興置酒唱和(『고려사』 14, 세가 14, 예종 11년 하4월 병자) 幸興福永明寺觀潮(『고려사』 14, 세가 14, 예종 15년 8월 정유); 朔幸永明寺觀潮(『고려사』 14, 세가 14, 예종 15년 9월 기해); 幸永明寺(『고려사』 16, 세가 16, 인종 10년 3월 신축); 幸永明寺泛舟于大同江(『고려사』 18, 세가 18, 의종 22년 하4월 갑신); 幸永明寺泛龍船於大同江置酒遂御浮碧樓(『고려사』 19, 세가 19, 의종 23년 3월 기묘); 自永明寺泛舟至洪福寺遂幸仁王寺(『고려사』 19, 세가 19, 의종 23년 3월 임오).

56) 幸西京 庚辰謁太祖眞殿(『고려사』 15, 세가 15, 인종 5년 2월 을해); 壬子移御九梯宮天興殿 癸丑命政堂文學金富佾講書范範 甲寅御聽麟閣命承宣鄭罔講書說命周官乙卯流拓俊京于岳墮島崔湜于草島尙州牧副使李侯進龜州使邵億郎將鄭惟晃西材場判官尹翰等于遠地 御聽麟閣命鄭知常講書無逸召從臣及西京儒臣二十五人賦詩賜酒食 丙辰王與妃及兩公主御龍舟于大同江沿流宴樂召宰樞侍臣侍宴 丁巳移御觀風殿戊午詔曰 朕荷天地之景命襲祖宗之遺基奄有三韓于茲六載智不能謀明無所觸災變相

이처럼 서경의 영명사와 구제궁 일대는 동명왕과 고려왕이 시공을 초월해 만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서경에 있는 동명성제사에서 동명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고려시대 동명숭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儒·佛·道教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⁵⁷⁾

우선 영명사는 동명왕의 진전이다. 김극기는 영명사에 대해 “天이 觀史[도솔천]를 여니 慈氏[미륵]가 강림했고 地가 毗耶[비야리성]를 여니 正名[淨名]이 거주했네”⁵⁸⁾라고 읊었다. 비야리성에 거처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유마거사는 『유마경』에서 미륵의 성불이 예언되고 미륵에게 이 경전의 유포가 맡겨지니 미륵과 연관이 있다. 그러하다면 영명사는 미륵을 주존으로 하는 법상종 사찰로 미륵과 유마거사(정명)의 이상세계가 구현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로 볼 때 영명사는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伊路無寧歲 去年二月亂臣賊子乘間而起陰謀發覺朕不得已咸致於法自是引咎責躬慙德多矣 今以日官之議行幸西都 深省既往之愆冀有惟新之教布告中外咸使聞知 一方澤祭地祇四郊迎氣 一車服制度務從儉約 一除冗官不急之務 一勸農力田以給民食 一務儲官穀以待救民 一取民有制常租調外毋得橫斂 一撫民安土無使逃流 一濟危鋪大悲院厚畜積以救疾病 一無以官庫陳穀抑配貧民強取其息又無以陳朽之穀強民舂米 一山澤之利與民共之 毋得侵牟(『고려사』 15, 세가 15, 인종 5년 3월).

그리고 인종 10년 3월 기사도 참고된다. 대화궁에 머물던 인종은 경자일에 구제궁에 이어했다. 둘째 날은 영명사에 행차했다. 셋째 날은 기린각에 이어해 윤언이에게 『주역』 乾卦를 강독하고, 鄭沆·이지지·정지상 등에게 問難하도록 했다. 넷째 날인 계묘일에 정항에게 『예기』 중용편을 강독하도록 하고 곽동순 등 18인에게 시를 짓도록 했다. 병오일에 관풍전에 인왕도량을 개설했다[甲午幸大華宮 庚子移御九梯宮 辛丑幸永明寺 壬寅御其巖閣命國子司業尹彥頤講易乾卦 命承宣鄭沆禮部郎中李之氏起居注鄭昉常等問難 癸卯命鄭沆講禮記中庸篇 又命題使大學博士郭東珣等十八人賦詩 丙午設仁王道場于觀風殿(『고려사』 16, 세가 16, 인종 10년 3월)].

57) 김창현은 고려시대에 구제궁·영명사 일대를 통한 동명 숭배는 국가·왕조적인 차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교연·도지암·동명성제사를 통한 동명 숭배는 민간적이고 무속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했다. 이는 왕이 동명왕에 대한 추모를 국가종교인 불교의 사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낸 반면, 민간·무속적 신앙의 형태를 띤 동명신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김창현, 2005a, 앞의 글, 127쪽).

58) 金克己詩 …… 天開觀史 臨慈氏 地闢毗耶 正名憑(『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불우 영명사).

59) 김창현, 2005b, 앞의 글, 26~27쪽.

동명왕이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⁶⁰⁾은 도교와도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⁶¹⁾ 고려시대 신선, 仙界라는 이상사회와 연결된 도교는 신선사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특히 醮祭의 거행으로 신선이 행차하기를 바라고 道藏을 仙籙에, 道觀을 仙館에, 壇醮를 仙壇에 비유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⁶²⁾ 이처럼 도교 제사인 초제는⁶³⁾ 고려시대 구정의 뜰에서 그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⁶⁴⁾ 그렇다면 구제궁에서 정사를 본 국왕들은 이와 유사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마도 구제궁의 정전인 천흥전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종은 구제궁 천흥전에 이어한 후 『서경』 洪範을, 기린각에서 『서경』 說明과 周官, 無逸을 강독하였다. 『서경』은 堯舜의 道로부터 아래로는 三王의 義가 들어 있는 정치철학의 역사기록으로 유교의 정치사상이 담긴 경전 중의 최고의 경전이다.⁶⁵⁾ 이중 홍범은 箕가 周武王을 위해 말한 夏·商代의 정치철학이다. 그리고 盤庚부터 三代後 高宗이 왕위에 즉위하였을 때 傳說이 재상으로 있었다. 열명은 高宗이 부열을 擧用한 때의 그

60) 동명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 구제궁, 기린굴, 조천석 등에 따르면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동명왕은 미륵, 유마, 신선의 화신으로 인식되었다고 여겨진다.

61)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참고된다.

惟帝時升 神馭徘徊 靈祇所宅 平壤其祠(「三都賦」).

위의 사료는 崔滋의 三都賦에서 발췌한 것이다. 최자(1188~1260)는 고려 중기 인물로, 그가 지은 「삼도부」는 西都, 北京, 江都를 읊은 것이다. 여기에서 '平壤其祠'가 관심을 끄는데, 이것은 '평양의 그 사당'이라는 보통명사로, 고려 중기에 주몽의 영령이 있는 곳이 '평양의 그 신사', 즉 동명성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62) 望冷然之仙馭(金富弼, 「乾德殿醮禮請詞」), 仙籙……玉籍 以長生(李奎報, 「北斗下降醮禮文」), 仙館(李奎報, 「九曜堂行天變祈禳十一曜消災道場兼設醮禮文」), 仙壇(李奎報, 「神格殿行天變祈禳靈寶道場兼醮禮文」).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2007, 앞의 책, 74쪽 참조.

63) 초제의 성격에 대해서 김철웅은 도교적 성격으로(김철웅, 2007, 앞의 책, 83쪽), 안지원은 불교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64쪽 주 120 참조).

64) 재초가 행해진 장소로 도관인 복원궁이 7회에 불과한데, 내전과 구정에서 85회나 행해졌다고 한다(서경전·양은용, 1985, 앞의 글).

65) 이범직, 1991, 앞의 책, 34쪽; 蔣伯潛·蔣祖怡 著, 최석기·강정화 역주, 2002,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112~113쪽.

전말을 쓴 것이다. 주관은 成王이 모든 관리에게 왕을 도와 나라를 위해 직무를 다하도록 유시한 내용의 기록이다. 무일은 周公이 성왕을 위해 왕자로서 마땅히 알아 두어야 할 일을 훈계로 남긴 것이다.⁶⁶⁾

이러한 유교적인 성격은 동명왕에게 훈호를 내리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분봉의 사상적 기원은 『書經』 舜典의 ‘封十有二山’에서 알 수 있으며, 『예기』 왕제편의 “天子祭天下名山大川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려의 경우 비록 명산대천이 雜祀에 편제되어 있지만, 각 명산대천에 대해 봉호를 내리고 있다. 加號는 목종 즉위년(997) 국내 신들에게 勳號를 수여한 이래⁶⁷⁾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신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산천신을 분봉하는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⁶⁸⁾ 신들에 대한 가호가 성종대 유교의례의 정비를 거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경내 신들에게 가호한 것은 성종대 유교적 통치이념의 정비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전국토가 왕의 領地에 속한다고 하는 왕토의식의 관념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⁶⁹⁾ 그리고 고려 후기 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명산대천에 대한 봉작이 이루어지고 있다.⁷⁰⁾

이상에서 고려시대 잡사에 편제되어 있는 동명성제사를 통해서도 동명에 대한 숭배가 토착신앙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영명사는 동명왕의 眞殿이었고 동명왕이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 등을 통해 고려시대 동명에 대한 숭배가 불교·도교적인 측면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명왕

66) 이범직, 1991, 앞의 책, 34~37쪽 참조.

67) 목종은 즉위년 12월에 “國內神祇 皆加勳號”, 7년 11월에 “加方嶽州鎮神祇勳號” 하였다. 그리고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은 즉위년 4월에 “群望神祇 加勳號” 하였다.

68)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2001, 앞의 글, 130~139쪽; 김철웅, 2007, 앞의 책에 봉작의 이유에 대해 적고 있다.

69) 박호원, 1995,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2, 91쪽.

70) 김철웅, 2001, 앞의 글, 146~147쪽; 김철웅, 2007, 앞의 책; 채미하, 2008, 「신라의 사해와 사독」, 『역사민속학』 26, 14쪽.

에게 勳號하였다든가, 고려 국왕이 구제궁에서 『서경』의 여러 편을 강독한 것은 유교적인 성격으로 보았다.⁷¹⁾ 이로 볼 때 고려시대 동명에 대한 숭배는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관계로 각기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²⁾

IV. 東明聖帝祠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동명성제사는 서경에 있었다. 고려는 일찍이 지방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특히 수도인 開京 외에 三京을 두고 있다. 고려의 3경제는 풍수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⁷³⁾ 무엇보다 이들은 도호부·목과 더불어 계수관으로, 중앙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균형 조직체계상 그 의미를 갖고 있다. 京 가운데 王京인 개경을 제외하면 가

71) 이러한 모습은 고려 왕실의 조상제사에서도 살필 수 있다. 고려 왕실의 조상제례는 유교의례와 불교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태묘가 유교의례에 따른 것이라면, 봉은사에 있었던 태조의 진전인 효사관의 제례는 불교의례에 따라 거행된 것이다. 사찰 내에 태조의 영전을 둔 것은 고려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효사관의례는 가례 雜儀에, 서경의 예조묘는 길례 '잡사에 등재되어 있다.

72)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고려의 다종교 상황에서도 각 종교들이 관용적 포용주의와 순수정토주의를 동시에 지키고 있다고 한다(윤이홍 외, 2001, 『한국인의 종교관: 한국정신의 맥락과 내용』, 서울대학교출판부, 175~181쪽; 윤이홍 외, 2002, 『고려시대의 종교문화: 그 역사적 상황과 복합성』, 서울대학교출판부, 63~65쪽). 한편, 고려시대 동명숭배가 儒·佛·道敎 등의 외피를 쓰게 된 것은 고려시대 당시의 정치·사상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루려고 한다.

73) 서경은 고구려 이래로 枕山大水, 負江臨水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갖춘 중요한 땅으로 추앙받던 곳이다. 동쪽과 남쪽은 대동강에 면하고, 북쪽은 을밀대와 모란봉을 포괄하는 금수산에 기대어 있는데, 이것을 주산으로 하여 명당이 펼쳐진 형세이다. 서쪽으로는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이 흐르고 있어 풍수가에서 흔히 말하는 山河襟帶 바로 그것이다(이병도, 1954,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04~106쪽).

장 먼저 마련된 것이 태조 때 설치한 서경이었다. 이어 성종 때 동경이 설치되고, 문종조에 이르러 다시 남경을 둠으로써 삼경제를 이루었다. 개경은 흔히 上都라 하였고, 서경은 西都, 동경은 東都 혹은 都下라 하였다.⁷⁴⁾ 이 3경 중 가장 중시된 것은 서경이었고, 여기에는 分司制度라 하여 개경의 중앙정부와 유사한 기구와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문종 16년(1062)에 西京畿 4도가 설치되었다든가⁷⁵⁾ 예종 11년(1116) 諸學士院을 고쳐 分司國子監으로 한 것⁷⁶⁾은 하나의 예이다.

서경의 위상은 留守使의 경제적 입장에서조차 찾아볼 수 있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성종 연간에 서경·동경에는 留守事(使)(3품 이상), 부유수(4품 이상), 판관(6품 이상), 司錄參軍事(7품 이상), 掌書記(7품 이상), 法曹(8품 이상), 의사(9품), 문사(9품) 등을 두었는데, 뒤에 문종이 양주를 남경으로 바꾸고 외관을 둔 때에도 비슷한 체제를 갖추었다.⁷⁷⁾ 그렇지만 동경·남경의 유수

74) 이규보, 「蔚州戒邊城天神祭文」 및 「山海神合屈祭文」, 『동국이상국집』 38. 서경은 광종 11년(959)에 개경을 皇都로 고침과 더불어 서도로 개칭되고, 성종 14년(994)에는 서경이라는 옛 명칭이 다시 사용되었다가 목종 원년(997)에는 다시 호경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호경은 周에서 東都인 洛邑에 대하여 호경을 서도라 한 데서 나온 것으로, 당시 서경을 중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김상기, 1956, 「묘칭의 천도운동과 칭제건원론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44쪽).

75) 西京留守官平壤府 …… 太祖元年以平壤荒廢量徙塩白黃海鳳諸州民以實之 爲大都護府尋爲西京 光宗十一年 改稱西都 成宗十四年 稱西京留守 穆宗元年 又改鎬京 文宗十六年 復稱西京留守官 置京畿四道 肅宗七年 設文武班及五部 仁宗十三年 西京僧妙清及柳岳分司侍郎趙匡等叛 遣兵斷岳嶺道於是命元帥金富軾等將三軍討平之 除留守監軍分司御史外悉汰官班尋削 京畿四道置六縣 …… (『고려사』 58, 지 12, 지리 3, 서경유수관). 이 사료를 보면 문종 16년(1072)에는 다시 서경유수관을 두고 특히 서경 중심의 경기사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76) 睿宗十一年 改諸學士院爲分司國子監 判事一人三品兼之 祭酒一人少監以上兼之 司業一人員外郎以上兼之 博士一人八品 助教一人九品 刻漏院爲分司大史局 知事不限員數常參兼之 參外三人七八九品各一人 醫學院爲分司大醫監 判監知監不限員數以本職高下兼之 參外二人八九品各一人(『고려사』 77, 지 31, 백관 2, 외직 서경유수관).

77) 西京留守官太祖元年置平壤大都護府遣重臣二人守之 置參佐四五人 成宗十四年置知西京留守事一人三品以上 副留守一人四品以上 判官二人六品以上 司錄參軍事二人掌書記一人並七品以上 法曹一人八品以上 …… (『고려사』 77, 지 31 백관 2, 외직 서경유수관); 東京留守官成宗以慶州爲東京置 留守使一人三品以上 副留守一人四品以上 判官一人六品以上 司錄參軍事一人掌書記一人並七品以上 法曹一人八品以

가 문종 때 233石인 데 비해 서경유수사는 270石을 받고 있으며,⁷⁸⁾ 인종대에도 서경유수는 200石을, 동경·남경은 166石 10斗를 받고 있어⁷⁹⁾ 거의 40여石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차이가 그 위상의 높낮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벌사회로 소수에 의해 배타적인 권력을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고려사회 속에서는 배려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조 왕건은 서경을 중시하였다. 이로 볼 때 태조 사후에 그의 사당이 서경에도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관심을 끈다.

K. 明宗 二十年 十月 甲申 遣使西都 祭藝祖廟 西都藝祖之所興也 至今衣冠 猶在其廟 故後王 每於燃燈八關 遣大臣致祭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위의 사료 K에 따르면 명종 20년(1190) 10월에 西都로 사신을 보내 예조묘에 제사지내도록 했는데, 서도는 예조가 일어난 곳으로 지금까지도 의관이 그 묘에 있기 때문에 후대왕이 매번 연등과 팔관에 대신을 보내 치제한다고 하였다. 우선 예조는 왕조의 태조를 뜻하는 것으로,⁸⁰⁾ 藝祖廟는 왕조의 태조에 대한 사당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⁸¹⁾ 이로 볼 때 서경의 예조묘는 태조 왕건의 사당이 아닐까 생각한다.⁸²⁾ 이러한 예조묘는 앞의 사료 A에는 太祖廟,

上 醫師一人文師一人竝九品 …… (『고려사』 77, 지 31, 백관 2, 동경유수관); 南京留守官文宗以楊州爲南京置 留守一人三品以上 副留守一人四品以上 判官一人六品以上 司錄參軍事掌書記各一人竝七品以上 法曹一人八品以上 文師一人醫師一人竝九品以上 …… (『고려사』 77, 지 31 백관 2, 남경유수관).

78) 文宗朝定 二百七十石(知西京留守事) 二百二十三石(東京留守使) 二百石(西京副留守 南京留守八牧使安西大都護使) 一百二十石(南京副留守八牧副使安西大都護副使)(『고려사』 80, 지 34, 식화 3, 녹봉외관록)

79) 仁宗朝定 二百石(西京留守) 一百六十六石十斗(東南京留守)(『고려사』 80, 지 34, 식화 3, 녹봉 외관록).

80) 歸格于藝朝用特 [傳] 巡守四岳 然後歸告至文祖之廟 藝文也(『서경』 순전); 藝 魚世反 馬王云 禰也(『釋文』).

81) 김철웅, 2002, 앞의 글, 151쪽; 김철웅, 2007, 앞의 책.

B-3에서는 聖容殿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조묘는 성용전을 가리키며, 성용전은 태조의 초상을 모신 영전이라고 할 수 있다.⁸³⁾

고려시대 왕실의 조상제사 중 태묘와 별묘, 경령전, 제릉 등은 大祀에, 서경의 예조묘는 雜祀에,⁸⁴⁾ 효사관 의례는 嘉禮 雜儀에 등재되어 있다.⁸⁵⁾ 『고려사』 편찬자들은 고려의 의례를 유교의 오례체제로 구성하면서 유교의례가 아닌 것은 ‘잡사’와 ‘잡의’로 여겨 『고려사』 예지 吉禮 잡사와 嘉禮 雜儀에 기록하였다. 이 중 잡의에 편제된 孝思觀⁸⁶⁾은 개경 밖 봉은사에 있었던 태조의 진전으로 왕은 연등회 때 이곳에 행차하여 예를 올렸다.⁸⁷⁾ 그리고 서경의 태조진전인 예조묘에도 국왕들은 친사하고 있다.⁸⁸⁾ 이것은 개경의 효사관 못지 않

82) 예조를 김광수는 동명왕으로(김광수, 1988, 「고려조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고조선 의식」, 『역사교육』 43, 95~97쪽), 안지원은 태조 왕건으로(안지원, 2005, 앞의 책, 174쪽), 김창현은 태조 왕건의 진전으로 보고 있다(김창현, 2005b, 앞의 글, 34쪽).

83) 그리고 태조 진전은 감진전(謁太祖眞于感眞殿(『고려사』 12, 세가 12, 숙종 7년 8월 임오), 원묘[…… 遂掃離宮之氛褻聿瞻 原廟之衣冠 …… (『고려사』 98, 김부식전)] 등으로도 불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안병우, 2001,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전통사론』 7, 241~245쪽 참조.

84) 고려의 국가제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大祀	中祀	小祀	
『상정고금례』	社稷, 宗廟, 別廟	先農, 先蠶, 文宣王	風師, 雨師, 雷師, 靈星, 司寒, 馬祖, 先牧, 馬步, 馬社, 祭祭, 七祀, 州縣文宣王	
『고려사』	園丘, 方澤, 사직, 太廟, 별묘, 景靈殿, 諸陵	적전, 선감, 문선왕묘	小祀	雜祀
			풍사, 우사, 뇌사, 영성, 영제, 사한, 마조, 선목, 마사, 마보, 주현문묘	壓兵祭, 醮, 南海神, 城隍神祠, 川上祭, 老人星, 五溫神, 名山大川, 箕子祠, 東明聖帝祠, 藝祖廟, 祿祭, 叢祭, 天祥祭, 東神祠, 松岳廟, 木覓神祠, 道哲, 崑梯淵

※ 『태종실록』, 태종 13년 4월 신유조와 『고려사』, 예지 길례 참조.

85) 『고려사』 69, 지 23, 예 11 가례 잡의.

86) 改孝思觀爲景命殿(『고려사』 44, 세가 44, 공민왕 22년 5월 정묘).

87) 燃燈王如奉恩寺謁太祖眞燈夕必親行香眞殿以爲常(『고려사』 6, 세가 6, 靖宗 4년 2월 계미).

88) 현종은 9년 1월에 사신을 서경에 보내어 성용전에서 태조에게 제사지냈다(遣使西京祭太祖于聖容殿以重新肖像也(『고려사』 4, 세가 4, 현종 9년 춘정월 을미삭)). 현종은 태조의 초상화를 새로 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숙종은 7년 8월에 서경으로 행차하였다가 태조의 影殿(감진전)에 배알하였고(乙亥 幸西京 壬午 謁太祖眞于感眞

게 서경의 예조묘도 중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경 중시는 고구려 계승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고려 왕조가 국호를 통해 내세웠던 고구려 계승의식은 고려의 건국 당시 송악을 중심으로 하는 옛 고구려 영역 주민들의 고구려 지향적인 토착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⁸⁹⁾ 이러한 경향은 고려가 건국된 이후 계속 추진된 고구려 고토의 수복에 대한 희구 및 발해의 흡수, 서희와 거란의 담판⁹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도경』과 『송사』 등에 보이는 “高麗本曰高句麗”⁹¹⁾라는 기사에서는 외국에서 고구려를 고구려의 계승자 내지 동일 왕조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경에서 이루어진 팔관회는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 있다고 한다. 서경의 팔관회는 왕을 대행하여 파견된 대신이 齋祭를 거행하는 것이 상례였으나,⁹²⁾ 왕이 직접 행차하여 설행하기도 하였다.⁹³⁾ 이러한 서경의 팔관회는 개경의 팔관회와는 달리 10월에 개최되었다. 『고려사』 예지 가례 잡의의 仲冬八關會儀를 보면, 10월에는 서경에서 팔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개경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고 전하고 있다.⁹⁴⁾ 개경의 팔관회 날짜는 11월로 변경되었지만, 서경

殿(『고려사』 12, 세가 12, 숙종 7년 8월), 충렬왕은 4년 4월과 19년 10월에 서경에 이르러 성용전에 배알하였다고 한다(王次西京 謁聖容殿(『고려사』 28, 세가 28, 충렬왕 4년 4월 경오). 王至西京謁聖容殿 分遣人祭平壤君祠東明王及木覓廟(『고려사』 30, 세가 30, 충렬왕 19년 동10월 무신)). 그리고 인종 16년에 성용전에 直員 1인을 두었다(聖容殿置直員一人(『고려사』 77, 지 31, 백관 2, 외직 서경유수관)).

89) 박한설, 1977, 「고려 왕실의 기원-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총』 21·22 ; 김광수, 1988, 앞의 글, 93쪽.

90) “서희가 고려는 고구려의 후신이라고 논박한 것은 서희 개인의 임기웅변적인 현답이었다”고 보기도 한다(하현강, 1975, 「고려시대의 역사계승의식」, 『이화사학연구』 8 ; 하현강, 1988, 앞의 책, 387쪽).

91) 王氏之仙 蓋高麗大族也 當高氏政衰 國人以建賢 遂共立爲君長(『고려도경』 2, 世次王氏) ; 高麗本曰高句麗 …… 後唐同光天成中 其主高氏累奉職貢 長興中 權知國事 王建 承高氏之位 遣使朝貢 …… (『송사』 487, 열전 246, 외국 3 고려).

92) …… 舊制燃燈八關 必遣宰相 至西京 攝行齋祭 …… (『고려사』 100, 열전 13, 崔忠烈).

93) 고려 역대 국왕들은 정중에서부터 예종까지 재위기간이 짧았던 순종과 현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관회를 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서경 행차를 하고 있다. 왕들은 서경의 팔관회를 태조의 유훈을 실천하는 중요한 의례로 생각하고 있었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고려사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안지원, 2005, 앞의 책, 156~157쪽 ; 김창현, 2005a, 앞의 글, 104~109쪽 참조.

의 팔관회를 10월에 개설한 것은 고구려의 동맹제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⁵⁾

고구려 계승의식은 서경에 기자묘를 설치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숙중 7년(1102) 10월에 예부에서 기자에 대한 제사가 아직 사전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墳塋을 찾아 사당을 세워 제사할 것을 건의하였다.⁹⁶⁾ 숙중은 7년 7월에 서경으로 행차하였다가⁹⁷⁾ 같은 해 10월 갑술에 서경을 출발하여⁹⁸⁾ 13일이 지난 11월 정해에 개경에 도착하였다.⁹⁹⁾ 이로 볼 때 기자에 대해 치제하지는 예부의 건의는 서경에서 이루어졌고, 기자가 사전에 등재된 것은 숙중 때임을 알 수

94) 『고려사』 69, 지 23, 예 11, 가례 잡의.

95) 안지원, 2005, 앞의 책, 156쪽. 태조는 신라와 궁예의 팔관회를 계승해 불교에 의지해 나라를 안정시키려 한다면서 四仙樂部の 공연이 포함된 팔관회를 개최해 ‘供佛樂神之會’라 이름했으며(『고려사절요』 1, 태조 원년 11월. 『삼국사기』 50, 열전, 궁예전), 혼요에서 연등은 ‘事佛’로, 팔관은 ‘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팔관회를 도교제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능화, 이종은 역, 1977,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88쪽; 송항룡, 1987, 『한국도교철학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9쪽). 그러나 각종 속신적 요소를 포함하여 왕실 오래된 가례 잡의로 이루어진 팔관회는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변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도참사상이 유행하는 가운데 불교의 호국적 전개와 관련되어 행해진 국가적 제의로 보았다(양은용, 1983, 『고려시대의 도교와 불교』, 『한국종교』 8, 294쪽). 그리고 팔관회는 미륵신앙적 요소를 지닌 불교행사이면서도 토속신앙, 신선신앙의 성격을 많이 포함하였던 것이다(안지원, 2005, 앞의 책, 135~145쪽). 팔관회는 미륵·신선·百神 중심의 毬庭행사와 화엄 중심의 법왕사(서경은 흥국사) 행사로 구성되었다. 상원 연등회도 불교행사이면서 민간신앙을 가미한 것이었다(김창현, 2005b, 앞의 글, 93쪽 주 91). 고려인들은 팔관회를 仙風으로 인식하고 신선을 ‘彌勒仙花’라 칭할 정도로 팔관회는 선적인 경향이 강하고 신선과 미륵은 동일시되었다(김창현, 2005b, 앞의 글, 33쪽).

96) 肅宗七年 十月壬子朔 禮部奏 我國教化禮義自箕子始而不載祀典 乞求其墳塋立祠以祭 從之(『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箕子墓(在府城北兎山上)(『고려사』 58, 지 12, 지리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97) 庚戌幸西京 壬子禮部奏 謹按尙書疏王者所爲巡守者 以諸侯自專一國威福在己 恐其壅遏 上命澤不下流故自巡守爲民除弊 宜命西京留守及先排按察使先訪民間疾苦蠲除撫恤 及前降赦恩未盡奉行者 付有司施行 制可(『고려사』 11, 세가 11, 숙중 7년, 추 7월 경술).

98) 駕發西京(『고려사』 11, 세가 11, 숙중 7년, 동 10월 갑술).

99) 王還京都(『고려사』 11, 세가 11, 숙중 7년, 11월 정해).

있다. 그리고 명종 8년(1178) 4월에 서경의 공해전을 다시 정했는데, 先聖油香田, 즉 기자의 유향전은 50결이었다. 그런데 문선왕의 유향전이 15결이었고, 유수관에는 공해전이 50결, 祗位田이 약 272결, 육조에는 공해전이 20결, 지위전이 15결이었고, 제학원에는 공해전 15결, 서적위전 50결, 승록사에는 공해전·지위전이 각각 15결로 되어 있다.¹⁰⁰⁾ 이처럼 다른 관아에 비해 서경의 기자사에 비교적 많은 토지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¹⁰¹⁾ 기자에 대한 제사는 고구려에서도 행해졌고¹⁰²⁾ 기자 사당을 고려에서 건립한 것은 고구려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⁰³⁾ 그리고 개경의 동신사에 봉안된 동신성모는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녀이다. 이로 볼 때 고구려 국모신 신앙이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⁴⁾

이처럼 고려시대 서경에는 西京畿 4道 등을 두었고, 태조의 진전인 예조묘도 있었다. 그리고 서경의 팔관회는 고구려의 동맹제를 계승한 것이고, 고구려

100) 明宗八年四月 更定西京公廩田 有差留守官公廩田五十結 紙位田 二百七十二結三十七負七束 六曹公廩田 二十結 紙位田十五結 法曹司公廩田十五結 諸學院公廩田十五結 書籍位田五十結 文宣王油香田十五結 先聖油香田五十結(先聖則箕子) 藥店公廩田七結 僧錄司 公廩紙位田各十五結(『고려사』 78, 지 32, 식화 1, 전제 공해전시).

101) 그리고 충숙왕 12년 10월에 평양부로 하여금 기자사를 세워 제사하게 하였다(忠肅王十二年 十月 令平壤府立箕子祠以祭(『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教曰 …… 先代陵廟官禁樵牧毋令踐蹂箕子始封本國禮樂教化自此而行宜 令平壤府立祠以祭 其祭文宣王十哲七十子本國文昌侯弘儒侯務致蠲潔 …… (『고려사』 35, 세가 35, 충숙왕 12년 동10월 을미). 아마도 숙종 때의 전란으로 파괴되었던 기자사를 이 때 다시 건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민왕은 1년 2월에 기자사를 수리하였고(箕子受封於此教化禮樂遺澤至今宜令平壤府修祠奉祀其餘忠義之祀竝如舊儀(『고려사』 38, 공민왕 원년 2월 병자)], 5년과 12년에도 기자의 사당을 수리하고 치제하도록 하였다(恭愍王五年六月令平壤府修營箕子祠宇以時致祭 …… 二十年十二月命平壤府修箕子祠宇以時祭之(『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이러한 조처를 자주 내린 것은 공민왕이 기자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02)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구당서』 199 상, 열전 149 상, 고려).

103)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기자에 대한 제사를 고구려의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고려시대 유교 정치이념 표방과도 관련 있었을 것임을 밝혀 둔다.

104) 이와 관련해서 재미하, 2006, 앞의 글. 한편, 고려시대 동명에 대한 제사가 서경에서, 유화에 대한 제사가 개경에서 거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에서도 행해진 기자에 대한 제사도 서경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고려시대 고구려 계승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고려 왕조는 고구려적 이념과 신라적 전통이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고려 전기의 역사인식은 고구려 계승의식과 더불어 신라의 계승이라는 이원적 계승의식이 유지되어 왔다.¹⁰⁵⁾ 고려 현종 8년(1017) 고구려·백제·신라의 왕릉과 묘에 대하여 그 소재지 주현으로 하여금 修治하도록 하고, 樵採를 금하며 지나가는 자는 말에서 내리도록 조치하고 있다.¹⁰⁶⁾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와는 달리 신라와 백제의 왕릉·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더 이상 제도적 조치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 조치는 일시적 예우에 불과한 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명왕이 비록 제도적으로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든가 잡사로 취급하였다는 것은 고려 지배층의 역사의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¹⁰⁷⁾

그렇지만 서경의 동명성제사에서 고구려 시조 동명에 대한 제사가 국가제사의 하나로 고려 초부터 고려 말까지 행해진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⁸⁾ 이러한 모습은 동명성제사뿐만 아니라, 서경에 있는 다수의 동명에 대한 추모시설과 유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105) 고려가 고구려적 이념과 신라적 전통이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출발하여 고구려와 신라 두 왕조와 연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하현강, 1988, 앞의 책, 387쪽; 김의규, 1979, 「고려 전기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참조. 그리고 고려 건국에서 『삼국사기』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그 후 고려 말까지 신라 계승의식이 지배적인 방향이었다는 견해는 이우성, 1974, 「『삼국사기』의 구성과 고려 왕조의 정통의식」, 『진단학보』 38, 204~206쪽.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2001, 앞의 글, 31쪽; 김철웅, 2007, 앞의 책 참조.

106) 是月敎 高句麗新羅百濟王陵廟 竝令所在州縣 修治禁樵採 過者下馬(『고려사』 4, 세가 4, 현종 8년 12월).

107) 김태영, 1995, 「국가제사」, 『한국사』 26, 237~238쪽. 그리고 삼한을 통합한 고려 왕조가 전대 왕조의 시조로 기자와 동명왕만을 국가제사에 올린 것은 고려 지배층이 자국 역사의 궁극적 근원이라든가 구체적 전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극히 관념적인 차원의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08) 김광수, 1988, 앞의 글, 96쪽. 고려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동명왕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은 탁봉심, 1984, 「동명왕편에 나타난 이규보의 역사의식」, 『한국사연구』 44, 94~95쪽 참조.

다. 그리고 앞의 사료 C-1에 따르면 東明王墓는 서경의 동남쪽 中和의 경계인 龍山谷에 있었는데, 眞珠墓라고도 했다는 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⁹⁾

주몽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 19년 9월의 기록에 따르면 “왕이 돌아가니 이때 나이가 40세였다. 용산에 장사지냈다”고 한다.¹¹⁰⁾ 용산의 위치는 고구려의 건국지인 졸본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료 C-1에는 동명왕의 능이 평양에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왕운기』의 다음 기록이 관심을 끈다.

- L-1. 在位十九年九月 昇天 不復迫雲輶 聖子類利來嗣位 葬遺玉鞭成墳
瑩(今龍山墓也) (『제왕운기』 권하 고구려기)
2. 開國馬韓王儉城(今西京也 以高句麗縣名立國) (『제왕운기』 권하
고구려기)

위의 사료 L-1을 보면 재위한지 19년 9월에 승천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리가 와서 왕위를 이으시고 남기신 옥편으로 무덤을 이루어 장례를 치렀다(지금의 용산묘이다)고 한다. 동명왕의 죽음과 장사지낸 곳에 대하여 『삼국사기』 고구려기의 내용과 거의 같다. 그런데 L-2를 보면 고구려의 건국지를 졸본이 아닌 마한의 왕검성이라 하고, 왕검성에는 주를 달아 지금의 서경, 즉 평양이라고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승휴가 평양에 동명왕의 무덤이 있었다고 본 『제왕운기』의 기록은 고려 충렬왕 당시의 하나의 설이라고 생각되며,¹¹¹⁾ 이것이 사료 C-1에 보이는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109) 북한에서는 평양에 동명왕릉과 동명왕의 원찰이라고 추정하는 정릉사가 발굴 조사되어 동명왕의 무덤은 평양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도읍지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동명왕의 무덤을 평양으로 옮겨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427년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동명왕의 무덤에 대한 이장을 함께 준비하였고, 천도와 함께 졸본에 있던 무덤을 옮겨왔다는 것이다(전제현, 1994, 『동명왕릉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7~15쪽).

110)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號東明聖王(『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시조 동명성왕 19년).

111) 이와 관련해서 김영관, 2005, 「고구려 동명왕릉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명왕릉 중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었던 것이다.¹¹²⁾

이처럼 이승휴를 비롯한 고려 후기 지식인들은 동명왕의 능이 평양에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서경에 동명왕제사가 고려 초부터 있었고, 동명왕에 대한 추모시설 등이 있었던 것과 관련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동명왕에 대한 제사시설이라든가 추숭시설 등은 고려시대 고구려 계승의식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고려 말 고조선 계승의식이 부각되면서¹¹³⁾ 고구려 계승의식은 약화되어 갔다. 그리고 조선 세종 11년(1429) 동명왕이 기사자 남쪽 인근의 단군사에 단군과 함께 모셔지게 된다.¹¹⁴⁾

수기], 『고구려 연구』 20, 308~314쪽 참조. 한편, 동명성제사의 시기별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112) 東明王 墓在府巽方三十里許 中和境龍山(皆以畫班石營壙 世云眞珠墓 李承休記 東明王事跡曰 乘天不復回雲輶 葬遺玉篇成墳塋 卽此也 又仁理坊有祠宇 高麗以時降御押行祭 朔望亦令其官行祭 邑人至今有事輒禱 古老傳云 東明聖帝之祠也)(『세종실록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東明王廟(在龍山俗號眞珠墓 世傳高句麗始祖 常乘麒麟馬奏事 天上年至四十 遂昇天不返 太子以所遺玉鞭葬於龍山號東明聖王 詳見寧邊及成川)(『신증동국여지승람』 52, 중화군 능묘).
- 113) 이와 관련해서 『제왕운기』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광범성·유원성·다양성의 모든 출발을 민족 시조인 단군에게로 귀일시키고 있는 것과(이우성, 1962, 「고려 중기의 민족서사시」, 『성균관대 논문집』 7; 이우성, 1991, 『한국중세사학회 연구』, 일조각) 白文寶가 공민왕에게 진언한 우리나라의 역사는 분명히 단군으로부터 起算한다는 檀君紀元의 역사의식이 주목된다. …… 且天數循環周而復始 七百年爲一小元積三千六百年爲一大周元 此皇帝王羈理亂興衰之期 吾東方自檀君至今已三千六百年乃爲周元之會 …… (『고려사』 112, 열전 25, 白文寶).
- 114) 檀君祠在箕子祠南(今上十一年己酉始置 與高麗始祖東明王合祠 檀君在西 東明在東皆南向 每春秋 降香祝致祭)(『세종실록지리지』 평양부); 東明王祠(在箕子祠傍二祠同宇 檀君在西 東明在東 俱南向 每春秋降香祝祭以中祀 本朝世宗十一年始置)(『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사묘). 이와 관련해서 김태영, 1995, 앞의 책, 238~243쪽; 김창현, 2005a, 앞의 글, 126쪽; 김영관, 2005, 앞의 글, 314~318쪽.

V. 맺음말

이 글은 고려시대 국가제사의 하나인 고구려 시조 '동명'에 대한 제사가 고려 시대에 행해진 이유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이다. 우선 고려시대 동명에 대한 제사의 실체를 살펴보았는데, 동명성제사는 태조대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태조 2년 개경과 서경의 훼손된 탑·묘·초상 등을 정비하고 태조대 서경을 증시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이러한 동명성제사에는 지방관이 삭망으로 제사지냈고 사신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동명성제사는 고려 국가제사 체계 중 雜祀에 편제되어 있는데, 잡사는 고려 국가제사 체계의 특징이며 고려 국가제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동명성제사에 왕을 대신하는 사신을 보내 치제하였다는 것은 동명성제사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고려 국왕들은 평양에 자주 행차하였고 그곳에 궁궐을 건립하기도 하였는데, 영명사와 구제궁 일대는 동명왕과 고려왕이 시공을 초월해 만나는 공간이었다. 영명사는 동명왕의 진전이었고 동명이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 등에서 고려시대 동명에 대한 숭배가 불교·도교적인 측면을 띠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제궁에서 고려 국왕은 『서경』의 여러 편을 강독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적인 성격과 관련 있다. 이러한 유교적인 성격은 동명왕에게 훈호를 주었다는 것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동명성제사가 잡사에 편제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토착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로 볼 때 고려시대 동명숭배는 儒·佛·仙 3教 및 토착신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었고 그것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명성제사는 고려시대 고구려 계승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동명성제사는 서경에 있었다. 고려의 독특한 지방제도인 3경 중 서경은 다른 것에 비해 그 위상이 높았는데, 이는 서경기 4도의 설치 및 分司制度 등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서경의 위상은 태조의 진전인 예조묘가 서경에 있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제를 계승한 서경의 팔관회

라든가, 고구려에서 행해진 기자에 대한 제사가 서경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 말 고조선 계승의식이 대두되면서 동명성제사는 면면히 이어졌고, 조선 세종대 동명이 단군과 함께 배향되면서 동명성제사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 강성원, 1995, 「역사서와 역사인식」, 『한국역사입문』 ②-중세편, 풀빛.
- 김광수, 1988, 「고려조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고조선 인식」, 『역사교육』 43.
- 김상기, 1956, 「묘청의 천도운동과 칭제건원론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 김영관, 2005, 「고구려 동명왕릉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명왕릉 중수기」, 『고구려연구』 20.
- 김의규, 1979, 「고려 전기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 김인호, 1993, 「이규보의 현실이해와 정치·경제개론론」, 『學林』 15.
-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 김창현, 2005a,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승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 김창현, 2005b, 「고려 서경의 사원과 불교신앙」, 『한국사학보』 20.
- 김철웅, 2001,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
-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 김철준, 1990,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한국고대사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태영, 1973, 「조선 초기 사전의 성립에 대하여」, 『역사학보』 58.
- 김태영, 1995, 「국가제사」, 『한국사』 26.
- 김혜영, 1994,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사전」, 『국사관논총』 55.
- 박광용, 1991, 「한국인의 역사인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창희, 1990, 「이규보의 본질에 대한 연구」 (3), 『외대사학』 3.
- 박한설, 1977, 「고려 왕실의 기원-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총』 21·22.
- 박호원, 1995,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2.
- 서경전·양은용, 1985, 「고려 도교사상의 연구」, 『원광대논문집』.
- 송향룡, 1987, 『한국도교철학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신안식, 2000, 「고려시대 개경의 나성」, 『명지사론』 11·12.
- 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 안병우, 2001,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전농사론』 7.
- 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은용, 1983, 「고려시대의 도교와 불교」, 『한국종교』 8.
- 윤이흠 외, 2001, 『한국인의 종교관 : 한국정신의 맥락과 내용』,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이흠 외, 2002, 『고려시대의 종교문화 : 그 역사적 상황과 복잡성』,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이흠, 1986, 「『고려도경』에 나타난 종교사상」, 『한국종교연구』 1.
- 이능화, 이종은 역, 1977,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 이범직, 1991, 『한국중세사상 연구』, 일조각.
- 이병도, 1954,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 이세현, 1984, 「麗代の 雜祀와 그 신앙성에 대한 연구」, 『군산대논문집』 7.
-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 연구』, 일조각.
- 이우성, 1962, 「고려 중기의 민족서사시」, 『성균관대 논문집』 7.
- 이우성, 1974, 「『삼국사기』의 구성과 고려 왕조의 정통의식」, 『진단학보』 38.
- 이우성, 1991, 『한국중세사회 연구』, 일조각.
- 이우성·강만길 편, 1978,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 蔣伯潛·蔣祖怡 저, 최석기·강정화 역주, 2002,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 장상훈, 1996, 「고려 태조의 서경정책」,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제현, 1994, 『동명왕릉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채미하, 2006,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 탁봉심, 1984, 「동명왕편에 나타난 이규보의 역사의식」, 『한국사연구』 44.
- 하현강, 1967, 「고려서경고」, 『역사학보』 35·36.
- 하현강, 1975, 「고려시대의 역사계승의식」, 『이화사학연구』 8.
- 하현강, 1988, 『한국중세사 연구』, 일조각.
- 한우근, 1976, 「조선 왕조 초기에 있어서의 유교이념의 실천과 신앙·종교」, 『한국사론』 3.
- 황원구, 1969, 「고려사 예지의 편년적 고찰」, 『이흥직회갑논문집』.

[ABSTRACT]

Acknowledgement of Dongmyung in Goryeo Era :
focused from the national rite

Chai, Miha

This thesis is studying about the sanctity rite for Dongmyung which is one of national rites in Goryeo dynasty. First, studying the facts of sanctity rite for Dongmyung in Goryeo dynasty showed that it had been held from the Taejo period of the dynasty given from that the damaged top, tomb, portrait in Gaegyung and Seogyung had been maintained in Taejo 2 years (A.D. 919). The sanctity rite for Dongmyung is either perform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being Sangmang or by the representative despatched. This sanctity rite for Dongmyung was formed under various rites out of the national rites system in Goryeo, which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s understanding the national rites in Goryeo. The above facts showed the sanctity rite for Dongmyung had been placed as a great deal of importance in the national rites in Goryeo.

In addition, a region of Youngmyungsa and Gujegung was where king Dongmyung and the king of Goryeo met surpassed of time and place. Youngmyungsa being Jinjeong of king Dongmyung and the records that Dongmyung became god showed us the worship for Dongmyung was related to its natures of taoism and buddhism. And awarding title to Dongmyung (Hunho) and king of Goryeo reading several volumns of "Seogyung" at Gujegung showed its confucian

character. As stated above, The worship for Dongmyung was connected with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ystematically and complemented together.

The sanctity rite for Dongmyung was held at Seogyung in Goryeo, under which Seogyunggi 4 provinces was formed and there was Yejomyo, Jinjeon of Taejo. Also Palgwanhoi at Seogyung was succeeded from Dongmaengjae in Gogurye and the rite for Gija of Gogurye's was proceeded in Seogyung. Considering the above facts, performing the rite for Dongmyung, founder of Gogurye as national rite at the sanctity rite for Dongmyung at Seogyung showed that it had close relation with their awareness of succeeding Gogurye.

keywords

The sanctity rite for Dongmyung, Dongmyung, national rite, various rites, Youngmyungsa, Gujegung, Seogyung, Yeojomyo, Palgwanhoi, awareness of succeeding Gogurye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정병준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唐 왕조는 투항하거나 항복한 이민족들을 변방에 집단배치하고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들 이민족을 편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명한 羈糜府州는 그 중의 하나였다. 이민족 관리방식이 다양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각 민족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멸망을 전후하여 당으로 천사된 고구려인의 상당수도 당조의 군사 집단으로 편제되어 변경에서 군사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舊唐書』 王思禮傳에 “왕사례는 營州城傍高麗人이다”라고 했는데, 성방이란 당조에 내부한 이민족을 변방 軍鎮의 성 부근에 안치하여 원래의 종족조직을 온존시키며 필요할 때 군대로 동원하였던 唐代 兵種의 하나였다.¹⁾ 즉, ‘성방고려인’이

1) 李錦繡, 1998, 「“城傍”與大唐帝國」, 『唐代制度史略論稿』,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56~257 · 280~281쪽(원래는 『學人』 8, 1995). 이하 出典은 처음에만 적겠다.

란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특수한 군사집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唐六典』 권 5에 “秦·成·岷·渭·河·蘭 6州에 高麗兵과 羌兵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고구려인 군사집단의 존재를 전한다. 이들 6주는 당의 서북 변경에 위치하여 吐蕃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당조의 고구려인 군사조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했지만,²⁾ 각자의 관심에 따라 관련 사료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사료를 전면적으로 수집·검토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군사집단의 전체적 실상과 그 역사적 성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당조의 고구려인 이주

1. 唐太宗의 고구려 공격과 철수

수 왕조의 고구려 침공은 대규모 병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게 그다지 손실을 입히지 못한 반면,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은 고구려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다. 즉, 요하 동쪽에 위치한 고구려의 주요 방어성이 함락되면서 상당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많은 고구려인 포로와 투항자가 당으로 이주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당의 군대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먼저 당태종의 고구려 공격시에 생겨난 고구려인 포로와 투항자 및 이들에 대한 당의 조치를 살펴보자.

당태종은 貞觀 18년(644) 11월 고구려 공격을 선포하고,³⁾ 12월에 李世勣·

2) 이하에서 언급하는 논저는 기본적으로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3) 『資治通鑑』 권197, 貞觀 18년 11월조, 中華書局, 6214쪽; 『文館詞林校證』 권662,

李道宗·執失思力·契苾何力 등과 신라·백제·해·거란에게 일제히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했다.⁴⁾ 그때 이세적 휘하에는 蘭州와 河州의 降胡가 함께 종군했다.⁵⁾

다음 해(645) 2월 당태종은 낙양을 출발하여 북상하고, 같은 달 遼東道大總管 이세적이 이끄는 군대가 幽州에 당도하였다.⁶⁾ 그 다음 달 이세적은 營州의 柳城에서 출발하여 4월에 通定鎮에서 遼水를 건너 玄菟에 이르고, 요동도 부총관 이도종은 수천의 병사를 거느리고 新城에 이르렀다. 또, 營州都督 張儉은 契丹·奚 등을 선봉으로 삼아 요수를 건너 建安城으로 진격하면서 고구려 군대를 패배시키고 수천의 수급을 참했다.⁷⁾

곧 이어 이세적과 장검이 함께 遼東城의 동북에 위치한 蓋牟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만 여 인과 양식 10여 만 석을 획득했다.⁸⁾ 앞서 연개소문이 加尸城에서 700인을 차출하여 개모성을 함께 지키게 하였는데, 이들이 포로가 되자 “당군에 종군하여 스스로 죄를 씻겠다”고 청했다. 얼마 후 당태종이 白巖城을 점수한 뒤 700인을 모두 방면해 주었지만,⁹⁾ 이들이 당의 병사가 되기를 청한 것은 고구려인 포로가 자진하여 당의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어쨌든 그 직후 개모성에 蓋州가 설치되었다.¹⁰⁾ 한편, 唐軍이 개모성을 함락시킬

「太宗文皇帝伐遼手詔一首」, 中華書局, 217~218쪽; 『唐大詔令集』 권130, 討伐, 「討高麗詔」(貞觀十八年十月), 鼎文書局, 703쪽; 『全唐文』 권7, 「親征高麗手詔」, 中華書局, 86쪽 등.

4) 『資治通鑑』 권197, 貞觀 18년 12월조, 6215쪽; 『唐大詔令集』 권130, 討伐, 「親征高麗詔」, 703~704쪽; 『全唐文』 권7, 「命將征高麗詔」, 86~87쪽 등.

5) 『資治通鑑』 권197, 貞觀 18년 11월조,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帥步騎六萬及蘭·河二州降胡趣遼東”(6214쪽).

6) 『資治通鑑』 권197, 貞觀 19년 2월조, 6216~6217쪽.

7) 『資治通鑑』 권197, 貞觀 19년 3월과 4월조, 6218~6219쪽.

8) 『資治通鑑』 권197, 貞觀 19년 4월조, 6219~6220쪽. 한편,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 4월조에는 “獲一萬人·糧十萬石”(乙酉文化社, 193쪽)이라 적혀 있다.

9)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6월조, “初, 莫離支遣加尸城七百人戍蓋牟城, 李世勣盡虜之, 其人請從軍自效, 上曰, 「汝家皆在加尸, 汝爲我戰, 莫離支必殺汝妻子, 得一人之力而滅一家, 吾不忍也」. 戊戌, 皆廩賜遣之”(6223쪽);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조, 194쪽.

10)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6월조, 6223쪽; 『冊府元龜』 권117, 親征2, 貞觀 19

때 이도종이 큰 공을 세웠고, 태종이 이를 치하하여 奴婢 40인을 하사했다.¹¹⁾ 이때 노비는 고구려인 포로였을 가능성이 크다.

개모성이 함락된 4월 平壤道行軍大總管 張亮은 수군을 이끌고 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반도의 卑沙城을 습격했다. 뒤이어 程名振이 합류하고 부총관 王文度가 먼저 성을 오르기 시작하여 다음 달에 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8,000인을 획득했다.¹²⁾

5월 이세적이 요동성 밑에 도착했다. 고구려 보·기병 4만이 요동성을 구원하러 오자 이도종이 기병 4,000을 거느리고 맞아 싸웠는데, 처음에는 당군의 숫자가 적어 불리했으나 이세적이 합세하여 고구려군을 대패시켰다. 곧이어 당태종이 요동성 밑에 당도하고 함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요동성을 함락시키며 1만여 인을 죽이고 勝兵(즉 정예병사) 1만여 인과 남녀 4만 인 및粟 50만 석을 얻었다. 이곳에는 遼州가 설치되었다.¹³⁾

같은 달 당군은 白巖城으로 진군했다. 고구려는 烏骨城에서 병사 만여 인을 보내 백암성을 지원했지만, 契苾何力 등이 이를 물리쳤다. 6월 당태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세적이 백암성을 공격하자, 백암성 성주 孫代音(혹은 孫伐音)¹⁴⁾이 항복을 청했다. 당은 여기서 남녀 1만여 인을 얻었다. 이때 고구려의

년 6월조, 中華書局, 1402쪽. 그런데 개모성은 이후 고구려의 新城으로부터 계속된 위협을 받았다. 즉, 『舊唐書』 권77, 韋挺傳, “及前軍破蓋牟城, 詔挺統兵士鎮蓋牟, 示漸用之也. 挺城守去大軍懸遠, 與高麗新城隣接, 日夜戰鬪, 鼓譟之聲不絕. 挺不堪其憂, 且不平於失職, ……”(中華書局, 2671쪽); 『新唐書』 권98, 韋挺傳, 中華書局, 3908쪽; 『冊府元龜』 권41, 帝王部, 寬恕, 韋挺 조, 466쪽 참조.

11) 『舊唐書』 권60, 宗室, 李道宗傳, 2356쪽.

12) 『資治通鑑』 권197, 정관 19년 4월과 5월조, 6220쪽;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 5월조, 193쪽.

13) 『冊府元龜』 권117, 親征2, 貞觀 19년 5월조, 1401쪽; 『資治通鑑』 권197, 貞觀 19년 5월조, 6220~6221쪽;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조, 193쪽. 요동성이 함락된 직후 당태종은 조서를 반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이 사실을 천하에 알렸는데, 이 조서에는 요동성 처리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唐大詔令集』 권130, 平亂, 「破高麗詔」(貞觀十九年四月), 707~708쪽; 『全唐文』 권7, 太宗皇帝, 「克高麗遼東城詔」, 89쪽 등 참조.

14) 『冊府元龜』 권117, 親征2, 貞觀 19년 6월조, 1402쪽.

다른 城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백암성 안에 와 있던 고구려 병사들이 잡혔는데, 당태종이 이번에도 양식을 주어 자신들의 뜻에 맡겼다. 이렇게 포로를 방만한 것은 공격목표가 평양의 수뇌부에 있을 뿐 나머지 군인이나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어 고구려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 전술이라 하겠다. 태종은 백암성에 巖州를 설치하고 손대음을 자사에 임명했다.¹⁵⁾

같은 달 당태종이 요동성에서¹⁶⁾ 安市城에 도착하자, 고구려의 北部靺鞨 高延壽와 南部靺鞨 高惠眞이 고구려와 말갈 병사 15만을 이끌고 안시성을 구원 하러 왔다. 그러나 고연수 등은 성급하게 싸우다가 대패하여 2만여 인이 전사 하고, 퇴로가 막히자 3만 6,800인을 이끌고 당군에 항복해 버렸다.¹⁷⁾ 그러자 당태종이 고구려 군장들에게 당의 무관 계급을 수여하고 당으로 이주시켰다.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 6월조를 보자.

上이 靺鞨 이하 酋長 3,500人을 簡하여 戎秩을 수여하고 內地로 천사 시켰다. 나머지는 모두 풀어 주어 平壤으로 돌아가게 하니, 모두 두 손을 들고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환호하는 소리가 10리 밖에까지 들렸다. 靺鞨 3,500人은 거두어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6226쪽).

즉, 육살 고연수와 고혜진 이하 고구려의 酋長 3,500인에게 戎秩을 수여하여 內地로 천사시켰다는 것이다.¹⁸⁾ 『三國史記』 권21에는 ‘酋長’이 ‘官長’으로 적혀 있지만,¹⁹⁾ 모두 장수 또는 군장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당태종이 항복한 고구려의 군장들에게 용질을 수여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단순히 이들을 당으로 끌어안기 위한 것이였을까? 그런데 용질의 수여는 당의 官인이

15) 『資治通鑑』 권197 및 권198, 貞觀 19년 5월과 6월조, 6221~6223쪽.

16) 『冊府元龜』 권159, 革弊1, 貞觀 19년 6월조, 1920쪽.

17)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6월조, 6223~6226쪽 ;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조, 194~195쪽.

18) 『舊唐書』 권199 상, 高麗傳, “太宗簡靺鞨以下酋長三千五百人, 授以戎秩, 遷之內地”(5325쪽).

19)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 上, 4년조, “帝簡靺鞨已下官長三千五百人, 遷之內地, 餘皆縱之, 使還平壤, 收靺鞨三千三百人, 悉坑之”(195쪽).

된 것을 의미한다.²⁰⁾ 劉統은 이때 천사된 고구려 군장들이 隴右 등지의 군대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말한다.²¹⁾ 천사된 지역을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당태종이 이들에게 용질을 수여한 것은 그들의 군사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명확히 밝히겠지만, 이들이 천사된 '內地'는 당 영토 안의 내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 영토 자체를 가리킨다. 즉, '내지'는 당의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태종은 “나머지(3만 인)²²⁾는 모두 풀어 주어 평양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지만, 그 모두를 돌려보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앞서 당태종은 개모성과 백암성에서도 고구려 병사를 풀어 주었지만, 이는 소수이며 작은 시혜로 큰 선전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만의 병사는 언제든 다시 고구려의 전투력으로 바뀔 수 있다. 당태종이 방면을 선포하면서 일부 병사들을 풀어 주어 선전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을 억류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용질을 수여한 3,500인의 군장들이 당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거느렸던 병사들이 필요했을 수가 있다. 당태종이 투항한 이민족을 집단으로 변경에 안치하여 군사력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던 사실²³⁾을 감안하면, 3만 고구려 병사의 상당수도 군장들과 함께 당으로 이주되어 군사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²⁴⁾

당태종은 같은 해 7월 안시성 부근에서 고연수를 鴻臚卿, 고혜진을 司農卿에 임명했다.²⁵⁾ 이 때문인지 9월에 두 사람은 당태종에게 “奴는 이미 大國에

20) 『新唐書』 권145, 高麗傳에는 아예 “帝料酋長三千五百人, 悉官之, 許內徙”(6192쪽)라고 하여 ‘官’으로 삼았다고 적혀 있다.

21) 劉統, 1998,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58쪽.

22) 『唐會要』 권95, 高句麗조, “上以酋長三千五百人授以戎秩, 遷之內地, 餘三萬人悉放還平壤. 收靺鞨三千三百人, 竝坑之(上海古籍出版社, 2021쪽).

23) 章韋, 1990, 『唐代蕃將研究(續編)』, 聯經, 2~3쪽; 馬馳, 1990, 『唐代蕃將』, 三秦出版社, 128쪽 등.

24) 당태종이 방면을 선포한 이상, 이들 3만의 고구려 병사들은 이미 포로의 신분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5) 『冊府元龜』 권170, 帝王部, 來遠, 貞觀 19년 7월조, “詔曰, …… 高麗位頭大兄理大

몸을 맡겼기 때문에, 감히 정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시성을 그대로 놓아두고 烏骨城을 함락시킨 후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²⁶⁾ 하지만 고연수는 항복한 때로부터 항상 울분에 차 있다가 이내 근심으로 죽었다고 한다.²⁷⁾ 이는 당조에 봉사하게 된 고구려인들 역시 울분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뒤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다수의 고구려인 포로를 고토와 멀리 떨어진 서북 변경지역으로 이주시킨 것도 이러한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시성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당태종은 마침내 군대를 돌리지만, 그 직전 요주(즉 요동성)와 개주(즉 개모성)의 호구를 먼저 당으로 이주시켜 요수를 건너게 했다. 즉, 『자치통감』 권198, 貞觀 19년 9월조를 보면

먼저 遼州와 蓋州 2주의 戶口를 뽑아 요수를 건너게 하였다(6230쪽).²⁸⁾

라고 한다. 앞서 당군이 요동성과 개모성에서 획득한 병사와 일반인 포로의 숫자는 모두 승병 1만여 인과 일반 호구 6만여 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통감』 권198, 정관 19년 8월조를 보자.

무릇 高麗를 정벌하여 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 10성을 함락시키고 遼·蓋·巖 3주의 戶口 7만 사람을 中國으로 이주시켰다(6230쪽).

夫後部軍主高延壽·大兄前部軍主高惠真等，并馬韓酋長，鯁海英髦，分義景於扶桑，數鍾天厭，竊封疆於孤竹，自貽神怒，臨危轉禍，率衆來降，申其膝行之敬，成其面縛之禮，向風舉踵，良足可嘉。……延壽可鴻臚卿，惠真可司農卿(2051쪽)；『全唐文』 권7, 太宗皇帝, 「授高延壽高惠真官爵詔」, 91쪽；『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7월조, 6227쪽. 흥려경과 사능경은 모두 문관직인데, 명예직으로 수여된 것이다.

26)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7월조, 6228~6229쪽.

27)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조, “高延壽自降後，常憤歎尋以憂死，(高)惠真竟至長安”(197쪽). 물론 이러한 고연수의 울분은 그가 성급하게 당군과 대적하다가 항복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일 수도 있다.

28)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조, 197쪽.

즉, 당태종이 함락시킨 10성 중에서 요주·개주·암주 3주의 호구 7만인을 ‘中國’으로 이주시켰다고 적혀 있다.²⁹⁾ 한편, 『唐會要』 고구려조에는 “무릇 遼·蓋·巖 2(3의 오류)주의 戶口를 옮겨 內地로 들인 자가 前後에 7만여 인이다”³⁰⁾라고 적혀 있다. 이때 ‘내지’는 앞의 ‘중국’과 대응되며 모두 당의 영토를 가리킨다.

그런데 ‘7만여 인’은 당군이 요주·개주·암주 세 주에서 획득한 고구려인 호구를 합친 숫자와 꼭 일치한다. 당군은 개모성에서 2만여 인, 요동성에서 승병 1만여 인과 남녀 4만인, 백암성에서 남녀 1만여 인을 획득했는데, 승병 1만여 인을 제외한 일반 남녀를 합치면 모두 7만여 인이 되는 것이다. 숫자의 일치성을 중시한다면, 당군은 3주의 일반 호구를 모두 중국으로 이주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치통감』 권198의 기사에 대한 『考異』에는 이와는 다른 내용이 전한다.

『實錄』에 “3주의 戶口를 옮겨 內地로 들인 자가 前後에 7만 人이다”라고 적혀 있다. 『癸丑詔書』에는 “戶 10만과 口 18만을 획득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옮기지 않은 자를 합쳐서 말한 것이다(上同).

즉, 요주·개주·암주 3주에서 당군이 획득한 호구의 합계는 모두 10만 호, 18만 인이지만, 이중 7만 인을 중국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이다. 이 기록이 타당하다면 당군이 세 주에서 획득한 호구 숫자는 당이 ‘내지’로 이주시킨 호구만을 기록한 것일 수 있다.

秦升陽 등은 당태종이 당으로 이주시킨 7만 인은 대부분 漢族이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전부터 요동에 중국의 군현이 설치되어 한족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을 것을 들고 있다.³¹⁾ 하지만 중국 군현에 한족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29) 『三國史記』 권21, 寶藏王本紀上, 4년 10월조, 197쪽에도 같은 기사가 적혀 있다.

30) 『唐會要』 권95, 高句麗조, 2021쪽.

31) 秦升陽·李樂瑩·黃甲元, 1997, 「高句麗人口問題研究」, 『通化師院學報』 1997-4, 40쪽; 秦升陽, 2004, 「高句麗人口問題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4, 74쪽.

힘들고, 중국 군현이 사라진 지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동성에서 당의 포로가 된 승병의 행방이 궁금하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기록은 사서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요동성이 마지막까지 당군에 저항했기 때문에 당태종이 시체를 베풀지 않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당군이 철수하기 전에 당의 포로로서 '내지'로 끌려갔을 것이다. 『舊唐書』 권66, 房玄齡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旬月이 지나지 않아 바로 遼東을 함락시키고, 전후에 포로로 잡은 것이 수십 만 가량이었다. 諸州에 분배하니 가득 차지 않은 곳이 없었다 (2465쪽).³²⁾

당태종이 획득한 포로가 수십 만 가량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 후 방현령이 태종에게 고구려에 대한 再공격을 중지할 것을 간청하면서 645년의 공로를 칭송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수십 만'이라는 숫자는 당태종이 645년에 철군하면서 이주시킨 고구려인이 적어도 7만이 넘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요동성의 승병 역시 당으로 끌려갔을 것이지만,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의 경우는 당에 저항한 탓에 모두 군인들에게 분배되어 노비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 그대로 잘 훈련된 병사들이다. 당태종이 이들을 당의 군사력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_ 고구려 멸망 직후

당고종은 고구려 지도부의 분열을 틈타 總章 원년(668) 9월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먼저 멸망 당시 고구려의 호구 숫자를 보면, 『구당서』 지리지 등

32) 『新唐書』 권96, 房玄齡傳, “不旬日, 拔遼東, 虜獲數十萬”(3856쪽).

에 “고구려는 본래 5部, 176城, 69만 7,000戶였다”³³⁾라고 적혀 있다. 근래 중국 학계에서는 당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실제 고구려인 인구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³⁴⁾ 하지만 해당 호구 숫자는 평양이 함락된 직후 당이 고구려를 지배하기 위해 파악한 것이고 또 다수의 사서에 한결같이 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그 자체로서 최소한의 사료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해 5월 당은 대대적으로 고구려인을 唐土로 이주시켰다. 『구당서』 권5, 高宗本紀下, 총장 2년(669) 5월조를 보자.

高麗 戶 28,200, 車 1,080乘, 소 3,300頭, 말 2,900필, 낙타 60두를 이주시켰다. 장차 內地로 옮기기 위해 萊州와 營州 2주로 보낸 후 江·淮 이남 및 山南·并·涼 以西 諸州의 空閑處에 나누어 安置하게 했다.

여기서 양자강과 淮水 이남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인 반면, 山南·并州·涼州 이서의 공한지역은 변경 내지는 準변경지역에 속한다. 그리고 ‘내지’는 이러한 두 지역을 포함하는 말로 ‘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³⁵⁾

33) 『舊唐書』 권39, 地理志 2, 安東都護府조, “高麗本五部, 一百七十六城, 戶六十九萬七千。其年十二月, 分高麗地爲九都督府, ……”(中華書局, 1526쪽); 『舊唐書』 권199 상, 高麗傳, “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總章元年十二月)乃分其地置都督府九·州四十二·縣一百”(5327쪽); 『新唐書』 권220, 高麗傳, “總章元年九月)執藏·男建, 收凡五部百七十六城, 戶六十九萬”(中華書局, 6197쪽);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寶藏王 27년 12월조, “分五部·百七十六城·六十九萬餘戶爲九都督府·四十二州·百縣”(乙酉文化社, 205쪽); 『唐會要』 권73, 安東都護府, 總章 원년 9월 14일조, “遼東道行軍總管·司空李勣平遼東, 其高麗舊有五部, 一百七十六城, 六十九萬七千戶”(1562쪽); 『資治通鑑』 권201, 總章 원년 12월조, “分高麗五部·百七十六城·六十九萬餘戶, 爲九都督府·四十二州·百縣”(6356~6357쪽).

34)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 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연구재단, 71~75쪽 참조. 한편, 근래에 한국 학계에서도 고구려 말기의 전쟁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朴南守, 2004, 「三國의 經濟와 交易活動」, 『신라문화』 24, 15~16·22쪽 등 참조.

35) 앞 절에서 ‘內地’와 ‘中國’이 통용되었던 사례를 보았다.

그런데 같은 사실이 『자치통감』 권201, 총장 2년 4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高麗의 民이 離叛하는 경우가 많아, 勅을 내려 고려 3만 8,200戶를 江·淮의 남쪽 및 山南·京西 諸州 空曠의 땅으로 옮기게 하고, 그 貧弱한 자들은 남아 安東을 지키게 했다(6359쪽).

즉, 사민된 숫자가 3만 8,200호였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도 “高宗이 3만 8,300호를 강희의 남쪽 및 山南·京西 諸州 空曠의 땅으로 이주시켰다”³⁶⁾고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에 5인을 곱하여 당시 이주된 인구 숫자를 19만 1,500인으로 보기도 한다.³⁷⁾ 하지만, 앞의 『구당서』 권5 외에도 『通典』과 『唐會要』 등 여러 사서에 당시 사민된 숫자가 2만 8,200호였다고 적혀 있고,³⁸⁾ 편찬시기도 이들 사서가 앞선다. 따라서 학계 일반에서는 669년 5월 당으로 이주된 고구려 민호의 숫자가 2만 8,200호였을 것으로 본다.³⁹⁾ 이 『자치통감』 권201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貧弱한 자들은 남아 安東을 지키게 했다[留其貧弱者, 使守安東]”는 구절이다. 고구려 유민들을 병사로 편제하여 안동도호부를 지키게 했다는 말이다. 다만,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거론하겠다.

그 후 당으로 이주된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高藏이 遼東州都督·朝鮮郡王⁴⁰⁾에 임명되어 요동으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왔다. 그러

36) 『三國史記』 권22, 寶藏王本紀 下, 總章 2년 4월조, 205쪽. 이는 『자치통감』 권201의 기사에 의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37) 李殿福·孫玉良, 2005, 『중국 학자가 쓴 고구려사』, 학연문화사, 261쪽(원래는 『高句麗簡史』, 삼성출판사, 1990); 楊保隆, 1998, 「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1998-4, 69쪽 등.

38) 『通典』 권186, 邊防2, 高句麗조, “(總章)二年,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配江淮以南·山南·京西”(中華書局, 5019쪽); 『唐會要』 권95, 高句麗조, “移其戶二萬八千於內地”(2025쪽).

39) 金文經, 1984, 「唐代的 高句麗遺民 徙民策」, 『唐代的 社會와 宗教』, 승전대학교출판부, 19~20쪽; 耿鐵華, 박창배 역, 2004,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상, 고구려연구재단, 451쪽 등.

나 고장의 모반 기도가 발각되면서 그들은 또다시 중국으로 끌려갔다. 『자치통감』 권202, 高宗 儀鳳 2년(677) 2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工部尙書 高藏을 遼東州都督에 임명하고 朝鮮王에 봉해 요동으로 돌아가서 高麗 餘衆을 安輯하게 하고, 이전에 諸州에 배속되었던 고려인을 모두 고장과 함께 돌려보냈다. …… 고장이 요동에 이르러 謀叛을 꾀해 몰래 鞅鞢과 내통하였기 때문에 소환하여 耶州로 옮겨 그곳에서 죽게 하고, 그 사람들은 河南·隴右의 諸州로 散徙시키고, 貧者는 安東城傍에 두었다(6383쪽).

고장이 요동으로 돌아올 때 당에 있던 고구려인들도 모두 귀환하였다가 ‘貧者’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천사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① 李德山은 당조가 그 모두를 요동으로 귀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귀환하였던 사람은 대략 수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楊保隆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고장이 유배되면서 이들 수만의 고구려인이 다시 중국으로 이주되었을 것으로 본다.⁴⁰⁾ ② 李殿福·孫玉良은 요동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이주된 고구려 유민이 처음 당으로 이주된 사람들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고구려 유민의 재기 우려를 들고 있다.⁴²⁾ ③ 일반적 견해로, 『자치통감』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장의 모반 기도로 다시 唐土로 이주된 고구려 유민의 상당수가 이번에도 당의 변경지역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중국 안에서의 내지로 이주된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형태로건 軍事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치통감』 권202에 보이는 “貧者는 安東城傍에 두었다”는 구절은 앞의 『자치통감』 권201에 보이는 “安東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과 대응된다. 두 기

40) 『舊唐書』 권5, 高宗本紀 下, 儀鳳 2년 2월조, 102쪽.

41) 李德山, 2006, 「高句麗族人口去向考」, 『社會科學輯刊』 2006-1, 148쪽; 楊保隆, 1998, 앞의 글, 70쪽.

42) 李殿福·孫玉良, 2005, 앞의 책, 261~262쪽.

록은 결국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때의 '城傍'은 성 옆이 아니라 머리 말에서 말한 군사조직으로서의 성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조는 고구려인으로 성방을 조직하여 안동도호부를 지키게 하였던 것이다. 이 사례는 당대 군대조직으로서의 성방이 조직된 최초 사례로, 이후 성방의 선구가 되었다고 간주된다.⁴³⁾

안동도호부는 676년 2월 치소를 평양에서 遼東郡 故城으로 옮겼다가 다음 해 2월 新城으로 옮겼다.⁴⁴⁾ 같은 달에 “安東城傍에 두었다”는 것은 치소 이동과 동시에 신성에 고구려인 성방을 새롭게 편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貧者’(또는 貧弱者)를 안동도호부에 둔 이유가 궁극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는 요동의 고구려 유민들이 당조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빈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고구려 고토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킨 경우이다. 둘째는 당조가 안동도호부를 유지할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자만을 남겨둔 경우이다.

백제 유민의 경우에도 ‘성방’ 사례가 확인된다. 고종 의봉 2년(677) 2월 고장이 요동으로 귀환할 때 夫餘隆이 熊津都督·帶方郡王에 임명되어 요동의 안동도호부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⁴⁵⁾ 그러나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通典』 권185, 邊防典, 百濟조에는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 옛땅은 신라에게 병합되고 [요동의 웅진도독부] 城傍의 나머지 무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약하게 되어 돌궐과 흠여가 말갈에게 투항했다

43) 方積六, 1986, 「關於唐代團結兵的探討」, 『魏晉南北朝隋唐史』 1986-7,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72쪽(원래는 『文史』 25, 1985).

44) 日野開三郎, 1984, 「唐の高句麗討滅と安東都護府」,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8, 三一書房, 30~32쪽; 정병준, 2007a, 「營州의 大祚榮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동북아역사논총』 16, 19쪽 등.

45) 『新唐書』 권220, 百濟傳, “儀鳳中, 進帶方郡王, 遣歸蕃. 是時, 新羅疆, 隆不敢入舊國, 寄治高麗死”(6201쪽); 『舊唐書』 권199 상, 百濟傳, “(劉)仁願·(劉)仁軌等既還, (扶餘)隆懼新羅, 尋歸京師. 儀鳳二年, 拜光祿大夫·太常員外卿·兼熊津都督·帶方郡王, 命歸本蕃. 安輯餘衆. 時百濟本地荒毀, 漸爲新羅所據, 隆竟不敢還舊國而卒”(5334쪽).

(4992쪽).

여기에 보이는 ‘성방’ 역시 군사조직으로서의 성방을 가리키며, 그 구성원은 백제 유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⁶⁾

한편, 당군의 포로가 되거나 항복했던 고구려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발해를 세운 大祚榮의 경우를 통해 추측해 보자. 먼저 『三國遺事』 권1, 靺鞨渤海조를 보면

『新羅古記』에 말하기를, 高麗 舊將인 祚榮의 姓은 大氏인데, 殘兵을 모아 太伯山 남쪽에서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 했다(서문문화사, 38쪽).

라고 하여, 그는 원래 ‘고구려 舊將’이었다고 적혀 있다.⁴⁷⁾ 또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靺鞨의 족속이 번성해져 무리를 이루고 粟末小蕃이라 했는데, 일찍이 句驪를 좇아 內徙하더니, 그 首領 乞四比羽 및 大祚榮 등이 武后 臨朝 시기에 이르러 營州에서 죄를 짓고 도망하여 바로 荒丘를 점거하고 처음에 振國이라 일컬었습니다(『崔文昌侯全集』 권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8쪽).

라고 하여, 그가 영주 시절에 首領이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대조영이 고구려의 장수로 활동하였고 영주에 천사된 뒤에도 특정한 집단을 거느렸음을 나타낸다. 이때 수령은 추장이란 말과 같은 용례⁴⁸⁾로 軍將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고연수 이하 ‘추장 3,500인’의 사례 등을 통해 알

46) 정병준, 2007b, 「당에서 활동한 백제유민」, 『百濟 遺民들의 활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00~301쪽.

47) 『帝王韻紀』 卷下에도 ‘前麗舊將 大祚榮’이라고 말한다(『帝王韻紀』, 도서출판역락, 「원문」의 267쪽).

48) 『三國遺事』 권1, 靺鞨渤海조에는 “通典云, 渤海本靺鞨, 至其酋祚榮立國, 自號震旦”

수 있다. 대조영이 영주에서도 군사집단을 거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조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당군에 항복하거나 포로가 된 고구려 군인들도 당의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도 옳지 않을까?

劉春英·姜維東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민은 중국 내지인 하남 일대에 안치하고, 전쟁 포로는 농우 일대에 안치했다고 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冊府元龜』에 적힌 “고구려 俘虜를 사막의 서쪽에 배치하고, 編氓을 靑州와 徐州의 서쪽에 산재시켰다”⁴⁹⁾는 기록을 들고 있다. 그리고 劉 등은 당이 고구려 포로를 농우에 대거배치한 이유는 호구가 부족한 서쪽 변경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중 건장한 남자는 ‘정규군’에 편입되었다고 말한다.⁵⁰⁾ 하지만 당조가 과연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고구려 유민을 양분했을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고구려의 병사가 전쟁 포로 취급을 받았다면, “포로를 농우에 대거배치하였다”는 견해는 당조의 고구려인 군사집단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8쪽)이라 하여 ‘膾’라고 하는 용례가 보인다.

- 49) 『冊府元龜』 권366, 將帥部, 機略 6, 王峻, “高麗俘虜置之沙漠之西, 編氓散在靑徐之右. 唯利是視, 務安疆場”(4358쪽); 『新唐書』 권111, 王峻傳, “高麗舊俘置沙漠之西, 城傍編夷居靑·徐之右”(4155쪽).
- 50) 劉春英·姜維東, 2001, 「唐王朝對內遷高句麗人的安置措施」, 『長春師範學院學報』 2001-4, 21~22쪽; 拜根興, 2006, 「高句麗·百濟遺民關聯問題研究的現狀與展望」, 『中國歷史地理論叢』 2006-2, 154쪽; 바이건싱, 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58쪽 참조.

Ⅲ. 고구려인 군사집단의 분포와 兵種

1. 營州와 幽州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성방은 안동도호부뿐 아니라 遼西 營州에도 있었다. 『舊唐書』 권110, 王思禮傳을 보자.

왕사례는 營州城傍高麗人이다. 父 虔威는 朔方軍將이 되어 翫戰으로 써 이름이 알려졌다. 왕사례는 젊어서부터 戎旅를 익혔고 節度使 王忠嗣를 따라 河西로 가서 哥舒翰과 더불어 押衙가 되었다. 가서한이 隴右 節度使에 임명되니, 왕사례는 主筆과 함께 가서한의 압아가 되었고, 石堡成을 함락시킨 공으로 右金吾衛將軍·充關西兵馬使·兼河源軍使에 제수되었다”(3312쪽).

왕사례가 영주의 성방 고구려인이고 부친이 군인이었던 사실로 보아 부친 왕건위도 영주 성방 고구려인이었을 것이 가능성이 크다. 부자 모두 영주의 軍鎮 부근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해당 군진의 지휘⁵¹⁾를 받던 고구려인들로 구성된 군사집단인 ‘성방 고려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왕건위가 영주에서 삭방군으로 옮겨가면서 왕사례도 따라갔다. 이들 부자의 轉屬은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조의 명령에 따른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영주 성방 고구려인의 상당수도 집단으로 삭방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왕사례는 절도사 왕충사를 따라 河西軍과 隴右軍에 차례로 전속되어 토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 關西兵馬使·河源軍使가 되고, 玄宗 天寶 14년(755) 11월 ‘安史의 亂(755~763)’이 일어나자 처음으로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서 당

51) 필자는 이전 글에서 ‘영주성방 고려인’이 營州都督府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수정한다. 이전 글이란 정병준, 2005a, 「『營州城傍高麗人』王思禮, 『고구려연구』 19, 256쪽; 정병준, 2007a, 앞의 글, 16쪽을 말한다.

의 유력 장수로서 큰 활약을 펼쳤다.⁵²⁾

왕건위 등이 영주를 떠난 뒤에도 적지 않은 고구려 유민들이 영주에서 군인으로 활동했다. 李錦繡에 의하면, 안사의 난 이후 山東지역을 지배한 李正己 역시 영주의 ‘성방 고려인’이었고, 그와 함께 영주에서 산둥으로 남하한 2만여 명의 平盧軍 병사 중에도 ‘성방 고려인’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⁵³⁾ 이것이 타당하다면, 평로군의 남하는 고구려 유민집단이 대거 당의 내지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한다. 이들 군사집단은 산둥에서 독자적 세계를 형성하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다. 이는 고구려 유민사의 일대 사건이라고 해도 좋다.

필자 역시 이정기 등이 ‘성방 고려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후희일의 행적 때문이다. 후희일의 모친은 이정기의 고모, 즉 고구려 유민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후희일은 현종 천보 말에 안동도호부 관하의 保定軍의 군장이 되었다. 당시 안동도호부는 평로절도사의 지휘를 받았고, 그 실질 책임자는 副都護였다. 그리고 부도호는 保定軍使를 겸하였으며, 도호부와 보정군 모두 遼西郡 故城에 위치해 있었다. 곧 보정군은 도호부의 주력군이었던 것이다. 그런 중 평로절도사 등을 겸임한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 내지로 진입해 들어가자, 평로군의 劉客奴 등이 안동도호부의 군장인 王玄志 등과 함께 거병하여 평로를 장악하고 당조에 귀항했다. 이때 후희일과 이정기도 왕현지와 함께 거사에 참여한 공으로 당의 朝官을 제수받았다.⁵⁴⁾ 현종 천보 연간의 안동도호부 관하에는 병사 8,500인과 군마 700필이 있었으며,⁵⁵⁾ 뒤에 왕현지 등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평로를 공격할 때 정병 6,000여 인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전한다.⁵⁶⁾ 평양과 신성의 안동도호부에 성방 고구려인이

52) 鄭炳俊, 2005a, 위의 글, 255~280쪽.

53) 李錦繡, 1998, 앞의 글, 290쪽.

54) 鄭炳俊, 2002, 「安史의 亂과 李正己」, 『동국사학』 37, 529~530쪽; 鄭炳俊, 2005b, 「平盧節度使 侯希逸 - 安東都護府의 軍將에서 平盧淄青節度使로」, 『중국사연구』 39, 49~54쪽.

55) 『通典』 권172, 州郡 2, 4482쪽; 『舊唐書』 권38, 地理志 1, 1387쪽; 『資治通鑑』 권 215, 玄宗 天寶 원년 정월조, 6849쪽.

56) 『續日本記』 권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758) 12월조, 吉川弘文館, 258쪽.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8,500인 또는 6,000여 인 안에 성방 고구려인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⁵⁷⁾ 말하자면, 후희일은 고구려인 성방을 지휘하거나 함께 행동하였던 셈이다. 그런 중에 이정기도 안동도호부의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희일의 모친이 이정기의 고모였고, 또 후희일과 이정기 두 사람이 줄곧 같이 행동한 것으로 미루어 본 것이다. 고구려 유민으로서 안동도호부의 군인이 되었다면, 안동도호부의 성방 고구려인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⁵⁸⁾

필자는 또 대조영 역시 영주의 성방 고구려인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적이 있다.⁵⁹⁾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영이 거사할 때 수령 또는 추장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추장은 특정한 집단을 거느린 것을 나타내지만, 영주에는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靺鞨府州 같은 조직이 없었다. 영주에 고구려인 조직이 있었다면 성방과 같은 군사집단이 유력하다.⁶⁰⁾ 둘째, 대조영이 동주하다가 당의 추격을 물리칠 때, 60세에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문령에서 명장 이해고를 참패시킬 정도로 ‘驍勇善用兵’ 또는 ‘驍勇善戰’ 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가 일반 편호의 생활을 하였다면 이러한 면모를 보이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영주에서도 여전히 군사활동에 종사했음을 시사한다.⁶¹⁾

영주만이 아니라 幽州에도 고구려인 성방으로 의심되는 집단이 등장한다. 안사의 난 중에 史朝義가 父 사사명을 죽이고 황제에 오른 직후 환관을 유주로 보내 사사명이 총애한 史朝清을 제거하자, 유주가 한동안 지중지란에 빠져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이때 高鞠仁 등이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가

57) 그 다수가 고구려인 성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8) 정병준, 2007a, 앞의 글, 18~20쪽.

59) 정병준, 2007a, 앞의 글, 21~23 · 33~34 · 37~38쪽.

60) 만약, 대조영이 영주에서 말갈인 취급을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즉, 영주에는 말갈인으로 구성된 기미부주가 있었기 때문에, 대조영 집단에 대한 연구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1) 대조영이 거느린 집단이 성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는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특별한 군사조직을 거느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거느린 병사들이 주목되는 것이다. 『資治通鑑』 권222, 肅宗 上元 2년(761) 3월조의 『考異』에 인용된 『薊門紀亂』을 보자.

高靺和과 高如震 등이 각각 수백 人을 데리고 갑옷을 입고 성을 순시하니 성 안의 인심이 더욱 두려워했다. [留守로 추대된 阿史那承慶] 스스로 불안하여 의심하고 걱정했다. 이에 蕃兵 수십 기를 이끌고 子城을 나서 고여진의 집 앞에 가서 만나자고 했다. 고여진이 상황을 모르고 말 앞으로 달려오자 아사나승경이 그를 잡았다. 아사나승경이 東軍으로 들어가 거짓 尙書 康孝忠과 함께 蕃·羯을 소집했다. 고국인이 고여진의 피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분노하여 휘하 군대를 통솔하여 토벌하니 서로 寔說樓 아래에서 접전이 벌어져 午時에서 酉時에 이르렀다. 고국인의 병사는 모두 城旁少年으로 驍勇하고 勁捷하며 馳射하는 것이 마치 나는 것과 같았다. 아사나승경의 병사는 비록 숫자가 많았지만, 당할 수가 없어 대패하여 사상자가 심히 많았고 시체 더미가 언덕을 이루었다(7110쪽).

여기서 고국인이 거느린 ‘성방소년’이란 성방 병사를 가리키며, 이들이 “驍勇하고 勁捷하며 馳射하는 것이 마치 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은 성방의 전형적 모습이다. 李錦繡에 의하면, 고국인 등은 고구려인이고 그가 지휘한 성방 병사는 奚·契丹·고구려·말갈·室韋 등의 부락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한다.⁶²⁾ 성방의 지휘관은 모두 이민족인데, 이민족 중 高氏는 고구려인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국인과 고여진 역시 고구려인이며 그들이 거느린 성방 병에도 고구려인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국인과 고여진은 『신당서』 史思明傳에도 보이는데, 다만 고국인의 글자가 高久仁으로 적혀 있다.⁶³⁾

62) 李錦繡, 1998, 앞의 글, 280~281쪽.

63) 『新唐書』 권225 상, 史思明傳, “留子朝清守幽州, 使阿史那玉·向貢·張通儒·高如震·高久仁·王東武等輔之. …… 貢使高久仁·高如震率壯士入牙城. 朝清問其故, 或曰, 「軍叛矣. 乃擐甲登樓, 責貢等, 土陣樓下, 朝清自射殺數人, 阿史那玉軍僞北, 朝清下, 被執, 與母辛俱死. 張通儒不知, 引兵戰城中, 數日不克, 亦死. 貢攝軍事, 未幾, 玉襲殺之, 自爲長史, 治殺朝清罪, 乃梟久仁, 徇于軍. 如震懼, 擁兵拒守. 五日, 玉敗走武清, 朝義使人招之, 至東都, 凡胡面者, 無長少悉誅. 以李懷仙爲幽州節度使,

그렇다면 고국인이 거느린 고구려 병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주의 성방이 되었을까? 이 절에서는 그 가능성의 하나로 당태종의 고구려 공격 때 당군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상기해 보겠다. 당태종이 철군하기 직전에 요주·개주·암주 3주의 고구려인 포로를 唐土로 이주시키면서 유주에서 그 일부를 방면한 기록이 전한다. 즉, 『자치통감』 권198, 태종 정관 19년(645) 10월조를 보자.

諸軍이 포로[虜]로 잡은 高麗民 1만 4,000人を 먼저 幽州에 집결시켜 軍士들에게 상으로 주려고 했다. 태종이 그 父子와 夫婦가 헤어져 흩어짐을 불쌍히 여겨 有司에게 명하여 그 값을 錢布로써 지불하고 民이 되게 하니, 환호성이 3일 동안 그치지 않았다(6231쪽).

즉, 당군이 철수하면서 유주에서 포로로 잡은 고구려 민호 1만 4,000인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당태종이 그 값을 지불하고 방면시켜 당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치통감』 권198, 태종 정관 19년(645) 11월조를 보면,

태종이 幽州에 도착하자, 高麗民이 城東에서 맞이했는데, 拜舞하고 呼號하며 땅에 뒹굴어서 먼지가 멀리서도 보였다(6231쪽).

라고 하여, 곧이어 당태종이 유주에 도착하자 방면된 고구려 유민들이 유주성 동쪽에서 크게 환영했다고 한다. 이때 당의 백성이 된 1만 4,000인의 고구려 민호 대부분은 그대로 유주에 정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 또는 그 후손의 일부가 유주의 성방으로 조직되었다가 고국인이 거느린 성방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⁶⁴⁾

斬如震, 幽州乃定(6430~6432쪽) 등. 이때의 阿史那玉은 『薊門紀亂』에 보이는 阿史那承慶이 분명하다.

64) 鄭炳俊, 2005b, 앞의 글, 260~261쪽에서는 “이들 유주의 성방 고려인은 당조가 (이진충의 난에 의해) 營州를 방기할 때 혹은 그 전후에 그곳을 떠나 유주에 정착하

2_ 隴右와 河西 등

고구려 멸망 후 당으로 끌려간 고구려인 중 많은 이가 중국의 변경지역, 특히 서북지역에 배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① 669년 5월에 “江·淮 이남 및 山南·并·涼 以西 諸州의 空閑處” 또는 “江·淮의 남쪽 및 山南·京西 諸州 空曠의 땅”에 이주되었고, ② 677년 2월에는 “河南·隴右의 諸州”로 이주되었던 것이다. 다만, 전자는 涼州 또는 京師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언급된 데 반해, 후자는 ‘농우의 제주’라고 명기한 점이 조금 다르다. 당시의 농우는 10道の 하나인 隴右道를 가리키지만, 대략 경사 이서지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두 차례의 이주에서 명확하게 겹치는 지역은 농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변경지역으로는 같은 서북 방면의 并州와 涼州 등이 눈에 띄는데, 병주는 현재 山西省의 太原을 가리키고, 양주는 하서 회랑시대에 속한다. 농우도는 얼마 후 隴右와 河西로 나누어지고, 이 중 하서는 양주 이서지역을 포괄했다.

이처럼 고구려 유민이 농우 또는 하서지역으로 많이 이주된 상황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新唐書』 권135, 高仙芝傳을 보면,

고선지는 본래 高麗人이다. 父 舍難는 처음에 將軍으로서 河西軍에 예속되었다가 四鎮의 校將이 되었다. 고선지가 20여 세에 [부친을] 따라 安西로 갔으며, 부친의 功으로 遊擊將軍에 임명되었다. 몇 년 후 父子가 반열을 나란히 하였다. 고선지는 자태와 소질이 훌륭했고 騎射에 능했으며, …… (4576쪽).

라고 하여, 고사계가 처음에 河西軍의 軍장으로 있다가 서쪽의 安西四鎮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아들 고선지도 함께 안서로 가서 부친의 공적으로 軍장이 되었다는 내용이다.⁶⁵⁾ 당시 하서군의 치소는 涼州였다.⁶⁶⁾ 따라서 고사계 등은

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느 쪽이건 가능성의 하나에 불과하다.

669년 5월 또는 677년 2월에 하서지역으로 이주된 고구려인이거나 그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고선지가 부친을 이어 군장이 된 점은 그들은 처음부터 세습적 성격을 지닌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었음을 시사한다. 성방이었던 왕사례가 대를 이어 군인이 되었던 것과 같다.

농우지역에 고구려인 병사조직이 있었던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唐六典』 권5, 尙書兵部, 兵部郎中조에 다양한 兵種에 관한 규정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高麗兵’에 관한 규정이 보이는 것이다.

무릇 關內 團結兵은 京兆府 6,327人, 同州 6,736人, 華州 5,223人, 蒲州 2,735人이다. 秦·成·岷·渭·河·蘭 6州에 高麗·羌兵이 있다 [原註: 모두 해당 주의 上佐 1인이 전적으로 統押하며, 매년 두 번에 걸쳐 敎練하고 部伍를 다스리게 한다. 만약 警急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 구원하게 한다. 諸州의 城傍子弟도 역시 정기적으로 敎習시키는데, 매년 가을에 本軍에 소집하여 봄에 돌려보낸다. 黎·雅·邛·翼·茂 5州에 鎭防團結兵이 있다[모두 刺史가 직접 押領하는데, 만약 防遏해야 하면 上佐 및 武官에게 맡긴다](中華書局, 157쪽).⁶⁷⁾

이를 세분해 보면 ㉠ 關內道の 단결병, ㉡ 농우도에 속한 진주·성주·민주·위주·하주·난주 6주의 高麗兵과 羌兵, ㉢ 諸州의 城傍子弟, ㉣ 劍南道에 속한 黎·雅·邛·翼·茂 5州的 鎭防團結兵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 6주의 ‘고려병과 강병’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조직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즉, ㉠ 단결병은 민병적 성격의 州兵이고, ㉣ 진방단결병은 단결병의 일종이며, ㉢ 성방 자제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크게 보아 지방의

65) 『舊唐書』 권104, 高仙芝傳, “高仙芝, 本高麗人也. 父舍鷄, 初從河西軍, 累勞至四鎮十將·諸衛將軍. 仙芝美姿容, 善騎射, 勇決驍果. 少隨父至安西, 以父有功授遊擊將軍. 年二十餘卽拜將軍, 與父同班秩”. 事節度使田仁琬·蓋嘉運, ……”(3203쪽).

66) 涼州에 河西節度使가 설치된 것은 睿宗 景雲 2년(711) 4월이었다. 즉, 『唐會要』 권 68, 諸使中, 節度使中, 1686·1689쪽 등.

67) 『舊唐書』 권43, 職官志 2, 兵部郎中中, “凡關內, 有團結兵, 秦·成·岷·渭·河·蘭六州, 有高麗·羌兵. 黎·雅·邛·翼·茂五州, 有鎭防團結兵”(1834쪽).

민병적 병사조직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말하자면 ㉞ 6주의 '고려병과 강병'의 앞뒤에 적힌 세 종류의 군사조직은 모두 민병의 성격을 지닌 지방 군사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고려병과 강병' 역시 민병적 성격을 지닌 지방병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강병은 6주가 姜族의 거주지이고 州의 上佐 1인이 統押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병의 성격을 지닌 것이 거의 분명하다. 고려병도 이와 같이 州 상좌의 통압을 받는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어 지역 군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의 관내도 단결병과 ㉡의 5주 진방단결병은 설치 지역이 다르고 병종의 명칭도 구별되기 때문에 민병 계통 안에서도 하나의 다른 병종이라고 보이는 데 반해, ㉢의 6주 고려병·강병과 ㉣의 諸州 성방병의 경우에는 原註에서 서로 연결된 듯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조금 혼란스럽다. 그리하여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양자를 동일한 범주로 이해하고, 또 하나는 양자가 서로 다른 원리와 내용을 지닌 조직으로 보는 것이다. 히노 가이자부로[日野開三郎]와 李錦繡 등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구체적 이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히노는 6주의 고려병과 강병을 '蕃團結兵'(즉 이민족으로 구성된 단결병)으로 간주하여 성방을 단결병의 일종으로 본다.⁶⁸⁾ 李錦繡는 고려병과 강병이 단결병과는 구별되는 성방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⁶⁹⁾

후자 입장의 王義康은 양자가 계통적으로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녔지만,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군사조직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당육전』에서 통술 주체가 '州의 上佐 1人'과 '本軍'으로 서로 다르고, 소집시기도 '매년 두 번'과 '매년 가을에서 봄까지'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하면서 내린 詔書 등에도 성방과 부락병과 그냥 '병사' 등으로 불리는 兵種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을 들고 있다.⁷⁰⁾ 실제로 6주의 '고려병'과 '강병'

68) 日野開三郎, 1980, 「唐府兵制時代の團結兵について」,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221~223쪽.

69) 李錦繡, 1998, 앞의 글, 256~257쪽.

70) 王義康, 2002, 「唐代城傍辨析」, 『中國邊境史地研究』 2002-1, 39~41쪽.

은 州에 소속되어 상좌 1인의 통솔하에 매년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다가 유사시에 동원되었던 것과, 제주 성방병은 매년 가을에 本軍에 소집되었다가 봄에 해산했던 것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王義康의 경우, 성방에 대해서는 羈縻府州의 部落兵과 구별되는 이민족 단결병이며 정규군의 색채를 지녔다는 결론을 명확히 내리면서도,⁷¹⁾ 6주 ‘고려병’에 대한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6주 ‘고려병’의 성격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자. 劉統은 “그들은 이미 羈縻部落 군대가 아니라, 당조 정규군의 일부분을 이루었다”고 말한다.⁷²⁾ 張國剛은 “직업병이 아니며 신분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役으로 병사가 되었으며 역을 마치면 民이 되었다. 따라서 개원 이후 변경에 장기 주둔한 健兒와 교대로 숙위하는 확기와는 구별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趙超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고구려 유민 高玄의 묘지명 등의 사료를 이용하여 당전기 고구려 병사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둔전과 변경 방위를 수행하는 변경 군대로 兵農이 결합이 결합된 것이고, 또 하나는 고구려 병사가 府兵이 된 것이라고 한다.⁷³⁾ 더 이상의 사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절에서는 크게 보아 병사 신분을 지닌 團結兵 정도로 보겠다.

『唐六典』 권3, 尙書戶部, 戶部郎中조에는 內附한 이민족에 대한 賦稅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이 군사에 동원될 경우의 부세 면제 규정이 별도로 적혀 있다.

무릇 諸國의 蕃胡로서 內附한 자 역시 9등으로 정하여 4등 이상은 上戶, 7등 이상은 次戶, 8등 이하는 下戶로 한다. 상호의 丁은 銀錢 10文, 次戶는 5문을 납세하고, 下戶는 면제한다. 附貫한 지 2년 이상 경과하면 상호의 丁은 羊 2마리, 차호는 1마리를 바치고, 하호는 세 호가 공동으로 1마리를 바친다(原註 : 양이 없는 곳은 하얀 양의 가격에 준하

71) 王義康, 2002, 앞의 글, 41쪽.

72) 劉統, 1998, 앞의 책, 58쪽.

73) 拜根興, 2006, 앞의 글, 155쪽 ; 바이건싱, 2008, 앞의 글, 162쪽 참조.

여 輕貨를 납부한다. 만약 征行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鞍馬를 준비하게 하는데, 30일 이상을 넘으면 해당 해의 양 납부를 면제한다. 무릇 內附한 후 태어난 자식은 百姓과 같게 하며 蕃戶로 삼을 수 없다. 무릇 嶺南 諸州가 米를 세금으로 바칠 때 상호는 1石 2斗[말], 차호는 8두, 하호는 6두이고, 夷와 獠의 戶는 모두 반을 바치게 한다. 輕稅諸州와 高麗·百濟 [사람]이 征鎮에 차출되는 경우에는 모두 課·役을 면제하도록 한다(77쪽).

즉, 가벼운 세금을 내는 이른바 ‘輕稅諸州’⁷⁴⁾와 고구려·백제 유민이 군대에 차출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課·役을 모두 면제한다는 것이다.⁷⁵⁾ ‘고구려와 백제 유민’은 그 바로 앞에 보이는 ‘內附한 蕃胡’에 해당될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 각각 9등으로 편제되어 양 또는 가벼운 재화를 납부하고, 전쟁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세금과 부역을 모두 면제받았다. 楊曉燕은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구려 유민이 군대의 병사로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⁷⁶⁾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은 原註에 보이는 “內附한 후 태어난 자식은 百姓과 같게 하며 蕃戶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해 2세 이후에는 蕃胡(또는 蕃戶)가 아닌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때로부터 약 70여 년이 지난 開元 27년(739)에 완성된 『당육전』에 이들이 당의 일반 편호와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말하자면, 개원 27년 무렵 고구려와 백제 유민은 대부분 入唐 2~3세대였을 것이지만, “고려·백제 [사람]이 征鎮에 차출되는 경우에는 모두 課·役을 면제”했던 것은 이들이 기본적인 賦役 외에는 여전히

74) 王義康, 2002, 앞의 글, 42~43쪽에서는 이때의 ‘경제세주’를 상세히 검토한 후 ‘米를 세금으로 내는 영남 제주’를 가리킨다는 결론을 낸다.

75) “무릇 嶺南 諸州가 …… 모두 課·役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구절은 唐의 賦役令으로 복원되어 있다. 다만, 어느 시기의 승이었는데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金子修一, 2001, 「唐朝より見た渤海の名分的位置」,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289~290쪽 참조.

76) 楊曉燕, 2003, 「唐代平盧軍與環渤海地域」,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167쪽.

蕃胡로 간주되어 일반 백성과는 다른 원리로 관리되었음을 말한다. 이때 ‘번호’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종족적 실체와 어느 정도의 집단성을 유지하였을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원리”란 『당육전』 권3에 보듯 이 특히 ‘군대 동원’시의 차이를 말한다. 나아가 이는 당조가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당육전』 권3에서는 ‘高麗’ 사람들이 분포한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해당 규정 내용이 군대와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吐蕃과 각축을 벌이던 농우와 하서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포지역을 반드시 농우와 하서지역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즉, 고구려가 멸망 후 그 유민이 이주된 지역이 이보다 훨씬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并州 이서만 해도 북방 민족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고구려 유민 등이 배치되어 군사적으로 특별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高玄墓地銘』에는 고현이 “永昌 원년(689)에 칙서를 받들어 諸州에서 高麗兵士를 간택했다”⁷⁷⁾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王義康은 이때의 ‘諸州’는 진주·성주·민주 등 6주의 ‘고려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⁷⁸⁾ 이것은 ‘성방’과 ‘某某 병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고려병사’와 ‘고려병’을 같은 표현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고려병사’는 6주의 ‘고려병’을 포함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고현이 ‘고려병사’를 간택했던 영창 원년(689)은 『당육전』이 완성된 개원 27년(739)에 비해 고구려인 군사조직이 더 많았을 가능성조차 있다. 따라서 고현묘지명에 보이는 ‘제주의 고려병사’는 6주의 ‘고려병’만이 아니라 『당육전』 호부랑중조에 보이는 ‘고려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당시 폭넓게 분포된 고구려인 군사집단을 전체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이다.

77)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89쪽.

78) 王義康, 2002, 앞의 글, 39쪽.

IV. 맺음말

당태종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노획한 고구려인의 상당수를 당으로 이주시켰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태종이 안시성 부근에서 투항한 고연수 이하 3,500인의 군장들에게 당의 무관 계급을 수여하여 唐土로 이주시킨 사실이다. 이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들이 거느렸던 병사의 상당수도 이들과 함께 이주되어 軍事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당으로 끌려갔다. 대략 고구려 인구 69만 호 중 2만 8,000호 가량이 끌려갔다고 전한다. 그때 상당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변경지역에 배치되었고 그 중심지역은 隴右 일대 및 태원 이서지역이었다. 한편, 안동도호부에는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城傍이 조직되어 당군과 함께 도호부를 지켰다.

이같은 상황은 개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저 營州에는 軍鎮 관하에 고구려인 성방이 조직되었는데, 왕사례 이외에 이정기와 대조영도 영주 성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幽州에도 고구려인 성방으로 의심되는 집단이 등장하는데, 高靱仁 등이 거느린 성방병이 그들이다. 만약 고국인이 거느린 군사집단이 고구려인 성방이라면, 당태종이 유주에서 방면하였던 고구려 유민이나 그 후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 농우와 河西지역에도 고구려인들이 군사활동에 종사하였던 증거들이 보인다. 고사계·고선지 부자는 河西軍과 安西軍에서 대를 이어 군장이 되었는데, 이들 역시 성방이나 다른 고구려인 군사조직 출신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육전』에 보이는 ‘농우 6주의 고려병’은 크게 보아 민병의 성격을 지닌 州兵으로서의 團結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육전』 권3에는 “高麗·百濟 [사람]이 征鎮에 차출되는 경우에는 모두 課·役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보이는데, 해당 규정집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미 고구려 유민들이 법적으로 당의 ‘民戶’가 된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종

족적으로 구별되어 ‘蕃胡’로 간주된 것은 당조가 그들을 여전히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관심 때문으로 여겨진다. 『高玄墓地銘』에는 고현이 “689년에 칙서를 받들어 諸州에서 高麗兵士를 간택했다”고 한다. 이때의 ‘諸州’는 농우와 하서 등의 변경 주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조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유민들을 당으로 이주시켰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용까지 했다. 이에 대해 고구려 유민들은 자신을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한탄의 감정이 없었을까? 그러한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억압 속에 자신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고구려가 망한 후 당으로 이주된 유민들은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했다는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에 대한 동류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당에 봉사했다는 말을 한다. 이러한 발언은 망국민의 슬픔에 대한 연민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일방적 국가주의의 극단을 보는 듯하다.

참고문헌

- 耿鐵華, 박창배 역, 2004,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상, 고구려연구재단.
- 金文經, 1984, 「唐代的 高句麗遺民 徙民策」, 『唐代的 社會와 宗教』, 송전대학교출판부.
- 바이건싱, 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李殿福·孫玉良, 2005, 『중국 학자가 쓴 고구려사』, 학연문화사(원래는 『高句麗簡史』, 삼성출판사, 1990).
- 鄭炳俊, 2002, 「安史의 亂과 李正己」, 『동국사학』 37.
- 鄭炳俊, 2005, 「營州城傍高麗人 王思禮」, 『고구려연구』 19.
- 鄭炳俊, 2005, 「平盧節度使 侯希逸—安東都護府의 軍將에서 平盧淄青節度使로」, 『중국사연구』 39.
- 정병준, 2007,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동북아역사논총』 16.
- 정병준, 2007, 「당에서 활동한 백제유민」, 『百濟 遺民들의 활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 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연구재단.
- 方積六, 1986, 「關於唐代團結兵的探討」, 『魏晉南北朝隋唐史』 1986-7,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원래는 『文史』 25, 1985).
- 章韋, 1990, 『唐代蕃將研究(續編)』, 聯經.
- 馬馳, 1990, 『唐代蕃將』, 三秦出版社.
- 李錦繡, 1998, 「“城傍”與大唐帝國」, 『唐代制度史略論稿』, 中國政法大學出版社(원래는 『學人』 8, 1995).
- 楊保隆, 1998, 「高句麗族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1998-4.
- 楊曉燕, 2003, 「唐代平盧軍與環渤海地域」,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 李德山, 2006, 「高句麗族人口去向考」, 『社會科學輯刊』 2006-1.
- 拜根興, 2006, 「高句麗·百濟遺民關聯問題研究的現狀與展望」, 『中國歷史地理論叢』 2006-2.
- 日野開三郎, 1984, 「唐の高句麗討滅と安東都護府」,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8, 三一書房.

[ABSTRACT]

Military Groups of the Koguryo People during the Tang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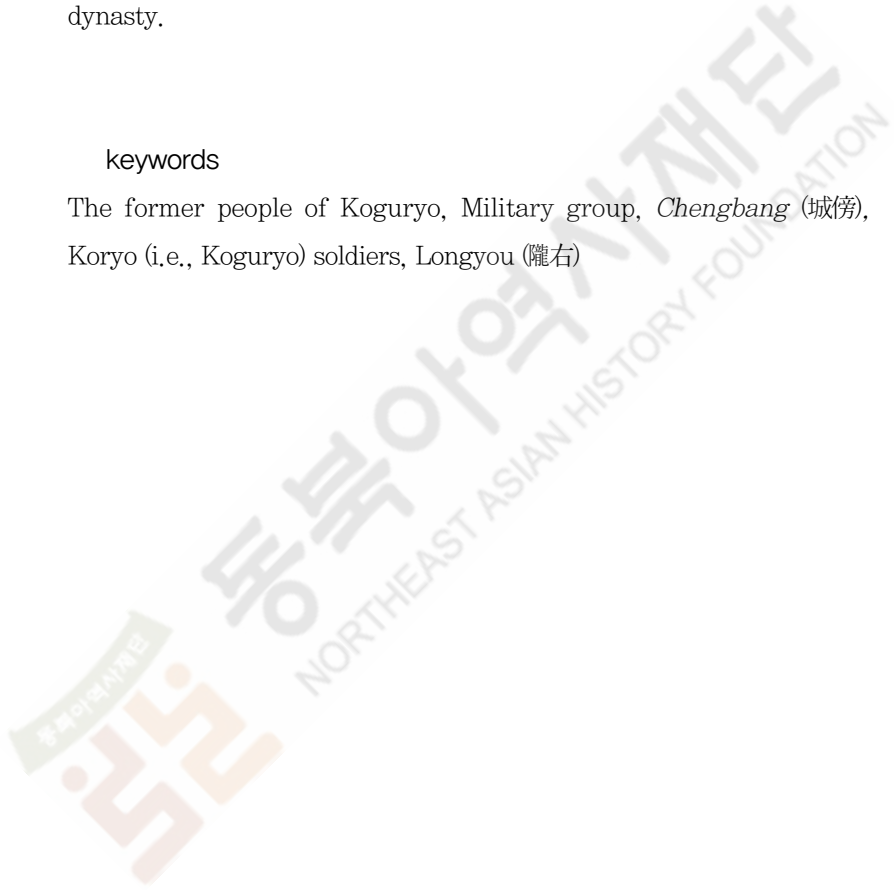
Cheong, Byungjun

The Tang dynasty was quite successful in deploying and utilizing militarily those surrendered or conquered peoples along its frontier regions. Around the time of the fall of Koguryo, a considerable number of Koguryo people were incorporated into military groups and placed along the frontier of Tang China. For example, there was an military organization of Koguryo people called *chengbang* (城傍) at Yingzhou (營州). This *chengbang* was a special military group of foreign peoples established near military installations along the frontier. We find even clearer examples of Koguryo groups in the regions of Longyou (隴右) and Hexi (河西). The *Tang liudian* (唐六典) (Compendium of administrative law of the six divisions of the Tang bureaucracy) recorded that there were Koryo (i.e., Koguryo) soldiers in the six prefectures of Qinzhou (秦州), Chengzhou (成州), Minzhou (岷州), Weizhou (渭州), Hezhou (河州), Lanzhou (蘭州). The *Tang liudian* also contained a regulation specifying that when Ko[gyuryo and Baekje people were mobilized for war, they were to be exempted from taxation and corvée labor. By the time of the compilation of the *Tang liudian*, the people of the former Koguryo state had already been incorporated as regular households of the Tang state. However, the Tang court still categorized them as separate ethnic group and considered them as “foreign

peoples (蕃胡)” as it sought to utilize them in military affairs. Thus, the Tang dynasty not only destroyed the Koguryo state but also thoroughly utilized its people in military matters, and the fate of the former people of Koguryo can provide some insights into foreign policies of the Tang dynasty.

keywords

The former people of Koguryo, Military group, *Chengbang* (城傍), Koryo (i.e., Koguryo) soldiers, Longyou (隴右)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の 正體性

-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

최진열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I. 머리말

주지하듯이 韓國古代史는 문헌사료의 소략과 부족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따금 발견 혹은 보고되는 자료가 가뭄 속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필자는 唐代 墓誌銘을 읽던 중 高句麗 遺民들의 묘지명을 접하고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결국 당대 고구려 유민의 정체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의冒頭에 기록되는 출신지역에 ‘高句麗人’이라는 기록 대신 ‘朝鮮人’, ‘遼東平壤人’, ‘遼東三韓人’, ‘渤海人’ 등 다양한 표기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고구려 유민들의 출신 혹은 본적 기록을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알고,¹⁾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1) 寶藏王 후손들의 정체성 문제에 주목한 한 학자만이 高句麗 遺民 전체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에 관심을 가졌다.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152~160쪽 참조.

중국 학자 羅振玉이 발굴하여 소개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 즉 泉男生·泉男產·泉獻誠·泉岬, 高慈·高震, 扶餘隆, 黑齒常之·黑齒俊 등의 묘지명은 1992년에 발간된 『譯注韓國古代金石文』²⁾에 수록되었다.³⁾ 이후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중국에서 발굴되는 묘지명을 조사하여 高玄,⁴⁾ 高足西,⁵⁾ 高氏夫人⁶⁾ 등이 고구려 유민임을 밝혔고, 묘지명을 역주하여 소개하였다. 이 밖에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펴낸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에는 기존에 발견된 묘지명뿐만 아니라 高玄과 高欽德 등의 묘지명을 추가로 수록하였다.⁷⁾ 최근에는 한 학자가 李他仁和 似先義逸 등 고구려 유민들뿐만 아니라 韓國古代史와 관련된 기타 金石文을 망라하여 소개했다.⁸⁾ 한 중국 학자는 唐玄宗이 中宗의 皇后인 韋氏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政變에 참여한 高木盧·李仁德·王景曜 등도 고구려 유민이라고 추정하였다.⁹⁾ 다른 중국 학자는 北朝·隋唐時代 몇 개의 高句麗人 가문이 渤海高氏를 모칭했음을 지적했는데, 그 가운데 高德을 고구려 유민으로 보았다.¹⁰⁾ 중국 학자들이 발굴한 고구려 유민을 포함하면 실제 알려진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 발굴작업에서 나아가 한 중국 학자는 高震과 그의 딸 高氏夫人 묘지명을 이용하여 일부 고구려인의 정체성 문제를 ‘漢化’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注韓國古代金石文』 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3) 尹龍九, 2003, 「중국 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293~294쪽.

4) 宋基豪,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大學校 博物館年報』 10.

5) 李文基, 2001,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역사교육학회.

6) 李文基, 2002, 앞의 글, 157~159쪽; 宋基豪, 2007,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 『韓國史論』 53, 490~491쪽.

7) 고구려연구재단 編, 2004,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8) 尹龍九, 2003, 앞의 글, 293~321쪽.

9) 姜清波, 2005, 4,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164~174쪽.

10) 仇鹿鳴, 2008, 「攀附先世與‘僞冒士籍’—以渤海高氏爲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2, 65~71쪽.

11) 姜清波, 2005, 앞의 책, 73~74쪽; 馬一虹, 2006, 「從唐墓志看入唐高句麗遺民歸屬意識的變化—以高句麗末代王孫高震一族及權勢貴族爲中心」, 『北方文物』 2006-1(總第85期), 29左~36右쪽.

다.¹¹⁾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연구가 보인다.¹²⁾

선행 연구의 결론이 타당한 점도 있지만, 고구려 유민의 정체성을 당시 唐代 이민족 정책과 관련지어 고찰하지 못하고 묘지명의 字句에만 얽매인 느낌이 있다. 필자는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을 읽다가 ‘朝鮮人’과 ‘三韓人’이라는 본적의 표기와 고구려와 동일한 뜻으로 ‘朝鮮’·‘三韓’·‘辰韓’·‘扶餘’ 등을 사용한 구절에 주목하였다. 비록 소략하지만 이러한 사료들을 정리하고 중국의 법률과 대조하면서 분석하면,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을 지은 중국인들이 인식한 고구려인들의 正體性を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고구려 유민들의 정체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시도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정체성 문제를 본적 표기, 唐代 이민족 戶籍에 대한 법률 규정, 고구려에 관한 別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 표기된 출신 혹은 본적 표기를 검토하여 묘지명에 ‘고구려인’임을 밝히지 않고 다양한 표기를 사용한 이유를 唐代 法律 및 唐代 다른 이민족들의 묘지명에 보이는 표기방식과 비교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고구려 流民들이 중국의 郡縣名을 출신 혹은 본적으로 표기하게 된 배경을 唐代 이민족정책, 특히 戶籍과 이민족 군인 編制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묘지명에 고구려와 동일어 혹은 別稱으로 사용된 ‘朝鮮’·‘三韓’·‘辰韓’·‘扶餘’의 용례를 다른 正史의 사료와도 검토하면서 唐代 중국인들이 認識한 고구려 유민들의 正體性を 환기해 보고자 한다.

12)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96쪽; 李文基, 2002, 앞의 글, 157~158쪽.

Ⅱ. 高句麗 遺民 묘지명 本籍 표기

1_ 각종 묘지명의 高句麗 遺民 여부 검토

高句麗 遺民들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방식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8세기 초까지 高句麗人임을 알 수 있는 표기방식을 취하다가 8세기 이후 정체성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¹³⁾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唐代 묘지명에 보이는 고구려 유민들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 遺民들의 출신

이름	출신 표기	遺民 代數	墓誌銘 작성시기	출 전	기 타
李他仁	遼東 柵州人 → 雍州 萬年縣	1대	儀鳳 2년 (677)	孫/尹, 307~308쪽	
泉男生	遼東郡 平壤城 人	1대	儀鳳 4년 (679)	誌, 667~669쪽	淵蓋蘇文的 아들, '泉'은 避諱
高玄	遼東 三韓人 → 京兆?	1대	天授 2년 (691)	續, 317쪽	祖는 平壤城刺史
高足酉	遼東 平壤人 → 洛州 永昌縣	1대	萬歲通天 2년 (697)	續, 348~349쪽	
高慈	朝鮮人	1대	聖曆 3년 (700)	誌, 959~960쪽	
泉獻誠	신조가 高句驪 國人	2대	大足元年 (701)	誌, 984~985쪽	泉男生的 아들
泉男産	遼東 朝鮮人	1대	長安 2년 (701)	誌, 995~996쪽	泉男生的 아우

13) 盧泰敦, 1981, 앞의 글, 96쪽; 李文基, 2002, 앞의 글, 157~158쪽.

高木盧	渤海人	1대	開元 18년 (730)	補1, 353쪽	
泉毖	京兆 萬年人	4대	開元 21년 (733)	誌, 1417~1418 쪽	泉男生의 증손
高欽德	渤海人	4대	開元 21년 (733)	誌, 1416쪽	曾祖와 祖가 建安州都 督 역임
李仁德	선조가 樂浪 望 族	2대	開元 21년 (733)	誌, 1412쪽	
王景曜	선조는 太原人 → 京兆人	?	開元 23년 (735)	誌, 1441~1442 쪽	
高德	선조가 渤海人 → 遼陽	3대 ?	天寶元年 (742)	誌, 1536쪽	高漸離의 후예
高氏夫人	渤海人	4대	大曆 7년 (772)	補2, 458쪽	寶藏王의 증손녀
高震	渤海人	3대	大曆 13년 (778)	誌, 1914쪽	寶藏王의 손자

1. 출전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誌: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199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2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補1: 『全唐文補遺』 第5輯(姜清波, 2005. 4,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中에서 재인용)

補2: 『全唐文補遺』 6(고구려연구재단 編, 2004,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재인용)

孫/尹: 孫鐵山, 1998, 「唐李他仁墓誌考釋」, 『遠望集』 下,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736~739쪽
 尹龍九, 2003, 「중국 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307~308쪽에서 재인용)

2. 기호 설명

—: 출신 혹은 본적의 변경을 뜻한다. 화살표 오른쪽은 바뀐 본적 혹은 거주지이다.

〈표 1〉은 현재 고구려 유민으로 밝혀진 15인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와 이들이 유민이 된 世代數, 묘지명의 작성 연대 등을 정리한 것이다. 泉獻誠의 묘지명에 泉獻誠 자신이 아닌 그의 선조를 ‘高句麗國人’이라고 표기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고구려 유민들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에 ‘高句麗(당시에는 高麗로 불림)’라는 표현이 없다. 그러면 이들이 고구려인이라는 증거는 무

엇인가?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필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 혹은 그들의 후손이 있다. 高震과 高氏夫人은 고구려 마지막 군주인 寶藏王(묘지명은 高藏으로 표기)의 후손이고, 泉男生과 泉獻誠·泉男産은 『三國史記』와 중국의 史書에도 이름이 보이며, 泉씨는 泉男生의 후손임이 묘지명에 명기되어 있어, 이들이 고구려 유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史書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묘지명에서 원래 고구려 인임을 시사하는 官歷이나 활동이 있다. 이를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遼東 柵州人’인 李他仁의 조부가 大兄을 지냈는데,¹⁴⁾ 大兄은 고구려의 官名이다. 李他仁의 묘지명을 처음 소개한 중국 학자는 李他仁을 고구려에 예속된 粟末靺鞨人이라고 보았지만, 李他仁이 ‘朱蒙遺孳’이었다는 표현이 보이고, 그의 조상들이 大兄과 大使者를 역임하고 柵城 일대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아 柵城의 토착 고구려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⁵⁾

이어서 ‘遼東 三韓人’인 高玄의 증조인 高寶는 本州都督, 조부인 高方이 平壤城刺史를 역임했다.¹⁶⁾ 여기서 本州는 본래 해당 인물의 고향 혹은 본적지인 州를 뜻하는데, 고구려가 망한 후에 설치된 靺鞨州를 가리킨다. 高寶의 아들 高方이 平壤城刺史를 역임했음을 상기하면 本州는 平壤城 일대에 설치된 靺鞨州 혹은 靺鞨府일 것이다. 평양성이 고구려의 수도였으므로 고구려의 관리를 지낸 高玄의 선조는 고구려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高玄은 永昌元年(689) 諸州에 있었던 高句麗人들을 병사로 차출하는 일에 관여하였고, 같은 해 洛州의 병사를 召募하였으며 新平道左三軍總管에 임명되었다.¹⁷⁾ 이처럼 高玄이 고구

14) 孫鐵山, 1998, 「唐李他仁墓誌考釋」, 『遠望集』下,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736쪽, “祖福鄒, 本朝大兄.”

15) 尹龍九, 2003, 앞의 글, 308~310쪽.

16) 周紹良·趙超 主編, 2001, 「大周故冠軍大將軍行左豹韜衛翊府中郎將高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天授 015, 317쪽, “君諱玄, 字貴王, 遼東三韓人也. …… 曾祖寶, 任本州都督. 祖方, 任平壤城刺史.” 이하 해당 묘지명을 다시 인용할 때 ‘高玄墓誌’처럼 약칭한다.

17) 周紹良·趙超 主編, 2001, 앞의 글, “又以永昌元年奉敕差令諸州簡高麗兵士. 其年

려와 관련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인임이 분명하다.¹⁸⁾

또 高足酉는 ‘平壤(遼東平壤人)’ 출신이었고, 묘지명에 고구려의 발상지에 있던 ‘玄菟’에 거주했던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 왕족이 주로 사용하는 ‘高氏’였던 점을 근거로 고구려인이라고 본다.¹⁹⁾ 중국 학자들도 高足酉가 고구려의 왕족일 것이라고 추정했다.²⁰⁾

묘지명에 ‘朝鮮人’이라고 표기된 高慈의 선조는 고구려의 창업군주인 朱蒙과 함께 나라를 세웠으며, 20대祖 高密이 慕容氏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후 高氏로 賜姓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²¹⁾ 고구려인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高欽德은 본적을 渤海郡이라 기록했지만 曾祖 高瑗과 祖 高懷가 建安州都督을 역임했다.²²⁾ 建安州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세운 靺鞨州의 하나였다.²³⁾ 주지하듯이, 唐은 복속한 突厥·回紇·吐谷渾·奚·契丹, 심지어

七月又奉敕簡洛州兵士，便充新平道左三軍總管征行。”

18) 중국 학자 姜清波도 高玄 일가가 高句麗人임을 밝혔다(姜清波, 2005, 앞의 책, 146쪽). 高玄이 高句麗人을 兵士로 차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高句麗 遺民들의 언어와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突厥의 지배를 받았던 鐵勒 출신인 契苾通이 宣諭突厥使가 되어 突厥人을 회유했던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大唐契苾君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 大中 044, 1000쪽, “暨昇朝序，因拜右衛將軍兼御史中丞·宣諭突厥使。時部落攜貳，不安土疆，邊帥莫能懷柔，朝廷慮其侵軼。上命公以招撫之。至則公喻以朝旨，制其野心，如風之偃草，身之使臂，火未改木，虜還故居。功成上聞，授左金吾衛將軍。靡旗，又以突厥驚擾，重令□□□□，復命之日，上念其勤勞忠盡，當報以好爵，用示寵光，乃授左豹，仍加大憲，遽轉大將軍，充街使”。) 이처럼 唐은 해당 이민족을 지배할 때 唐朝廷에 베풀하던 해당 이민족 출신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李文基, 2001, 앞의 글, 457~459쪽.

20) 李獻基·郭引強 編著, 1996, 『洛陽新獲墓誌』, 文物出版社, 226쪽(李文基, 1992, 앞의 글, 458쪽에서 재인용); 姜清波, 앞의 글, 149쪽.

21) 周紹良 主編, 1992, 「大唐故壯武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聖歷 044, 959쪽, “公諱慈，字智捷，朝鮮人也。先祖隨朱蒙王平海東諸夷，建高麗國，已後代爲公侯宰相，至後漢末，高麗與燕慕容戰大敗，國幾將滅。廿代祖密當提戈獨入，斬首尤多，因破燕軍，重存本國，賜封爲王，三讓不受，因賜姓高，食邑三千戶，……”

22) 「唐右武衛將軍高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開元 376, 1416쪽, “公諱欽德，字應休，渤海人也。曾祖瑗，建安州都督；祖懷，襲爵建安州都督；父千，唐左玉鈐衛中郎。”

고구려의 降戶를 통치하기 위해 靺廝府州를 설치하고 부족의 수령들을 都督이나 刺史로 임명하고 세습하게 했다.²⁴⁾ 따라서 高欽德의 조부 高懷가 建安州都督을 세습한 것은 高懷 일가가 고구려의 유력한 토착세력임을 보여 준다.

이어서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인이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을 살펴보자. 高木廬의 묘지명에는 그가 渤海人이며, 그의 먼 조상이 海隅로 避難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⁵⁾ 한 중국 학자는 ‘海隅’가 고구려를 지칭하며, 원문의 “暨我皇唐, 大敷淳化”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당으로 이주한 사실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묘지명에서 渤海人이라 표기한 것은 高震의 예처럼 고구려라는 출신 표기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²⁶⁾ 또 李仁德은 선조가 樂浪의 望族이었다고 자신의 묘지명에서 밝혔으나²⁷⁾ 실제로는 고구려인을 지칭한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 유민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상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²⁸⁾ 다음으로 王景曜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의 선조는 太原人이었으나 晉末에 海東으로 피난하였고, 唐初에 다시 歸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어서 李陵이 匈奴에 투항한 이후 흉노의 族이 되었고, 蘇武가 漢으로 귀환하여 漢의

23) 『舊唐書』卷39「地理志」二 河北道·建安州都督府條, 1527쪽; 『新唐書』卷43下「地理志」七下 河北道·高麗降戶條, 1129쪽. 이하 正史類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함.

24) 『新唐書』卷43下「地理志」七下 靺廝州條, 1119~1120쪽, “唐興, 初未暇於四夷, 自太宗平突厥, 西北諸蕃及蠻夷稍稍內屬, 卽其部落列置州縣. 其大者爲都督府, 以其首領爲都督·刺史, 皆得世襲. …… 突厥·回紇·黨項·吐谷渾隸關內道者, 爲府二十九, 州九十. 突厥之別部及奚·契丹·靺鞨·降胡·高麗隸河北者, 爲府十四, 州四十六. 突厥·回紇·黨項·吐谷渾之別部及龜茲·于闐·焉耆·疏勒·河西內屬諸胡·西域十六國隸隴右者, 爲府五十一, 州百九十八. 羌·蠻隸劍南者, 爲州二百六十一. 蠻隸江南者, 爲州五十一, 隸嶺南者, 爲州九十二. 又有黨項州二十四, 不知其隸屬. 大凡府州八百五十六, 號爲靺廝云.”

25) 吳剛 主編, 1998, 『全唐文補遺』第5輯, 三秦出版社, 353쪽, “公諱木廬, 渤海蓀人也. 昔太公輔周, 肇開王業. 天眷錫命, 受封東齊. 鍾鼎玉食, 七百餘載. 後遇田和篡奪, 分居荒裔. 公之遠祖, 避難海隅. 暨我皇唐, 大敷淳化. 乃越溟渤, 歸桑梓.”

26) 姜清波, 2005, 앞의 책, 164쪽.

27) 「大唐故冠軍大將軍行右威衛將軍上柱國金城郡開國公李公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開元 370, 1412쪽, “公曰仁德, 族李氏, 其先蓋樂浪望族也. 自堯臣類馬, 周史猶龍, 真裔散於殊方, 保姓傳於奔代.”

28) 姜清波, 2005, 앞의 책, 169쪽.

신하가 되었다고 기록한 다음 王景曜의 선조가 海東으로 옮긴 것도 같은 부류라고 기록하였다.²⁹⁾ 아래 高德의 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李陵과 蘇武를 인용한 것은 王景曜가 본래 漢族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한 중국 학자는 海東은 고구려를 지칭하며, 그의 아버지가 唐으로 귀화한 것은 고구려의 멸망을 암시한다고 보았다.³⁰⁾

마지막으로, 高德의 출신은 묘지명의 기록만으로는 애매하다. 한 중국 학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본래 고려(고구려)에서 出自했으나 渤海 高氏를 冒稱하였으며, 한편으로 高漸離의 후손을 자칭한 기묘한 예임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³¹⁾ 아래에서 高德의 묘지명을 살펴보자.

府君의 諱는 德이고 字는 元光이며, 그의 선조는 渤海 사람이다. …… 府君의 선조 세대에 遼陽으로 避難갔으며, 이로 인해 遼陽의 □族이 되었다. …… 巴야흐로 李陵이 匈奴에 있게 되어 드디어 匈奴의 족속이 되었다. 이에 비해 蘇武는 [匈奴에서] 漢으로 되돌아와서 오랫동안 漢의 신하가 되었다. 祖와 父는 孝와 忠의 덕목을 지녔으며] 王家에 勤勞하여 오랜 햇수 동안 살게 되었다.³²⁾

위의 인용문에서 고구려인이란 표기는 없지만,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해 흉노에 항복하여 漢으로 돌아가지 못한 李陵과 사신의 節을 지니고 결국 흉노에서 漢으로 귀환한 蘇武의 고사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서에는 李陵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의 예가 보인다. 『宋書』와 『南齊』

29) 「唐故右威衛將軍上柱國王公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開元 413, 1441쪽, “公諱景曜, 字明遠, 其先太原人, 昔當晉末, 鵝出于地, 公之遠祖, 避難海東, 泊乎唐初, 龍飛在天, 公之父焉, 投化歸本. 亦由李陵之在匈奴, 還作匈奴之族; 蘇武之歸於漢, 卽爲漢代之臣. 公之族代播遷, 亦其類也.”

30) 姜清波, 2005, 앞의 책, 172쪽.

31) 仇鹿鳴, 2008, 앞의 글, 65쪽.

32) 「故右龍武軍翊府中郎將高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1536쪽, “府君諱德, 字元光, 其先渤海人也 …… 府君先代, 避難遼陽, 因爲遼陽□族. …… 方李陵之在匈奴, 遂作匈奴之族; 比蘇武之還漢代, 長爲漢代之臣. 乃祖乃父, 有孝有忠, 勤勞王家, 多歷年所.”

書』 같은 南朝系 史書에서는 北魏를 세운 拓跋氏가 李陵과 흉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임을 기록하였다.³³⁾ 이밖에 일부 이민족이 前漢時代 匈奴에 항복한 李陵의 후손을 지칭하는 예가 빈번하였다.³⁴⁾ 또 唐代에도 黠戛斯가 李陵의 후손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⁵⁾ 李陵의 후예임을 강조한 이민족들이 결국 자신이 漢族임을 강변하는 예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高德의 묘지명에서 李陵의 故事를 언급한 것은 그의 선조가 단순히 遼陽으로 피난간 것이 아니라 원래 遼陽에 살던 사람이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래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唐에 베풀하며 ‘中國 → 遼陽 → 唐’의 순서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기술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학자도 필자와 같은 추론을 거쳐 高德을 高句麗人이라고 결론지었을 것이다.

〈표 1〉에 언급된 인물들이 고구려인 혹은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그런데 〈표 1〉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처럼 고구려 유민들이 2~3세대 이후 자신의 정체성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발견된다. 예컨대, 高欽德과 高氏夫人, 高震의 본적은 ‘渤海人’으로 표기되었다. 기존에는 高震의 묘지명에 ‘발해인’으로 표기된 것을 고구려 유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발해와 동일성 혹은 정체성을 느꼈기 때문에 “渤海國의 사람”이라고 해석하였다.³⁶⁾ 그러나 이후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인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의 묘지명이 학계에 소개되었는데, 여기서도 高氏를 ‘발해인’으로 칭하였다. 이 묘지명을 검토한 학자들은 ‘渤海人’이 ‘渤海國人’이 아니라 중국의 門閥인 渤海高氏의 冒稱이라고 보았다.³⁷⁾

33) 『宋書』 卷95 「索虜傳」, 2321쪽, “索頭虜姓託跋氏, 其先漢將李陵後也。[李]陵降匈奴, 有數百千種, 各立名號, 索頭亦其一也”; 『南齊書』 卷57 「魏虜傳」, 993쪽, “初, 匈奴女名托跋, 妻李陵, 胡俗以母名爲姓, 故虜爲李陵之後, 虜甚諱之, 有言其是陵後者, 輒見殺, 至是乃改姓焉。”

34) 湯海清, 2007, 「北魏·北周·唐時期追祖李陵現象述論—以“拓跋鮮卑系李陵之後”爲中心」, 『民族研究』 2007-3 참조.

35) 『新唐書』 卷217 下 「回鶻傳」 下, 6131쪽, “黠戛斯已破回鶻, 得太和公主; 又自以李陵後, 與唐同宗, 故遣使者達干奉主來歸。”

36) 盧泰敦, 1981, 앞의 글, 95~96쪽.

37) 李文基, 202, 앞의 글, 157~159쪽; 宋基豪, 2007, 앞의 글, 490~491쪽; 姜清波,

그러나 이러한 冒稱은 일부 고구려 流民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唐代 이민족들이 三皇五帝 등 先秦時代의 聖人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예가 많았고,³⁸⁾ 漢族의 姓을 칭하거나 하사받은 경우 해당 姓氏의 門閥로 모칭하는 예가 흔하였다.³⁹⁾ 고구려인들의 경우 '高'라는 姓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중국에는 渤海高氏가 유명한 門閥이었다. 따라서 北朝時代부터 隋唐時代까지 高肇·高崇·高道悅·高賓·高穎 등과 그 一族들이 渤海高氏를 冒稱하였다.⁴⁰⁾ 고구려인들과 고구려 유민들의 渤海高氏 冒稱만 보면 정체성의 약화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唐代에 해당 姓氏의 門閥로 冒稱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므로 고구려 유민들이 渤海郡이라는 본적을 사용한 것을 정체성의 약화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당시 묘지명을 작성할 때 사용하던 상투적인 門閥冒稱의 예로 이해할 수 있다.⁴¹⁾

고구려 유민들이 외형상 자신들의 묘지명에 '고려' 혹은 '고구려'라는 표기를 꺼렸던 현상은 백제 유민들의 본적 표기와 대비된다. 필자가 백제 유민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구려 유민들에게 보이는 출신 혹은 본적의 표기가 백제 유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백제 유민인 扶餘隆은 '百濟辰朝人', 黑齒常之는 '百濟人', 難元慶은 '百濟餘類'라 하여 모두 백제 출신임을 밝혔다. 특히 유민 3세대인 難元慶은 '百濟餘類'라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⁴²⁾

그렇다면 백제 유민과 달리 고구려 유민들만 '漢族에 동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일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고구려 遊民과 달리 백제 유민

2005, 앞의 글, 73~74쪽.

38) 李成珪, 1992,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45쪽; 谷苞, 2003, 「中華民族的 共通性(二)」, 費孝通 主編,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原載『新疆社會科學』 1986-1, 1986), 157~160쪽; 湯海清, 2007, 「北魏, 北周, 唐時期追祖 李陵現象述論—以“拓跋鮮卑系李陵之後”爲中心」.

39) 崔珍烈, 2008a, 「隋唐 本籍地封爵과 그 의의—高麗時代 本籍地封爵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中國古中世史研究』 20, 408~410쪽.

40) 仇鹿鳴, 2008, 앞의 글, 65~71쪽.

41) 郭鋒, 1999, 『唐代士族個案研究—以吳郡·清河·范陽·敦煌張氏爲中心』,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79~201쪽; 崔珍烈, 2008, 앞의 글, 394~410쪽.

들이 자신의 옛 祖國名을 표기할 수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혹시 묘지명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가 반드시 고구려 유민들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唐代 國家 權力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당대 이민족 전체의 본적 표기를 살펴보면 전체의 추세에서 고구려 유민 본적 표기 문제에 대한 실마리 혹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_ 唐 治下 異民族 本籍 표기의 二重性

1절의 문제제기, 즉 高句麗 遺民의 본적 표기가 唐代 이민족 정책과 관련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節에서는 고구려와 百濟 遺民 이외의 기타 이민족들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를 검토해 보자.

〈표 2〉는 唐代 묘지명 가운데 鮮卑·突厥·鐵勒·突騎施·回紇·吐谷渾·契丹·高昌 등 唐에 ‘자발적으로’ 內附하거나 멸망하여 唐에 郡縣이나 羈縻府州로 편입되었던 이민족들의 출신 혹은 본적을 원래의 種族 혹은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를 보면 먼저, 돌궐 등 북방 유목민들의 출신 혹은 본적을 표기할 때

42) 〈표 1〉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百濟 遺民들의 본적

이름	출신 표기	遺民 代數	기타	墓誌銘 작성 시기	출전
扶餘隆	百濟 辰朝人	1대	百濟 義慈王의 아들	永淳元年(682)	誌, 702쪽
黑齒常之	百濟人 → (京兆) 萬年縣	1대		聖曆 2년(699)?	誌, 942쪽
黑齒俊	흑치상지의 아들	2대	黑齒常之의 아들	神龍 2년(706)	誌, 1064쪽
勿部珣	?	?		景龍元年(707)	尹, 312~323쪽
難元慶	百濟의 餘類	3대		景龍元年(707)	李, 5~12쪽

* 誌: 周紹良 主編, 1992, 『唐代墓誌彙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尹: 尹龍九, 2003, 「중국 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李文基, 2000, 「百濟 遺民 難元慶 墓誌의 紹介」, 『慶北史學』 23.

〈표 2〉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이민족들의 출신

이름	출신 표기	遺民·移民 代數	種族(국적) 및 기타	墓誌銘 작성 시기	출전
屈突通	昌黎郡 徒河縣 → 雍州 長安縣	3대	鮮卑人	貞觀 2년 (628)	誌, 14쪽
鄭實活(혹은 郎實活)	涅加部落	?	鮮卑人	開元 28년 (740)	誌, 1516쪽; 續, 577쪽
阿史那忠	代人 → 京兆 萬年縣	2대	突厥人	上元 2년 (675)	誌, 601쪽
阿史那氏	×(突厥 可汗의 후손)	3대?	突厥	開元 7년 (719)	誌, 1223쪽
阿那氏	×(突厥 可汗의 후손)	1대	突厥	開元 11년 (723)	誌, 1280쪽
李[阿史那]思摩	陰山	1대?	突厥, 阿史那氏	貞觀 21년 (647)	續, 38쪽
阿史那氏	×	?	突厥	廣德 2년 (764)	續, 687쪽
延陁氏	陰山	1대?	李思摩 아내	貞觀 21년 (647)	續, 40쪽
阿史那摸末	漠北	2대?	突厥, 啓民可汗 손자	貞觀 23년 (649)	續, 47쪽
阿史那毗伽特勤	×(黠利突利可汗의 증손)	4대?	突厥	開元 11년 (723)	續, 492쪽
阿史那自政	雲中郡	4대?	突厥	開元 10년 (722)	續, 493쪽
契苾氏	陰山 → 涼州 姑臧縣	2대	鐵勒, 契必何力の 딸	開元 8년 (720)	誌, 478쪽
契苾嵩	漠北 □烏德建山	3대	鐵勒, 契必何力 손자	開元 18년 (730)	誌, 1374쪽
契苾李	×(西北蕃 突厥 渠帥의 아들)	2대?	突厥 혹은 西突厥?	天寶 3載 (744)	續, 593쪽
契苾通	×(契必何力の 자손)	5대	突厥, 契必何力 후손	大中 8년 (854)	續, 1000쪽

이름	출신 표기	遺民· 移民 代數	種族(국적) 및 기타	墓誌銘 작성 시기	출전
執失善光	代郡 朔方縣	2대	突厥	開元 12년 (724)	續, 489쪽
薛突利施匍 阿施	×(十二姓阿史那葉護可 寒의 아내)	?	突厥	上元元年 (674)	續, 683쪽
舍利石鐵	北方	2대	九姓□□	貞元 6년 (790)	續, 743쪽
哥舒季通	×	1대?	突騎施	武德년간	誌, 4쪽
熾俟弘福	陰山	4대	葛邏祿	開元 24년 (736)	續, 552쪽
廻紇瓊	陰山	4대	回紇?	乾元 3년 (760)	續, 681쪽
吐谷渾[慕 容忠	陰山	1대?	吐谷渾	聖曆 2년 (699)	誌, 945쪽
慕容威	×(선조는 昌黎)	2대	吐谷渾		
康阿達	西域 康國	3대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 대의 도시	貞觀년간	誌, 124쪽
康敬本	康居	4대		咸亨년간	誌, 530쪽
康留買	西州 → 河南	?		永淳元年 (682)	誌, 694쪽
康磨伽	西海? → 河南			永淳元年 (682)	誌, 694쪽
安菩	선조가 安國 大首領	4대		長安 4년 (704)	誌, 1104 쪽
裴沙	踈勒人	3대		開元 13년 (725)	誌, 1304 쪽
何□□	大夏月氏人	3대		久視元年 (700)	續, 377쪽
米繼芬	×(선조가 西域 米國人)	2대		永貞元年 (805)	續, 796쪽
何文哲	靈武縣	3대?		貞元 3년 (787)	續, 893- 894쪽

이름	출신 표기	遺民· 移民 代數	種族(국적) 및 기타	墓誌銘 작성 시기	출전
李元光	×(安息王의 후예)→ 涼州	4대			續, 754쪽
波斯阿羅憾	波斯國	1대?	페르시아인	景雲元年 (710)	誌, 1116쪽
諾思計[盧 庭賓]	渤海? → 范陽郡	1대	渤海	天寶 7載 (748)	續, 610쪽
李永定	×	4대	契丹	天寶 5載 (746)	續, 635쪽
祿贊	西戎人	1대	吐蕃	天授元年 (690)	續, 307쪽
張團兒	高昌人	?	高昌	永徽 4년 (653)	續, 68쪽
張光峻	高昌人	?		永徽 4년 (653)	續, 69쪽
宋懷燾	西州 高昌縣人	?		永徽 6년 (655)	續, 83쪽
辛忽	交河縣 神山鄉	?		貞觀 21년 (647)	續, 93쪽
范隆仁	高昌人	1대?		龍朔 3년 (663)	續, 131쪽
宋懷仁	高昌人	?		龍朔 3년 (663)	續, 131쪽
麴勝	西州 高昌人	2대		麟德 2년 (665)	續, 150쪽
董氏	西州 高昌人	?		乾封 2년 (667)	續, 169쪽
張安吉	西州 高昌人	?		總章 2년 (669)	續, 176쪽
嚴海隆	高昌縣人	?		咸亨 2년 (671)	續, 191쪽
趙惡仁	西州 武威	?		咸亨 4년 (674)	續, 197쪽

이름	출신 표기	遺民· 移民 代數	種族(국적) 및 기타	墓誌銘 작성 시기	출전
史住	西州 高昌縣人	1대		咸亨 4년 (674)	續, 198쪽
海生	高昌人	?		咸亨 4년 (674)	續, 200쪽
汜延仕	高昌縣人	?		永昌元年 (689)	續, 301쪽
張富琳	西州 高昌縣人	?		長壽 3년 (694)	續, 320쪽
衛氏	西州 高昌人	?		證聖元年 (695)	續, 340쪽
張智積	西州 高昌縣	?		聖曆 3년 (700)	續, 371쪽
汜德達	西州人	?		久視元年 (700)	續, 376쪽
成達	□太□人	?		開元 2년 (714)	續, 456쪽

1. 출전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誌: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199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續: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2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 기호 설명

×: 언급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본래의 國名인 ‘돌궐’ 등이 해당 인물의 묘지명 출신지 표기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 대신 ‘陰山’ 혹은 ‘漠北’처럼 출신지를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는 지명을 표기하거나 曷戾可汗의 손자처럼 돌궐 카간의 후손임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는 고구려 유민들을 ‘遼東 平壤人’, ‘遼東 三韓人’, ‘遼東 朝鮮人’ 등으로 표기한 것과 유사하며, 오히려 고구려보다 외형상 철저하게 본래의 출신을 은폐한 느낌이 든다. 이어서 2세대 이후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郡縣名을 본적으로 삼았던 추세가 발견된다. 예컨대, 阿史那忠은 본래 代人이었으나 현재의 본적은 京兆 萬年縣이었으며, 그의 증조와 조부가 본국의 可汗이었다고 기

록했다.⁴³⁾ ‘代人’은 본래 北魏를 세운 拓跋部和 복속된 각종 이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⁴⁴⁾ 앞부분만 보면 阿史那忠의 선조가 拓跋部に 복속된 유목민으로 北朝時代에 활약했다가 후에 西魏·北周에 합류하여 隋唐時代에는 長安, 즉 京兆 萬年縣을 본적으로 둔 ‘關隴集團’⁴⁵⁾의 일원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阿史那’는 돌궐의 君主[가간]氏族이었다. 또 그의 증조와 조부가 ‘本國可汗’이었다는 기록은 그와 그의 선조가 돌궐 출신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역시 고구려 유민 3~4세대의 본적 표기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역에 있었던 康居·康國·蹀勒과 페르시아[波斯], 박트리아[大夏] 등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출신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또 옛 高昌國의 경우 국적 표기와 州縣 표기가 병존한다. 즉, 고창국 사람들은 唐의 州縣으로 편입되어 ‘西州 高昌縣’과 같은 郡縣名으로 표기되거나 일부는 ‘高昌人’이라 표기되었다. 후자의 경우 고창국 출신임이라고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⁶⁾

43) 「唐故右驍衛大將軍兼檢校羽林軍贈鎮軍大將軍荊州大都督上柱國薛國公阿史那貞公墓誌銘并序」, 『唐代墓誌集編』 上元 014, 601쪽, “公諱忠, 字義節, 其先代人, 今爲京兆之萬年人也, …… 曾祖太原, 祖崑周, 竝本國可汗.”

44) ‘代人’과 ‘代人集團’의 개념과 인적 구성 및 범위 등은 康樂, 1995, 『從西郊到南郊—國家祭典與北魏政治』, 臺北: 稻鄉出版社, 第一篇 代人集團, 35~52쪽 참조.

45) 關隴集團은 六鎮의 난 이후 北魏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長安을 중심으로 한 關隴지역으로 이동한 武川鎮 출신 胡族·漢族 및 山東 출신의 漢族과 關隴의 토착인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외지인들의 본적을 關中으로 바꾼 關隴의 지역집단을 지칭한다. 陳寅恪은 關隴集團을 형성하여 漢人과 鮮卑人을 하나로 묶고 部落兵에 기초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형성하였고, 武力을 토대로 隋代에 중국을 통일하고 이후 唐前期까지 西魏·北周·隋·唐의 지배층 혹은 統治集團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陳寅恪, 1987, 「宇文氏之府兵及關隴集團(附鄉兵)」,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黃山書社, 308~320쪽). 關隴集團의 개념과 범위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西魏부터 唐代까지 關隴지역 출신들이 정치와 군사를 주도한 것은 인정된다.

46) <표 2>에서 일부 高昌 사람들은 ‘高昌人’이라고 적었다. 물론 嚴海隆처럼 ‘高昌縣人’이라고 표기하거나 麴勝과 張安吉처럼 ‘西州 高昌人’이라 적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高昌人’이 國名이 아닌 縣名 뒤에 ‘人’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墓誌銘에 縣名만 적는 예는 嚴海隆의 예처럼 적고, 대개 州와 縣, 혹은 郡과 縣의 명칭을 적거나 상위 행정구역인 州 혹은 郡만 표기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高昌人’을 高昌國의 사람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이처럼 <표 2>의 이민족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는 국가, 種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와 돌궐 등 북방의 유목민이 1세대와 2세대 이후의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출신 國名을 표기하지 못했던 반면, 중앙아시아와 백제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조국의 國名을 묘지명에 표기하였다. 본래 묘지명의 내용은 유족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國名の 표기 여부가 唐 朝廷의 이민족 정책과 관계없고, 해당 이민족들의 자발적인 의사였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唐代 묘지명에는 묘지명의 撰者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는 예도 있다. 泉男生的 묘지명 작성에는 中書侍郎 王德眞과 司勳郎中 歐陽通이 관여하였다.⁴⁷⁾ 泉獻誠의 묘지명은 膳部員外郎 梁惟忠,⁴⁸⁾ 阿史那毗伽特勤의 묘지명은 著作佐郎 徐峻,⁴⁹⁾ 熾俟弘福의 묘지명은 長安縣尉 裴士淹,⁵⁰⁾ 廻紇瓊의 묘지명은 左驍衛倉曹 楊仲舉,⁵¹⁾ 米繼芬의 묘지명은 鄉貢進士 翟運,⁵²⁾ 契苾通的 묘지명은 度支推官 李袞⁵³⁾ 등이 撰者였다. 이 가운데 翟運을 제외한 대부분의 撰者들은 唐의 관리였고, 姓名으로 보아 한족이었다. 이들 泉姓을 위해 묘지명을 친히 작성한 泉隱처럼⁵⁴⁾ 유가족이 직접 작성할 때에는 死者 혹은 유가족의 입장이 강

47) 「大唐故特進行右衛大將軍兼檢校羽林軍仗內供奉上柱國下國公贈并州大都督泉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調露 023, 667쪽, “中書侍郎兼檢校相王府司馬王德眞撰. …… 朝議大夫行司勳郎中上騎都尉渤海縣開國男歐陽通書.”

48) 「大周故左衛大將軍右羽林衛上下上柱國下國公贈右羽林衛大將軍泉君墓誌銘并序」大足 001, 『唐代墓誌彙編』, 984쪽, “朝議大夫行文昌膳部員外郎護軍梁惟忠撰.”

49) 「唐贈左驍衛大將軍左賢王阿史那毗伽特勤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續集』開元 056, 492쪽, “朝散大夫著作佐郎東海徐峻撰.”

50) 「大唐故雲麾將軍左威衛將軍上柱國天兵行軍副大使兼招慰三姓葛邏祿使熾俟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續集』開元 144, 551쪽, “朝散郎行長安縣尉裴士淹撰.”

51) 「大唐故瀚海都督右領軍衛大將軍經略軍使廻紇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續集』乾元 010, 681쪽, “姨弟左驍衛倉曹楊仲舉撰書.”

52) 「□□左神策軍故散副將□左武衛大將軍同正兼□大□□上柱國京兆米府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續集』永貞 003, 796쪽, “鄉貢進士翟運撰并書.”

53) 「大唐契苾府君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大中 044, 1001쪽, “度支推官徵事郎試大理評事李袞書.”

54) 「故宣德郎驍騎尉淄川縣開國子泉君墓誌銘」, 『唐代墓誌彙編』開元 378, 1417쪽, “父光祿大夫衛尉卿上柱國下國公泉隱撰文.”

하게 반영되었겠지만, 唐의 관리가 묘지명의 撰者일 경우 유가족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唐 朝廷이 만든 원칙이나 당시 관행을 어느 정도 따랐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唐代 묘지명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를 작성했던 관리들이 唐 朝廷의 방침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봐도 大過 없을 것이다. 이 경우 唐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껄끄러운 관계였던 고구려와 돌궐 등 국가의 출신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정체성 말살을 시도한 반면, 자신에게 정복하기 쉬운 상대였거나 평화로운 관계였던 백제와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융통성을 가졌을 것이다.

Ⅲ. 唐 治下 異民族의 郡縣名 본적 표기의 배경

1_ 內附 異民族 2世代之 戶籍 規定

1장 2절에서는 高句麗뿐만 아니라 突厥 등 북방 유목민들도 자신의 본적 표기를 금지당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唐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부흥운동을 벌이려는 被征服국가 혹은 이민족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조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故國 혹은 亡國 표기를 금지시킨다고 정체성이 완전하게 말살될 수는 없을 것이다. 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한 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唐代 被征服 혹은 歸化한 이민족의 戶口 編制에 관한 기록을 『唐六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唐六典』 「尙書戶部」 戶部郎中條의 이민족 遺民 혹은 移民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자.

『唐六典』 「尙書戶部」 戶部郎中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민족들이] 內附한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은 곧 [唐의] 百姓들과 [법률 상] 동일하다. 따라서 蕃戶로 취급하지 않는다.⁵⁵⁾

唐에 內附한 이민족 遺民이나 移民들을 唐의 백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지하듯이 唐代 농민들은 口分田 80畝와 永業田 20畝를 받고 그 대가로 租庸調와 雜徭를 부담하였다. 丁男은 粟 2石을 바치는 租, 20일 동안의 力役을 하루에 絹 3尺 또는 布 3.75尺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庸, 絹 2丈과 綿 3兩을 바치는 調를 부담하였다. 雜徭는 지방관청에 20일 혹은 비정기적으로 사역에 동원되는 것을 지칭하였다.⁵⁶⁾ 租庸調는 丁男 1인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戶口의 丁이 많으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의 액수도 증가되었다. 또 唐初에는 丁에 부과하는 租庸調와 雜徭 이외에 戶의 자산에 따라 부과하는 戶稅와 地稅, 資課, 각종 附加稅 등이 있었다.⁵⁷⁾ 따라서 唐의 영토로 內附한 이민족 移民이나 강제로 徙民된 遺民들 2세대가 唐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라는 것은 위와 같은 租稅를 납부해야 함을 뜻했다.

그런데 『唐六典』 「尙書戶部」 戶部郎中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內附한 蕃戶들도 조세를 부담했음을 알 수 있다.

內附한 諸國蕃胡는 역시 9등급으로 나누어 정한다. 4等 이상은 上戶, 7等 이상은 次戶, 8等 이상은 下戶로 삼는다. 上戶는 丁稅로써 銀錢 10文을, 次戶는 5文을 납부하며, 下戶는 이를 면제한다. [內附한 지역의 戶口에] 附籍한지 2년 이상인 자 가운데 上戶는 羊 2口, 次戶는 1口, 下戶는 3戶가 함께 1口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原注: 羊이 없는 곳은

55)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條原注, 77쪽, “凡內附後所生子, 卽同百姓, 不得爲蕃戶也.”

56)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條, 76쪽, “凡賦役之制有四: 一曰租, 二曰庸, 三曰調, 四曰雜徭. 課戶每丁租粟二石, 其調隨鄉土所產綾·絹·絁各二丈; 布加五分之一, 輸綾·絹·絁者綿三兩, 輸布者麻三斤, 皆書印焉. 凡丁歲役二旬, 無事則收其庸, 每日三尺, 有事而加役者, 旬有五日免其調, 三旬則租·調俱免.”

57) 이상 唐前期 租稅의 종류와 부담 문제는 李錦綉, 2007, 『唐代財政史稿』 第二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原版은 北京大學出版社, 1995), 3~175쪽 참조.

白羊의 가격과 동일한 가치의 輕貨로 折納하여 납부한다. 납부하러 올 때에는 스스로 鞍馬를 준비하도록 하여 [조세를 납부해야 할 관청까지의 도달거리가 30일 이상 지나면 그 해의 羊 납부를 면제한다].⁵⁸⁾

이 구절 가운데 세금을 바치는 물건이 銀錢과 羊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商胡[소그드인], 즉 소그드인들과 북방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⁵⁹⁾ 반면, 유목민들도 銀과 羊을 세금으로 바쳤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상호가 아니라 유목민, 특히 唐代 州縣과 羈縻州에 거주하던 유목민 혹은 編戶化한 이민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⁰⁾ 위 인용문 자체로는 양자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위 인용문 원주의 折納 사례와 요역을 견포로 납부하는 庸처럼, 唐代 각종 조세를 다른 물자로 절납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조세의 절납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은전으로 납부하는 규정이 상업에 종사했던 소그드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자의 견해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 서술된 內附한 蕃戶들과 唐의 編戶, 즉 일반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면,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없지만 內附한 蕃戶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⁶¹⁾ 따라서 內附한 蕃戶의 두 번째 세대가 唐의 백성, 즉 編戶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 세대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규정이 두 번째 세대에도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58) 『唐六典』 卷3 「尚書戶部」 戶部郎中條, 77쪽, “凡諸國蕃胡內附者, 亦定爲九等. 四等以上爲上戶, 七等以上爲次戶, 八等以上爲下戶. 上戶丁稅銀錢十文, 次戶五文, 下戶免之. 附貫經二年以上者, 上戶定輸羊二口, 次戶一口, 下戶三戶共一口(原注: 無羊之處, 准白羊估, 折納輕貨. 若有征行, 令自備鞍馬. 過三十日以上者, 免輸當年羊).”

59) 石見清裕, 1995, 「唐의 內附異民族對象規定をめぐって」, 『堀敏一先生古稀記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409~428쪽.

60) 李錦綉, 2004, 『唐代財政史稿』 第二冊, 182~186쪽; 王義康, 2004, 「唐代 蕃族賦役制度試探」, 『民族研究』 2004-4, 北京(K22, 2004, 魏晉南北朝隋唐史 2004-5), 40~46쪽.

61) 李錦綉는 唐代 嶺南지역에 살던 夷獠와 諸國蕃胡들이 唐 內地 農民들의 租庸調와 稅率이 다른 각종 輕稅를 납부하여 이들에게 특수한 稅制가 적용되었다고 보았다(李錦綉, 2004, 앞의 책, 175~186쪽). 수치상 비교가 어렵지만 이민족이 漢人 編戶보다 가벼운 세금을 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당대의 문헌에서 검증하지 못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법률상 변화의 예가 발견된다.

본래 唐에 내부한 이민족, 즉 蕃戶는 신분상 府兵制의 정규군인 府兵이 아닌 蕃兵이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唐代 蕃兵은 ‘兵牧合一’의 部落兵이었다. 즉, 그들은 전쟁이 없으면 部落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종군하였다. 또 蕃兵은 형식적으로 軍·城·鎮·守捉 같은 軍鎮조직에 속하였지만 여전히 部落조직을 유지하였고, 部落으로 구성된 부대는 전쟁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는 참전한 군대의 명령계통에서도 잘 드러난다. 唐代에는 漢兵은 漢將이, 蕃兵은 蕃將이 통솔하였다. 예컨대, 永徽 2년 蘇定方이 蕃 漢兵을 이끌고 西突厥 遠征에 나섰을 때 蘇定方은 漢族 騎兵과 步兵만을 통솔하였고, 阿史那彌射가 蕃兵을 통솔하였다. 內附한 1세대가 部落兵인 데 비해 2세대 이후로는 보통 군사로 변화했다. 예컨대, 突厥人 白元光은 그의 선조가 突厥人이라고 지칭했을 뿐, 자신을 돌궐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唐의 百姓백성에 속했다는 증거이다. 귀부한 部落 역시 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部落’이 아닌 ‘(結)義營’으로 불렸다. 이는 蕃戶가 아닌 唐의 백성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1세대인 部落兵의 후손들이 보통 군사로 변했음을 의미한다.⁶²⁾

앞에서 살펴본 唐代 內附한 이민족들의 법률적 지위를 고구려 유민과 관련 지어 보자. <표 1>에서 본적을 京兆 萬年縣과 渤海郡이라고 기록한 泉毖와 高震·高氏夫人·高欽德은 모두 遺民 3세대 혹은 4세대의 인물이다. 이들이 唐의 법률에 따라 2세대 이후 唐의 編戶가 되어야 했던 唐의 이민족 정책 때문에 唐 內地의 郡縣名을 취한 본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고구려 流民의 상당수가 군인으로 활동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62) 張國剛, 1995, 「唐代的蕃部與蕃兵」,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97~102쪽.

2_ 唐 治下 異民族의 蕃兵 編制

高句麗 遺民들 가운데 高仙芝·王思禮·王毛仲·李正己 등이 唐의 將軍으로 활동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본적 기록을 살펴보자.

『舊唐書』에서王思禮를 “營州 城傍의 高[句]麗人이다”⁶³⁾라고 표기하였다. 여기에서 ‘城傍’이란 단어가 주목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城傍을 州縣城 인근에 주둔하며 州刺史가 지휘하며 州縣城을 방어하는 지방민병인 土軍⁶⁴⁾ 혹은 軍·鎮·戍 등 방어시설 부근에서 소집한 士兵,⁶⁵⁾ 이민족으로 구성된 蕃兵⁶⁶⁾ 등 다양한 견해로 나뉜다. 城傍이 유목민으로 구성된 部落兵과 동일한 존재인지 혹은 어떤 兵種에 속하는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蕃兵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⁶⁷⁾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王思禮가 營州 城傍에 거주했음은 唐代 고구려인들이 蕃將과 蕃兵으로 활약했다는 뜻이다. 앞에서 唐에 內附한 蕃戶들은 租庸調와 다른 조세체계하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唐六典』 「尙書戶部」 戶部郎中條에 따르면 唐代에 嶺南(현재의 廣東省과 廣西省 일대)의 羈縻州와 夷獠之戶에게도 다른 稅率과 稅目이 있었다. 또 征伐과 鎮守에 차출되는 諸州와 고구려인, 백제인은 모두 課과 役을 면제했다.⁶⁸⁾ 이 기록에서 고구려인과 백제인이 조세와 요역을 면제받는 대신 軍人으로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63) 『舊唐書』 卷110 王思禮傳, 3312쪽, “王思禮, 營州城傍高麗人也.”

64) 日野開三郎, 1980, 『東洋史學論集』 第1卷 唐代藩鎮의統治體制, 三一書房, 220~225, 238~241쪽.

65) 張澤咸, 1986, 『唐五代賦役史』, 中華書局, 432쪽.

66) 方積六, 1985, 「關於唐代團結兵積探討」, 『文史』 25, 中華書局, 100쪽; 李錦綉, 1997, 「大唐帝國與城傍」, 『唐代的歷史與社會』, 武漢大學出版社, 198~235쪽; 王義康, 2002, 「唐代城傍辨析」, 『中國邊疆史地研究』 12-1, 38쪽.

67) 王義康, 앞의 글, 38~41쪽.

68)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條, 77쪽, “凡嶺南諸州稅米者, 上戶一石二斗, 次戶八斗, 下戶六斗. 若夷獠之戶, 皆從半輸. 輕稅諸州·高麗·百濟應差征鎮者, 並令免課役.”

또 『唐六典』 「尙書兵部」 兵部郎中條에서도 唐의 수도 長安 서쪽에 위치한 秦州·成州·岷州·渭州·河州·蘭州 등 6州에 高句麗兵과 羌兵이 있었다고 했다.⁶⁹⁾ 이는 고구려인들이 軍人으로서 활동했음을 보여 준다. 原注에는 “모두 해당 州의 上佐 1인에게 오로지 統押을 맡도록 하고 매년 두 차례 敎練을 실시하여 部伍를 관장하게 하였다. 만약 緊急한 일이 있으면 명령을 내려 달려가 구원하도록 했다. 諸州 城傍의 子弟들은 또한 늘 군사훈련을 받았고 매년 가을에 本軍에 모였으며 봄이면 흩어졌다”⁷⁰⁾ 라고 기록했는데, 諸州城傍은 ‘營州城傍과 같다. 이 기록을 통해 王思禮는 長安 서쪽 6州의 高句麗兵처럼 營州 부근에서 살면서 군사훈련을 받다가 營州 本軍에 합류해야 하는 별동부대에 속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王思禮의 예에서 고구려인들은 營州와 關隴지방의 秦州·成州·岷州·渭州·河州·蘭州 6州 등지에 軍人으로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 唐代 州郡名은 해당 지역에서의 주둔과 관련 있을 것이다. 이를 <표 1>에 보이는 고구려 유민들에 적용해 보자.

본적이 遼東 柵州였던 李他仁이 후에 본적을 雍州 萬年縣으로 옮긴 것은 그가 右戎衛將軍, 右領軍將軍同正員 등을 역임했던⁷¹⁾ 사실과 관련 있다. 右戎衛將軍과 右領軍將軍은 唐 長安에 주둔했던 將軍의 하나였기 때문에, 근무지였던 長安(雍州 萬年縣)에 장기 거주했다면 본적을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또 본적을 西京, 즉 長安으로 옮겼던 高玄도⁷²⁾ 右玉鈴衛中郎將과 左豹韜衛翊府中郎將 등을 역임하여⁷³⁾ 수도였던 長安이나 洛陽(武則天이 皇后·太后·皇帝로 권력을 잡았던 시기의 수도)에서 근무했다. 따라서 근무

69)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郎中條, 157쪽, “秦成岷渭河蘭六州, 有高麗羌兵.”

70)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郎中條, 157쪽, “原注: 皆令當州上佐一人專知統押, 每年兩度敎練, 使知部伍, 如有緊急, 卽令赴援. 諸州城旁子弟, 亦常令敎習, 每年秋集本軍, 春則放散.”

71) 孫鐵山, 1998, 앞의 글, 陝西人民出版社, 736쪽, “君諱他仁, 本遼東柵州人也. 後移貫雍州之萬年縣焉.”

72) 「高玄墓誌」, 317쪽, “君諱玄, 字貴王, 遼東三韓人也. …… 因而家貫西京, 編名赤縣.”

73) 「高玄墓誌」, 317쪽.

지로 본적을 옮긴 것은 당연한 조치였을 것이다. 遼東 平壤人이었으나 洛州 永昌縣으로 옮긴 高足西⁷⁴⁾ 역시 右威衛眞化府折衝都尉, 左威衛孝義府折衝都尉, 行左武衛翊衛府中郎將, 右領軍衛將軍, 右玉鈴衛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 등을 역임하였다.⁷⁵⁾ 위의 관직들은 모두 武周시기 수도인 洛陽과 그 인근에서 근무하는 벼슬이었기 때문에 高足西가 본적을 洛州 永昌縣으로 옮겼을 것이다.⁷⁶⁾ 京兆 萬年縣을 본적으로 둔 泉晷는 그의 曾祖 泉男生 이래 줄곧 唐 長安에 본부를 둔 12衛 혹은 16衛 등에서 將軍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4대에 걸쳐 長安에 살았다. 따라서 泉晷 혹은 그의 아버지인 泉隱의 世代에 현거주지를 本貫으로 명기하는 것은 당시 이민족의 본관에 관한 법률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戶籍정책과도 부합한다. 바꿔 말하면, 高欽德·高氏夫人·高震을 제외한 나머지 고구려 유민들은 唐의 이민족정책과 현거주지에 附籍하는 戶籍정책 때문에 당시 거주했던 郡縣名을 본적으로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장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代 戶籍 규정과 고구려 유민들의 蕃兵 編制 상황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본적이 정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들의 출신 혹은 본적 기록만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묘지명에 고구려인을 ‘朝鮮人’ 혹은 ‘三韓人’ 등으로 기록했던 점이 오히려 당시 중국인들이 인식했던 고구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74)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集編續集』 萬歲通天 003, 348~349쪽, “公諱足西, 字足西, 遼東平壤人也。乃効款而住, 遂家於洛州永昌縣焉。”

75) 「大周故鎮軍大將軍高君墓誌銘并序」, 348~349쪽, “公諱足西, 字足西, 遼東平壤人也。乃効款而住, 遂家於洛州永昌縣焉。”

76) 唐代의 洛州는 洛陽의 別稱이었다.

IV. 묘지명의 高句麗 別稱과 高句麗 認識

1_ 高句麗의 別稱 : 朝鮮 · 扶餘 · 三韓 · 辰韓

〈표 1〉에서 高句麗 遺民들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李他仁이 ‘遼東 柵州人’,⁷⁷⁾ 泉男生이 ‘遼東郡 平壤城人’, 高足酉가 ‘遼東 平壤人’으로 표기된 것은 자신의 고향 혹은 거주지의 명칭을 따음을 보여 준다. 李他仁의 묘지명을 보면 그는 柵城 일대에 거주했던 토착 고구려인이었고,⁷⁸⁾ 泉男生은 아버지 淵蓋蘇文과 함께 莫離支를 역임하며 高句麗의 國政을 장악했던 인물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平壤城에 살았을 것이다. 高足酉는 史書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인데, 학자들은 성이 ‘高氏’인 것으로 보아 방계 王族 혹은 고구려의 최고 귀족으로 추정한다.⁷⁹⁾ 이 경우 高足酉 역시 平壤城에 살았을 것이다. 요컨대, 李他仁과 泉男生, 高足酉의 본적 표기는 唐에 멸망하기 전 자신의 거주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遼東 三韓人’인 高玄과 ‘朝鮮人’인 高慈, ‘遼東 朝鮮人’인 泉男産의 출신 혹은 본적은 고구려에 있을 때의 고향 혹은 본적으로 보기 어렵다. 史書나 묘지명에 보이는 “○○人”은 “○○(지명) 州나 郡 혹은 縣 출신 사람”이란

77) 唐은 高句麗의 城을 점령한 후 州로 改稱하였다. 예컨대, 蓋牟城은 蓋州, 遼東城은 遼州, 白巖城은 巖州로 개칭되었다(『新唐書』 卷43 下 「地理志」 七下 河北道·高麗降戶條 細注, 1128쪽, “太宗親征, 得蓋牟城, 置蓋州; 得遼東城, 置遼州; 得白巖城, 置巖州. 及師還, 拔蓋·遼二州之人以歸”). 高句麗를 멸망시킨 후 설치된 靺鞨府州의 명칭을 보면 ‘城’을 ‘州’로 改稱한 형태가 많다. 예컨대, 南蘇州는 南蘇城을, 蓋牟州는 蓋牟城을, 木底州는 木底城을, 安市州는 安市城을, 建安州都督府는 建安城을 改稱한 것이다(『新唐書』 卷43 下 「地理志」 七下 河北道·高麗降戶條 細注, 1128쪽). 柵州는 『舊唐書』와 『新唐書』 「地理志」에는 보이지 않지만, 唐의 改稱 방식으로 볼 때 唐이 高句麗를 멸망시킨 후 柵城을 改稱하여 설치한 靺鞨州임을 알 수 있다.

78) 尹龍九, 2003, 앞의 글, 308~310쪽.

79) 李獻基·郭引強 編著, 『洛陽新獲墓誌』, 226쪽; 李文基, 2001, 앞의 글, 457~459쪽.

뜻을 지니며, 대개 縣名인 경우가 많다. 즉, ‘遼東 三韓人’은 遼東郡 三韓縣 사람, ‘遼東 朝鮮人’은 遼東郡 朝鮮縣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의 본적 표기에 보이는 ‘遼東’과 ‘三韓人’과 ‘朝鮮人’이 당시 唐의 州郡縣名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요동을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요동은 戰國 燕 이래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하기 전까지 설치되었던 郡名이다. 심지어 요동을 지배하지 않은 東魏 北齊에서도 僑郡의 형태로 명칭이 보인다.⁸⁰⁾ 그러나 唐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설치된 靺鞨府州에는 ‘요동’의 명칭이 있는 靺鞨府州는 없다. 다만, 9府 가운데 遼城州都督府가 遼東城을 개칭한 靺鞨府州일 것으로 추측된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遼東州都督府가 아닌 遼城州都督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遼東州는 실제로 존재하고⁸¹⁾ 적어도 696년까지 그 명칭을 유지했다.⁸²⁾ 아마 어느 시점에 遼東州都督府를 遼城州都督府로 改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唐後期和 宋代에 편찬된 『元和郡縣圖志』와 『新唐書』에는 遼東州都督府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新唐書』 「地理志」에는 唐代 州名과 郡名이 병렬되었다. 唐玄宗 시기와 肅宗初에 잠시 州를 郡으로 바꾸어 행정구역을 설명할 때 州名과 郡

80) 僑郡은 원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된 郡을 뜻한다. 비슷한 예로는 우리나라 高麗時代 飛地나 현재 이북5도청이 있다. 北魏時代 遼東郡은 北魏末인 正光年間(520~524) 營州와 永熙年間(532~534) 南營州에 각각 설치했는데(『魏書』卷106上 「地形志」 南營州條, 2492쪽, “遼東郡: 永熙中置”; 『魏書』卷106上 「地形志」 營州條, 2495쪽, “遼東郡: 秦置, 後罷. 正光中復. 治固都城”), 秦漢時代의 遼東郡과 전혀 다른 위치였고 명칭만 같은 僑郡이라고 볼 수 있다. 『魏書』 「地形志」에는 이런 僑郡縣의 명칭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되어 나온다(崔珍烈, 2005,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129~130쪽).

81) 『新唐書』 高麗傳에는 唐의 高侃이 安舜(安勝)의 군대를 격차한 후 安東都護府의 治所를 遼東州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新唐書』卷220 「東夷·高麗傳」, 6197~6198쪽, “大長鉞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侃東州道, 李謹行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納亡餘. 舜殺鉞牟岑走新羅[高]侃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82) 盧泰敦은 696년 武攸宜가 자신의 인척인 遼東州都督인 高仇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高句麗人인 高仇須가 遼東州都督이었음을 밝혔다(盧泰敦, 1981, 앞의 글, 84~85쪽).

名을 竝稱하였는데, 이는 『元和郡縣圖志』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許州는 潁川郡으로도 竝稱되는 식이다. 州名 뒤에 병렬된 郡名을 보면 秦漢時代의 郡名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國時代부터 사용된 ‘遼東郡’의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또 魏晉南北朝時代 중국의 왕조가 고구려의 군주에게 하사한 작위가 遼東郡王 혹은 遼東郡公이었으나, 려의 멸망 이후 唐朝가 寶藏王과 그 후손들에게 하사한 작위는 朝鮮郡王이었다. 반면, 백제의 군주에게 주어진 작위는 南北朝時代와 隋唐時代 모두 帶方郡王이었던 점과 대비된다.⁸³⁾ 이 두 예에서 당시 唐 朝廷에서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遼東’을 공식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고구려 亡國 군주에게 주는 封號의 지명으로 사용하기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⁸⁴⁾ 한 중국 학자는 高震 묘지명에 보이는 요동은 고구려를 은유적으로 지칭했다고 보았다.⁸⁵⁾ 그렇다면 唐代 중국인들의 語感에는 ‘요동’이 秦漢 이래의 遼東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지칭하는 단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공식문서와 행정구역의 명칭에 ‘요동’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다.⁸⁶⁾

이어서 朝鮮은 前漢과 後漢, 三國 魏(曹魏), 西晉시대에 樂浪郡의 屬縣名으로 있었다.⁸⁷⁾ 또 北魏 太武帝가 延和元年(432) 北燕을 親征한 후 營丘·成周·

83) 崔珍烈, 2008, 「東晉·南北朝~唐代 주변국 冊封 封號의 地名 분석-韓國古代 三國君主들의 冊封 郡王/郡公 칭호의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97, 85~86쪽 및 88~93쪽.

84) 다만 寶藏王에게 遼東都督을 제수한 예가 보이는데(『舊唐書』 卷5 「高宗紀」 下 儀鳳二年條, 102쪽, “二月丁巳, 工部尙書高藏授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遣歸安東府, 安輯高麗餘衆”;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8쪽, “儀鳳二年, 授藏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還遼東以安餘民, 先編僑內州者皆原遣, 徙安東都護府於新城”), 이는 唐이 高句麗 遺民들의 부흥운동을 잠재우고 高句麗 遺民들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주어졌으며, 예외 현상이었다.

85) 馬一虹, 2006, 앞의 글, 35左쪽.

86) 또 다른 가능성은 漢代부터 魏晉時代까지 遼東郡은 邊郡이긴 했지만 중앙정부의 直轄郡縣이었다. 반면, 唐代에는 遼州·遼東州都督府·遼州都督府 등으로 명칭이 바뀌기는 했지만, 唐 內地의 州縣과는 다른 羈縻州였다. 『新唐書』 「地理志」와 『元和郡縣圖志』에서는 羈縻州에는 州의 別稱인 郡名이 보이지 않는다. 즉, 直轄郡縣이 아니었으므로, 戰國時代부터 사용하던 ‘遼東’을 州의 別稱인 郡名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遼東·樂浪·帶方·玄菟 6郡民을 北魏의 幽州로 옮겼는데,⁸⁸⁾ 『魏書』 「地形志」에 의하면, 이때 朝鮮民을 肥如縣으로 옮기고 朝鮮縣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朝鮮縣은 平州에 속한 北平郡의 屬縣이었다.⁸⁹⁾ 한 중국 학자는 朝鮮民을 朝鮮縣民으로 해석하였고, 이들이 遷徙된 北平郡을 현재의 遼寧省 義縣 북쪽으로 비정했다.⁹⁰⁾ 이러한 고증이 맞다면, 北燕에서 설치한 朝鮮縣은 원래 樂浪郡의 屬縣이었을 것이다. 『魏書』 「地形志」가 東魏시기의 행정구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⁹¹⁾ 朝鮮縣은 東魏 혹은 길게 잡으면 北齊시기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 다른 郡(北平郡)의 屬縣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僑縣으로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隋唐時代에는 '朝鮮'이 縣名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三韓을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三韓은 원래 辰韓·弁韓·馬韓의 총칭이며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던 국가라고 한다. 『遼史』 「地理志」에 의하면 遼가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생포한 고려인들을 中京 大定府 高州의 屬縣으로 三韓縣을 설치했던⁹²⁾ 예가 존재한다. 그러나 『舊唐書』와 『新唐書』의 「地理

87) 『漢書』 卷28 下 「地理志」 樂浪郡條, 1627쪽; 『續漢書』 志第23 「郡國志」五 幽州·樂浪郡條, 3530; 『三國會要』(錢儀吉 撰, 200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卷36 「輿地」 幽州·樂浪郡條, 724쪽; 『晉書』 卷14 「地理志」 平州·樂浪郡條, 427쪽.

88) 『魏書』 卷4 上 「世祖紀」 延和元年條, 81쪽, “[秋七月]庚申, 遣安東將軍·宜城公奚斤發幽州民及密雲丁零萬餘人, 運攻具, 出南道, 俱會和龍. …… [八月]己卯, 車駕討紹, 辛巳, 斬之. 詔平東將軍賀多羅攻文通帶方太守慕容玄於猴固, 撫軍大將軍·永昌王健攻建德, 驃騎大將軍·樂平王不攻冀陽, 皆拔之, 虜獲生口, 班賜將士各有差. 九月乙卯, 車駕西還.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于幽州, 開倉以賑之.”

89) 『魏書』 卷106 上 「地形志」上 平州·北平郡·朝鮮縣條, 2497쪽, “朝鮮: 二漢·晉屬樂浪, 後罷. 延和元年徙朝鮮民於肥如, 復置, 屬焉.”

90) 葛劍雄, 1997, 『中國移民史』 第二卷·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福建人民出版社, 567~568쪽.

91) 『魏書』 「地形志」에는 수도를 鄴이라고 했는데, 북위 후기의 수도는 洛陽이었다. 孝武帝가 長安으로 西遷한 후 北魏는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었다. 『魏書』는 東魏를 계승한 北齊시대에 편찬되었는데, 당연히 東魏를 정통이라고 기록하였고, 東魏시대의 행정구역을 『魏書』 「地形志」에 수록했다. 그리고 西魏와 北周가 점유한 지역은 北魏 말기의 행정구역 명칭에 호구수를 비워 둔 형태로 기록했다.

92) 『遼史』 卷39 「地理志」 三 中京道·中京大定府·高州條, 483쪽, “三韓縣. …… 開泰

志」를 살펴보면, ‘三韓’이 적어도 唐代 이전에 중국 郡縣名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따라서 ‘三韓’은 ‘요동’과 ‘朝鮮’처럼 唐代 郡縣名이 아니었다.

앞에서 요동·朝鮮·三韓이 唐代 郡縣名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논증했다. 그렇다면 ‘遼東 三韓人’과 ‘朝鮮人’, ‘遼東 朝鮮人’은 三韓縣과 朝鮮縣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三韓國과 朝鮮國의 사람이란 뜻이다. 여기에서 고구려 유민인 高玄과 高慈, 泉男産이 三韓人과 朝鮮人으로 불렸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들 이외에 高震과 泉男生 부자, 李他仁, 高慈, 高玄의 묘지명에서도 ‘朝鮮’, ‘三韓’, ‘扶餘’ 등의 용례가 등장한다.

먼저, 高震의 묘지명을 살펴보자. 高震의 묘지명에는 高震을 渤海人이라 칭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당시 渤海國人이라는 뜻이 아니라 漢代부터 존재하던 渤海郡을 본적으로 둔 高氏, 즉 渤海高氏를 모칭한 것이다. 그런데 그를 찬양한 문장에는

公[高震]은 곧 扶餘의 貴種이며, 辰韓의 令族이었다. 귀순하여 항복하고 귀화하여 봉토를 받았으며 대대로 [朝鮮郡]王이라 칭했고, 國賓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食邑이 千室이나 되었다.”⁹³⁾ ([]은 필자의 보충설명이며, 아래의 인용문들에서도 이와 같다)

원문의 ‘懷化啓土’는 그의 조부인 寶藏王이 平壤城 함락 이후 唐에 포로가 되고 朝鮮郡王에 봉해진 것을 뜻하며 ‘繼代稱王, 嗣爲國賓’은 寶藏王과 그의 아들 高連이 朝鮮郡王을 세습하고 安東都護에 임명되는 등 우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⁹⁴⁾ 玄宗이 泰山에 封禪하면서 문무백관과 주변국들의 君主(可汗·

中, 聖宗伐高麗, 俘三國之遺人置縣, 戶五千.”

93) 『唐開府儀同三司工部尚書特進右金吾衛大將軍安東都護遼國公上柱國高公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大曆 075, 1814쪽, “公諱震, 字某渤海人. …… 公迺扶餘貴種, 辰韓令族, 懷化啓土, 繼代稱王, 嗣爲國賓, 食邑千室.”

94) 高震의 墓誌銘에는 高連이 安東都護였음이 기록되었고(『高震墓誌』, 1814쪽, “禰諱連, 雲麾將軍·右豹韜大將軍安東都護”), 高氏夫人의 墓誌銘에는 高連이 朝鮮郡王에 봉해졌음이 기록되었다. 『宣義郎唐守唐州慈丘縣令邵公故夫人高氏墓誌并序』, 『全唐文補遺』 6, 458쪽(고구려연구재단 編, 앞의 책, 77쪽에서 재인용), “祖諱連,

王·酋長) 및 대리인(인질과 사신) 등을 모아놓고 朝覲한 『舊唐書』 「禮儀志」에 는 '高麗朝鮮王'이 보인다.⁹⁵⁾ 이는 玄宗시기까지 朝鮮郡王이 존재했음을 뜻하 는데, 高連이나 高震의 형제(즉 高連의 다른 아들)이 당시 朝鮮郡王이었을 것 이다.

또 高震을 '扶餘의 貴種'과 '辰韓의 令族'으로 묘사한 부분이 주목된다. 이 는 고구려 유민인 高震을 扶餘人 혹은 辰韓人으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묘지명의 銘曰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高震은] 朝鮮의 貴族이었으며, 대대로 王을 칭하였고, 獯虜를 평정하 여 죽이고 唐을 보좌하였으며, 盧龍과 柳城塞에서 邊疆을 都護하였 다.⁹⁶⁾

묘지명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戡剪獯虜'는 북방 이민족 공격에 참 전한 것을 은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마지막의 '都護封疆'은 高震이 安東都 護를 역임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高震이 '朝鮮貴族'이었음 을 밝혔다.

위에서 인용한 두 문장을 합쳐 보면 高震은 扶餘의 貴種임과 동시에 辰韓 의 令族이며 朝鮮의 貴族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인 高震은 扶餘人이면서 辰韓人이고 동시에 朝鮮人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高震의 묘지명은 獻書待制 楊愨이 撰한 점⁹⁷⁾에 주목하자. 묘지명의 본적이나 행적에 유가족들의 견해가

皇封朝鮮郡王.”

95) 『舊唐書』 卷23 「禮儀志」 三, 900쪽, “[開元十三年十一月]壬辰, 玄宗御朝覲之帳殿, 大備陳布. 文武百僚, 二王後, 孔子後, 諸方朝集使, 岳牧舉賢良及儒生·文士上賦頌者, 戎狄蠻羌胡朝獻之國, 突厥黠利發, 契丹·奚等王, 大食·謝颺·五天十姓, 崑崙·日本·新羅·靺鞨之侍子及使, 內臣之番, 高麗朝鮮王, 百濟帶方王, 十姓摩阿史那興昔可汗, 三十姓左右賢王, 日南·西竺·鑿齒·雕題·牂柯·烏滸之酋長, 咸在位.”

96) 『高震墓誌』, 1814쪽, “銘曰：其一曰：朝鮮貴族, 弈葉稱王, 戡剪獯虜, 翊亮皇唐, 盧龍柳塞, 都護封疆.”

97) 『高震墓誌』, 1814쪽, “獻書待制楊愨撰.”

포함될 수는 있지만 死者에 대한 평가는 撰者의 몫이라면, 高震을 ‘扶餘의 貴種’, ‘辰韓의 令族’, ‘朝鮮의 貴族’으로 기록한 것은 撰者인 楊愍이다. 楊愍은 『舊唐書』와 『新唐書』의 열전에 보이지 않지만, 『新唐書』 『宰相世系表』에 安州都督을 지낸 楊愍⁹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楊愍의 4代祖와 같은 항렬인 楊恭仁이 高宗시기(649~683) 재상을 지냈는데, 高震의 묘지명은 高震이 죽은 大曆 8년(773)이므로 대체적인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⁹⁹⁾ 즉, 楊愍은 弘農 楊氏 출신인 중국인일 것이다. 중국인이 撰한 묘지명에는 중국인의 관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고구려 유민인 高震을 扶餘人·辰韓人·朝鮮人과 동일시한 것은 당시 중국인들의 高句麗觀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는 泉男生 일가의 묘지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泉男生의 묘지명에서는 泉男生을 五部の 酋豪이며, 三韓의 英傑이라고 지칭했고,¹⁰⁰⁾ 寶藏王(高藏)과 男建이 사로잡히고 五부와 三韓이 모두 唐의 臣妾이 되었다는 기록에¹⁰¹⁾ 공통적으로 ‘三韓’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음이 주목된다.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는 모두 고구려를 지칭하는 단어였음은 분명하다. 또 泉男生의 아들 泉獻誠의 묘지명에서는 그의 曾祖인 淵大祚를 “本國, 즉 고구려의 莫離支에 임명되어 兵馬를 지휘했으니, 기세는 三韓을 눌렀으며 명성은 五부 가운데 으뜸이었다”¹⁰²⁾라고 서술했다. 泉男生 묘지명에서는 공통적으로 고구려 대신 ‘三韓’이란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와 三韓이 동일하게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泉男產의 묘지명에서는 그의 출신 혹은 본적을 ‘遼東 朝鮮人’¹⁰³⁾이라고 기록했다. 즉, 泉男生 가문의 묘지명

98) 『新唐書』 卷71 下 『宰相世系表』 一 下 楊氏條, 2352쪽, “愍, 安州都督.”

99) 1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楊恭仁과 4代孫에 해당하는 楊愍은 약 90년 차이인데, 이는 高宗시기와 墓誌銘의 작성시기의 기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100) 『泉男生墓誌』, 668쪽, “特進行右衛大將軍上柱國下國公泉男生：五部酋豪, 三韓英傑, ……”

101) 『泉男生墓誌』, 668쪽, “其王高藏及男建等咸從俘虜, 巢山潛海, 共入隄封；五部三韓, 竝爲臣妾.”

102) 『泉男生墓誌』, 668쪽, “曾祖大祚, 本國任莫離支捉兵馬；氣壓三韓, 聲雄五部.”

103) 『大周故金紫光祿大夫行營繕大匠上護軍遼陽郡開國公泉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長安 008, 995쪽, “君諱男產, 遼東朝鮮人也.”

에서 고구려인을 三韓 혹은 朝鮮과 동일시했음을 알 수 있다.

李他仁의 묘지명에는 唐의 고구려 공격을 ‘吊伐三韓’¹⁰⁴⁾이라 기록했다. 李他仁은 唐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투항했는데, 어느 전쟁에 종군했다. 묘지명에서는 이를 “이에 穢境을 뒤집자, 公은 詔書를 받들어 扶餘를 나아가 토벌하고 다시 渠魁를 제거했다”¹⁰⁵⁾고 기록했다. 扶餘는 이미 6세기 文咨王시기에 고구려에 병합되었으므로, 고구려 멸망 전후에 독립된 세력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앞의 구절은 姜維가 蜀漢을 復國시키려고 했던 일을 다루었기 때문에¹⁰⁶⁾ 李他仁이 고구려의 멸망 이후 발생한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운동군 공격에 참여한 일을 우회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즉, 여기서도 ‘扶餘는 穢와 함께 고구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 高慈의 묘지명에서는 “땅을 평정함에 三韓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은 八教를 이어받았으며”¹⁰⁷⁾라고 하여 高慈의 옛 고국인 고구려를 三韓과 동일시했다. ‘遼東 三韓人’인 高玄의 묘지명에서는 曾祖 高寶와 祖 高方, 父 高廉이 三韓의 貴族이었으며, 대대로 벼슬했다고 기록했다.¹⁰⁸⁾ 高寶와 高方이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에¹⁰⁹⁾ 三韓은 곧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104) 孫鐵山, 1998, 앞의 글, 736쪽.

105) 孫鐵山, 1998, 앞의 글, 736쪽, “俄翻穢境, 公又奉詔進討扶餘, 重翦渠魁.”

106) 위 구절의 앞부분인 “卽而姜維構禍, 復擾成都, 穗六挺妖, ……”(孫鐵山, 1998, 앞의 책, 736쪽)은 三國時代 姜維의 故事를 기술한 것이다. 당시 삼국 魏의 장수 鄧艾가 魏의 총사령관인 鍾會가 蜀將 姜維와 대치하는 틈을 타서 산악지역으로 우회하여 蜀漢의 수도 成都를 점령하였다. 이에 姜維는 鍾會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고 그의 部將이 되어 鄧艾를 제거한 후 鍾會를 죽이고 다시 蜀漢을 復國시키려고 했으나 鍾會의 부하들이 이를 알고 鍾會와 姜維를 죽여 실패했다. 따라서 姜維의 故事를 언급한 이후 “俄翻穢境”이라 표현한 것은 ‘穢境’, 즉 高句麗의 境內를 뒤집기 위한 행위, 즉 高句麗人의 입장에서 보면 高句麗의 復國을 위한 부흥운동을 지칭한다.

107) 「高慈墓誌」, 960쪽, “況平地蘊三韓, 人承八教, ……”

108) 「高玄墓誌」, 317쪽, “曾祖寶, 任本州都督. 祖方, 任平壤城刺史. 父廉, 唐朝贈泉州司馬. 竝三韓貴族, 積代簪纓; 九種名賢, 蟬聯冠冕.”

109) 墓誌銘에서는 曾祖 高寶가 本州都督, 祖 高方이 平壤城刺史를 역임했다고 했는데, 高玄이 天授 2년(692), 즉 고구려가 망한 후 24년 동안 唐에서 활동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高玄의 曾祖와 祖 高方이 唐의 벼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本州都督과

묘지명뿐만 아니라 『隋書』와 『舊唐書』에도 고구려를 ‘三韓’으로 지칭하는 용례가 보인다. 『隋書』 卷70 楊玄感傳 등의 열전과 『隋書』 卷81 東夷傳 뒤에 있는 史臣曰에서 煬帝가 海外 經略에 관심을 보였고, 친히 八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三韓’의 강역을 밟았다고 기록했다.¹¹⁰⁾ 여기에서 ‘三韓’은 고구려를 지칭한다. 이 밖에 『舊唐書』와 『唐會要』에서도 ‘三韓’이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례가 산견된다.¹¹¹⁾ 唐代에 편찬된 史書와 官文書에도 고구려를 ‘三韓’으로 지칭하는 용례가 보이는 것은 묘지명의 ‘三韓’ 용례와 일치한다. 즉, 묘지명에서 ‘三韓’을 고구려로 지칭하는 것은 묘지명만이 아니라 唐代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용례였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高震과 泉男生 부자, 李他仁, 高慈, 高玄의 묘지명에 고구려를 지칭하는 단어로 ‘朝鮮’과 ‘三韓’, ‘扶餘’, ‘辰韓’ 등이 사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唐代 중국인들은 왜 高句麗와 朝鮮·三韓·扶餘·辰韓을 동일하게 간주했을까? 그 이유 혹은 배경은 2절에서 살펴보자.

2_ 唐代 중국인의 高句麗 認識

필자는 묘지명에서 사용된 고구려의 別稱이 고구려가 아닌 ‘朝鮮’·‘三韓’·‘辰韓’·‘扶餘’인 점에 주목했다. 고구려가 본래 扶餘에서 갈라져 나왔으므로 역사적인 계승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떠한가?

먼저,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된 ‘朝鮮’을 살펴보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平壤城刺史는 그의 선조가 高句麗에서 역임한 벼슬을 唐의 제도에 맞게 바꾼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10) 『隋書』 卷70 史臣曰, 1635쪽, “煬帝蒙故業, 踐丕基, 阻伊·洛而固嶠·函, 跨兩都而總萬國. 矜曆數之在己, 忽王業之艱難, 不務以道恤人, 將以申威海外. …… 方西規奄蔡, 南討流求, 親總八狄之師, 屢踐三韓之域”; 『隋書』 卷81 東夷傳 史臣曰, 1828쪽, “自高祖撫有周餘, 惠此中國, 開皇之末, 方事遼左, 天時不利, 師遂無功. 二代承基, 志包宇宙, 頻踐三韓之域, 屢發千鈞之弩.”

111) 姜清波, 2005, 앞의 책, 4쪽.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이후 고구려의 寶藏王 일가와 백제의 義慈王 일가에게 唐이 준 王號는 朝鮮郡王과 帶方郡王이었다. 양자를 비교하면 백제 義慈王의 후손들에게는 멸망 이전과 동일한 帶方郡王의 칭호를 주었으나, 고구려 寶藏王 후손들에게는 朝鮮郡王의 칭호를 준 점이 특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代에는 '朝鮮'이 郡縣의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朝鮮'이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들이 보인다. 예컨대, 『舊唐書』 「禮儀志」에는 玄宗이 泰山에 封禪하면서 문무백관과 주변국들의 君主(可汗·王·酋長) 및 대리인(인질과 사신) 등을 모아놓고 朝覲했다. 여기에 '高麗朝鮮王'과 '百濟帶方王'이 보인다.¹¹²⁾ '高麗朝鮮王'은 고구려 멸망 이후 寶藏王과 후손들이 朝鮮郡王에 봉해진 예를 상기시키며, 고려와 朝鮮王이 동의어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 『舊唐書』 「李密傳」에서는 遼水の 동쪽을 '朝鮮之地'라고 칭했고,¹¹³⁾ 『新唐書』 「天文志」에서는 遼水之陽이 모두 朝鮮과 三韓의 땅('朝鮮三韓之地')이라고 했다.¹¹⁴⁾ 고구려가 遼東 일대를 점유했으므로 "遼水之東"과 "遼水之陽"에 있는 '朝鮮'은 고구려의 別稱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¹⁵⁾

唐太宗시기의 名臣인 褚遂良은 太宗의 고구려 親征을 諫言하는 글을 올렸는데, 아래에서 일부를 인용했다.

臣이 널리 史籍을 찾아보니 近代에 이르기까지 임금으로서 스스로 遼를 정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면, 人臣 가운데 종종 정벌하러 갔던 자들은 있습니다. 漢朝에는 곧 荀歲와 楊僕, 魏代에는 毋丘儉과 王頊가 그들입니다. 司馬懿는 아직 人臣이었을 때, 慕容眞[慕容皝의 避諱]은 참람되게 황제를 자칭한 오랑캐 軍主[僭號]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軍主를 위해 오랫동안 高麗[高句麗]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여 그 人民들을 사로잡고 城과 壘를 제거하였습니다.¹¹⁶⁾

112) 『舊唐書』 卷23 「禮儀志」 三, 900쪽.

113) 『舊唐書』 卷53 「李密傳」, 2214쪽, “遼水之東, 朝鮮之地, 禹貢以爲荒服, 周王棄而不臣, ……”

114) 『新唐書』 卷31 「天文志」 一, 825쪽, “箕與南斗相近, 爲遼水之陽, 盡朝鮮三韓之地, 在吳·越東.”

115) 崔珍烈, 2008b, 앞의 글, 92~93쪽.

위의 인용문의 출처는 『舊唐書』 「褚遂良傳」인데, 『唐會要』에서는 이를 貞觀 19년(645)에 唐太宗이 고구려를 親征하자 上疏한 글로 기재했다.¹¹⁷⁾ 원문의 '伐遼'는 고구려 征伐을 지칭하는데, 漢代의 荀彘와 楊僕이 공격한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古朝鮮이었고, 司馬懿가 공격한 대상은 三國 曹魏시기 遼東에 할거하던 公孫淵이었다. 또 위의 인용문에서 司馬懿와 慕容眞[慕容皝]이 君主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역대 중국의 皇帝가 高句麗 혹은 遼東으로 親征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였다. 그러나 司馬懿가 손자 司馬炎이 西晉을 건국한 후 宣帝로 추증되었고, 慕容眞은 前燕이 황제를 자칭하기 전에 재위한 胡族君主였다. 특히 후자는 慕容部의 君主였을 때 고구려를 親征했으므로 褚遂良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일부 왜곡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褚遂良은 漢代의 荀彘와 楊僕이 고구려를 공격한 것처럼 기록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褚遂良이 고구려와 古朝鮮을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양자를 동일시한 것은 앞에서 인용한 『舊唐書』와 『新唐書』에서 朝鮮과 고구려를 동일시한 표현과 일치한다. 바꿔말하면, 唐代 중국인들이 고구려와 朝鮮을 동일시한 예이다. 그렇다면 高慈를 '朝鮮人'으로 지칭하거나 男産을 '遼東 朝鮮人'이라고 지칭한 것은 당시 고구려를 朝鮮과 동일시한 용법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를 朝鮮으로 표기했던 예는 北魏時代에도 보인다. 『魏書』 「蠕蠕傳」에서는 柔然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柔然 사람들은] 水草를 따라 다니며 가축을 길렀다. [柔然]의 서쪽은

116) 『舊唐書』 卷80 「褚遂良傳」, 2734~2735쪽, “臣旁求史籍, 訖乎近代, 爲人之主, 無自伐遼, 人臣往征, 則有之矣. 漢朝則荀彘·楊僕, 魏代則毋丘儉·王頎; 司馬懿猶爲人臣, 慕容眞僭號之子, 皆爲其主長驅高麗, 虜其人民, 削平城壘.”

117) 『唐會要』 卷27 「行幸」, 599쪽, “初, 上將發, 諫議大夫褚遂良上疏曰: “臣遍求史籍, 訖于近代, 爲人之主, 無自伐遼. 人臣往征, 則有之矣, 漢朝則荀彘·楊僕, 魏代則毋丘儉·王頎, 司馬懿猶爲人臣, 慕容眞僭號之子, 皆爲其主, 長驅高麗, 虜其人民, 削平城壘. ……”.”

곧 焉耆의 땅이고, 동쪽은 朝鮮의 땅이다. 또 북쪽은 沙漠을 넘어 瀚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大磧에 임한다.¹¹⁸⁾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焉耆와 朝鮮, 瀚海, 大磧이 柔然의 사방의 경계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쪽 경계선이 朝鮮과 맞대고 있다는 표현이 주목된다. 柔然이 몽골고원을 지배하던 4세기 말부터 6세기까지의 시기에 朝鮮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에 보이는 ‘朝鮮之地’는 고구려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를 찾아보자. 北魏 孝文帝 太和 3년(479) 고구려가 蠕蠕, 즉 柔然과 함께 地豆于를 양분하려 하자 契丹이 北魏의 境內로 이주했던 사건이 발생했다.¹¹⁹⁾ 여기서 주목한 사실은 고구려와 柔然 사이에 地豆于가 있었다는 점이다. 地豆于是 지금의 興安嶺 산맥 서쪽이며 내몽골의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 地豆于를 양분하면 고구려와 柔然이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이는 고구려가 柔然의 동쪽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위의 인용문의 지리적인 상황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을 보면 ‘朝鮮’은 고구려를 지칭한다. 물론 隋唐 이전의 ‘朝鮮’의 용례를 검색하면 樂浪郡의 屬縣인 朝鮮縣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기는 하지만,¹²⁰⁾ 고구려와 朝鮮을 동일시하는 용례가 출현했다는 자체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고구려와 朝鮮을 동일시하게 되었을까? 中國의 史書에서는 古朝鮮이 멸망한 뒤 설치된 소위 ‘漢四郡’의 하나인 玄菟郡의 屬縣

118) 『魏書』卷103 補「蠕蠕傳」, 2290~2291쪽, “隨水草畜牧, 其西則焉耆之地, 東則朝鮮之地, 北則渡沙漠, 窮瀚海, 南則臨大磧.”

119) 『魏書』卷100 「契丹傳」, 2223쪽,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120) 예컨대, 五胡十六國 前趙의 君主인 劉曜가 젊을 때 죄를 지어 朝鮮으로 망명한 기록이 있다. 劉曜가 姓名을 숨기고 縣卒이 되었고, 崔岳이 朝鮮令, 즉 朝鮮縣令에 임명되었던 예를 보면(『晉書』卷103 「劉曜傳」, 2688쪽, “初, [劉]曜之亡, 與曹恂奔於劉綏, [劉]綏匿之於書匱, 載送於[王]忠, [王]忠送之朝鮮. 歲餘, 飢窶, 變姓名, 客爲縣卒. [崔]岳爲朝鮮令, 見而異之, 推問所由. [劉]曜叩頭自首, 流涕求哀”; 『魏書』卷95 「匈奴劉聰傳附曜傳」, 2046쪽, “坐事當誅, 亡匿朝鮮, 客爲縣卒, 會赦得還”), 劉曜가 망명한 朝鮮은 朝鮮縣임을 알 수 있다.

가운데 高句麗縣이 존재했음¹²¹⁾을 상기하자. 실제 『漢書』 「地理志」에서는 고구려가 玄菟郡의 縣이었음을 기록했으며,¹²²⁾ 應劭는 高句麗縣에 관한 注에서 高句麗縣이 옛 句驪胡라고 풀이했다.¹²³⁾ 漢代 중국인의 관념으로는 고구려를 玄菟郡의 治所인 高句麗縣으로 편제했다는 뜻이다. 고구려가 玄菟郡의 屬縣이었고 玄菟郡이 고조선의 멸망 이후 고조선의 땅에 설치한 ‘漢四郡’의 하나이므로, 고구려는 본래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실제 『後漢書』 「濊傳」에서는 “濊及沃沮, 句驪, 즉 고구려가 모두 본래 朝鮮의 땅[朝鮮之地]이었다”고 직설적으로 기록했다.¹²⁴⁾ 현재 한국사학계에서 이 점을 간과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인들의 역사 서술에서 고구려가 고조선 영토의 일부 혹은 屬國이었다는 논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의 시대에 고조선의 일부였던 고구려를 古朝鮮, 즉 朝鮮과 동일시하는 관념이 생겨난 것은 두 나라의 역사적 동질성 혹은 계승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 고조선과 고구려가 공통적으로 요동과 한반도 북부를 영토의 일부로 삼았으며, 두 나라 모두 後期에 수도를 平壤으로 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사적 동질성과 계승성 이외에도 ‘속지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¹²⁵⁾

다음은 ‘三韓’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7세기 무렵 이후 『隋書』와 『舊唐

121) 『北史』 卷94 「高麗傳」, 3111쪽, “漢武帝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 以高句麗爲縣以屬之.”

122) 『漢書』 卷28 下 「地理志」 下 玄菟郡條, 1626쪽.

123) 『漢書』 卷28 下 「地理志」 下 玄菟郡條 顏師古注, 1627쪽, “應劭曰: ‘故句驪胡.’”

124) 『後漢書』 卷85 「東夷·濊傳」, 28177쪽, “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

125) 唐代 중국인들은 新羅의 崔致遠을 高麗人으로 보았는데(『新唐書』 卷60 「藝文志」 四 丁部集錄·別集類, 1617쪽, “崔致遠四六一卷…… 又桂苑筆耕二十卷(細注: 高麗人, 賓貢及第, 高駢淮南從事)”, 이는 高麗가 新羅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양자를 혼동한 것이다. 宋代 중국인과 遼의 契丹人들도 高麗를 三韓·新羅·鷄林으로 칭했다(김위현, 2005, 「송(宋)·요(遼)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 윤내현 엮음,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523~527쪽). 특히 高麗를 新羅 혹은 鷄林이라 칭한 것은 두 나라가 계승관계에 있고 한반도라는 비슷한 영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즉, 中國人과 契丹人들은 역사적 계승성과 아울러 屬地主義의 관점에서 양자를 동일시한 것이다.

書』, 『文館詞林』에 실린 唐의 國書 등에 나오는 ‘三韓’은 고구려를 뜻하거나 三國(고구려·백제·신라)을 지칭하였다.¹²⁶⁾ 隋唐時代 중국인들이 고구려 혹은 삼국을 三韓이라 표현한 동거나 논리는 밝혀진 바 없지만, 당시 중국인들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을 사회·문화·인종적으로 동질적인 국가, 혹은 집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¹²⁷⁾ 이처럼 唐代 중국인들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이를 단일한 개념인 ‘三韓’으로 표기한 배경에는 隋唐時代 중국인이 高句麗征伐論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¹²⁸⁾

어쨌든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三韓’, ‘고구려인’을 ‘三韓人’으로 동일시한 것은 당시 중국인들의 三國觀 혹은 三韓觀과 일치한다.¹²⁹⁾ 이후 宋代에는 고구려와 고려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高句麗=三韓”의 공식은 “高麗=三韓”으로 치환시켰다. 따라서 宋代 중국인과 遼의 契丹人들은 고려를 三韓·新羅·鷄林으로 칭하였다.¹³⁰⁾ 이 밖에 『隋書』 「地理志」 序言에는 漢武帝(원문은 孝武)가 동쪽으로 ‘三韓’을 평정했다고 기록했는데,¹³¹⁾ 이는 ‘朝鮮’의

126)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한국사연구』 38, 130~133쪽; 김유철, 2004, 「中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國家的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38~39쪽.

127) 盧泰敦, 1982, 앞의 글, 130~133쪽.

128) 李成珪,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123~124쪽.

129) 中國人뿐만 아니라 新羅人들도 三韓을 高句麗·百濟·新羅와 동일시하였다. 예컨대, 新羅 神文王 6년(686; 唐 垂拱 2년)에 海心法師가 重修한 寺蹟碑에 보이는 ‘三韓’은 三國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寺蹟碑가 세워진 686년에는 五小京이 정비되었고, 전 해에는 행정구역인 九州가 완비되었다. 당시 新羅 사람들은 三國民 사이의 동질성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高句麗·百濟·新羅 三國이 동일한 韓의 세 집단이란 뜻을 지닌 ‘三韓’으로 표기했다. 이는 新羅 사람들의 統一意識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금석문에는 ‘三韓’이 三國을 지칭하는 용례가 많아졌다(盧泰敦, 1982, 앞의 책, 137~140쪽). 이는 高句麗만을 三韓으로 본 것과 다르지만, 高句麗가 三韓에 속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親緣관계는 동일하다. 한편, 姜清波는 唐代에 한반도를 ‘三韓’으로 칭하는 용례가 생겼으며, 이는 이후 宋代부터 明代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姜清波, 2005, 앞의 책, 4~5쪽).

130) 김위현, 2005, 앞의 글, 517~527쪽.

131) 『隋書』 卷29 「地理志」 上 序言, 806쪽, “逮于孝武, 務勤遠略, 南兼百越, 東定三韓.”

오류이다. 그렇지만, 이는 朝鮮과 三韓을 동일시한 예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代 중국인들은 ‘고구려’란 단어를 기피한 나머지 고구려의 별칭으로 ‘朝鮮’, ‘三韓’, ‘辰韓’, ‘扶餘’ 등을 사용했다. 별칭은 해당 사물의 판 이름임과 동시에 해당 사물의 동일한 속성을 알 수 있는 명칭이므로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된 ‘朝鮮’, ‘三韓’, ‘辰韓’, ‘扶餘’는 모두 ‘고구려’와 동일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朝鮮’과 ‘扶餘’는 고구려와 역사적 계승관계, 혹은 宗主國과 屬國관계를 지닌 적이 있으며, ‘朝鮮’과 ‘고구려’는 비슷한 지역을 지배했다는 점에서 唐代 중국인들은 ‘속지주의’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간주했던 것 같다. ‘三韓’과 ‘辰韓’이 고구려와 동일어로 사용된 연원은 알 수 없으나, 三韓이 고구려와 같은 種族 혹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하게 간주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문에서는 高句麗 遺民으로 확인된 15인의 묘지명에 표기된 출신 혹은 본적 표기 방식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들의 정체성과 唐代 중국인들의 고구려 유민 認識을 살펴보았다.

먼저, 필자가 遺民 세대별로 작성한 표를 분석하면 선행연구처럼 유민 3대와 4대인 高震·高氏夫人 모녀와 高欽德은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渤海人’을 자칭했다. 이는 당시 존재하던 ‘渤海國人’이 아니라 魏晉南北朝부터 唐代까지 高氏 가운데 최고 名門인 渤海高氏의 본적을 冒稱한 것이었다. 이는 唐代 혹은 이전에 중국에서 거주했던 이민족들의 門閥 冒稱이 보이므로, 묘지명에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일 뿐 정체성 약화로 단정할 수 없다. 또 이들이 자신을 중국인, 즉 漢族이라고 생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묘지명에 보이는 고구려 유민들의 출신 혹은 본적 표기는 자신 혹은 유가족들의 뜻뿐만 아니라

당시 唐의 이민족정책 및 戶籍정책과 관련 있었기 때문이다.

唐代 이민족과 戶籍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唐代 법률에 의하면 內附한 이민족들, 즉 蕃戶는 다음 세대에 唐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唐代 漢族 농민들처럼 租庸調라는 租稅를 납부하고 府兵制의 징병 의무를 부담했음을 뜻한다. 內附한 지 2세대 이후 이민족들이 唐代 한족 농민들처럼 농경에 종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州縣名 혹은 郡縣名을 본적으로 부여받아 編戶로 등록되었음은 확실하다. 이는 唐代에 內附하거나 唐의 지배를 받은 突厥·鐵勒 등의 이민족 출신 묘지명의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唐代 이민족 출신들의 묘지명에 표기된 출신과 본적을 살펴보면, 고구려와 突厥처럼 唐에 강력히 대항했거나 唐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나라의 內附民 혹은 유민에게는 자신의 國名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반면, 唐에게 만만했던 중앙아시아 각국이나 百濟人들은 자신의 國名을 묘지명에 표기할 수 있었다. 이는 唐 朝廷의 정책 때문에 일률적이고 차별적인 표기가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일부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 보이는 唐代 郡縣名의 본적을 살펴보면, 당시 유민들이 주둔하던 지역이나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예컨대, 李他仁은 본래 遼東 柵州人이었으나 후에 雍州 萬年縣으로 移籍하였는데, 이는 그가 右戎衛將軍·右領軍將軍 등 唐 중앙의 12衛 혹은 16衛 등 수도 長安을 지키는 부대에 근무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營州城傍 高句麗人으로 표기된 王思禮처럼 唐의 변방에 근무했던 고구려인들은 근무지역의 州郡縣 명칭을 단 본적을 취했다.

이처럼 묘지명에 ‘고구려’라는 국명이 없거나 중국식 郡縣名으로 표기되었다고 해서 특히 遺民 3~4세대가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졌거나 혹은 中國人으로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 이들을 ‘朝鮮人’ 혹은 ‘三韓人’ 등으로 기록하고 글의 문맥상 고구려 대신 別稱으로 ‘朝鮮’, ‘三韓’, ‘辰韓’, ‘扶餘’ 등을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名門인 渤海高氏를 자칭했던 寶藏王의 손자 高震은 ‘扶餘의 貴種’, 혹은 ‘辰韓의 令族’, ‘朝鮮의 貴族’으로 지칭되었다. 高震이 고구려 마지막 寶藏王의 손자였으므로 ‘고구려의 貴種’, ‘고구려의 令族’, ‘고구려의 貴族’이라고 표기해야 했으나 고

구려 대신 ‘扶餘’와 ‘辰韓’, ‘朝鮮’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별칭을 사용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唐代 중국인들이 ‘고구려’란 단어를 기피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된 ‘朝鮮’, ‘三韓’, ‘辰韓’, ‘扶餘’는 모두 ‘고구려’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唐代 중국인들이 고구려와 朝鮮·三韓·辰韓·扶餘를 동일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밖에 고구려를 ‘小貊之鄉’¹³²⁾ 혹은 ‘穢境’¹³³⁾으로 표기하기도 했는데, ‘濊’와 ‘貊’이 고구려의 卑稱이라면, ‘朝鮮’, ‘三韓’, ‘辰韓’, ‘扶餘’는 상대적으로 雅稱으로 볼 수 있다.

唐代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朝鮮’과 ‘三韓’, ‘辰韓’, ‘扶餘’ 등과 동일시한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唐代 중국인들은 ‘朝鮮’과 ‘扶餘’는 고구려와 역사적 계승관계, 혹은 宗主國과 屬國관계를 지닌 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朝鮮’과 ‘고구려’는 비슷한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속지주의’의 관점에서는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이 당연했다. 唐代 중국인들이 ‘三韓’과 ‘辰韓’을 고구려와 동일시한 것은 묘지명뿐만 아니라 『隋書』와 『舊唐書』 등의 문헌에도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구려·백제·신라를 三韓으로 표기하여 역사·사회·문화·인종적으로 동질적인 국가나 집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132) 「泉獻誠墓誌」, 984쪽, “公卽襄公嫡子也. 生於小貊之鄉, ……”

133) 孫鐵山, 1998, 앞의 글, 736쪽.

참고문헌

〈사료〉

『漢書』

『後漢書』

『晉書』

『魏書』

『宋書』

『北史』

『遼史』

『隋書』

『舊唐書』

『新唐書』(이상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199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2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洛陽新獲墓誌』(李獻基·郭引強 編著, 1996, 文物出版社).

『三國會要』(錢儀吉 撰, 200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唐六典』(李林甫 等撰, 2005, 陳仲夫 點校, 中華書局).

『唐會要』(王溥 撰, 200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全唐文補遺』第5輯(吳剛 主編, 1998, 三秦出版社).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注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고구려연구재단 編, 2004,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저서〉

葛劍雄, 1997, 『中國移民史』第二卷·先秦至魏晉南北朝時期, 福建人民出版社.

康樂, 1995, 『從西郊到南郊-國家祭典與北魏政治-』, 臺北: 稻鄉出版社.

姜清波, 2005,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郭鋒, 1999, 『唐代士族個案研究-以吳郡·清河·范陽·敦煌張氏爲中心』,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李錦綉, 2007, 『唐代財政史稿』第二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原版은 北京大學出版社, 1995)

張澤咸, 1986, 「唐五代賦役史」, 中華書局.

日野開三郎, 1980, 『東洋史學論集』, 三一書房.

<논문>

- 김위현, 2005, 「송(宋)·요(遼)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 운내현 역음,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 김유철, 2004, 「中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國家的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한국사연구』 38.
- 李成珪,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 李成珪, 1992,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 宋基豪, 2007,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묘지명」, 『韓國史論』 53.
- 宋基豪,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묘지명」, 『서울大學校 博物館年報』 10.
- 尹龍九, 2003, 「중국 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 李文基, 2001,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역사교육학회.
- 崔珍烈, 2005,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 崔珍烈, 2008, 「東晉·南北朝~唐代 주변국 冊封 封號의 地名 분석-韓國古代 三國君主들의 冊封 郡王/郡公 칭호의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97.
- 崔珍烈, 2008, 「隋唐 本籍地封爵과 그 의의-高麗時代 本籍地封爵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中國古中世史研究』 20.
- 谷苞, 費孝通 主編, 2003, 「中華民族的共通性(二)」,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原載 『新疆社會科學』 1986-1.)
- 仇鹿鳴, 2008, 「“攀附先世”與“僞冒士籍”-以渤海高氏爲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2.
- 馬一虹, 2006, 「從唐墓志看入唐高句麗遺民歸屬意識的變化-以高句麗末代王孫高震一族及權勢貴族爲中心」, 『北方文物』 2006-1(總第85期).

- 方積六, 1985, 「關於唐代團結兵積探討」, 『文史』 25, 中華書局.
- 孫鐵山, 1998, 「唐李他仁墓誌考釋」, 『遠望集』下, 西安: 陝西人民美術出版社.
- 王義康, 2004, 「唐代“蕃族”賦役制度試探」, 北京: 『民族研究』 2004-4(K22), 2004, 魏晉南北朝隋唐史 2004-5).
- 王義康, 2002, 「唐代城傍辨析」, 『中國邊疆史地研究』 12-1.
- 李錦綉, 1997, 「大唐帝國與城傍」, 『唐代的歷史與社會』, 武漢大學出版社.
- 張國剛, 1995, 「唐代的蕃部與蕃兵」,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 陳寅恪, 1987, 「宇文氏之府兵及關隴集團(附鄉兵)」,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黃山書社.
- 湯海清, 2007, 「北魏·北周·唐時期追祖李陵現象述論—以“拓跋鮮卑系李陵之後”為中心」, 『民族研究』 2007-3.
- 石見清裕, 1995, 「唐の内附異民族對象規定をめぐって」, 『堀敏一先生古稀記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ABSTRACT]

The Ruined Koguryo People's Identification Acknowledged by the Chinese in terms of Koguryo's Nick Name(Chosun, Samhan, Buyo, and Jinhan) in Tang Period

Choi, Jinyeou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identification of the Ruined Koguryo People using the memorial inscription in Tang period, and proved that the Chinese in Tang Period acknowledged Koguryo People as the Korean ancestors identifying the one with Chosun, Samhan, Buyo and Jinhan, which meant that Koguryo belonged to the Korean history.

I analyzed epitaph of the Ruined Koguryo People which showed birthplace or identity, family history of the dead. A few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rgued that some Ruined Koguryo People were assimilated by Chinese, because they insisted that they are a distinguished family of Bohai (渤海), i.e. Bohai Gao family (渤海高氏). But I maintained that it is not absolutely true because it was related with non-Chinese people or census registration policy. First, Tang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second generation of non-Chinese people immigrated or moved by conquest were Chinese subject at law. So they have one's legal domicile designated by Chinese province or county names. Second, Chinese government disagreed that the conquered identified their ex-independent country. So it insisted that ex-oppo- nent never used their country name, which applied to Koguryo as

well as Turk and Uighur. Third, Some conquered Koguryo People were general or soldiers, so they moved the army posts in capital or frontiers, which was reconied their birth place or registered domicile.

Some Chinese wrote epitaph of the Ruined Koguryo People and identified the other with people of Chosun, Samhan, Buyo and Jinhan, which were ancestral Korean countries. they were synonyms of Koguryo in context of the memorial inscription. This proved that Chinese in Tang Period recognized both have same historical identity as well as ethnic, cutural, or social similarity. Many contemporary Chinese insisted Koguryo pertained to Chinese history, but their ancesrter in Tang period already agreed that Koguryo was one of the Korean ancient countries in Korean History.

keywords

Identity of The Ruined Koguryo People, Army Organization of Foreign Warriors, Chosun, Samhan, Buyo, Jinhan

唐代 長安의 朝貢使節의 변화와 鴻臚寺의 기능

최재영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강사

I. 머리말

전근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책봉-조공관계라는 형태로 다양한 외교관계를 맺어왔다. 이에 대해 종래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둔 국제질서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冊封-朝貢秩序’이다.¹⁾ 중국 왕조가 이른바 ‘주변국’의 지위를 결정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설정한 것이다.²⁾ 이는 중국 중심의 설명 방식이며 중국의 천자 혹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세계관에서 나온 이념적 세계질서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념상 이 세계에는 유일한 천자(황제)가 존재할 뿐이고, 그의 冊封으로 주변

1)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六-八世紀の東アジア」(『岩波講座日本歴史：古代 2』, 1962, 岩波書店)을 포함한 西嶋定生の 관련 논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西嶋定生の 견해와는 달리 동아시아 세계를 ‘羈縻支配’로 일관되게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堀敏一, 2008, 『東あじあ世界の歴史』, 講談社).

2)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김성규 옮김, 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휴머니스트, 31~32쪽.

이 질서 있게 정렬된다. 실제 중국 왕조의 이념적 지향은 대외관계에서 항상 그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때로는 대외관계가 아니라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册封-朝貢’ 형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册封-朝貢’의 이념이 중국 이외의 나라들도 함께 공유한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册封-朝貢’관계에는 다양한 양상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册封-朝貢’에 대한 중국 중심의 관점 및 이해 혹은 ‘册封-朝貢’에 대한 형식·이념적 고찰에서 벗어나 조공국의 주체적 입장에서 ‘册封-朝貢’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뿐만 아니라³⁾ 中國 史書에서 등장하는 ‘朝貢’이란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조공의 측면에서 ‘册封-朝貢’관계를 설명하여 ‘册封-朝貢’관계에 대해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하고 있다.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조공국과 중국 왕조 사이 ‘册封-朝貢’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唐代 연구분야에서도 唐과 新羅, 唐과 渤海·日本, 唐과 日本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 또한 唐과 麴氏 高昌國과의 외교관계만을 주목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⁶⁾ 이같은 개별관계의 연구를 통해 당조와 인접국 사이의 ‘册封-朝貢’의 양상과 성격이 부각될 수도 있지만 당대의 책봉-조공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전반에 걸친 책봉과 조공 상황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당조가 인접국에 내린 책봉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있지만,⁷⁾ 조공 전체를 다룬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唐의 都城인 長

3) 川本芳昭, 2008, 「魏晉南朝の世界秩序と北朝隋唐の世界秩序」, 『史淵』 145, 96~97쪽.

4) 여호규 외 지음, 2006,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5)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는 權德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일조각; 酒奇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石井正敏,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池田溫 編, 1992, 『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 吉川弘文館 등을 들 수 있다.

6) 당과 국씨 고창국의 외교관계를 조공과 책봉을 중심으로 정리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 辻正博의 「麴氏高昌國と中國王朝-朝貢·羈縻·册封·征服」(夫馬進 編, 2007,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이 있다.

安에 來朝한 조공국 전체를 시기·국가별 등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⁸⁾ 이에 관한 연구는 당조의 국제관계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과 개별 국가관계가 전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冊府元龜』를 중심으로 당에 조공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를 바탕으로 唐代 조공의 변화와 전체상을 제시할 것이다. 그를 통해 당대 조공의 일반적 경향과 성격을 우선 밝힐 것이다. 이런 조공의 전체 배경 속에 조공사절이 장안에 왔을 때 그들이 했던 활동을, 황제 알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안에 온 조공사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鴻臚寺의 역할을 통해 당조의 조공 및 조공사절에 대한 대응방식을 살펴볼 것이다.⁹⁾ 唐代 조공의 전체 흐름, 장안에서 조공사절의 구체적 활동 그리고 조공사절 등의 대외 업무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고찰은 唐代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한편으로 폭넓게,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7)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8) 李云泉의 「漢唐中外朝貢制度述論」(『東方論壇』 2002-6)에서는 漢에서 唐에 이르기까지 조공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상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9) 鴻臚寺 및 당조의 외교 관련 관서에 대한 연구로는 최재영, 2005, 「唐 長安城의 薩寶府의 위치와 역할-唐朝의 突厥大冊과 관련하여」, 『중양아시아연구』 10 ; 方亞光, 1996, 「唐代外事機構論考」, 『中國史研究』 1996-2 ; 黎虎, 1998, 「漢唐外交管理體制演進及其特點」,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8-3 ; 黎虎, 1998, 「魏晉南北朝鴻臚寺及其外交管理職能」, 『中國史研究』 1998-3 ; 黎虎, 1999, 「略論唐後期外交管理體制的變化」, 『文史哲』 1999-4 ; 馬國榮, 1999, 「唐鴻臚寺述論」, 『西域研究』 1999-2 ; 陳彥輝, 2004, 「中國古代外交機構編制及其職能」,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3 ; 王歡·高擘華, 2007, 「略論唐代中央外交機構及其職能」, 『忻州師範學院學報』 2007-10 ; 石見清裕, 1998, 「鴻臚寺と迎賓館」,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등이 있다.

II. 唐代 朝貢使節의 횡수와 그 경향

1_ 朝貢國의 수

唐에 인접한 많은 나라가 자주 조공했다는 것은¹⁰⁾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전해 주는 것이 開元 26年(738)에 완성된 『唐六典』 卷4 尙書禮部 主客郎中條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開元 26年(738)까지 唐朝에 조공을 한 나라는 370여 개국이었다고 한다. 즉, 사방의蕃 가운데 당조에 조공한 이후 폐절된 나라 및 당조에게 죄를 얻어 멸망된 나라가 300여 국이고, 開元 26년에 남아 있는 나라가 70국이라는 것이다.¹¹⁾ 하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는 300여 개국에 속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通典』·『唐會要』·『舊唐書』·『新唐書』의 외국 관련 기록에서 唐과 관련을 맺은 나라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唐六典』에서는 68개국의 이름이,¹²⁾ 『通典』에서는 66개국의 이름이,¹³⁾ 『唐會要』에서는 79개

10) 孟憲實, 2008, 「盛唐的中外交交流融奇觀」, 『傳承』 2008-10, 44쪽.

11) 『唐六典』 卷4 尙書禮部, 1992, 北京: 中華書局, 129~130쪽, “凡四蕃之國經朝貢已後自相誅絕及有罪見滅者, 蓋三百餘國. 今所在者, 有七十餘蕃. …… 各有土境, 分爲四蕃焉.”

12) 『唐六典』 卷4 尙書禮部, 129~130쪽 참조. 이 기사에서는 조공국을 ‘七十國’이라고 했으나 실제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68개국이다.

13) 『通典』 卷185~卷200, 1988, 北京: 中華書局, 4978~5494쪽 참조. 여기에는 중국과 관련된 唐代까지蕃國을 東夷·南蠻·西戎·北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東夷에 20개국, 南蠻에 56개국, 西戎에 77개국, 北狄에 42개국, 모두 195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唐朝와 관련된 기록을 명확히 담고 있는蕃國은 66개국이다. 于闐, 師子 등처럼 다른 사료를 통해 唐朝의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는 국가도 있으나 『通典』에는 그의 기록이 없는 경우 이 수치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제외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東夷(12): 朝鮮, 濊, 馬韓, 辰韓, 弁辰, 東沃沮, 挹婁, 扶桑, 女國, 文身, 大韓, 閩越. 南蠻(36): 盤瓠種, 廩君種, 板楯種, 獠, 夜郎國, 滇, 邛都, 笮都, 冉駹, 附國, 焦僥國, 檀國, 尾濮, 木綿濮, 文面濮, 折腰濮, 赤口濮, 黑獒濮, 嶺南蠻獠, 黃支, 哥羅, 扶南, 遁遜, 毗騫, 干陁利, 狼牙脣, 槃槃, 赤土, 羅刹, 丹丹, 邊斗, 杜薄, 薄刺, 敦焚, 火山, 無論. 西戎(54): 羌無弋, 涅中月氏胡, 氐, 葱

〈표 1〉 사료별 唐朝와 관련 맺은 국가

출 전	국 가	갯수
『通典』	東夷 高句麗, 流求, 勿吉(靺鞨), 百濟, 新羅, 倭, 蝦夷	7
	南蠻 哥羅舍分, 訶陵, 昆彌國, 南平蠻, 多摩長, 多蔑, 東謝, 西趙, 西爨, 松外諸蠻, 哀牢, 烏篤, 林邑, 眞臘, 充州, 投和, 婆等, 婆利, 陁洹, 牂柯	20
	西戎 康居, 劫國, 罽賓, 高昌, 龜茲, 泥婆羅, 黨項, 大食, 大羊同, 史國, 石國, 疎勒, 悉立, 焉耆, 朱俱波, 天竺, 吐谷渾, 吐蕃, 吐火羅, 嚙噠(挹怛), 波斯, 何國	22
	北狄 結骨, 庫莫奚, 骨利幹, 契丹, 都波, 突厥, 同羅, 流鬼, 馱馬, 拔野古, 白靺, 僕骨, 薛延陀, 室韋, 烏洛侯, 廻紇, 靺	17
『舊唐書』	東夷 高麗, 百濟, 新羅, 流鬼, 日本	5
	南蠻 訶陵, 南平獠, 單單, 浪穹詔, 名蔑, 蒙嵩詔, 盤盤, 扶南, 西原蠻, 施浪詔, 室利佛逝, 兩爨蠻, 越析詔, 眞臘, 瞻博, 投和, 驃, 環玉, 遼暎詔	19
	西戎 康, 箇失密, 罽賓, 高昌, 骨咄, 龜茲, 寧遠, 泥婆羅, 黨項, 大勃律, 大食, 東女, 摩揭陀, 跋祿迦, 拂林, 師子, 謝闐, 疏勒, 蘇毗, 識匿, 焉耆, 于闐, 天竺, 吐谷渾, 吐蕃, 吐火羅, 波斯	27
	北狄 契丹, 突厥, 渤海, 沙陀, 室韋, 奚, 回鶻, 黑水靺鞨	8
『新唐書』	東夷 高麗, 百濟, 新羅, 倭國, 日本	5
	南蠻 訶陵, 南詔蠻, 南平獠, 東女國, 東謝蠻, 盤盤, 西趙蠻, 林邑, 牂柯蠻, 眞臘, 陀洹, 墮婆登, 墮和羅, 婆利, 驃國	15
	西戎 康國, 罽賓, 高昌, 龜茲, 泥婆羅, 黨項羌, 大食, 拂林, 疏勒, 焉耆, 于闐, 天竺, 吐谷渾, 吐蕃, 波斯, 廻紇	16
	北狄 契丹, 突厥, 靺鞨, 渤海靺鞨, 室韋, 烏羅渾, 鐵勒, 奚, 靺	9

苾羌, 乙弗敵, 宕昌, 鄧至, 白蘭, 章求拔, 樓蘭, 且末, 杆彌, 車師, 于闐, 烏孫, 姑墨, 溫宿, 烏秣, 難兜, 大宛, 莎車, 烏弋山離, 條支, 安息, 大夏, 大月氏, 小月氏, 曹國, 奄蔡, 滑國, 車離, 師子國, 高附, 大秦, 小人, 軒渠, 三童, 澤散, 驢分, 堅昆, 呼得, 丁令, 短人, 悅般, 伏盧尼, 渴槃陁, 粟弋, 阿鈎羌, 副貨, 疊伏羅, 賒彌, 女國, 陁羅伊羅, 越底延. 北狄(25): 匈奴, 南匈奴, 烏桓, 鮮卑, 軻比能, 宇文莫槐, 徒河段, 慕容氏, 拓跋氏, 蠕蠕, 高車, 稽胡, 鐵勒, 多濫葛, 斛薛, 阿跌, 契苾羽, 鞠國, 俞木介, 大漠, 地豆于, 驅度寐, 拔悉彌, 鬼國, 鹽漠念.

『唐會要』	哥羅舍分國, 訶陵國, 葛邏祿國, 甘棠國, 康國, 契丹, 結骨國, 罽賓國, 高句麗, 高昌, 昆彌國, 骨利幹國, 驕馬國, 俱蘭國, 拘婁蜜國, 求拔國, 金利毗迦國, 南詔蠻, 南平蠻, 耨醜洄國, 多摩菴國, 多蔑國, 多福國, 曇陵國, 黨項羌, 大食國, 大羊同國, 都播國, 東謝蠻, 東女國, 流鬼國, 靺鞨, 盤盤國, 拔野古國, 渤海, 白狗羌, 百濟, 北突厥, 拂林國, 史國, 師子國, 沙陀突厥, 西突厥, 西趙蠻, 西爨, 石國, 薛延陀, 殊奈國, 瑟匿國, 霫咄國, 新羅, 悉立國, 室韋, 女國, 烏羅渾國, 烏菴國, 倭國, 日本國, 林邑國, 牂牁蠻, 占卑國, 曹國, 朱俱波國, 眞臘國, 佞婆羅國, 天竺國, 鐵勒, 耽羅國, 吐谷渾, 吐蕃, 吐火羅國, 婆等國, 婆利國, 波斯國, 驃國, 蝦夷國, 奚, 火辭彌國, 廻紇	79
『唐六典』	訶毗施國, 可薩國, 迦葉彌羅國, 康國, 契丹, 堅昆, 罽賓國, 骨咄國, 俱密國, 俱位國, 龜茲國, 俱戰, 窟內有姓殺下, 南天竺, 達垢, 怛沒國, 達未婁, 大食, 突厥, 突騎施, 東天竺, 無靈心國, 米國, 拔悉蜜, 拔汗那, 渤海靺鞨, 北天竺, 拂林國, 史國, 謝鸞教時山屋馱國, 獅子國, 三姓葛邏祿, 三姓咽蔑, 西天竺, 石國, 蘇都怛那國, 疏勒國, 習阿薩般國, 尸科佛誓國, 新羅, 室韋, 安國, 遏囉國, 焉耆國, 烏素固, 烏菴國, 于建國, 于闐國, 遠蕃靺鞨, 日本, 林邑國, 提教律國, 曹國, 中天竺, 眞臘國, 處蜜, 處月, 葱嶺國, 吐蕃, 吐火羅, 婆利國, 波斯, 奚, 護密國, 火尋國, 和解烏羅護	68

※ 『唐會要』와 『唐六典』는 『通典』, 『新唐書』, 『舊唐書』와 달리 東夷·南蠻·西戎·北狄 등을 구별하지 않아 『唐會要』와 『唐六典』의 항목에서는 모두 일괄하여 제시하였음.

국의 이름이,¹⁴⁾ 『舊唐書』에서는 59개국의 이름이,¹⁵⁾ 『新唐書』에서는 45개국의 이름이¹⁶⁾ 각각 확인된다.

이들 사료가 전해 주는 기록을 보면 모두 일치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唐朝와 관련을 맺은 국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록을 서로 비교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바로 <표 2>이다.

<표 2>를 통해 당조와 관련을 맺은 국가는 모두 167개국임을 알 수 있다.

14) 『唐會要』 卷94~卷100, 199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2138쪽 참조.
 15) 『舊唐書』 卷194 上 突厥 上~卷199 下 北狄傳, 5153~5366쪽 참조(이하 正史는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임).
 16) 『新唐書』 卷215 上 突厥 上~卷222 下 南蠻 下, 6033~6334쪽 참조.

〈표 2〉 唐朝와 관련 맺은 국가

구 분	국 가	갯수
사료 공통 기록	哥羅舍分國, 訶陵國, 甘棠國, 康國(康居), 契丹, 結骨國, 罽賓國, 高句麗, 高昌, 昆彌國, 骨咄, 骨利幹國, 驕馬(駝馬)國, 龜茲, 南詔蠻, 南平蠻(南平獠), 泥婆羅, 多摩長(多摩長國), 黨項羌, 大食國, 大羊同國, 突厥, 東謝蠻, 東女國, 流鬼國, 靺鞨, 盤盤國, 拔野古國, 渤海靺鞨, 白狗羌, 百濟, 北突厥, 拂菻國, 史國, 師子(獅子)國, 沙陀突厥, 西突厥, 西趙蠻, 西爨(兩爨), 石國, 薛延陀, 疏勒(疎勒), 殊柰國, 霫, 霫狃國, 新羅, 悉立國, 室韋, 焉耆, 烏羅渾國, 烏菟國, 倭國, 于闐, 日本國, 林邑國, 牂牁(羊柯)蠻, 曹國, 朱俱波國, 眞臘國, 鐵勒, 隋洹(陀洹), 吐谷渾, 吐蕃, 吐火羅國, 婆等國, 婆利國, 波斯國, 驃國, 蝦夷國, 奚, 迴紇(回鶻)	71
『唐六典』만 기록	訶毗施國, 可薩國, 迦葉彌羅國, 堅昆, 俱密國, 俱位國, 俱戰, 窟內有姓殺下, 南天竺, 達圻, 怛沒國, 達未婁, 突騎施, 東天竺, 無靈心國, 米國, 拔悉蜜, 拔汗那, 北天竺, 謝颺敦時山屋馱國, 三姓葛邏祿, 三姓咽蔑, 西天竺, 蘇都垺那國, 習阿薩般國, 尸科佛誓國, 安國, 遏囉國, 烏素固, 于建國, 遠蕃靺鞨, 怛沒國, 提敦律國, 中天竺, 處蜜, 處月, 葱嶺國, 護密國, 火尋國, 和解烏羅護	40
『通典』만 기록	劫國, 庫莫奚, 都波, 同羅, 流求, 白靄, 僕骨, 松外諸蠻, 哀牢, 暹噠(挹怛), 烏篤, 烏洛侯, 充州, 何國	14
『唐會要』만 기록	葛邏祿國, 甘棠國, 俱蘭國, 拘婁蜜國, 求拔國, 金利毗迦國, 橐駝洹國, 多福國, 曇陵國, 都播國, 白狗羌, 殊柰國, 瑟匿國, 女國, 占卑國, 佉婆羅國, 耽羅國, 火辭彌國	18
『舊唐書』만 기록	箇失密, 寧遠, 單單, 大勃律, 浪穹詔, 摩揭陀, 名蔑, 蒙嚮詔, 跋祿迦, 扶南, 謝颺, 西原蠻, 蘇毗, 施浪詔, 識匿, 室利佛逝, 越析詔, 瞻博, 環玉, 黑水靺鞨, 遵暎詔	21
『新唐書』만 기록	墮婆登, 墮和羅	2

『唐六典』에서 언급한 300여 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을 正史를 비롯한 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167개국이 唐朝에 빠짐없이 조공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조공 관련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2_ 朝貢使節의 횡수와 시기·국가별 변화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당의 조공사절의 사례 전체를 제시한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 3과 卷971 外臣部 朝貢 4에는 隋唐代 외국이 隋唐에게 조공하러 온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기사를 정리하면 [별첨]에서 보듯이 1,299건의 조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치는 당대 전반에 걸친 조공 경향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冊府元龜』에서 唐代 外國의 조공 기사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通典』 기사와 『冊府元龜』 기사를 비교해 보면 『通典』에는 있지만 『冊府元龜』에는 없는 기사가 있다. 즉, 牂牁別部인 充州가 貞觀年間에 조공했다거나¹⁷⁾ 南蠻에 속하는 烏篤이 조공품을 바쳤다는¹⁸⁾ 기사는 『通典』에는 있지만 『冊府元龜』 卷970과 卷971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밖에도 『通典』에는 있으나 『冊府元龜』에 없는 조공 관련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朱俱波·劫國·庫莫奚·烏洛侯 등에 관한 4건의 기사가 있다.¹⁹⁾ 北狄에 속하는 白靄은 唐과 통교했음을 전하는 기사가 1건이 있다.²⁰⁾ 결국 『冊府元龜』에는 7건의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唐會要』 기사와 『冊府元龜』 기사를 비교해 보아도 『唐會要』에 있으나 『冊府元龜』에는 없는 조공 기사는 모두 10건이 확인된다. 즉, 白狗羌의 1건,²¹⁾ 東謝蠻의 1건,²²⁾ 甘常國의 1건,²³⁾ 求拔國의 1건,²⁴⁾ 多摩菴國의 1건,²⁵⁾ 拘

17) 『通典』 卷187 邊防 3 南蠻 充州, 5050쪽, “亦貞觀中朝貢, 列其地爲充州.”

18) 『通典』 卷188 邊防 4 南蠻 烏篤, 5105쪽, “大唐貞觀中, 其王達摩因陀訶斯遣使獻龍腦香.”

19) 『通典』 卷193 邊防 9 西戎 朱俱波, 5272쪽, “大唐武德以後, 亦頻遣使朝貢矣”; 『通典』 卷193 邊防 9 西戎 劫國, 5278쪽, “大唐武德二年, 遣使貢寶帶·金鏤·頗梨·水精盃各一, 頗梨四百九十枚, 大者如棗, 小者如酸棗”; 『通典』 卷200 邊防 16 北狄 庫莫奚, 5485쪽, “大唐開元五年二月, 奚首領李大酺入朝, 封從外生女辛氏爲固安公主以妻之”; 『通典』 卷200 邊防 16 北狄 烏洛侯, 5489쪽, “大唐貞觀六年, 遣使朝貢云.”

20) 『通典』 卷199 邊防 15 北狄 白靄, 5470쪽, “自靄國以下諸國, 竝貞觀二十一年通.”

婁蜜國의 1건,²⁶⁾ 驃國의 2건,²⁷⁾ 占卑國의 2건²⁸⁾ 등 8개국 10건의 조공 기사가 『冊府元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冊府元龜』에 누락되어 있는 기사 가운데 兪州·朱俱波·烏篤·求拔國 등의 기사에는 조공의 정확한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白靄처럼 조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 등 5건이 있다. 게다가 『通典』과 『唐會要』에만 있는 기사 17건은 『冊府元龜』 전체 수록 기사에 약 1.3%에 불과하고 논란이 있는 기사 5건을 뺀 경우 0.9%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런 수치는 唐代의 조공 경향을 파악할 때 제외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冊府元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공 사례는 앞서 언급했듯이 1,299회이다. 이를 바탕으로 唐代 조공 경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당대 황제별 조공 횟수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太宗代와 玄宗代에 조공 횟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통설에 따라 玄宗代를 경계로 당 전기와 당 후기를 구분한다면,²⁹⁾ 당 전기에 조공 사례는 928회로, 전체 조공 사례에서 약 71%나

21) 『唐會要』 卷98 白狗羌, 2078쪽, “貞觀五年二月, 其渠帥竝來朝.”

22) 『唐會要』 卷99 東謝蠻, 2089쪽, “貞觀三年, 元深入朝, 冠烏態皮冠, 若今之旄頭, 以金絡額, 身披毛帕, 韋皮行膝而著履.”

23) 『唐會要』 卷99 甘常國, 2107쪽, “貞觀十年, 與朱俱波國朝貢同日至.”

24) 『唐會要』 卷100 求拔國, 2116쪽, “貞觀二十五年, 因悉立而朝貢使至.” 이 기사에 따르면 求拔國은 貞觀 25년에 唐에 조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貞觀年間은 貞觀 23년(649)으로 끝난다. 따라서 이 기사의 ‘貞觀二十五年’이란 기록은 오기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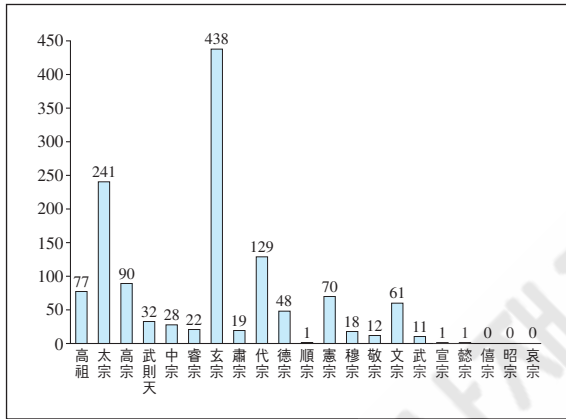
25) 『唐會要』 卷100 多摩婁國, 2128쪽, “顯慶四年二月, 朝貢使至.”

26) 『唐會要』 卷100 拘婁蜜國, 2131쪽, “顯慶元年閏正月, 來朝貢.”

27) 『唐會要』 卷100 驃國, 2132쪽, “貞元十八年春正月, …… 驃國王始遣其弟悉利移來朝. …… 咸通三年二月, 遣使貢方物.”

28) 『唐會要』 卷100 占卑國, 2133쪽, “大中六年十二月, 占卑國佛邪葛等六人來朝, 兼獻象. …… 咸通十二年二月, 復遣使朝貢.”

29) 玄宗代에도 조공사절의 횟수는 開元年間에는 269회, 天寶年間에는 169회로 차이가 있으므로, 天寶年間부터 조공사절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평균 횟수는 각각 9.3회, 11.2회로, 天寶年間에 해마다 당조에 들어오는 조공사절의 수는 많다.



〈그림 1〉 唐代 皇帝別 外國의 조공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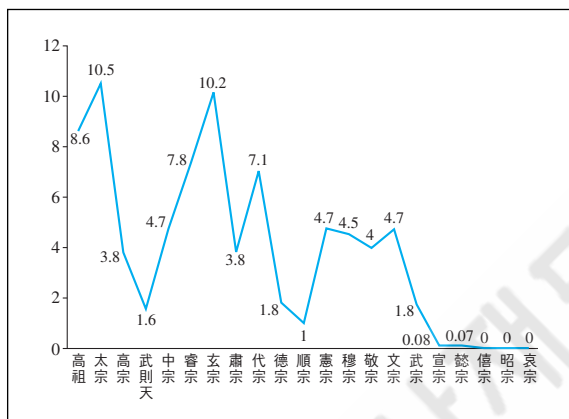
차지하여 당대 조공 사례는 당 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공의례가 왕권 강화의 수단이자 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³⁰⁾ 조공횟수는 왕조의 성쇠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 전기에 조공횟수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당 전기에 당조가 세력을 널리 확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宣宗 이래로 당조가 멸망하는 哀帝까지 57년 동안 조공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宣宗 이후 당 조정의 세력이 약해졌고, 대외관계에서도 그 위상이 떨어졌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太宗代와 玄宗代에 조공횟수가 많은 것은 그들의 재위기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太宗과 玄宗의 재위기간은 각각 23년과 43년으로 당 황제의 재위기간 가운데 가장 길다. 따라서 재위기간을 기준으로 조공횟수의 평균을 계산해 본 것이 바로 〈그림 2〉이다.³¹⁾

〈그림 2〉에서도 보듯이 조공의 연간 평균횟수가 가장 높은 황제 역시 太宗

30) 李成市 지음, 김창석 옮김,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35~141쪽.

31) 당 황제의 재위기간은 高祖 9년, 太宗 23년, 高宗 24년, 武則天 21년, 中宗 6년, 睿宗 3년, 玄宗 43년, 肅宗 5년, 代宗 18년, 德宗 26년, 順宗 1년, 憲宗 15년, 穆宗 4년, 敬宗 3년, 文宗 13년, 武宗 6년, 宣宗 13년, 懿宗 15년, 僖宗 14년, 昭宗 16년, 哀帝 4년 등으로 그 평균횟수를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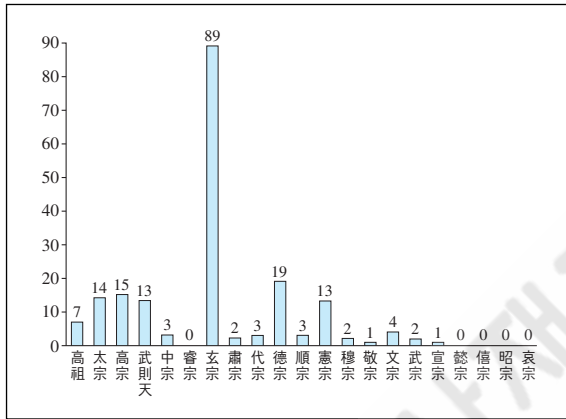
〈그림 2〉 唐代 皇帝 재위기간 중 외국 조공의 연간 평균횟수

과 玄宗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재위기간에 상관없이 당 전기에 조공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당 전기의 연간 조공횟수는 약 3.9회고, 당 후기의 연간 조공횟수는 약 1.5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 조공횟수나 연간 조공횟수면에서 조공 사례가 당 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 당 후기 憲宗代에 조공의 평균횟수가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憲宗代에 당 조가 어느 정도 부흥했다는 개설적 설명에 부응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³²⁾ 이는 곧 조공횟수가 왕조의 성쇠를 반영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³³⁾

한편, 당 전기에 당조의 외교관계가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음은 책봉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冊封 2 · 卷965 外臣部 冊封 3에

32) 憲宗代 唐朝의 지방의 변진에 대한 제어를 長安의 進奏院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福井信昭, 2003, 「唐代之進奏院-唐後半期「藩鎮體制」の一側面」, 『東方學』 105, 58쪽).

33) 〈그림 2〉에서 주목되는 것은 代宗代의 조공 평균횟수이다. 代宗代 조공 평균횟수가 7.1회로 太宗과 玄宗 다음으로 높기 때문이다. 代宗代 조공국은 21개국이고 조공횟수는 129회나 된다. 조공국의 지역도 편중되어 있지 않고 사방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것이 代宗代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지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살펴볼 만한 문제이다.



〈그림 3〉 唐代 황제별 책봉횟수

는 唐朝의 인근 지역의 지배자에 대한 책봉 기사에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唐代 책봉 사례는 모두 191건이다. 그 중 현종까지의 책봉 사례는 141건으로 전체 책봉 사례 가운데 약 74%나 차지한다. 조공 사례나 책봉 사례를 통해서 당조의 위세가 당 전기에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冊府元龜』의 조공 사례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朝貢國의 변화이다. <표 3>에 보듯이 唐代 내내 조공국의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玄宗代 이후로 조공국의 수가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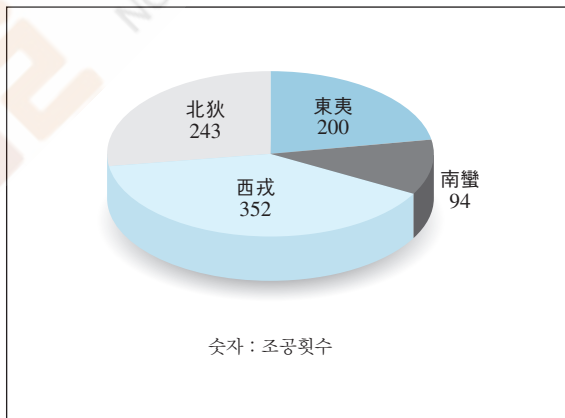
그런데 그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조공국의 지리적 위치이다. 이것은 당조의 대외관계에서 어느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조공국의 위치를 모두 확인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그 차선택으로 『通典』, 『舊唐書』 그리고 『新唐書』에서 외국을 東夷·南蠻·西戎·北狄으로 분류하고 있는 <표 1>을 이용하고자 한다. 『通典』, 『舊唐書』 그리고 『新唐書』의 四夷에 속한 외국이 조공한 사례는 각각 889회, 897회, 957회로 전체 조공 사례에 각각 68.4%, 69.1%, 73.7%나 된다. 이런 사례를 통해 대략이나마 唐朝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東夷·南蠻·西戎·北狄에 속하는 나라의 조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 것이 <그림 4>, <그림 5>, <그림 6>

〈표 3〉 唐代 황제별 조공국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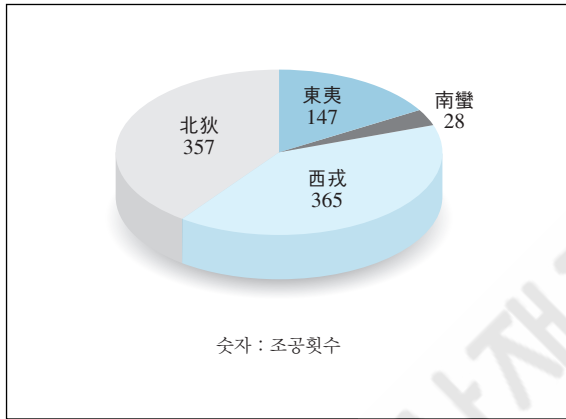
황제	高祖	太宗	高宗	武則天	中宗	睿宗	玄宗
조공횟수	22	89	47	22	15	14	95
황제	肅宗	代宗	德宗	順宗	憲宗	穆宗	敬宗
조공횟수	16	21	21	1	16	8	9
황제	文宗	武宗	宣宗	懿宗	僖宗	昭宗	哀帝
조공횟수	12	9	1	1	·	·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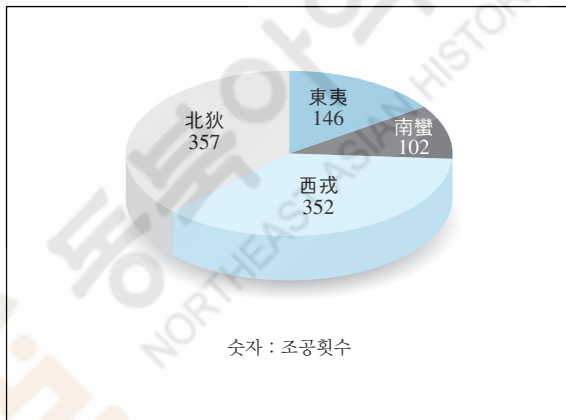
〈그림 6〉에서 東夷·南蠻·西戎·北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 10.5%, 39.6%, 27.4%이고, 〈그림 7〉에서 東夷·南蠻·西戎·北狄 등의 비중은 16.4%, 3.1%, 40.1%, 37.4%이다. 그리고 〈그림 8〉에서 東夷·南蠻·西戎·北狄 등의 비중은 15.3%, 10.7%, 36.7%, 37.3%이다. 이를 통해 『通典』을 기준으로 할 때는 西戎에 속한 나라의 조공이 가장 많았으나, 『舊唐書』와 『新唐書』를 기준으로 할 때는 北狄에 속한 나라의 조공 비중이 西戎만큼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84회나 되는 渤海의 조공이다. 『通典』에서는 渤海에 대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舊唐書』와



〈그림 6〉 『通典』 기준 : 四夷의 조공 비중



〈그림 7〉 『舊唐書』 기준 : 四夷의 조공 비중



〈그림 8〉 『新唐書』 기준 : 四夷의 조공 비중

『新唐書』에서는 渤海를 北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通典』이 주로 당 전기까지의 기록을 실고 있다는 점과 발해의 조공의 상당수가 당 후기에 있었다는 점을 염두하면, 당 전기에는 서융지역의 나라가 주로 당조에 조공했으나, 당 후기가 되면 북적지역의 나라에서 온 조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자 당 전기와 당 후기의 서융과 북적의 조공횟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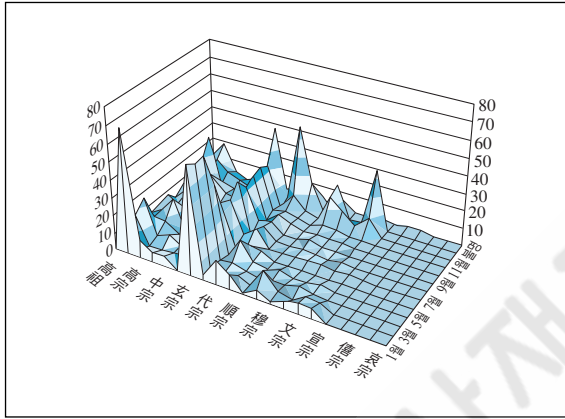
〈표 4〉 唐代 西戎·北狄 소속 나라의 조공횟수

구분	『通典』 기준		『舊唐書』 기준		『新唐書』 기준	
	당 전기	당 후기	당 전기	당 후기	당 전기	당 후기
西戎	297	55	307	58	299	53
北狄	135	108	166	191	166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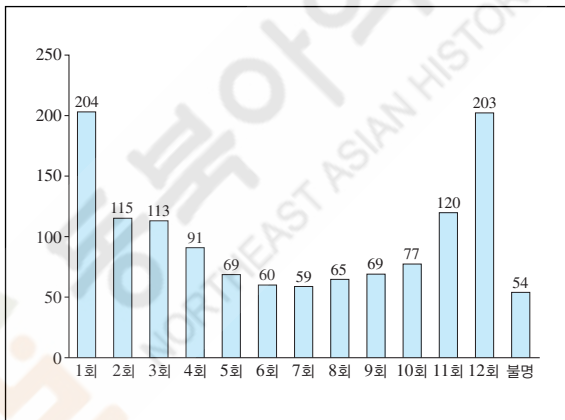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듯이 『通典』·『舊唐書』·『新唐書』 모두를 기준으로 할 때 西戎에 속한 나라의 조공은 당 후기에 들어서면 크게 줄어든 반면, 北狄의 경우 『通典』을 기준으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당 후기 北狄에 속한 나라의 조공 사례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西戎과 北狄 양자를 비교해도 당 후기에는 北狄의 조공 사례가 월등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공 사례를 통해 당 대 조공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공 사례는 당 전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중심을 서용에 속한 나라가 차지하였으나, 당 후기에는 조공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 중심은 서용지역의 나라에서 북적지역의 나라로 옮겨졌던 것이다. 이는 곧 당조가 서쪽 지역에 대한 장악력이 줄어들고 북쪽과 동북쪽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만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공 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조공 경향은 외국에서 조공하는 시기이다. 이것을 황제별 그리고 월별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림 9〉와 〈그림 10〉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서 조공사절은 황제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주로 1월과 12월에 조공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공사절이 장안에 도착했던 시기가 바로 1월과 12월인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조공사절이 이때 장안에 온 이유와 관련해서 『冊府元龜』의 기사는 그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 직접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당조에서는 황제가 정월과 동지에 중앙관·지방의 조집사·번객 등으로 축하를 받는 원회의례를 중시했다는 지적을 참고하면,³⁴⁾ 조공사절이 1월과 12월에 장안에 도착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장안에 온 조공사절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임무는



〈그림 9〉 唐代 朝貢國의 황제별 월별 조공횟수



〈그림 10〉 唐代 朝貢國의 월별 조공횟수

황제 알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34) 와타나베 신이치로 지음, 문정희·임대희 옮김, 2002, 『天空의 玉座—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129~141쪽.

Ⅲ. 朝貢使節의 長安의 활동 양상

조공사절이 당에 들어와 장안에서 황제를 알현하기까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당 후기에 관한 기록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라 할 수 있다.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 조공사절의 入唐에서 황제 알현까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추적하기도 한다.³⁵⁾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에 들어온 이후 조공사절의 활동이 당조에게 보고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당조의 개방성과 관용을 강조하는³⁶⁾ 면을 고려할 때 다소 대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開成 3年(838) 8월 1일 일본 견당사가 揚州大都督府의 李相公을 만난 뒤 揚州府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심문하고 그 내용을 중앙에 보고하는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다.³⁷⁾ 이들의 이동과 활동은 당에서 발급하는 通行證, 즉 過所을 얻어야 가능했다.³⁸⁾

그런데 조공사절에게 過所 발급을 한 것은 단지 당 후기만의 일은 아니었다. 唐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었다. 종래 복원된 唐숙에는 蕃客이 왕래할 경우 그 휴대품의 경중을 조사하고 關所 하나를 통과하여 진입했으면, 나머

35) 古瀨奈津子, 2003, 『遣唐使の見た中國』, 吉川弘文館, 90~94쪽.

36) 당조의 특징으로 개방성과 관용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 개설서로 번역출간된 에이미 추의 저서에서도 확인된다(에이미 추 지음, 이순희 옮김, 2008, 『3장 중국의 황금기-당』, 『제국의 미래』, 비아북, 107~143쪽 참조).

37) 圓仁, 2007, 『入唐求法巡禮行記』 卷1, 廣州: 廣東師範大學, 8~9쪽(엔닌 지음, 김문경 역, 1999,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43~46쪽 참조).

38)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등장하는 通行證 발급에 관해서는 종래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小野勝年, 1977, 『唐代開元時代の旅行證明書について』, 『東洋學術研究』 16-3; 王仲榮, 1987, 『吐魯番出土的幾件唐代過所』, 『崑崙山館叢稿』, 中華書局; 杉井一臣, 1990, 『唐代之過所發給について』, 『布目潮風博士古稀記念論文集 東アジアの法と社會』, 汲古書院; 磯波護, 1994, 『唐代之過所と公驗』, 『中國中世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荒川正晴, 1997, 『唐の州縣百姓と過所の發給-唐代過所-公驗文書劄記(1)』, 『史觀』 137; 程喜霖, 2000, 『唐代過所研究』, 中華書局 등을 들 수 있다.

지 關所에서는 譏察하지 않는다³⁹⁾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蕃客의 關所 통과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공사절에 대한 過所 발급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절이 『新唐書』 卷46 百官志에서 찾을 수 있다. 『新唐書』의 기록에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 앞에 천하의 관소를 통과할 때 過所를 해당 관청에 발급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이다.⁴⁰⁾ 이는 곧 蕃客에게도 통행을 위해 과소를 발급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런 추측은 최근 공간된 ‘北宋天聖令’을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天聖令을 통해 唐令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⁴¹⁾ 그 가운데 蕃客에 대한 과소 발급 규정이 있다. 즉, 天聖令의 關市令에

蕃客이 처음 京師에 갈 경우 본래 출발하는 州에서 過所를 발급하도록 하는데, 姓名·年紀·顔狀을 모두 갖추도록 하며 牒을 보내 경과하는 關所에서 過所를 검사한다. 물건이 하나 이상 있으면, 關司가 蕃客 官人과 함께 내역을 모두 기록하여 담당 관서에 보고한다. 한 關所를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 檢驗할 필요가 없다. 만약 關이 없는 곳이라면 처음 경유하는 州·鎮 역시 이에 준한다. 關所를 나가는 날에 客이 받은 賜物 및 휴대한 衣物은 모두 所屬 官司에 신고하고 過所에 제출한다.⁴²⁾

고 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蕃客이 장안을 갈 경우 과소를 발급받아야 함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번객의 신상명세 및 휴대물품을 모두 검열받고,

39) 仁井田陞 著, 池田溫 編, 1997, 『唐令拾遺補』,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關市令 補2, 1395쪽.

40) 『新唐書』 卷46 百官志, 1200~1201쪽, “天下關二十六, 有上·中·下之差, 度者, 本司給過所; 出塞踰月者, 給行牒; 獵手所過, 給長籍, 三月一易. 蕃客往來, 閱其裝重, 入一關者, 餘關不譏.”

41) 天聖令의 公刊 의미 및 唐令 복원과 관해서는 大津透, 2007, 「北宋天聖令의 公刊とその意義—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東方學』 114 참조.

42)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校證, 2006, 北京: 中華書局) 下冊 校錄本, 「關市令」 宋 6, 306쪽, “諸蕃客初入京, 本發遣州給過所, 具姓名·年紀·顔狀, 牒所入關勘過所. 有一物以上, 關司共蕃客官人具錄申所司. 入一關以後, 更不須檢. 若無關處, 初經州鎮亦準此. 卽出關日, 客所得賜物及隨身衣物, 並申所屬官司出過所.”

그 내역이 중앙의 담당 관서에 보고되어야 했다. 이처럼 入唐 이후 조공사절의 활동은 제도적으로 당조의 감시하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唐律에도 외국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조문이 역시 마련되어 있었다. 우선 私貿易의 금지이다. 『唐律疏義』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에는 당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했을 경우 그 거래물품을 장물로 취급하여 그 액수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⁴³⁾ 이 조문은 처벌 대상을 외국인과 私貿易을 한 당나라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어, 외국인의 활동 제약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런데 외국인이 국경 넘어 들어와 당나라 사람과 교역한 자 역시 처벌하라는 唐律도 있다.⁴⁴⁾ 이 두 조문에 의해 외국인은 결국 사무역을 쉽사리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蕃인이 당나라 여자와 通婚하는 것은 別格으로 가능했으나, 華夷의 私婚, 즉 公許를 받지 않은 通婚은 금지토록 규정한 條文 등이 있었다.⁴⁵⁾ 이런 조문을 통해 당조가 외국인의 활동을 경계하는 장치를 갖춘 전제에서 외국인의 활동을 허가하는 장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문 외에도 조공사절에게만 적용되는 조문도 보인다. 『唐律疏義』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條에

또 主客式에 의하면 “외국의客이 입조하면 길에서 客과 交雜할 수 없고, 또 客으로 하여금 (중국)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한다. 주·현의 官人은 만약 일이 없으면 또한 客과 서로 相見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⁴⁶⁾

43) 『唐律疏義箋解』(劉俊文 撰, 1996, 北京: 中華書局) 上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 669쪽, “[律文] 諸越度緣邊關塞者, 徒二年. 共化外人私相交易, 若取與者, 一尺徒二年半, 三疋加一等, 十五疋加役流. [疏議曰] 緣邊關塞, 以隔華夷. 其有越度此關塞者, 得徒二年. …… 若共化外蕃人私相交易, 謂市買博易, 或取蕃人之物及將物與蕃人, 計贓一尺徒二年半, 三疋加一等, 十五疋加役流.”

44) 『唐律疏義箋解』上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 670쪽. “[律文] 其化外人越度入境, 與化內交易, 得罪並與化內人越度交易同, 仍奏聽勅. 出入國境, 非公使者不合, 故但云‘越度’, 不言‘私度’. 若私度交易, 得罪皆同.”

45) 『唐律疏義箋解』上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 670쪽, “準別格, 諸蕃人所娶得漢婦女爲妻妾, 並不得將還蕃內. …… 如是蕃人入朝聽住之者, 得娶妻妾, 若將還蕃內, 以違勅科之.”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朝貢使節에게 ① 중국인과의 교잡, ② 百姓과의 대화, ③ 관리와 쓸데없는 대화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이 당조가 국가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것이라면⁴⁷⁾ 조공사절의 활동이 더욱 제약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唐令과 唐律을 통해서 조공사절은 당조의 영역 내 그리고 장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제약을 적지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가운데 장안에 온 조공사절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를 알현하고 國書와 朝貢品을 헌상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의례에 관한 규정은 『大唐開元禮』 卷79와 卷80 賓禮에 명시되어 있다. 황제를 알현하는 자가 蕃國主인 경우와 蕃國使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공사절이 알현하는 일련의 절차는 蕃國主가 來朝했을 때 東帛으로 그들을 맞이함[蕃國主來朝以東帛迎勞]· 사신을 보내어 蕃國主에게 알현 날짜를 알림[遣使戎蕃主見日]· 蕃國主의 알현[蕃主奉見]· 蕃國使의 上表 및 조공품 헌상[受蕃國使表及幣]· 황제가 蕃國主에게 연회 개최[皇帝宴蕃國主]· 황제가 蕃國使에게 연회 개최[皇帝宴蕃國使]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⁴⁸⁾ 조공사절이 황제를 알현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는 궁성내의 太極殿이었지만, 高宗 이후 大明宮에서 주된 정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大明宮 내의 宣政殿, 延英殿, 麟德殿인 경우도 있었다.⁴⁹⁾

황제를 알현하는 과정에서 조공사절은 장안 내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곳이 바로 鴻臚客館이었다. 그곳에 廻紇의 사절이나 일본의 견당사가 기거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⁵⁰⁾ 鴻臚客館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皇城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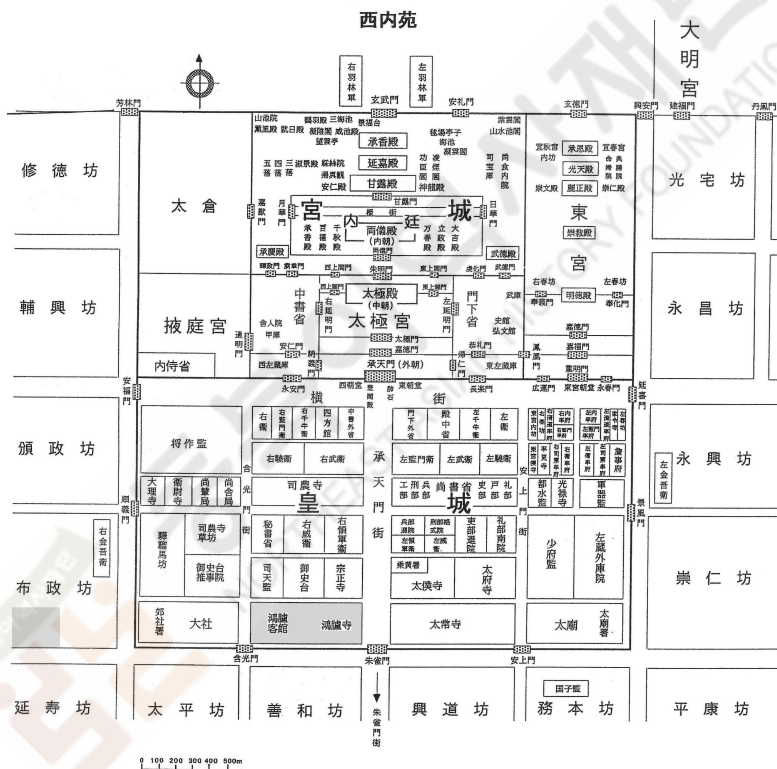
46) 『唐律疏議箋解』 上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 670쪽, “又準主客式. 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竝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 亦不得與客相見.”

47) 石見清裕, 1998, 「唐代外國貿易·在留外國人をめぐる諸問題」,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512쪽.

48) 『大唐開元禮』(2000, 北京: 民族出版社) 卷79 賓禮, 386 下~389 上쪽; 卷80 賓禮 389 下~392 上쪽.

49) 石見清裕, 1998, 「外國使節の皇帝謁見儀式復元」,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418~420쪽.

에 있었다. 조공사절은 이곳에서 숙박하면서 그 일정을 통제받았다.⁵¹⁾ 그러나 조공사절이 묵는 숙소는 항상 鴻臚客館만은 아니었다. 당 후기에는 조공사절은 황성 밖에 있는 禮賓院에 숙박하였다. 元和 9年(814)에는 禮賓院은 장안의 萬年縣 소속의 長興坊에 설치되어⁵²⁾ 조공사절은 그곳에 묵었던 것이다. 조공사절의 숙박소가 변했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하는 관서는 언제나 鴻臚寺였다.



〈그림 11〉 唐 長安城의 鴻臚寺와 鴻臚客館의 위치.

妹尾達彦, 「唐開元長安城圖作製試論」, 『歴史人類』 26(1998), 69쪽 참조.

50) 石曉軍, 2005, 「唐長安城における迎賓施設とゲストハウス」, 『遣唐使の見た中國と日本』, 朝日新聞社, 268쪽.

51) 石見清裕, 1998, 「鴻臚寺と迎賓館」,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360~365쪽.

52) 『唐會要』 卷66 鴻臚寺, 1362쪽, “元和九年六月, 置禮賓院於長興里之北.”

鴻臚寺가 조공사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鴻臚寺의 조직과 기능

唐朝에서 조공사절을 담당한 관서가 鴻臚寺임은 주지의 사실이다.⁵³⁾ 조공사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관서는 周 이래로 존속했으나 그 이름은 각기 달랐다. 周代에는 大行人, 秦代에는 典客, 漢景帝 때는 大行, 漢武帝 때는 大鴻臚, 梁代에는 鴻臚寺, 北周代에는 賓部, 隋代에는 鴻臚寺였다. 唐代에는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唐初에는 명칭이 鴻臚寺였으나 龍朔年間(661~663)에 同文寺로 바뀌었고, 光宅元年(684)에 司賓寺로 되었다가 神龍年間(705~707)에 다시 鴻臚寺로 바뀌었다.⁵⁴⁾

唐代的 鴻臚寺는 太常寺·光祿寺·衛尉寺·宗正寺·太僕寺·大理寺·司農寺·太府寺 등과 더불어 九寺 가운데 하나였다. 『唐六典』 기록을 바탕으로

〈표 5〉 九寺의 규모와 최고 관품⁵⁵⁾

九寺 항목	太常寺	光祿寺	衛尉寺	宗正寺	太僕寺	大理寺	鴻臚寺	司農寺	太府寺
소속관부 수	12	4	3	1	6	2	2	10	5
최고 관 품	정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유내 관 수	121	37	23	10	58	37	28	143	68
직원 총 계	4243	2779	1706	45	2434	285	225	2857	356

53) 方亞光, 1996, 「唐代外事機構論考」, 『中國史研究』 1996-2, 65쪽.

54) 『舊唐書』 卷44 百官志, 1884쪽, “周曰大行人, 秦曰典客, 漢景帝曰大行, 武帝曰大鴻臚. 梁置十二卿, 鴻臚爲冬卿, 去大字, 署爲寺. 後周曰賓部, 隋曰鴻臚寺. 龍朔改爲同文寺, 光宅曰司賓寺, 神龍復也.”

九寺의 관원의 수와 최고 관품의 비교를 통해 鴻臚寺의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鴻臚寺의 규모는 종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⁵⁶⁾ 宗正寺 다음으로 가장 작다. 더구나 三省六部를 포함한 중앙관부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鴻臚寺보다 규모가 작은 관부는 태자에게 啓奏를 받치고 그의 俞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⁵⁷⁾ 太子右春坊뿐이다.⁵⁸⁾ 鴻臚寺는 이처럼 규모면에서는 작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자의 관품이 禮樂·郊廟·社稷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⁵⁹⁾ 太常寺를 제외한 다른 九寺의 책임자의 관품과 같다는 점에서 鴻臚寺의 위상이 다른 九寺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鴻臚寺의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鴻臚寺는 크게 典客署와 司儀署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전하는 자료는 『唐六典』 卷18 鴻臚寺, 『舊唐書』

55) 金鐸民主編, 2003, 「부록: 관부·직원표」, 『譯註唐六典』 上, 신서원, 714~737쪽.
 56) 介永强, 2003, 「唐代宗室管理制度論略」,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1, 78쪽.

57) 『唐六典』 卷26 太子右春坊, 670쪽, “右庶子之職, 掌侍從左右, 獻納啓奏, 宣傳令言.” 太子左春坊과 太子右春坊의 기능은 각각 門下省과 中書省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궁성에서 門下省과 中書省이 황제의 처소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 太子左春坊과 太子右春坊 역시 東宮의 태자 처소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기능의 유사성이 확인된다(徐松, 1985, 『唐兩京城坊考』, 張穆 校補, 中華書局, 唐兩京城坊考圖 西京宮城圖 참조).

58) 太子右春坊의 경우 최고관품은 정4품하이이고, 유내관수와 직원총계는 각각 25, 95이다. 尚書省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鴻臚寺보다 관원의 수가 적은 관부로 尚書都省, 戶部, 禮部, 刑部, 工部가 있다. 그런데 尚書省의 관원에는 雜任의 인원이 전혀 없는 반면, 鴻臚寺에는 雜任이 129명이 된다. 유내관과 外官의 수만 비교할 때 鴻臚寺의 관원 수(96)가 六部 어느 관서보다 적다(金鐸民主編, 2003, 앞의 글, 696~783쪽). 따라서 六部 각 관서의 규모가 鴻臚寺보다 작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尚書省 항목	尚書都省	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
소속관부 수	1	4	4	4	4	4	4
최고관품	정2품	정3품	정3품	정3품	정3품	정3품	정3품
유내관 수	21	29	25	18	25	21	19
직원총계	95	308	223	105	258	191	125

59) 『唐六典』 卷14 太常寺, 384쪽, “太常卿之職, 掌邦國禮樂·郊廟·社稷之事.”

〈표 6〉 鴻臚寺의 구성과 인원

전거 관품	『唐六典』卷18 鴻臚寺			『舊唐書』卷44 職官志			『新唐書』卷48 百官志		
	鴻臚寺			鴻臚寺			鴻臚寺		
		典客署	司儀署		典客署	司儀署		典客署	司儀署
종 3 품	卿(1)			卿(1)			卿(1)		
종4품상	少卿(2)			少卿(2)			少卿(2)		
종6품상	丞(2)			丞(2)			丞(2)		
종7품상	主簿(1)			主簿(1)			主簿(1)		
종7품하		令(1)			令(1)			令(1)	
정8품하		丞(2)	令(1)		丞(2)	令(1)		丞(3)	令(1)
정9품상		掌客 (15)			掌客 (15)			掌客 (15)	
정9품하			丞(1)			丞(1)			丞(1)
종9품상	錄事(2)			錄事(2)			錄事(2)		
훈 품			司儀(6)			司儀(6)			司儀(6)
유외2품		典客 (13)			典客 (13)			典客 (13)	
유외3품									
유외4품	府(5)	府(4)	府(2)	府(5)	府(4)	府(2)	府(5)	府(4)	府(2)
유외5품	史(10)	史(8)	史(4)	史(11)	史(8)	史(4)	史(11)	史(8)	史(4)
유외6품	亭長(4)		掌固(4)	亭長(4)		掌固(4)	亭長(4)		掌固(4)
유외7품	掌固(6)	掌固(5)		掌固(6)	掌固(2)		掌固(6)	掌固(2)	
잡 입		賓僕 (18)	掌設 (18) 齋郎 (33) 幕士 (60)		賓僕 (18)	掌設 (18) 齋郎 (33) 幕士 (60)			掌設 (18) 齋郎 (33) 幕士 (60)

卷44 職官志, 『新唐書』 卷48 百官志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鴻臚寺에 대해 보다 상세한 기술을 담고 있는 것이 『唐六典』의 기록이지만, 각 기록이 전하는 鴻臚寺의 구성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이 기록들은 두 가지 외에 차이가 없다. 즉, 典客署의 丞 인원에 대해 차이가 있다. 『唐六典』 卷18 鴻臚寺와 『舊唐書』 卷44 職官志에서는 典客署의 丞 인원이 2라 한 것에 반해, 『新唐書』 卷48 百官志에서는 3이라고 하였다. 또한 典客署 소속의 잡임으로 賓僕 18명에 대한 기록이 『唐六典』과 『舊唐書』에는 있지만 『新唐書』에는 없는 것도⁶⁰⁾ 다른 점이다. 하지만 『唐六典』이 唐代의 기록이라는 점, 『唐六典』과 『舊唐書』의 기록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新唐書』의 기록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唐六典』의 기록이 현재로서는 鴻臚寺의 조직을 파악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이를 바탕으로 鴻臚寺의 구성원을 다시 정리하면 鴻臚寺의 구성원은 卿 1인, 少卿 2인, 丞 2인, 主簿 1인, 錄事 2인, 掌客 15인, 司儀 6인, 典客 13인, 府 11인, 史 22인, 亭長 4인, 掌固 15인, 賓僕 18인, 掌設 18인, 齋郎 33인, 幕士 60인 등 모두 225명이었다.

이러한 唐朝의 鴻臚寺는 『唐六典』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皇朝因之’라는 표현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전 왕조인 隋朝의 鴻臚寺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현재 隋朝의 鴻臚寺 구성 전모를 확인하기란 자료상 한계로 어렵다. 『隋書』 卷28 百官志와 『唐六典』의 기록을 통해 그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隋朝의 鴻臚寺는 典客書·司儀署·崇玄署로 구성되어 있었다.⁶¹⁾ 鴻臚寺에는 鴻臚卿 1인, 鴻臚少卿 2인, 鴻臚卿 예하의 丞 2인, 主簿 2인, 錄事 2인이 설치되었고,⁶²⁾ 鴻臚卿의 관품은 隋初에 정3품이었다가 煬帝 때 중3품으로 바뀌었으며, 少卿의 관품은 隋初에 정4품상이었다가 煬帝 때 중4품으로 낮아졌다.⁶³⁾ 丞의 관품은 隋初 정7품하에서 大業 5年(609)에 중5품이 되었다.⁶⁴⁾ 典客

60) 『新唐書』 卷48 百官志, 1258쪽, “有典客十三人, 府四人, 史八人, 掌固二人.”

61) 『隋書』 卷28 百官志, 777쪽, “鴻臚寺統典客·司儀·崇玄三署.”

62) 『隋書』 卷28 百官志, 775쪽, “太常·光祿·衛尉·宗正·太僕·大理·鴻臚·司農·太府等九寺, 竝置卿·少卿各一人. 太僕尋加少卿一人. 各置丞, 太常·衛尉·宗正·大理·鴻臚·將作二人, 光祿·太僕各三人, 司農五人, 太府六人. 主簿·太府四人. 餘寺各二人. 錄事各二人. 光祿則加至三人, 司農·太府則各四人. 等員.”

63)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隋初鴻臚寺卿一人, 正第三品, 統典客·司儀·崇玄等三署. 開皇三年省并太常, 十二年復舊. 煬帝降卿爲從三品, 皇朝依焉. …… 煬帝降

書·司儀署의 수는 각 2인, 崇玄署의 수는 1인, 典客署의 掌客은 10인, 司儀署의 掌義는 20인이었고⁶⁵⁾ 崇玄署의 丞은 1인이었다.⁶⁶⁾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隋의 鴻臚寺의 조직과 唐의 鴻臚寺의 조직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崇玄署의 鴻臚寺 예속 여부이다. 隋의 鴻臚寺에는 崇玄署가 예속되어 있지만, 『唐六典』 등의 기록에는 唐代에 崇玄署는 鴻臚寺가 아니라 宗正寺에 예속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鴻臚寺를 전문하고 있는 기존 연구에서 崇玄署와 鴻臚寺의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⁶⁷⁾ 하지만 『唐六典』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唐初에 崇玄署는 鴻臚寺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崇玄署는 唐初에 鴻臚寺 소속이었다가 貞觀年間に 폐지되었지만 開元 25年(737) 玄宗이 내린 조직으로 다시 복구되어 宗正寺에 예속되었던 것이다.⁶⁸⁾ 결국 唐의 鴻臚寺 조직은 唐初에는 隋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여 典客書·司儀署·崇玄署으로 구성되었다가 貞觀年間に 典客

置少卿二人, 降爲從四品.”

64)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隋鴻臚丞二人, 正七品下, 大業五年, 加爲從五品.”

65) 『隋書』 卷28 百官志, 777쪽, “各置令·二人, 崇玄則惟置一人. 典客署又有掌客, 十人. 司儀有掌儀二十人. 等員.”

66) 『唐六典』 卷16 宗正寺, 467쪽, “隋崇玄署丞一人, 皇朝因之.”

67) 대표적인 연구로 馬國英, 1999, 「唐鴻臚寺述論」, 『西域研究』 1999-2 등을 들 수 있다.

68) 『唐六典』 卷16 宗正寺, 467쪽, “隋置崇玄署令·丞, 煬帝改佛寺爲道場, 改道觀爲玄壇, 各置監·丞. 皇朝又爲崇玄署令. 又置諸寺·觀監, 隸鴻臚寺, 每寺·觀各監一人. 貞觀中省. 開元二十五年, 敕以爲‘道本玄元皇帝之教, 不宜屬鴻臚. 自今以後, 道士·女道士並宜屬宗正, 以光我本根’, 故署亦隨而隸焉”;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舊屬官有崇元署, 開元二十五年, 敕改隸宗正寺.” 玄宗대의 이같은 조치는 玄宗代에 장안에서 道教 內道場이 흥성했던 것과도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었다(王永平, 1999, 「論唐代道教內道場的設置」,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9-2, 16~17쪽). 崇玄署는 北魏 道武帝 때인 天興 2年(399)에 처음 설치되어 北齊-北周-隋-唐에 이르는 동안 도관과 불사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崇玄署의 연혁은 『通典』 卷25 職官志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通典』 卷25 職官志, 704쪽, “崇玄署, 令一人. 初, 後魏天興二年, 置仙人博士, 掌煮鍊百藥. 北齊置昭玄等寺, 掌諸佛教, 有大統一人, 都維那三人, 兼置功曹·主簿等員, 以管諸州縣沙門之法. 後周置司寂上士·中士, 掌法門之政. 又置司玄中士·下士, 掌道門之政. 隋初, 置崇玄署令·丞, 至煬帝, 改郡縣佛寺爲道場, 置道場監一人, 改觀爲玄壇, 監一人. 大唐復置崇玄署, 初又每寺觀各置監一人, 屬鴻臚, 貞觀中省. 開元中, 以崇玄署隸宗正寺, 掌觀及道士·女冠簿籍齋醮之事.”

書·司儀署 둘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鴻臚寺에 예속되어 있을 당시 崇玄署 조직의 구체적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대신 宗正寺에 예속된 이후 崇玄署의 조직은 丞 1인, 丞 1인, 府 2인, 史 3인, 典事 6인, 掌固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丞의 관품은 정8품하, 丞의 관품은 정9품하였다.⁶⁹⁾ 현종이 崇玄署를 복구하여 宗正寺에 예속시키라는 조칙은 崇玄署에 대한 우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로 설립된 崇玄署의 조직과 그 최고관품이 典客署와 司儀署의 조직과 관품과 비교하면 작고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唐初 鴻臚寺에 예속되어 있을 당시 崇玄署가 鴻臚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典客署와 司儀署의 조직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작았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鴻臚寺의 중추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鴻臚寺를 총괄하는 鴻臚卿의 직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鴻臚卿의 관품은 중3품이었고 그 밑에 중4품의 鴻臚少卿 2명이 있어 그를 보좌하였다. 『唐六典』과 『舊唐書』의 기록에는⁷⁰⁾ 鴻臚卿의 직무로 크게 세 가지가 기술되어 있다. 첫째, 四方 夷狄 君長의 朝見 및 北周와 隋 황실 후손과 四夷 君長의 襲封·封建에 관한 일,⁷¹⁾ 둘째, 천하의 사찰과 도관의 敎職者 및 長安과 洛陽의 僧尼 관리자의 선발에 관한 일,⁷²⁾ 마지막으로, 皇帝·皇太子의 五服 내의 親屬 및 大臣의 喪事에 관한 일⁷³⁾ 등이다. 그런데 이 기술은 鴻臚寺에 예속되어 鴻臚卿의 지휘를 받는 관서로 典客署와 司儀署 둘만 제시하고 있는 『唐六典』과 『舊唐書』의 기록과⁷⁴⁾ 서로 부합되지 않는 듯하다. 즉, 첫 번째 직무

69) 『唐六典』 卷16 宗正寺, 458쪽.

70) 『唐六典』 卷18 鴻臚寺의 鴻臚卿의 직무에 대한 기술과 『舊唐書』 卷44 職官志 鴻臚寺의 鴻臚卿의 직무에 대한 기술은 한 글자의 차이도 없이 모두 똑같다.

71)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凡四方夷狄君長朝見者, 辨其等位, 以賓待之. 凡二王後及夷狄君長之子襲官爵者, 皆辨其嫡庶, 詳其可否. 若諸蕃人酋渠有封禮命, 則受冊而往其國.”

72)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凡天下寺觀三綱, 及京都大德, 皆取其道德高妙·爲衆所推者補充, 申尙書祠部.”

73)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帝太子爲五服之親及大臣發哀臨弔, 則贊相焉. 凡詔葬大臣, 一品則卿護其喪事, 二品則少卿, 三品丞一人往. 皆命司儀, 以示禮制.”

74) 『唐六典』 卷18 鴻臚寺, 505쪽, “鴻臚卿之職, 掌賓客及凶儀之事, 領典客·司儀二署,

는 典客署와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직무는 司儀署와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직무는 典客署와 司儀署 어느 관서와 관련된 것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혹시 典客署나 司儀署와 관련 없는 鴻臚卿만의 독자적 직무라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으나 『新唐書』 卷48 百官志에 기재된 鴻臚卿에 대한 기록에서는 첫 번째 직무와 세 번째 직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반면, 두 번째 직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⁷⁵⁾을 볼 때 두 번째 직무에 대한 『唐六典』이나 『舊唐書』의 기술은 衍文이 아닐까 추측된다. 더구나 이것은 貞觀年間 이전까지 鴻臚寺 소속이었던 崇玄署와 연관된 직무로⁷⁶⁾ 보인다는 점에서 貞觀年間 이후 鴻臚卿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鴻臚寺의 책임자인 鴻臚卿의 주된 직무는 四夷 賓客에 관한 일과 황실 및 대신 등의 喪事에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직무의 비중은 똑같지 않았다. 鴻臚寺 소속의 典客署와 司儀署의 위상에 그 비중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典客署의 품계(중7품하)가 司儀署의 책임자인 司儀署의 품계(정8품하)보다 두 단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잡임을 제외한 流外官까지의 관리 수에서도 典客署가 司儀署보다 많다.⁷⁷⁾ 鴻臚寺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典客署인 셈이다. 이는 곧 鴻臚卿의 직무 가운데 四夷 賓客에 관한 일이 鴻臚卿의 주요 직무이자 鴻臚寺의 중추

以率其官屬，供其職務。少卿爲之貳”；『舊唐書』 卷44 百官志，1885쪽，“卿之職，掌賓客及凶儀之事，領典客·司儀二署，以率其官屬，供其職務。少卿爲之貳。”

75) 『新唐書』 卷48 百官志，1257~1258쪽.

76) 『唐六典』 卷16 宗正寺，467쪽，“崇玄署令掌京·道諸觀之名數，道士之帳籍，與其齋醮之事，丞爲之貳。” 이 직무가 崇玄署와 연관 있다는 것은 『唐六典』의 기술 형식에서도 확인된다. 鴻臚卿이 北周와 隋 황실 후손의 작위 계승을 담당한 것이 그 예하의 典客署에서 그들의 版籍을 담당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鴻臚卿이 사람과 道觀의 교직자 및 僧尼 관리인을 선발하는 것도 崇玄署에서 道士의 帳籍을 관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77) 司儀署의 직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司儀令은 凶禮의 의식 및 喪葬 도구의 공급을 관장한다. 황제·황태후·황후·황태자가 오복 내의 친속을 위해 곡하는 경우 의식을 관장하거나 京官의 職事官과 散官 및 都督·刺史 등이 상을 당했을 경우 그 관품에 따라 장례 용품을 공급하는 일 등이 司儀署에서 해야 할 것이었다(『唐六典』 卷18 鴻臚寺，507~508쪽 참조).

업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典客署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典客署가 담당하는 客은 단지 四夷의 사절만은 아니었다. 四夷의 사절 외에도 ‘二王之後’라고 칭해진 介公과 鄗公이 그 대상이었다.⁷⁸⁾ 介公이라는 작위를 계승하는 北周의 후손인 宇文氏와 鄗公이라는 작위를 계승하는 隋의 楊氏가⁷⁹⁾ 客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鴻臚卿이 이들의 襲爵을 담당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唐朝가 客으로 설정한 대상은 二王之後와 四夷의 사절이었다. 이는 主客郎中이 담당해야 하는 客이 바로 二王之後와 四夷의 사절이라는 점⁸⁰⁾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典客署는 介公·鄗公에 관해서는 그들의 版籍만 관리하면 될 뿐⁸¹⁾ 二王之後에 대한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다. 典客署의 업무 중 대부분은 四夷의 使節에 관한 것이었다.

典客署의 담당자인 典客令의 직무는 四夷 및 그 使節에 대한 업무로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東夷·西戎·南蠻·北狄 가운데 唐에 귀화하였으나 蕃에 있는 사람의 이름과 수를 관장한다.⁸²⁾ ② 朝貢·宴享·送迎에 참여하여 四夷의 등위를 판별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일을 제공한다.⁸³⁾ ③ 蕃의 酋渠나 수령이 알현할 경우 숙소에 기거하며 禮로써 그들을 접대한다.⁸⁴⁾ ④ 질병이 있으면 湯약을 지급한다.⁸⁵⁾ ⑤ 사망한 경우 主使·副使 및 제

78) 『舊唐書』 卷43 職官志, 1832쪽, “二王之後, 鄗公·介公.”

79) 『唐六典』 卷4 禮部尙書, 129쪽, “二王之後, 鄗公, 隋室楊氏. 介公, 周室宇文氏”; 『新唐書』 卷1 高祖紀, 7쪽, “(武德元年 六月) 乙酉, 奉隋帝爲鄗國公.” 宇文氏와 楊氏가 介公·鄗公을 唐後期에도 계승하였다(『舊唐書』 卷16 穆宗紀, 476쪽), “(長慶元年前). 憲宗末年 …… 甲寅, 二王後介國公宇文仲達卒, 有司舉舊典葬祭之”; 『舊唐書』 卷17上 敬宗紀, 516쪽, “(寶曆元年) 八月辛丑朔. 戊申, 以鄗國公楊造男元湊襲鄗國公, 食邑三千戶.”

80) 『唐六典』 卷4 禮部尙書, 129쪽, “主客郎中·員外郎掌二王後及諸蕃朝聘之事.”

81) 『唐六典』 卷18 鴻臚寺, 506쪽, “典客令掌二王後介公·鄗公之版籍.”

82) 『唐六典』 卷18 鴻臚寺, 506쪽, “典客令掌 …… 及東夷·西戎·南蠻·北狄歸化在蕃之名數.”

83) 『唐六典』 卷18 鴻臚寺, 506쪽, “凡朝貢·宴享·送迎預焉, 皆辨其等位而供其職事.”

84) 『唐六典』 卷18 鴻臚寺, 506쪽, “凡酋帥首領朝見者, 則館而以禮供之.”

85) 『唐六典』 卷18 鴻臚寺, 506쪽, “若疾病, 所司遣醫人給以湯藥.”

3등 이상 관이면 황제에게 아뢰다. 그 喪事에 필요한 물품은 담당 관사가 지급하며 蓄으로 돌아가는 경우 수레를 지급하여 국경까지 보낸다.⁸⁶⁾ ⑥ 외국의 主使·副使가 5품 이상인 경우 휘장·담요·자리를 지급하며, 6품 이하인 경우 천막 및 식료를 지급한다.⁸⁷⁾ ⑦ 사절이 귀환하면 그들은 朝堂에서 하사품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때, 典客승은 사절이 하사품을 수령하는 것을 돕고 그에 따른 예절을 가르친다.⁸⁸⁾ 여기서 ①을 제외하면 典客승의 직무가 모두 四夷사절과 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四夷사절의 조공 및 연회 참가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숙박, 건강, 사망, 환송에 이르기까지 전객서는 唐에 들어온 四夷사절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전객서의 직무로는 앞서 언급했던 過所 지급 및 공헌물의 가치 결정, 牛馬 관리 등이 있었다.⁸⁹⁾

이처럼 鴻臚寺 및 典客署가 조공사절에 대해 엄밀하고 세심한 것까지 주의한 것, 즉 제도적 완비가 곧 당조가 수많은 조공사절을 원활히 대처하게 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우선 『冊府元龜』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당에 조공한 사례를 조사하여 1,299건을 제시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唐代 朝貢의 변화와 전체상을 살펴보았다. 즉, 당대 황제별 조공횟수의 변화, 당대 조공국의 변화, 唐代 월별

86) 『唐六典』 卷18 鴻臚寺, 506~507쪽, “若身亡, 使主·副及第三等已上官奏聞, 其喪事所須, 所司量給, 欲還蕃者, 則給 輿遞至境.”

87) 『唐六典』 卷18 鴻臚寺, 507쪽, “諸蕃使主·副五品已上給帳·氈·席, 六品已下給幕給食料.”

88) 『唐六典』 卷18 鴻臚寺, 507쪽, “若還蕃 其賜各有次差 給於朝堂, 典客佐其受領, 教其拜謝之節焉.”

89) 石見清裕, 1998, 앞의 글, 368~373쪽.

조공시기, 책봉횟수와의 비교 등을 통해 唐 後期에는 조공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여 唐朝가 대외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전반에 걸쳐서는 서쪽 지역에 온 외국 사절이 가장 많이 차지하여 당조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외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 후기에는 西域지역보다 北狄지역의 나라가 唐朝에게 조공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그런데 외국 사절이 장안에 들어와 수행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제약을 적지 않게 받았다. 이는 최근에 공간된 天聖令 및 당률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조공사절이 장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행위는 황제의 알현이었다. 이는 『大唐開元禮』에 구체적인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즉, 蕃國主가 來朝했을 때 東帛으로 그들을 맞이함, 사신을 보내어 蕃國主에게 알현 날짜를 알림, 蕃國主의 알현, 蕃國使의 上表 및 하사품 수여, 황제가 蕃國主에게 연회 개최, 황제가 蕃國使에게 연회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조공사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鴻臚寺이다. 鴻臚寺는 九寺 가운데 규모면에서 작지만 그 위상은 큰 차이는 없었다. 唐初에 鴻臚寺는 典客署·司儀署·崇玄署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貞觀年間 이후로 典客署·司儀署로 재편된다. 그 조공사절을 전담하는 것은 典客署이다. 典客署는 鴻臚寺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로 그 책임자인 典客令의 직무는 일곱 가지인데, 조공사절에 관한 직무가 여섯이나 차지한다. 즉, 조공사절의 숙소, 질병, 사망, 귀환 등에 관한 업무를 典客令의 지휘하에 전객서가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唐朝가 외국 사절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까지도 고려한 완비된 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한다. 이것이 당조가 능동적으로 조공사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논지 과정에서 조공사례의 추출에 지나치게 주의한 나머지 서술해야 했으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1,299건의 조공 사례에 대한 많은 나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단 『通典』·『舊唐書』·『新唐書』에 속한 나라에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했으나 보다 정확한 唐代 조공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의 지리적 비정 등을 보

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공 사례를 계량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여 각 조공이 실제 차지하는 비중을 논지에 반영시키지 못한 한계도 있어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공사절의 활동 및 흥려사의 기능에 대해 제도적 접근에만 치중하여 그 실제상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점차 정리되고 있는 당과 신라 관계를 엿볼 수 있는 墓誌를 포함한 다양한 금석문⁹⁰⁾을 활용한다면 당과 여러 나라 사이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조가 인접국에 보낸 國書가 현재 약 100건 정도 전해지고 있어⁹¹⁾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조와 인접국 사이의 외교관계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숙제이다. 그럼으로써 이 글의 목적인 唐代 조공 경향 및 구체적 역사상에 대한 이해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90) 윤용구, 2003, 「중국 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 배근홍, 2008, 「百濟·唐 관계에 관련한 두 가지 문제－웅진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 권덕영, 2008,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연구』 142.

91) 石見清裕, 2009, 『唐代の國際關係』, 山川出版社, 63쪽.

[별첨]

■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 3 · 卷971 外臣部 朝貢에 나타난 唐代 황제별
외국의 조공횟수

• 高祖代 外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康國	契丹	高句麗	高昌	昆明 西南夷	龜	黨項	突厥	靺鞨	白簡
조공횟수	3	2	6	3	2	1	2	12	4	1
조공국	白狗羌	百濟	西突厥	西域 二十二國	西爨	新羅	林邑	牂牁蠻	曹國	眞臘
조공횟수	1	6	14	1	1	4	2	1	1	2
조공국	參半	吐谷渾								
조공횟수	1	7								

• 太宗代 外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訶陵	伽毘	迦毘葉	伽悉畢	康國	契丹	結骨	罽賓	高句麗	高昌
조공횟수	1	1	1	1	10	6	1	5	8	5
조공국	昆明	骨利幹	俱蘭	俱密國	龜茲	泥鉢羅	曇陵	黨項	大羊同 國	都番
조공횟수	1	1	1	1	3	1	1	2	1	1
조공국	獨和羅	突厥	同羅	同娥	東洱河	流鬼	摩伽陁	摩羅游	靺鞨	靺鞨 別部
조공횟수	2	2	2	1	1	1	1	1	3	1
조공국	盤盤	拔也固	白簡	百濟	僕骨	拂菻	史國	似槃	西突厥	西蕃
조공횟수	4	1	1	11	1	1	1	1	14	3
조공국	西趙	西洱河	石國	薛延陀	疏勒	松外蠻	殊奈	瑟匿	僧高· 武令· 迦乍· 鳩密	新羅
조공횟수	1	1	4	13	3	1	1	1	1	9

조공국	悉立	室韋	安國	羊同	喝羅	焉耆	女國	烏羅	烏羅渾	烏長
조공횟수	1	6	2	1	1	1	1	1	1	1
조공국	倭	于闐	林邑	章求拔	牂柯蠻	曹國	朱陁	眞臘	參半	唱犍陁
조공횟수	1	8	4	1	1	1	1	2	2	1
조공국	處月鶻	天竺國	鐵勒	墮婆登	墮和羅	吐谷渾	吐蕃	吐火羅	婆羅國	婆羅門
조공횟수	1	2	1	1	1	19	10	3	1	1
조공국	婆利	波斯	何國	賀國	奚	火辭彌	廻紇	陁洹	霽國	
조공횟수	1	4	1	1	5	1	1	1	2	

• 高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訶羅	哥羅舍分國	訶陵	甘畢國	康國	堅昆	罽賓	高句麗	龜茲	鳩密
조공횟수	1	1	1	1	3	1	6	2	2	1
조공국	南天竺	泥婆羅	多篋國	多福國	單單	大食	摩臘國	摩羅婆	未陁提國	駁馬
조공횟수	2	1	1	1	2	3	2	1	1	1
조공국	拔汗那	百濟	富那	舍利君國	三濃國	石國	修羅分國	新羅	安國	女國
조공횟수	3	1	1	1	1	2	1	4	1	1
조공국	倭	于弗國	于闐	林邑	曹國	眞臘	千私弗國	瞻博國	耽羅國	吐谷渾
조공횟수	4	1	2	5	3	2	1	1	1	4
조공국	吐蕃	吐火羅	波斯	婆岸	蝦夷	護密國	陁洹			
조공횟수	4	5	3	1	1	1	1			

• 武則天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罽賓	骨利幹	龜茲	南天竺	大食	突厥	突騎施	東天竺	勃律	北天竺
조공횟수	1	1	1	1	1	1	1	1	2	1
조공국	佛誓國	謝國	西天竺	疏勒	新羅	安國	女國	日本	林邑	眞臘
조공횟수	1	1	1	1	2	1	2	1	8	1

조공국	葱嶺	吐蕃
조공횟수	1	1

• 中宗代 外國의 조공횟수

조공국	康國	堅昆	高句麗	崑崙	龜茲	南天竺	新羅	室韋	焉耆	日本
조공횟수	1	1	1	1	1	1	7	2	1	1
조공국	林邑	眞臘	吐谷渾	吐蕃	波斯					
조공횟수	3	2	1	3	2					

• 睿宗代 外國의 조공횟수

조공국	罽賓	南天竺	大食	突厥	突騎施	靺鞨	拂菻	獅子國	謝朶國	新羅
조공횟수	1	1	1	4	1	1	1	1	1	2
조공국	室韋	林邑	吐蕃	奚						
조공횟수	1	2	4	1						

• 玄宗代 外國의 조공횟수

조공국	訶毘施	可汗那王	康國	契丹	堅昆	罽賓	骨咄	俱訶蘭	俱密	九姓
조공횟수	1	2	14	12	2	4	5	1	4	3
조공국	九姓同羅	九姓迴紇	俱位國	龜茲	歸仁國	喃國	南天竺	寧遠國	丹州	大食
조공횟수	1	2	1	2	3	1	14	8	1	9
조공국	突厥	突厥九姓	突騎施	東蠻	東蕃	東天竺	賂丹室韋	靺鞨	文單	米國
조공횟수	24	1	31	1	1	1	2	7	2	8
조공국	勃律歸仁國	拔汗那	渤海	北邑國	北天竺	佛誓國	拂菻	拂涅靺鞨	佛律	史國
조공횟수	4	5	27	1	1	3	2	10	1	4

조공국	獅子國	舍磨國	謝賜國	三葛羅祿	西南蠻	西天竺	石國	石汗那	鮮蘇國	踈勒
조공횟수	2	1	5	5	2	1	14	1	1	1
조공국	蘇利悉單國	小勃律	蘇頹利發屋蘭國	松漠府契丹	習阿薛般國	尸利佛誓國	施拔斯單國	識匿國	新羅	室韋
조공횟수	1	1	1	1	1	1	2	2	35	5
조공국	十姓突騎施	安國	安西黑姓可汗	焉耆	如者室韋	女子王國	饒樂府奚	于闐	遠蕃	越喜靺鞨
조공횟수	1	9	1	4	2	1	1	4	1	8
조공국	威遠國	愷恒	日本	林邑	牂柯	曹國	中天竺	真臘	處密	處月
조공횟수	1	1	6	8	5	3	6	1	1	1
조공국	天竺	鐵利靺鞨	吐蕃	吐火羅	波斯	平蠻	奚	松漠奚	護密國	火尋國
조공횟수	1	6	14	16	14	1	7	1	2	3
조공국	和解室韋	黃頭室韋	廻鶻	黑水靺鞨	黑衣大食					
조공횟수	2	5	1	8	7					

• 肅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康國	罽賓	南蠻	寧遠國	大食	白衣	十姓可汗	十姓突騎施	安國	吐火羅
조공횟수	1	1	1	2	1	1	1	1	1	1
조공국	波斯	婆謁	奚	護密國	廻紇	黑衣大食				
조공횟수	1	1	1	1	3	1				

• 代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訶陵	康國	九姓	契丹	寧遠國	大食	靺鞨	米國	渤海	獅子國
조공횟수	3	1	1	14	3	1	5	1	24	1

조공국	石國	新羅	室韋	日本	牂牁	吐蕃	波斯	奚	火尋國	廻紇
조공횟수	1	13	12	2	6	8	3	9	1	16
조공국	黑衣大食									
조공횟수	3									

• 德宗代 外國의 조공횟수

조공국	哥隣國	契丹	南詔	東蠻鬼	東鬱烏蠻	彌臣國	渤海	新羅	室韋	弱水國
조공횟수	1	5	6	1	1	1	4	2	2	1
조공국	女國	日本	牂牁	吐蕃	連租國	驃國	廻鶻	黑衣大食	陶國	環玉
조공횟수	1	2	4	1	1	1	9	1	1	1
조공국	奚									
조공횟수	1									

• 順宗代 外國의 조공횟수

조공국	吐蕃
조공횟수	1

• 憲宗代 外國의 조공횟수

조공국	訶陵	高句麗	昆明	契丹	南蠻	南詔	闍婆	渤海	新羅	牂牁
조공횟수	2	1	3	8	1	8	1	15	6	7
조공국	眞臘	吐蕃	驃國	奚	廻鶻	黑水靺鞨				
조공횟수	2	4	1	2	6	1				

• 穆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契丹	南詔	渤海	新羅	牂柯	吐蕃	奚	廻鶻
조공횟수	2	1	2	1	1	5	2	4

• 敬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昆明	契丹	南詔	渤海	室韋	牂柯	吐蕃	奚	廻鶻
조공횟수	1	1	1	2	1	1	1	1	3

• 文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昆明	契丹	南詔	閩婆	渤海	新羅	室韋	日本	牂柯	吐蕃
조공횟수	4	8	8	2	8	5	4	2	6	4
조공국	奚	廻鶻								
조공횟수	5	5								

• 武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結骨	昆明	契丹	南詔	南平蠻	渤海	室韋	牂柯	點戛斯
조공횟수	1	1	1	1	1	1	2	2	1

• 宣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日本
조공횟수	1

• 懿宗代 외국의 조공횟수

조공국	契丹
조공횟수	1

참고문헌

<사료>

- 『隋書』(이하 正史는 北京：中華書局 標點校勘本임).
 『舊唐書』.
 『新唐書』.
 『唐兩京城坊考』, 1985, 北京：中華書局.
 『唐六典』, 1992, 北京：中華書局 標點校勘本.
 『通典』, 1988, 北京：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太平廣記』, 1961, 北京：中華書局.
 『冊府元龜』, 1960, 北京：中華書局.
 『冊府元龜』, 2006, 北京：鳳凰出版社 校訂本.
 『長安志』, 1990, 『宋元方志叢刊』 1, 北京：中華書局.
 『入唐求法巡禮行記』, 2007, 廣州：廣東師範大學.
 『唐令拾遺補』, 1997, 東京：東京大學出版會.
 『唐律疏議箋解』, 1996, 北京：中華書局.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2006, 北京：中華書局.

<저서>

- 권덕영, 1997, 『古代漢中外交史：遣唐使研究』, 일조각.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김성규 옮김, 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휴머니스트.
 세오 다츠히코 지음, 최재영 옮김, 2006,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
 가지.
 여호규 외 지음, 2006,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
 단.
 와타나베 신이치로 지음, 문정희·임대희 옮김, 2002, 『천공의 옥좌：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이성시 지음, 김창석 옮김,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李云泉, 2004,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 新華出版社.
 榮新江, 2001, 『中古中國與外來文明』,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程喜霖, 2000, 『唐代過所研究』, 中華書局.

古瀬柰津子, 2003, 『遣唐使の見た中國』, 吉川弘文館.

堀敏一, 2008, 『東アジア世界の歴史』, 講談社.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唐代史研究會 編, 1979,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民族と國際秩序』, 汲古書院.

石見清裕, 2009, 『唐代の國際關係』, 山川出版社.

池田溫 編, 1992, 『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 吉川弘文館.

Shafer, Edward H., 1963,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 A Study of Tang Exotic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논문〉

권덕영, 2008,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연구』 142.

박한제, 2006, 「中華의 분열과 隣近 諸國의 대응—‘多重的’ 中華世界の 成立」, 『中國學報』 54.

배근홍, 2008, 「百濟·唐 관계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윤용구, 2003, 「중국 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이성규, 2007,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닫힘[塞]」, 『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최재영, 2005, 「唐 長安城의 薩寶府의 역할과 그 위치—唐朝의 突厥對策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0.

馬國榮, 1999, 「唐鴻臚寺述論」, 『西域研究』 1999-2.

孟憲實, 2008, 「盛唐의 中外交流交融奇觀」, 『傳承』 2008-10.

方亞光, 1996, 「唐代外事機構論考」, 『中國史研究』 1996-2.

黎虎, 1998, 「漢唐外交管理體制敵演進及其特點」,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8-3.

- 黎虎, 1999, 「魏晉南北朝鴻臚寺及其外交管理職能」, 『中國史研究』 1998-3.
- 黎虎, 1999, 「略論唐後期外交管理體制的變化」, 『文史哲』 1999-4.
- 王仲華, 1987, 「吐魯番出土的幾件唐代過所」, 『崑崙山館叢稿』, 中華書局.
- 王歡·高華華, 2007, 「略論唐代中央外交機構及其職能」, 『忻州師範學院學報』 2007-10.
- 李云泉, 2002, 「漢唐中外朝貢制度述論」, 『東方論壇』 2002-6.
- 陳彥輝, 2004, 「中國古代外交機構編制及其職能」,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3.
- 礪波護, 1994, 「唐代之過所と公驗」, 『中國中世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福井信昭, 2003, 「唐代之進奏院—唐後半期「藩鎮體制」の一側面」, 『東方學』 105.
- 杉井一臣, 1990, 「唐代之過所發給について」, 『布目潮風博士古稀記念論文集 東アジアの法と社會』, 汲古書院.
- 石曉軍, 2005, 「唐長安城における迎賓施設とゲストハウス」, 『遣唐使の見た中國と日本』, 朝日新聞社.
- 小野勝年, 1977, 「唐代開元時代の旅行證明書について」, 『東洋學術研究』 16-3.
- 辻正博, 2007, 「麴氏高昌國と中國王朝—朝貢・羈縻・冊封・征服」, 夫馬進 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川本芳昭, 2008, 「魏晉南朝の世界秩序と北朝隋唐の世界秩序」, 『史淵』 145.
- 荒川正晴, 1997, 「唐の州縣百姓と過所の發給—唐代過所・公驗文書笥記(1)」 『史觀』 137.

[ABSTRACT]

The Activities of the Tributary Envoys at Changan and the Fuction of Honglusi during Tang Dynasty

Choi, Jaeyoung

This research provided the 1299 cases of foreign envoys bringing a tribute to Tang Dynasty got from the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Cefuyaungui (唐) (冊府元龜). The data is analyzed in the frequency of the tribute classified by an Emperor, the change of a tributary country, and the time of the tribute classified by an month and so no. From the fact that the cases got fewer during in the late Tang Dynasty, it is gained that the power of Tang Dynasty was decreased. In addition, the a numerical statement that the cases of the tributary envoys (朝貢使節) from the West are most tell us that the the foreign countries of the West had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diplomatic relation (對外官階) with Tang Dynasty and the foreign countries.

The activities of the the tributary envoys was restricted at Changan (長安). It was regulated on the Tang Code.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g them is to be received in audience by the Emperor.

Honglusi (鴻臚寺) took a charge of affairs of the tributary envoys. It was constituted of Dienkeshu (典客署) and Siyishu (司儀署) after Zhenguan (貞觀) period. Especially, Dienkeshu settled affairs of the tributary envoys with regard to their accomdation, their disease, their decease, and their repatriation. This tell us that Tang dynasty had comlete system treating the affairs of the tributary envoys.

keywords

Tang (唐) Changan (長安), tributary envoys (朝貢使節), diplomatic Relation (對外官階), Honglusi (鴻臚寺), Dienkeshu (典客署)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의 관계

양은경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I. 머리말

고구려 소조상은 평안남도 元五里 사지에서 출토된 불상, 보살상과 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시 토성리 사지 출토의 陶范편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고구려 소조상은 원오리 사지 출토품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원오리 사지 소조상에 대해서는 조각양식에 기초한 소조상의 제작 연대와 조성배경이 되는 불교사상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¹⁾

● 사실 소조상의 연구에서 제작 연대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해결 대상은 바로 봉안장소와 봉안원형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형태로 안치되었느냐에 의해 소조상의 크기, 종류, 제작기법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조상의 크기와 종류는 봉안장소의 규모, 당시 불교사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1) 文明大, 1981,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高句麗 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50, 61~66쪽; 金理那,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禮耕, 104~106쪽.

더욱이 제작기법은 기와, 도용, 토기의 제작기법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지의 기술적인 특징 혹은 시대적인 변화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원오리 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들에 대한 제작기법, 봉안장소, 봉안원형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이는 원오리 사원지가 일제시기 조사되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이 사원지는 짧은 기간 동안 긴급 조사되었기 때문에, 토층관계를 통한 유구 자체에 대한 편년의 결여와 더불어 고구려와 고려시대 유구 간의 중복과 교란으로 인해 고구려 사원지의 건물지 내용과 가람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되지 못했다.²⁾ 광복 이후 북한 학계에서는 이 유적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최근 백제에서는 사원지와 가마터에서 비교적 많은 수량의 소조상이 출토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도 남북조시대에 해당되는 사원지가 몇 군데 발굴되면서 소조상들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조상들은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과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출토된 소조상들은 우선 정식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층관계를 통한 일차적인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출토지와 출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원오리 사지 소조상의 출토지에 대한 문제를 추정하는 데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또한 중국 소조상의 다양한 크기, 종류, 제작기법을 통한 소조상의 봉안장소와 봉안원형의 추정은 역으로 원오리 사지 소조상의 봉안장소, 봉안원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원오리 사지 소조상의 제한된 종류와 출토지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중국 소조상과의 비교를 통해 그 원상을 미력하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小泉顯夫, 1938,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63~68쪽;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333~337쪽.

이에 본문에서는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을 대표로 한 고구려 소조상의 출토상황과 내용, 출토지에 대한 성격구명, 제작기법과 봉안장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동시기 중국 사원지 출토 소조상과의 비교를 통해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II. 소조상의 출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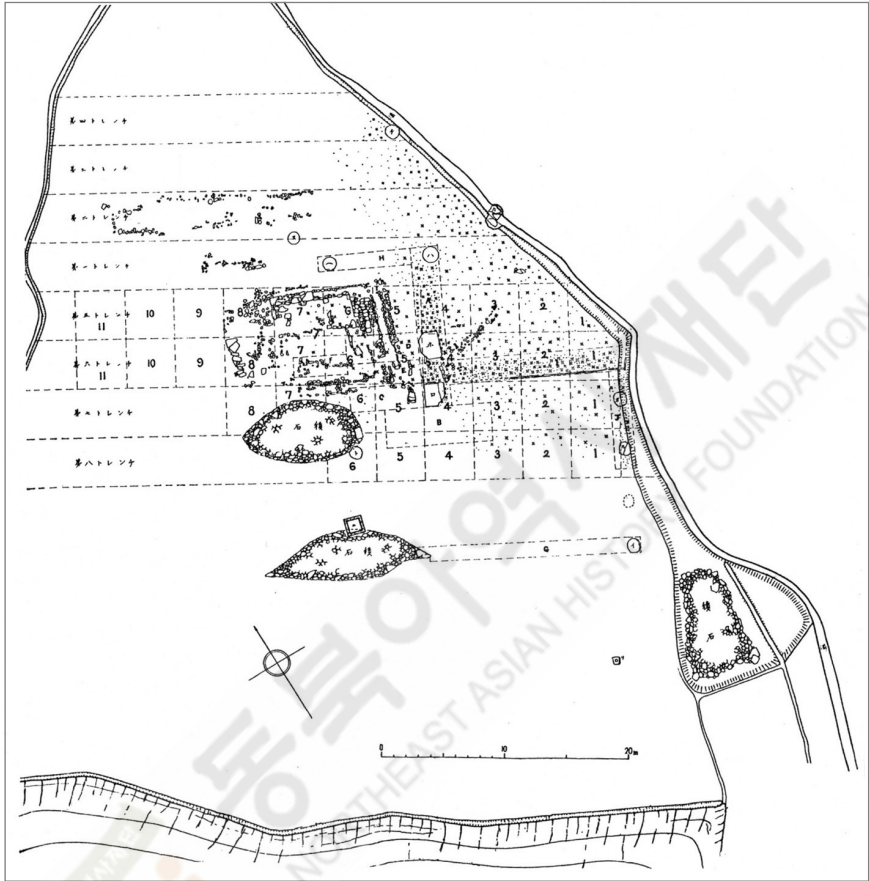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고구려와 중국의 소조상을 구분하여 출토 당시의 상황과 내용에 대해 종합·정리하고자 한다.

1. 고구려³⁾

1) 평안남도 元五里 寺址 출토 소조상

원오리 사지는 평안남도 平原郡 德浦里 만덕산 부근의 원오리에 소재한다. 1937년 朝鮮古蹟研究會 平壤研究所가 발굴을 진행하여 불교 사원지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 사원지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상단의 서쪽 편과 중간지점은 고려시대 건물지, 동쪽 편은 고구려 유구로 판단했다. 고려시대 건물지의 동쪽 지점에서는 고구려의 평와, 수막새, 소조불상, 소조보살상이 출토

3) 2005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의 특별전 도록에 수록된 고구려 니조보살입상(높이 15cm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5, 『생명의 땅, 역사의 땅-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29쪽)은 본문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니조보살입상은 전체적으로 元五里 사지 소조보살입상과 유사하지만, 출토지의 불명확성과 더불어 제작기법 역시 손빛기로 성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관계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도 1> 元五里 寺址의 평면도, 고구려, 평안남도 평원군 원우리 소재.

되었다(도 1). 발굴조사 결과 사원지는 고구려시기 창건되었고, 고려시대에 증진되었음을 확인했다.⁴⁾

이 사원지는 발굴할 당시 이미 유적 파괴와 더불어 교란이 심각하여 사원의 배치상황, 소조상의 봉안장소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곳에서 출토된 고구려 수막새는 연화문이 주를 이루며, 중심부에 半球形의 子房을 두고 두 줄의 구획선으로 와당면을 8구획하여 각각 蓮瓣을 배치했거나, 구획선이 사라지고 단판과 복판이 교대로 배치된 예가 많다. 이러한 연화문 수막새는 대성산성, 평양성, 청암리 토성, 정릉사 등 평양을 중심으로 유행한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⁵⁾ 특히 막새면을 분할하지 않고 연판을 배치한 연화문 수막새 중 8엽형은 6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성행했다.⁶⁾

상단의 동쪽 유구에서 수습된 소조불좌상편의 수량은 204구이며, 소조보살입상은 108구였다. 소조상은 머리와 신체가 파손된 채 출토되었으며, 불좌상의 높이는 19.5cm(도 2), 보살입상은 17.5cm이다(도 3). 元五里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전체 높이는 중국 소조상과 비교하면 극소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⁷⁾ 불상과 보살상의 제작기법은 한 면의 거푸집을 이용하여 成型을 했다. 그

4) 小泉顯夫, 1938, 앞의 글, 63~68쪽; 小泉顯夫, 1986, 앞의 책, 333~3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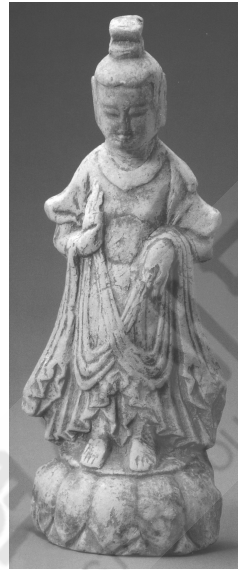
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고구려편 (1), 민족문화, 74~75·102~109·266~277쪽의 도판. 고구려의 국내성 일대의 초기 연화문 와당은 와당면을 6~8구획으로 나누어 연판을 장식하고 단판 양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김성구, 2002, 「고대 동아시아의 瓦當藝術—그 변천과 특성」,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90~291쪽). 최근 태왕릉, 춘추묘 등 국내성 일대의 고구려 무덤의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연화문 와당은 앞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168~316쪽).

6) 김성구, 2005,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그 변천」, 『고구려 와당』,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41~143쪽.

7) 영녕사에서 출토된 소조상을 기준으로 하면 대형, 중형, 소형, 영소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영녕사, 사연불도, 사원불사, 내몽고 사원지, 엽남성 사원지 등 최근 중국 북방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북위~북제대 사원지 출토 소조상을 모두 참고로 하여 필자가 복원 높이와 크기를 임의로 정하고자 한다. 복원한 전체 높이가 300cm 좌우는 대형, 100~140cm 좌우는 중형, 30~100cm는 소형, 30cm 이하는 극소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도 2〉 元五里 寺址 출토 소조불좌상,
6세기, 흙, 높이 19.5cm.



〈도 3〉 元五里 寺址 출토
소조보살입상, 6세기,
흙, 높이 17.5cm.

리므로 소조상의 앞면에만 형상이 고부조로 표현되어 있을 뿐 뒷면은 편평하고 아무런 형상도 없다. 성형 이후 소성과 채색이 가해졌는데, 흰색 粉을 한 층 바른 후 붉은색 안료를 부분적으로 채색했다. 특히 원오리 출토 소조불좌상은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陶范에서 찍어 낸 형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토성리의 도범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조불좌상은 肉髻가 높고 수인은 禪定印을 결하고 있다. 옷주름선은 상체에서는 U자형을 이루고 하체에서는 수직을 이루며, 단판의 복련좌 위에 결가 부좌하고 있다. 소조보살입상은 묽은 머리, 무릎부분에서 X자형을 이루며 교차한 천의, 치마와 천의의 끝자락이 구불구불하게 斜線을 이룬 형상을 하고 있다. 소조불상, 보살상은 양식적인 특징을 통해 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이 소조상들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8) 文明大, 1981, 앞의 글, 61~66쪽; 金理那, 1996, 앞의 글, 104~106쪽; 최성은,

도쿄[東京]국립박물관 오쿠라[小倉]컬렉션, 마사키[正木]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⁹⁾

2) 평양시 토성리 출토 陶范

1931년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리에서는 적갈색의 陶范 파편이 3점 발견되었다.¹⁰⁾ 3점의 파편은 두 종류의 도범으로 구분되며, 잔존 높이는 각각 16cm, 18cm이다. 16cm의 도범은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불상을 성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 4). 높이 18cm의 도범을 이용하여 찍어낸 불좌상은 선정인, 통견의, 옷주름의 특징 등은 북위 말~동위대 산동, 남조 불상과 영향관계가 엇보인다(도 5). 이 도범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 중국

1) 山西省 方山 思遠佛寺址 출토 소조상

사원불 사지는 현 山西省 大同市에서 동북쪽으로 25km의 거리에 위치한 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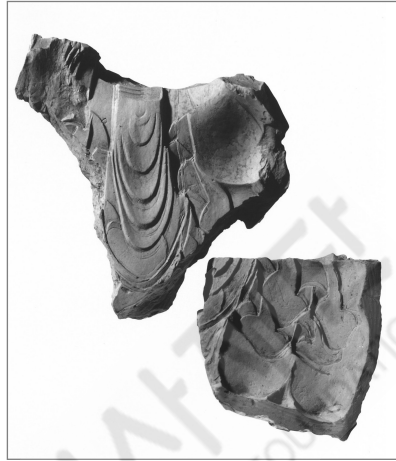
2007,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북위 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61~65쪽.

9) 오쿠라[小倉]컬렉션의 예는 아사이 가즈하루[淺井和春], 1982,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所收, 朝鮮三國時代の佛像について」, 『MUSEUM』 372, 18~19쪽 참조.

10)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養徳社, 32쪽. 출토지의 지명에 대해서 梧野里(小泉顯夫, 1986, 앞의 책, 338쪽), 城貞相(久野健, 1992,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6쪽), 貞栢(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편 2, 민족문화, 265쪽 도면 455의 설명), 토성리(久野健, 1992, 위의 글, 5쪽 도면 5의 설명과 金理那, 1996, 앞의 글, 107~109쪽) 등 다양하지만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유물설명서의 표기에 기준하여 토성리로 명명하겠다(양은경, 2008a, 「북한의 불교 사원지 출토 고구려, 발해 불상의 출토지 문제와 계승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1, 6쪽).



〈도 4〉 土城里 출토 도범, 6세기, 흙,
높이 16cm, 평양시 토성리
출토.



〈도 5〉 土城里 출토 도범, 6세기, 흙,
높이 18cm, 평양시 토성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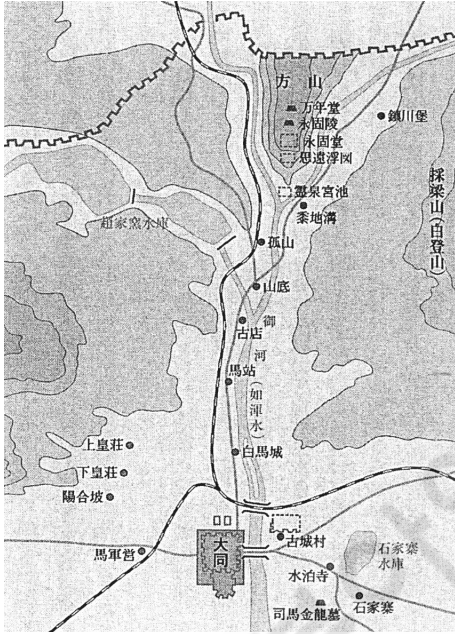
寺兒梁山[북위대의 방산]에 소재한다(도 6). 사원불사는 북위 馮太后가 건립한 자신의 무덤 永固陵의 陵園 건축물 중 하나이며,¹¹⁾ 무덤과 사원이 합쳐진 독특한 능원제도로 간주되고 있다.¹²⁾ 479년부터 491년까지 이루어진 능원 공사에서 사원불사는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시작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건립된 중요한 유적지였다.

사원불사 유적지는 1970년 北京大學校에 의해 지표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당시 소조상과 기와가 수집되었다.¹³⁾ 1981년 7월 17일~7월 23일, 같은 해 8월 5일~9월 6일 大同市博物館에 의해 정식발굴이 실시되었다. 발굴 결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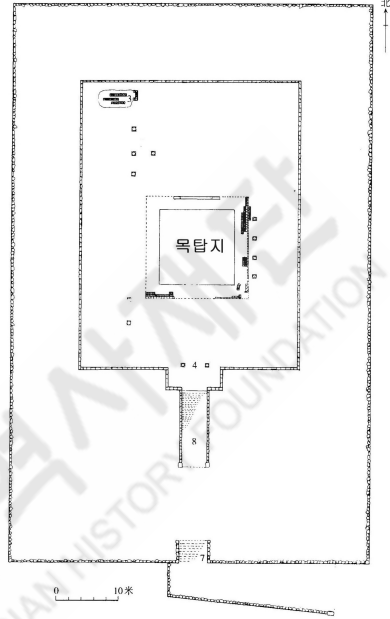
11) 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1978,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 7, 29~33쪽.

12) 宿白, 1977, 「盛樂, 平城一帶的拓拔鮮卑—北魏遺迹—鮮卑遺迹輯錄之二」, 『文物』 11, 42~43쪽; 徐萃芳, 1981, 「中國秦漢魏晉南北朝時代的陵園和空城」, 『文物』 6, 525쪽.

13) 당시 수집한 유물은 현재 北京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5년 일본에서 전시되었다(出光美術館編, 1995, 『北京大學サックラー考古藝術博物館·中國の考古學展—北京大學考古學界發掘成果』圖錄, 平凡社, 118~119쪽).



〈도 6〉 思遠佛寺와 永固陵의 분포도, 北魏, 山西省 大同市 소재.



〈도 7〉 思遠佛寺 유적지 평면도, 北魏, 山西省 大同市 西寺兒梁山 소재.



〈도 8〉 思遠佛寺 유적지 출토 塑造飛天頭像, 北魏, 高, 높이 11.6cm, 폭 9.5cm.



〈도 9〉 思遠佛寺 유적지 출토 塑造菩薩身像, 北魏, 高, 높이 10.2cm, 폭 11.4cm.

적지의 토층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제3층은 요금대 문화층, 제4층은 북위대 문화층으로 밝혀졌다. 북위 문화층에서 기와, 토기, 소조상이 출토되었다.¹⁴⁾

사원불사는 2층으로 구성된 기단 위쪽에 위치하며 제2층 기단의 남북 길이는 45.8m, 동서 길이는 35m이다. 山門, 木塔, 佛殿, 僧房 유적지가 발굴되었으며, 중심부에 위치한 목탑지에는 夯土 塔心實體가 확인되었다(도 7). 탑심 실체는 정방형이며, 남북의 잔존 길이는 12.05m, 동서 잔존 길이는 12.2m, 현존 높이는 1.25m이다.

소조상은 목탑지의 네 주변에서 출토되었으며, 승방에서도 1점 수습되었다. 파편으로 출토된 소조상의 수량은 42점 정도이며, 현재 大同市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도 8). 소조상의 잔존 높이는 5~12cm 정도이며, 복원 이후의 전체 높이는 50~70cm로 추정된다. 소조상은 정면관(도 9)과 측면관이 확인되며 뒷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¹⁵⁾

소조상의 제작방법은 손빚기로 형상을 성형했으며 燒成은 하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발굴된 소조상의 잔편에서는 木芯이나 鐵芯 등 芯木을 삽입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채색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되지만 탈락이 심한 편이다. 출토된 소조상의 종류로는 보살상, 비천상, 獸面 장식물, 연화 장식물이 있으며, 보살상의 출토 수량이 가장 많다.

2) 遼寧省 朝陽市 思燕佛圖(北塔) 출토 소조상

풍태후의 발원에 의해 484~490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北塔은 요녕성 조양시 雙塔街에 위치한다.¹⁶⁾ 북탑의 현재 높이는 42.6m이며, 방형의 13층 磚塔이다.¹⁷⁾ 북위대 思燕佛圖라는 명칭으로 三燕의 궁궐터에 창건된 북탑은

14) 大同市博物館, 2007,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 4, 5~6쪽.

15) 大同市博物館, 2007, 위의 글, 8~16쪽.

16) 양은경, 2007, 「遼寧省 朝陽 北塔 出土 塑造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56, 84~96쪽.

17) 杜斌主編, 2006, 『朝陽北塔—中國東北第一塔』, 吉林攝影出版社, 2쪽.

수·당·요대에 각각 중수를 거쳤다.¹⁸⁾ 현재의 북탑 내부의 주춧돌은 북연 궁궐터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탑심체는 唐代에 건립되었다. 기단은 북위·수·당대에 조성되었고 외관상의 전탑 벽돌들과 불교조각은 요대에 중수된 것이다.¹⁹⁾

1986년 북탑 주위를 시굴 조사한 결과 북탑에서 남쪽으로 13m 떨어진 지점의 북위 문화층에서 기와, 소조상들이 출토되었다(도 10).²⁰⁾ 탑지를 중심으로 50~70m의 주변지역을 다시 상세하게 발굴한 결과 토층은 5개의 층으로 구분되었다. 제4층의 남북조시대 문화층과 제3층의 수당대 문화층에서 소조상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제4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²¹⁾ 소조상이 출토된 위치는 탑기단 주위에 해당되며, 모두 파손된 채 출토되어 완전한 예는 없다. 소조상들은 현재 朝陽市北塔博物館과 遼寧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²²⁾

소조상편의 출토 수량은 1,670여 구에 달하며, 불상(도 11), 보살상, 제자상, 역사상, 화생동자상, 비천상(도 12), 불감, 영락, 연화, 나무, 동물상 등이다. 형상의 크기에 근거하여 대·중·소·극소형 상으로 나눌 수 있다.²³⁾

소조상들은 대부분 정면관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예에서 측면관이 확인된다. 소조상의 뒷면은 편평하며 중형 보살상의 보관, 소형 불좌상, 불감 등의 뒷면에는 작은 구멍이 있거나 한 층의 점토가 부분적으로 덧붙여져 있기도 하다. 소형 불좌상의 아랫면은 편평하며 심목을 삽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18) 1986년 11월 탑 기단부에서는 地宮이 발견되었고(朝陽北塔考古勘察隊, 1992, 『遼寧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 『文物』 7, 21~28쪽), 1988년 11월에는 탑의 13층에서 天宮이 발견되었다(紀兵·王晶辰, 2005, 『遼寧歷代佛教文物集粹—佛教遺寶』, 遼寧人民出版社, 4쪽).

1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17~106쪽.

20) 張劍波·王晶辰·董高, 1992, 『朝陽北塔的結構勘察與修建歷史』, 『文物』 7, 34쪽.

2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앞의 책, 14~16쪽.

22) 요령성박물관에 전시된 두부, 신체의 잔편 수량은 모두 12점이며,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遼河文明展—文物集粹』, 140쪽에 보살입상 2점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보살입상이 불입상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2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앞의 책, 29~50쪽.



〈도 11〉 北塔 출토 塑造佛坐像, 北魏, 흙, 높이 25cm.



〈도 12〉 北塔 출토 塑造佛龕柱의 상부, 높이 13.8cm, 지름 2.2cm.

제작기법은 손빚기와 제작틀[模范]을 이용하여 찍어낸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대형, 중형의 소조상은 손빚기로 제작되었고 소형 상과 극소형 상은 대부분 제작틀을 이용하여 형상을 눌러 成型한 이후 뒷면은 손으로 약간의 정리 과정을 거쳤다.

대·중·소형의 소조상은 머리, 몸, 발, 손을 각각 성형한 이후 각각의 부위를 연결하여 완성했다. 소형 소조상의 예를 통해 머리와 신체의 상반신은 머리에 삽입된 芯木에 의해 서로 연결되거나 입자가 고운 점토를 이용하여 접합시켰다. 형상이 완성된 이후에는 흰색의 粉을 소조상에 전체적으로 한 층 칠하였고, 다시 황금색,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의 안료를 채색했다.

3) 內蒙古 包頭市 寺院址 출토 소조상

1979년과 1980년 가을 內蒙古 包頭市 固陽縣로부터 동북쪽에 위치한 城圈圉



〈도 13〉 內蒙古 靈淖 城圜圖 古城 유적지 夯土 건물지, 北魏, 包頭市 固陽縣 소재.

〈도 14〉 內蒙古 靈淖 城圜圖 古城 유적지 T2지점 출토 塑造像, 北魏, 흙, 높이 5.9~12cm, 길이 4.1~11.5cm, 塑造.

古城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지의 서북쪽 모서리 지점에서 동서 길이 220m, 남북 길이 360m의 장방형 평면의 子城이 확인되었다. 당시 기와, 주춧돌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동남쪽에는 원형의 향토 축조물이 존재했다. 이 향토 축조물의 지름은 15m, 잔존하는 높이는 1.5m이었고, 이곳에서도 기와편이 흩어져 있었다(도 13).

이 향토 축조물의 동쪽 부분에 1m×5m(가로×세로) 규모의 트렌치를 설치하여(T2로 명명함) 2개 층의 토층을 확인했다. 제2층의 문화층에서 건물지와 흙으로 축조된 불상의 대좌가 조사되었는데, 대좌의 바깥쪽 폐허에서 소조상편 36점이 출토되었다.²⁴⁾ 소조상이 출토된 T2 지점은 목탑 유적지로 추정되며,²⁵⁾ 불교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36점의 소조상편의 종류는 불상, 보살상, 제자상, 공양자상이 있으며, 머리와 상반신, 하반신이 분리된 채 출토되었다(도 14). 보살상, 제자상, 공양자상의 잔존 높이는 8~10cm이고, 신체 높이는 12~25cm이다. 복원 이후의 총

24) 內蒙古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1984, 「內蒙古白靈淖城圜圖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 145~152쪽.

25) 宿白, 1999, 「東漢魏晉南北朝佛寺布局初探」, 『慶祝鄧廣銘教授九十華誕論文集』, 河北教育出版社, 47쪽 注 16.

높이가 40cm에 미치지 않으니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소형에 속한다. 현재 이 소조상들 중 6점 정도만이 包頭市文物管理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소실되어 그 소장처를 알 수 없다.

소조상은 제작틀을 이용하여 눌러 찍어 성형한 이후 부분적으로 손질을 가하였다. 뒷면은 편평하며 점토가 탈락한 흔적이 심하다. 소조상의 표면에는 붉은색, 검은색, 흰색의 채색이 가해져 있다.

4) 河南省 洛陽市 永寧 寺址 출토 소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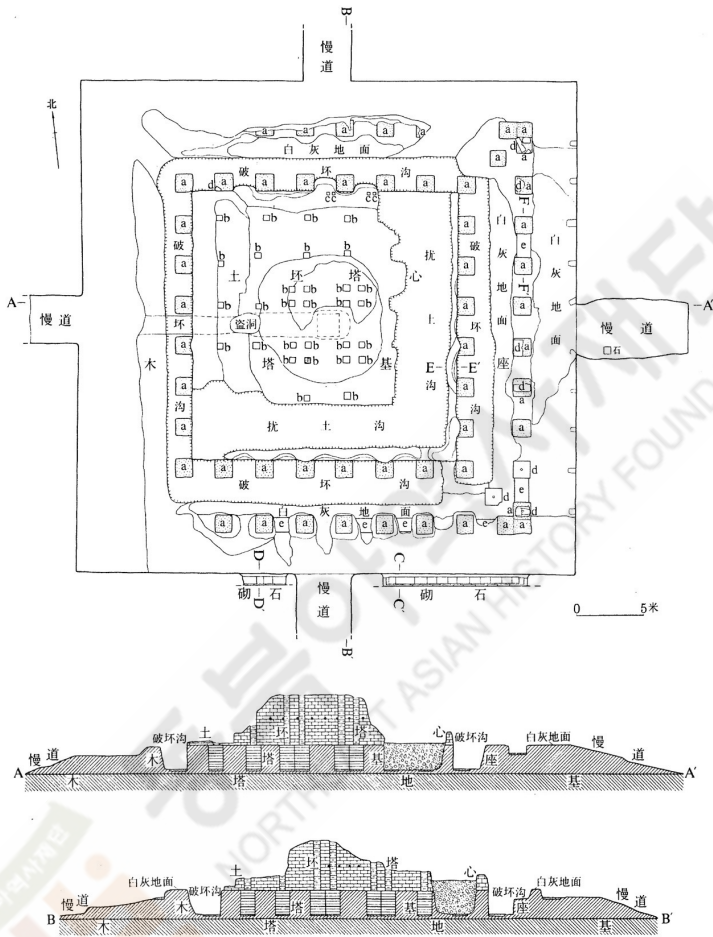
河南省 洛陽市의 동쪽에는 북위 都城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성지의 內城 서편에 永寧寺 유적지가 현존한다. 1960년대부터 낙양성에 대한 실제조사와 더불어 1979~1982년에 걸쳐 영녕 사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담장, 문, 불전, 목탑 등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북위 胡太后的 발원으로 조성된 목탑지가 가장 중요한 발굴대상이었다.²⁶⁾

534년 화재로 폐기된 목탑은 지금까지 중건이나 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탑지에는 현재 2.2m의 기단 위쪽에 다섯 겹을 이루는 116기의 주춧돌과 19.8m×19.8m×3.7m(동서×남북 길이×현존 높이)의 정방형 夯土 塔心實體가 현존한다(도 15). 탑심실체의 동·서·남쪽의 벽면에는 불감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계단이 발굴되었다. 목탑지 주변에서는 1,560점의 소조상편이 출토되었으며, 최근에 수십 점이 더 출토되었다. 이 소조상들은 현재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考古博物館洛陽分館에 소장되어 있다.

소조상은 불상, 보살상, 제자상, 공양자상, 시중, 儀仗, 광배, 대좌, 불감, 영락, 연화, 나무, 동물상 등으로 구분된다(도 16). 또한 형상의 크기에 근거하여 대·중·소·극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극소형의 소조상이 가장 많다.²⁷⁾

2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136; 段鵬琦, 1998, 「漢魏洛陽城」,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博物館洛陽分館』, 文化藝術出版社, 59쪽.

27) 錢國祥, 2005, 「北魏洛陽永寧寺塑像的初步研究」, 『中原文物』 1, 76~85쪽. 이 글은



〈도 15〉永寧寺 목탑지 평면도, 北魏, 河南省 洛陽市 소재.

대·중·소형의 소조상들은 대다수가 정면관을 하고 있으며 측면관도 소수 확인된다. 극소형 상은 정면관, 측면관, 배면관 등 다양한 각도로 조성되었다. 대·중·소형상 머리는 환조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상반신과 하반신

龍門石窟研究院·龍門博物館, 2005, 『龍門博物館藏品—佛教藝術卷』, 大象出版社, 80~86쪽에 재수록됨.

의 뒷면은 환조 혹은 편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극소형 상의 뒷면은 앞의 예들에 비해 더욱 편평한 편이다. 대·중·소형의 소조상의 머리와 하반신의 저부에는 심목의 흔적이 확인되며 극소형 소조상은 금속류의 심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도 16〉 永寧寺 목탑지 출토 소조상, 北魏, 흙.

제작기법은 손빋기와 제작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영락, 연화장식 등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소조상은 손빋기로 성형되었다. 소조상은 머리, 상반신, 하반신, 발, 손, 장식물을 따로 성형한 이후 목조 혹은 금속류의 심목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후 점토 띠로써 마무리를 했다. 전체적인 형상이 완성된 이후에는 황금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붉은색, 갈색의 안료로 채색했다.²⁸⁾

5) 河北省 臨漳縣 鄴南城 사원지 출토 소조상

업남성 사원지는 하북성 임장현 習文鄉 趙堽城村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m에 위치한다. 1983년부터 업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1984년에는 업남성, 1990년대에는 업남성의 불교 사원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였다. 사원지 범위 내에서는 잔존 높이가 4.5m인 항토 탐심실체가 현존하기 때문에 이 목탑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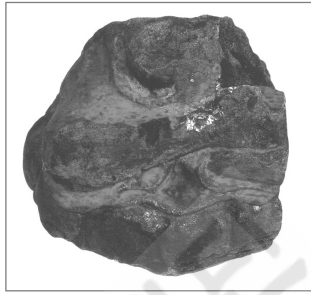
토층은 전체적으로 7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제5층이 탐지의 항토 및 동시대 문화층으로 확인되었다. 층위관계와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토층의 층위관계에 근거하면 목탑지의 항토 탐심실체는 동위, 북제시대로 편년된다.²⁹⁾

목탑지는 지상의 항토 탐심체와 탐기단 아래의 벽돌과 돌로 축조된 지하부

2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143~149쪽.



〈도 17〉 鄴南城 寺院 塔基 유적, 河北省 臨漳縣 소재.



〈도 18〉 鄴南城 寺院 塔基 유적
출토 소조불상, 東魏~
北齊, 흙.

로 구성된다. 탑지는 정방형을 이루며 향토 탑심체는 가로×세로가 30×30m로 추정된다. 향토 탑심체에는 주춧돌들이 3겹으로 모두 36개가 배열되어 있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목탑지에서는 기와, 주춧돌, 석조장식물을 비롯하여 소조상이 출토되었다.³⁰⁾

소조상은 불상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형상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출토수량과 제작기법, 조각양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다만, 공개된 한 점의 소형 불상은 머리가 결여된 신체부위이다(도 18). 뒷면은 편평하며 제작틀을 이용하여 성형한 후 채색을 한 것 같다.

6) 南朝 사원지 출토 소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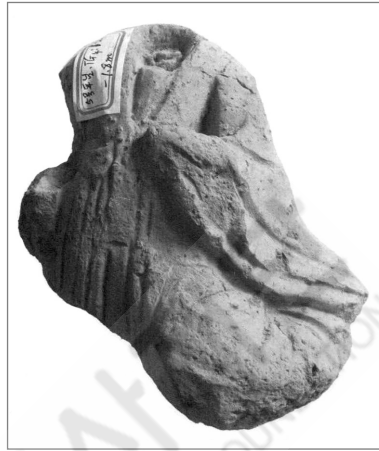
『南史』, 『全唐詩』, 『辯正論』 등의 문헌에 의하면 남조 建康城의 내외부에는 불교 사찰이 500여 곳 혹은 700여 곳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강성에 건립된 불교 사원은 도성 내부의 상업시장과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지점에 밀집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당시 사원은 淮水의 북쪽, 冶城의 동쪽, 淸溪의 연

2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2003, 「河北臨漳縣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的發現與發掘」, 『考古』 10, 3~5쪽.

30) 朱巖石, 2003, 「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遺蹟」, 『2002 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98쪽.

안, 鷄籠산록, 궁성 내부에 밀집되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인 조사와 고증을 통해서 건강성에서는 長干寺, 建初寺, 禪衆寺, 勸善寺 혹은 慈恩寺 등의 불교 사원이 확인되었다.³¹⁾

남조 불교 사원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는 아직 미흡한 편이지만,³²⁾ 지금까지 소조상은 남경 鍾山 유적지와 紅頭橋 부근의 사원 유적지에서 소조상편들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³³⁾



〈도 19〉 南京 출토 소조상, 南朝.

종산 유적지에서는 공양자 형상의 소조상편이 1점 출토되어 현재 南京大學校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도 19). 머리와 손, 발은 결실되었으며 머리와 목 아랫부분의 신체를 따로 제작하여 심목을 이용하여 결합시켰다.

특히 홍두교 부근의 사원지에서 출토된 소조상편에서는 화재의 흔적과 더불어 彩色과 綠釉의 흔적이 확인된다.³⁴⁾

위에서 서술한 고구려와 중국 사원지 출토 소조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출토상황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31) 龔國強, 2006, 『隋唐長安城佛寺研究』, 文物出版社, 204~208쪽.

32) 양은경, 2009. 2,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에 대한 연구-中國 佛教寺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제연구소 제59회 공개강좌 발표요지문』, 10~11쪽; 양은경, 2009. 3, 「中國 南朝가람 丹陽 皇基寺(皇業寺)에서 百濟 陵寺를 보다」, 『한국의 고고학』, 11, 주류성출판사, 88~93쪽.

33) 賀雲翹, 2003, 「南京鍾山二號寺遺址出土瓦當初探」, 『東亞考古論壇』 창간호, 373~374쪽; 李炳鎬, 2006,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 『美術資料』 74, 49~50쪽.

34) 양은경, 2009. 5, 「梁武帝시기 불교미술과 사회변화」, 『종교미술과 사회변동 발표요지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20회 전국학술대회, 11쪽.

〈표 1〉 고구려와 남북조시대 사원지 출토 소조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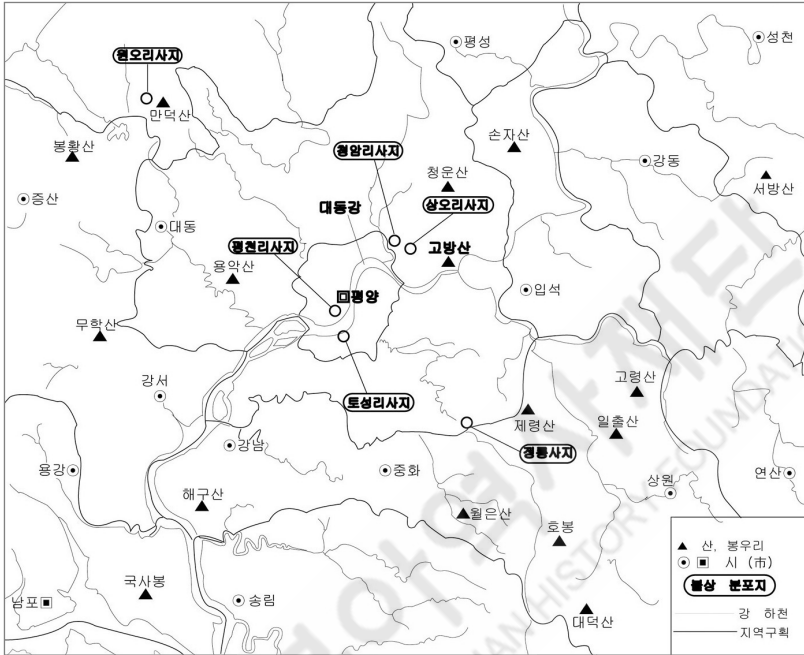
출토지	소재지	사원 이름	출토 수량 (파편: 점)	종류	크기	연대		출처
						소조상	유적	
한국	원오리 사지	평안남도 평원군	불명확 300여	불상, 보살상	극소형	6세기 중 후반	고구려, 고려	필자의 조사; 文明大, 1981,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高句麗 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50, 61~66쪽.
	토성리 출토 도법	평양시 낙랑구역	불명확 3	불상	극소형	6세기 중 후반	불명확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養德社, 32쪽.
중국	사원불사	산서성 대동시	사원불사 16	불상, 보살상, 비천상, 동물상, 연꽃장식물	대형, 중형, 소형, 극소형	479 ~ 491	북위, 요~금	필자의 조사; 大同市博物館, 2007,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 4, 4~26쪽.
	사원불도	요녕성 조양시	사원불도 1670여	불상, 보살상, 제자상, 역사상, 비천상, 연화화생상, 불감, 동물상, 식물상, 장식물	중형, 소형	479 ~ 491	북위, 수, 당, 요	필자의 조사;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29~52쪽.
	내몽고 북위고성	내몽고 포두시	불명확 36	불상, 보살상, 제자상, 비천상,	소형	북위	북위	필자의 조사; 內蒙古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1984, 「內蒙古白靈淖城圍圉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 145~152쪽.
	영녕사	허남성 낙양시	영녕사 2000여	불상, 보살상, 제자상, 공양자상, 무사상, 불감, 광배, 동물상, 식물상, 장식물	대형, 중형, 소형, 극소형	516 ~ 534	북위	필자의 조사;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2~112쪽.

업남성 사원지	하북성 임장현	불명 확	.	불상, 기타 소재	불명 확	534 ~ 577	동위~ 북제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2003, 「河北臨漳縣鄕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的發現與發掘」, 『考古』 10, 3~6쪽.
종산유 적지	강소성 남경시	불명 확	.	공양자상	불명 확	남조	남조	賀雲翱, 2003, 「南京鍾山二號寺遺址出土瓦當初探」, 『東亞考古論壇』 창간호, 392쪽; 李炳鎬, 2006,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 『美術資料』 74, 49~50쪽.
홍두교 유적지	강소성 남경시	불명 확	.	공양자상	불명 확	남조	남조	양은경, 2009. 5, 「梁武帝시기 불교미술과 사회 변화」, 『종교미술과 사회 변동 발표요지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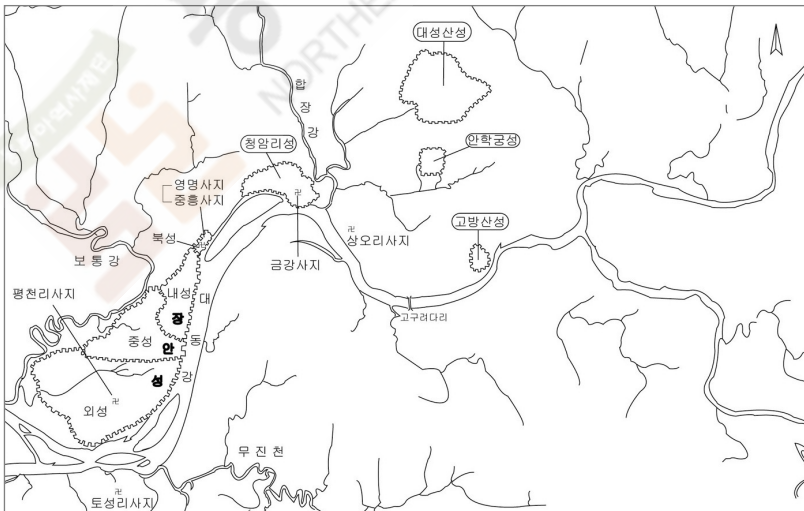
Ⅲ. 출토지의 성격 규명과 제작지

고구려의 소조상과 도범은 元五里 사지, 토성리에서 출토되었는데, 토성리는 평양시에 속하며 원오리 역시 평양일대 구역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출토된 고구려 불상은 대부분 불교 사원지에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평양시의 평천리 사지, 청암리 사지, 상오리 사지, 정릉 사지, 평양 근교의 원오리 사지, 월일리에서 출토된 불상과 장식물은 대표적이다(도 20).³⁵⁾

35) 양은경, 2008b,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 조각」, 『선사와 고대』 28, 79~87쪽.



〈도 20〉 고구려 불교유물이 출토된 사원지의 분포도.



〈도 21〉 고구려 사원지와 도성과의 관계도.



〈도 22〉 半兩錢范, 樂浪, 石製, 길이 4.5cm, 〈도 23〉 풍로형 명기, 樂浪, 흙, 높이 22.9cm, 낙랑토성 출토. 길이 43.8cm, 양동리 5호분 출토.

특히 토성리에서 출토된 도범 3점 중 1점은 원오리 사지에서 출토된 불좌상을 성형하는 데 사용된 모범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당시 소조상을 제작하던 사원 혹은 공방이 있었다고 간주된다. 토성리는 고구려 평양도성지의 범위 속에 있었으며, 특히 586년부터 사용된 궁성 장안성과는 대동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지점이다(도 21).

토성리는 낙랑 토성이 소재한 지점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정백동, 오야리와 더불어 낙랑문화가 강하게 엮보이는 곳이다. 이 일대에서는 封泥, 博築瓚의 벽돌, 기와, 토제 도가니 등 흙을 사용하여 제작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³⁶⁾ 정백리 1호묘, 24호묘, 석암리 227호분 등에서는 비록 부장품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부뚜막, 盤, 甗 등 토제 明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³⁷⁾ 특히 낙랑 토성에서는 반량전, 소천직일전 등의 화폐와 함께 오수전, 반량전, 화천전 등의 석제 錢范이 출토되었다(도 22).

이처럼 B.C. 108년~A.D. 313년 낙랑문화가 존재한 평양 일대 지역에서는 흙을 재료로 하여 제작된 문양전, 도장, 기와, 토제 명기(도 23) 등을 비롯하여 토제 도가니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낙랑 전축분의 축조에 사용된 무늬벽돌에서의 기하학 문양이 유행한 사실은 중국 내지에서 인물, 동물, 식물, 기하학 문양이 성행한 사실과는 다른 이 지역의 특징으로 간주된다.³⁸⁾ 그러므로 평양 일

36)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술, 20~35쪽.

37) 王培新, 2007, 『樂浪文化－以墓葬爲中心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79~87쪽.

대에서 소비된 벽돌, 기와, 토제 명기 등은 현지에서 직접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화폐를 주조한 전범의 출토는 이 지역에서 화폐가 직접 주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낙랑이 멸망한 이후에도 토성리를 비롯한 평양 일대에는 화폐를 주조하거나 청동기, 철기를 비롯하여 벽돌, 기와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공방이 계속해서 있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토성리에서 소조불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도범이 출토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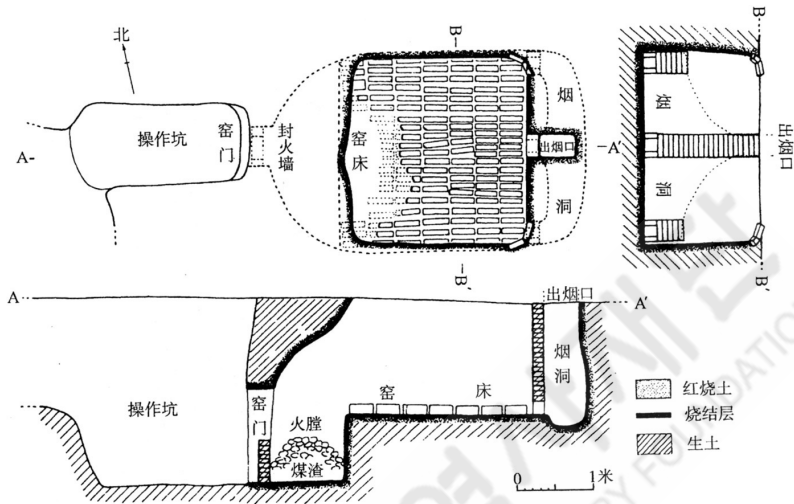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오리에서 출토된 소조불좌상의 제작지가 문제가 된다. 이 소조불좌상은 토성리에서 출토된 두 종류의 니범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작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토성리의 공방에서 제작되어 원오리로 운반되었을 가능성, 둘째 공인이 도범을 가지고 원오리로 이동하여 제작했을 가능성, 셋째 도범만을 원오리로 가지고 가서 그곳의 공인이 제작했을 가능성이다.

사실 원오리는 평양 일대 지역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성리와는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다(도 20). 또한 원오리 출토 소조상은 제작과정에서 성형을 한 이후 燒成과 彩色을 했기 때문에, 제작물의 이동만으로는 상의 제작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평양 일대 지역에서 고구려 窯址가 발견된 실제 예는 없지만 기와, 토기 등이 많이 발굴된 사실은 이곳에 토기, 기와, 벽돌 등을 전문적으로 소성한 가마가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중국 산서성 대동시 사원 불사, 하남성 낙양시 영녕사가 소재한 곳에서는 가마터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동시의 서쪽에 위치한 田水庫의 북위시대 가마터,³⁹⁾ 偃師市 西羅洼村的 서북쪽에 소재한 漢魏시대 가마터가 대표적인 예이

38) 劉敦楨, 1981,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64~76쪽; 王培新, 2007, 위의 책, 103~117쪽.

39) 이 窯址는 최근에 발견되어 아직까지 정식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표 조사 결과 벽돌과 기와를 생산한 북위시대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해주신 山西省文物考古研究所의 張慶捷副所長께 감사드립니다.



〈도 24〉 漢魏시대 가마터의 평면도와 단면도, 偃師市 西羅洼村 소재.

다(도 24). 또한 사연불도가 소재한 요령성에서도 遼陽市에서는 漢代 가마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⁴⁰⁾ 이들 가마에서는 소조상과 도용을 소성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전돌, 기와, 토기를 구운 사실은 확인했다. 특히 언사시의 가마터에서는 10여 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이들 가마들은 전돌과 기와 생산을 관리한 관청이었던 南甄官의 관할하에 있었던 作坊이었다.⁴¹⁾ 이 가마들은 당시 도성에 소재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일대에 축조된 무덤과 건축물에 사용된 기와, 전돌을 생산하였다.

토성리 일대에서도 중국 북조의 가마 양상과 유사하게 도성 주변지역에 토기, 전돌, 기와 등을 생산한 국가 관할의 가마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결국 토성리의 전문 공방에서 성형과 소성을 거쳐 완성된 소조불상과 소조보살상이 元五里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양에서 제작된 원오리의 소조상이 출토된 지점은 사원지이며, 이 사원지

40) 熊海堂, 1995,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南京大學出版社, 125~126쪽.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漢魏城隊, 1997, 「漢魏洛陽城發現的東漢燒煤瓦窯遺址」, 『考古』 2, 47~51쪽.

는 만덕산의 서편에 위치한다. 만덕산에는 원오리 사지 이외에도 북편에 위치한 栗里에서 소조불상이 출토되기도 했고, 석불, 석탑 등의 현존과 더불어 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불교 사원이 더러 있었다고 간주된다.⁴²⁾

북한 내에서 고구려 불교 사원지가 조사되거나 확인된 지점은 크게 평양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양에는 定陵 寺址, 淸巖里 寺址, 上五里 寺址, 平川里 寺址, 重興 寺址, 영명 사지, 樂 寺址 등이 있으며, 이 중 불교조각 혹은 불교 관련 유물이 출토된 곳은 정릉 사지, 청암리 사지, 상오리 사지, 토성리 사지가 대표다(도 20). 기타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사원지로는 원오리 사지, 황해북도 봉산군에 소재한 토성리 사지,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의 쌍계 사지,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사지가 있다. 정식발굴은 없었지만 불교유물이 출토되어 사원지가 소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는 평안남도 평원군 월일리, 황해북도 곡산군 봉산리, 황해북도 황주가 있다.⁴³⁾

평양에 소재한 사원지는 고구려 평양시기의 都城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암리 사지, 상오리 사지는 사원지는 안학궁의 서쪽에 위치하며, 당시 도성 내부에 소재한다. 영명사, 증흥사는 장안성의 북성, 평천리 사지는 장안성의 외성 내부에 위치한다(도 21).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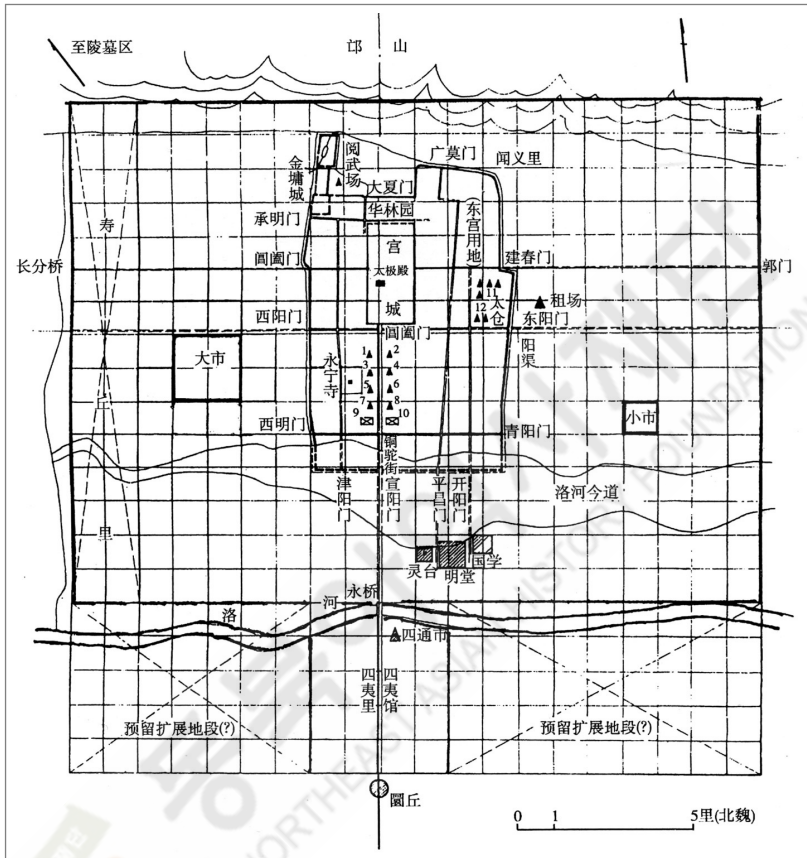
이에 비해 평안남도 원오리 사지, 황해북도 토성리 사지, 황해남도 쌍계 사지, 함경남도 오매리 사지는 지방도시의 산기슭에 위치한다. 원오리 사지는 만덕산, 토성리 사지는 서흥강의 둔덕진 곳, 쌍계 사지는 구월산, 오매리 사지는 압해산에 있다. 토성리 사지와 쌍계 사지, 오매리 사지는 1탑 3금당식으로 추정되는 가람 배치를 보이며, 토성리 사지에서는 8각형 목탑지도 발견되었다.⁴⁵⁾

42) 小泉顯夫, 1938, 앞의 글, 63~72쪽.

43) 양은경, 2008c, 「大陸과 海洋을 품은 高句麗 佛教彫刻」, 『先史와 古代』 28, 79~85쪽; 양은경, 2008d, 「北韓의 불교 사원지 출토 高句麗, 渤海 佛像의 출토지 문제와 계승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1, 196~198쪽.

44) 양은경, 2008d, 위의 글, 200~203쪽.

45) 남일룡, 1987,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8~13쪽; 김중혁·김지철, 1989, 「신포시 오매리 금산 발해 건축지 발굴중간보고」,



〈도 25〉 北魏 洛陽城의 복원도.

또한 이러한 사원지 부근의 지역에서는 고구려 고분 혹은 산성도 있었다. 원오리 사지의 인근지역에는 운룡리 벽화고분,⁴⁶⁾ 청보리 벽화고분이 있으며, 토성리 사지 부근에는 휴류산성,⁴⁷⁾ 안악군 일대에는 안악 1호분~3호분,⁴⁸⁾ 오

『조선고고연구』 2, 11~16쪽; 김중혁·김지철, 1990,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 발해 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12~17쪽;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 8권-발해편,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86~206쪽; 발굴소식, 1993, 「패엽사, 쌍계사터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 42~46쪽.

46) 리일남, 1986, 「운룡리벽화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37~38쪽.

47) 남일룡, 1987, 앞의 글, 11~12쪽.

매리 사지 인근에는 평리무덤과 룡전리산성, 거산성이 소재한다.⁴⁹⁾ 이로 보아 평양시기 고구려 사원은 도성지 내부에 건립되거나 혹은 군사가 주둔했거나 지방관리가 파견된 지방도시에 건립되었다.

중국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사원지인 사연불도, 사원불사, 영녕사, 업남성 사원지는 당시 도성지의 내외부에 위치한다. 사연불도는 삼연대 궁전 건물터의 기단 위쪽에 건립되었으며,⁵⁰⁾ 사원불사는 북위 平城시기 도성지의 황제 능원(도 6),⁵¹⁾ 영녕사는 북위 낙양시기 낙양성의 내성 내부(도 25),⁵²⁾ 업남성 사원지는 동위~북제대 업남성의 외곽성 내부에 위치한다.⁵³⁾ 성고락 고성 사원지는 당시 도성지는 아니었지만 북위 六鎮 중 한 곳이었던 懷朔鎮이 소재한 懷朔古城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연불도와 사원불사는 5세기 후반 풍태후가 발원하여 건립하였으며, 영녕사는 호태후에 의해 창건되었다. 업남성의 사원지의 현존 탐심실체의 규모는 영녕사보다 크며, 업남성의 궁성의 중축 선이었던 朱明門大道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영녕사가 낙양성의 궁성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간 중축선이었던 銅駝街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사실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업남성의 사원지 역시 동위~북제대 황실귀족에 의해 발원되어 건립된 사원이었을 것이다. 북방민족으로부터 침략을 저지하고 수도 평성을 방어하기 위해 도성지 북쪽에 여섯 지점에 설치된 육진의 한 곳이었던 성고락 고성에는 군사들과 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48) 최무장·임연철, 1990, 『고구려벽화 고본』, 서신원, 441~507쪽.

49) 徐日範, 2004, 「북한 경내의 발해 유적과 출토 유물」, 『高句麗研究』 6-발해 건국 100주년, 학연문화사, 215쪽; 김중혁, 1997, 「우리 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연구 논문집』 2, 백산자료원, 213~222쪽.

5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앞의 책, 26쪽.

51) 大同市博物館, 2007, 앞의 글, 4~5쪽.

5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工作隊, 1981, 「北魏永寧寺塔基發掘簡報」, 『考古』 3, 223~224쪽; 王仲殊, 1982, 「中國古代都城概說」, 『考古』 5, 505~515쪽; 孟凡人, 2000, 「北魏洛陽外郭城形制初探」, 『漢魏洛陽故城研究』, 科學出版社, 413~419쪽.

5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2003, 앞의 글, 6쪽.

IV. 제작기법과 봉안장소

1. 제작기법을 통한 소조상의 비교 관계

元五里 사지에서 출토된 300여 점의 소조상편들은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지만, 특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유물번호 : M 480)을 기준으로 하여 소조불상과 보살상의 제작기법을 살펴보았다(도 26).

고구려 소조상과 비교되는 중국 소조상 중 사연불도, 사원불사, 영녕사 출토품은 직접 실견하고 조사했다. 河北省 업남성 사원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아직 정식 발굴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은 관계로 해외에서의 자료 공개를 금지했기 때문에 본문 속에 언급할 수 없다. 이에 업남성 사원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형식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소조상들의 제작과정은 크게 成型, 燒成, 彩色의 순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점토의 선별을 시작으로 하여 제작과정 중 가장 다양한 기술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성형이다.

우선 소조상의 성형에 대한 분류는 크게 제작틀을 사용하여 찍어 낸 기법을 A류, 손으로 빚어 낸 손빚기 성형을 B류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A류는 신체



〈도 26〉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불상·보살상.

를 포함한 형상 전체를 한 번에 제작틀에서 찍어 낸 AⅠ류와 머리와 상반신, 하반신, 손, 발 등 신체부위를 각각 따로 찍어 낸 이후 하나로 연결한 AⅡ류로 나눌 수 있다. AⅠ은 성형 당시 芯木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AⅠa와 심목의 흔적이 없이 그냥 제작틀에서 찍어낸 AⅠb로 구분된다. AⅡ류는 심목을 이용하여 신체부위를 연결하는 AⅡa와 신체부위를 심목을 사용하지 않고 점토 띠를 이용하여 연결한 AⅡb로 나뉜다.

B류 역시 A류와 동일하게 신체 전체를 한 번에 손빚기로 성형한 BⅠ류와 신체의 각 부위를 따로 손빚기 한 이후 전체 형상으로 연결한 BⅡ류로 나눌 수 있다. BⅡ류는 다시 심목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BⅡa와 심목을 사용하지 않고 성형한 BⅡb로 구분된다.

위의 성형과정의 형식 분류를 기준으로 원오리 소조상과 중국 사원지 출토 소조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류 : 제작틀 사용

I 형 : 전체를 함께 찍어 냄

a식 : 심목의 흔적 있음(원오리 출토 소조상)

b식 : 심목의 흔적 없음(사연불도 출토 불감의 장식기둥 등)

Ⅱ 형 : 형상을 부위별로 따로 찍어 냄

a식 : 심목의 흔적 있음(사연불도 출토 소형 보살상과 연화화생상 · 극 소형 불좌상, 내몽고 사원지 출토 소조상, 영녕사 출토 연화 · 영락 · 꽃잎 등)

b식 : 심목의 흔적 없음(사연불도 출토 소형 보살상 · 극소형 불좌상 · 연화 · 불감 기둥 등)

• B류 : 손빚기

I 형 : 형상 전체를 함께 성형(없음)

Ⅱ 형 : 형상을 부위별로 따로 성형

a식 : 심목의 흔적 있음(사연불도 출토 대형 소조상 · 중형 소조상, 영

녕사 출토 대 형 소조상 · 중형 소조상 · 소형 소조상 · 극소형 소조상)

b식 : 심목의 흔적 없음(사원불사 출토 소형 소조상 · 극소형 소조상)

위의 형식 분류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시대 사원지 출토 소조상의 형식 분류

		성형						소성 여부	채색 여부			
		A				B					형식	
		I		II		I	II					
		a	b	a	b		a					b
한국	원오리	●						A I a	●		●	
중국	사연불도		●	●	●		●	A I b, A II a, A II b, B II a	●	●	●	
	사원불사						●	B II b			●	●
	내몽고 사원지			●				A II a			●	●
	영녕사			●			●	A II a, B II a			●	●

元五里에서 출토된 소조불상과 보살상은 모두 A I a 기법, 즉 형상 전체를 제작틀을 이용하여 한 번에 찍어 낸 성형기법을 보인다.⁵⁴⁾ 더욱이 성형 당시 심목을 사용한 흔적이 불상과 보살상의 저부에서 확인된다(도 27). 원오리 출토 소조상의 성형과정에서 사용된 점토는 정선된 진흙으로 질감이 부드럽고 고운 細泥와 모래 성분이 다소 포함된 흙이다. 원오리 소조상의 제작틀로 사용

54) 李相培는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불상의 성형과정에 대해 머리, 손, 신체를 각기 따로 제작틀을 만들어 찍어 낸 후 흙이 마르기 전에 서로 이어 붙여 하나의 형체로 접합시켰다고 하였다(李相培, 1988, 『韓國塑造佛像의 制作技法에 대한 考察』,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66쪽. 이 글은 이후 1994, 『塑造佛像의 制作技法』, 『佛敎美術研究』 1, 131~146쪽에 재수록됨). 그러나 필자의 실제 조사 결과 전체의 형상을 한 번에 찍어 낸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 27〉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보살상의 저부.

된 토성리에서 출토된 도범은 양쪽 면의 제작틀이 아니라 한쪽 면의 표면을 지닌 제작틀이다. 이 도범의 제작틀에 고운 흙을 채운 후 소조상의 뒷면을 손으로 눌러 표면을 고르거나 조각칼을 이용하여 깎아 냈다(도 28).

제작틀에 흙을 채울 당시 한 종류의 흙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 사연불도, 영녕사에서 성형과정과는 차이가 난다. 사연불도, 영녕사 출토 소조상은 흔히 목재 혹은 철재의 심목을 사용하여 골격을 이룬 후 새끼줄이나 麻絲 등의 베로 심목을 감은 후 3단계로 흙을 덧발랐다. 가장 안쪽인 內層에는 풀이나 지푸라기 등을 흙에 섞어 혼합한 조잡한 흙, 즉 粗泥를 바르고 그 위의 中層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細泥, 가장 바깥쪽의 表層에는 가장 부드럽고 고운 細泥를 발랐다.⁵⁵⁾ 이러한 3단계의 점토층 구성은 대·중형의 소조상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된다. 사연불도, 영녕사 출토 소조상은 손빚기로 성형을 하였기에 원오리 소조상과는 점토의 선정과 두께, 제작과정 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작틀을 이용하여 찍어 낸 원오리 소조상과 사연불도의 소형, 극소형 소조상, 내몽고 사원지의 소조상과의 비교는 어떠한가? 사연불도의 소



〈도 28〉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보살상의 뒷면.

5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144~148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앞의 책, 131쪽.

형 불좌상은 전체 복원 높이가 25cm 정도로 원오리 불상과 비슷하다. 사연불도의 소형 불좌상, 극소형 소조상은 조니 혹은 세니를 이용하여 머리와 신체를 따로 제작틀에서 찍어 낸 제작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원오리 소조상과는 다른 방법이다(도 29, 30). 내몽고 소조상 역시 머리, 신체부위를 제작틀에서 따로 찍어 냈기에 원오리와 다르다.

원오리 소조상은 한 면의 제작틀을 이용했기에 형상의 앞부분은 저부조를 이루지만 뒷면은 아무런 표현이 없이 편평하게 처리되었다(도 28). 전체적으로는 편평하지만 손으로 대충 마무리를 하고, 제작틀에서 빼어 내는 과정에서 현재 움푹 파여진 굴곡도 확인된다. 중국의 경우 영녕사 출토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조상들의 뒷면은 모두 편평하다. 이는 소조상이 제작된 이후 봉안되는 장소와의 관계로 인해 의도적으로 편평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원오리 소조상의 성형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시되는 사실은 소조상의 저부에 뚫려 있는 둥근 구멍(圓孔)의 존재이다. 필자가 조사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원오리 소조상의 저부에는 모두 원형 구멍이 있었다(도 27). 불좌상의 圓孔의 가로×세로 크기는 1.3×1.5cm(M 480-168을 표본으로 함)이었다. 보살상의 가로×세로 크기는 1.3×1.4cm(M 480-226을 표본으로 함)이었다. 불좌상과 보살입상의 원공의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며, 신체 파편들을 통해 관찰한 결과 원공의 깊이는 1~10cm까지 불규칙했다. 원공 내에서는 철심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木質이나 草質의 芯木이 삽입된 흔적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사연불도에서 출토된 극소형의 불감은 제작틀에서 한 번에 찍어 내었지만 심목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 형상의 각 부위를 따로 찍어 낸 사연불도 출토의 소형 보살상과 연화화생상, 제자상, 극소형 불좌상, 영녕사 연화장식물, 영락 등은 심목을 삽입한 흔적이었던 구멍이 있는 예(도 29, 31)와 홈이 없는 예(도 32)가 모두 존재한다. 사연불도의 예들은 소조상의 머리 아래쪽

56) 박윤배, 2008, 「制作技法을 통한 慶州地域 塑造像과 中國 塑造像과의 관계-고신라,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CHINA 연구』 5, 60쪽.



〈도 29〉 北塔 출토 塑造佛像 두부, 北魏, 흙, 높이 8.5cm.



〈도 30〉 北塔 출토 塑造佛像 신체부분, 北魏, 흙, 높이 15.5cm.



〈도 31〉 北塔 출토 塑造佛像 신체부분, 北魏, 흙, 높이 17cm.



〈도 32〉 北塔 출토 塑造佛坐像의 뒷면, 北魏, 흙, 높이 25cm.

혹은 상체의 목 부분에 방형의 구멍이 있으며, 가로×세로 크기가 0.3~5cm 정도이다(도 29, 31).⁵⁷⁾

내몽고 사원지 출토 소조상 역시 머리 아래와 목 부위에 구멍이 있다. 철심 혹은 철사를 활용한 금속류의 예가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나무 혹은 대나무의 심목이었다고 추정된다. 사연불도, 내몽고 사원지 소조상의 심목은 머리와 상반신을 결합시키는 데 이용된 것이며, 원오리에서처럼 소조상의 대좌 아랫면에 위치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녕사에서 출토된 모든 소조상에서는 머리의 저부, 하반신의 저부, 머리의 앞면, 장식물의 각 부위 등 심목을 삽입한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도 33). 크기 역시 불규칙적이며 圓形, 多角形의 목심, 철심 등 다양한 형태와 재료가 사용되었다(도 34).⁵⁸⁾ 머리의 저부에 뚫려 있는 심목의 흔적은 머리와 상반신을 연결하기 위해(도 33), 하반신의 저부에서 확인되는 심목은 대좌와의 연결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34).⁵⁹⁾ 그러나 저부에 삽입된 심목은 소조상을 완성한 이후 봉안장소에 안치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제작기법에서 소조상과 좋은 비교자료가 되는 것으로 陶俑이 있다. 중국에서는 商代부터 도용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漢代부터 무덤의 부장품으로 아주 극성되게 제작되었다.⁶⁰⁾ 한대 이래로 다양한 종류로 제작된 북방지역의 도용은 흔히 머리, 몸통, 발, 손 등의 앞면과 뒷면을 따로 제작틀에서 찍어 낸 후 신체 편들을 진흙으로 연결시켰다. 성형이 끝나면 소성과 채색을 거친 제작기법을 이용했다.⁶¹⁾ 이러한 도용들은 제작과정에서 심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이후 내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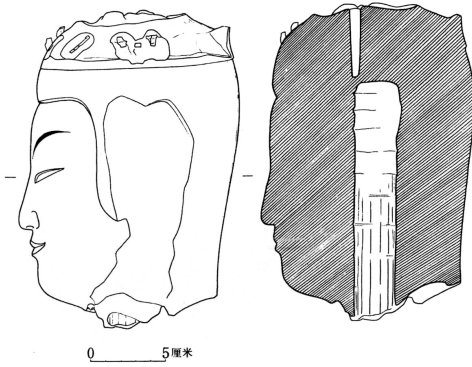
57) BT 0105 佛0013, BT 0110 佛0018, BT 0143 佛0051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필자가 직접 현지 조사하였다.

5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144~148쪽.

59) 山崎隆之, 1998, 「永寧寺北塔內塑像의 製作技法について」, 『北魏洛陽永寧寺』,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215~221쪽.

60) 曹者社·孫秉根, 1998, 『中國古代俑』, 上海文化出版社, 1~3쪽.

61) 楊泓, 2000a, 「西漢俑的造型特徵」, 『漢唐美術考古和佛教藝術』, 科學出版社, 13쪽; 楊泓, 2000b, 「北朝陶俑的源流, 演變及其影響」, 『漢唐美術考古和佛教藝術』, 科學出版社, 126~137쪽.



〈도 33〉 永寧寺 목탑지 출토 中型 塑造頭像, 北魏, 髹, 높이 21.8cm, 폭 13.6cm.



〈도 34〉 永寧寺 목탑지 출토 塑造供養者像, 北魏, 髹, 높이 19.6cm.



〈도 35〉 定林寺址 출토 소조상, 百濟, 髹, 높이 4.3~8.5cm.



〈도 36〉 上京城 출토 소조불상, 渤海, 髹, 높이 6.5cm.

중국 소조상, 도용과의 비교를 통해 원오리 출토 소조상의 대좌 아래쪽에 있는 원형 구멍은 그 용도가 점토를 순조롭게 덧붙이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혹은 신체부위 간의 연결을 위한 심목의 흔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오리 출토 소조상의 심목 흔적은 영녕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소조상을 완성한 이후 봉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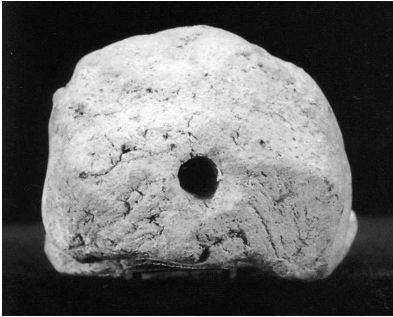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소성과정이다. 영녕사 출토 소조상, 사원불사 출토 소조상, 내몽고 사원지 출토 소조상, 사연불도 출토의 대형과 중형 소조상은 소성을 하지 않은 채 자연 건조시킨 이후 백회와 채색을 거쳐 봉안장소에 안치되었다. 당시 소조상에는 심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이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와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금속류를 제외한 나머지 심목들은 소실되었다.

중국의 예와는 달리 원오리 소조상은 성형 이후 소성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부에 삽입된 나무 혹은 풀 등의 심목은 불에 타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오리 출토 소조상의 심목의 용도는 제작틀에서 소조상을 찍어 낼 당시 쉽게 떼어 내기 위해서 이와 소성과정에서 형상이 일그러짐을 막기 위해 단지 구멍만 뚫어 놓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연불도 소조상 중 소성을 거쳤다고 추정되는 소형, 극소형의 소조상의 저부에는 구멍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설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백제 정림 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성형기법은 대형 소조상과 중형 소조상은 손빚기, 소형과 극소형 소조상은 제작틀을 이용하였다(도 35). 신체부위를 따로 제작하여 결합시켰기 때문에 목질, 각목, 철사 등을 심목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극소형 상의 다리, 발 등 신체 저부에는 0.6~0.8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鐵絲가 남아 있는 예도 발견된다. 정림 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 역시 성형이 끝난 뒤 건조 후 저화도에서 소성되고 채색이 가해졌다.⁶²⁾

원오리 출토 소조상은 백제, 중국 소조상과의 비교를 통해 底火度로 소성

62) 李炳鎬, 2005,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技法과 奉安場所」, 『美術資料』 72·73, 29~90쪽.



〈도 37〉 上京城 출토 소조불상의 저부,
渤海, 肅.

하였을 가능성과 소성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다. 만약 소성과정에서 생략되었다면, 현재의 단단함은 화재로 인해 목탑이 소실될 당시 불꽃에 의해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검은 연기에 의해서는 부분적으로 검게 변했을 가능성도 제시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소조상과 비교되는 발해의 소조상의 예로는 上京城과 東京城(八連城)에서 출토된 소조불상과 소조보살상이 대표적이다. 소조상의 종류는 불좌상, 보살입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현존 높이는 5~10cm 정도다(도 36). 동일한 제작틀에서 찍어 낸 성형과정으로 인해 양식이 동일하며 뒷면은 편평하고 아무런 표현도 없다. 대좌 아래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거나 철못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도 37).

상경성 출토 소조상은 형상 전체를 제작틀에서 찍어 낸 것과 신체와 광배 혹은 머리와 신체를 따로 제작하여 점토 혹은 심목을 이용하여 결합시킨 것이 확인되었다.⁶³⁾ 소조상의 앞면에는 채색, 금박, 백회가 칠해져 있으며 유약이 입혀진 채 소성된 예도 있다.

제작기법면에서 상경성과 동경성에서 출토된 극소형 크기의 소조상은 고구려 원오리 출토 소조상과 유사하다. 형상 전체를 제작틀에서 찍어 낸 성형기법과 소성, 채색 등의 제작기법은 동일하다. 다만, 발해 소조상에서는 철못을 삽입한 예와 사유가 확인되는 점이 원오리 소조상과 다르다. 이처럼 철못의 심목은 가마에서 소조상이 소성과정을 거처도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다.

63) 임석규, 2005, 「渤海 塑造佛像의 性格과 製作技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7, 273~305쪽.

2. 봉안장소와 봉안원형 추정

원오리 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불상과 소조보살상은 어느 장소에 어떠한 모습,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안치되고 배치되었는지 궁금하다. 원오리 사지는 발굴 당시 고구려 유구와 고려시대 건물지가 전체적으로 교란되고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당시 사원지의 내용과 가람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⁶⁴⁾ 그렇다면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의 봉안장소에 대해서는 이와 비교되는 기타 소조상들의 출토장소와 출토양상을 우선 살펴본 후 역으로 원오리 소조상의 봉안처를 추정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삼국 중 소조상이 가장 많이 출토된 백제의 경우 부여 능산리 사지와 익산 제석 사지의 소조상은 목탑지 혹은 목탑지 폐기장에서 출토되었고, 부여 임강 사지의 소조상은 금당지, 부여 부소산 폐사지와 익산 미륵 사지의 소조상은 금당지와 목탑지에서 동시에 출토되었다.⁶⁵⁾ 중국은 사원불사, 사원불도, 영녕사, 내몽고, 엽남성 사원지의 목탑지에서 소조상이 출토되었다.⁶⁶⁾

중국의 예에서는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 이외에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목탑과 소조상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446년 업성의 탑이 소실될 때 소조상 속에서 옥새를 얻었다는 내용⁶⁷⁾과 劉宋대에 창건된 강릉 장사사의 탑 안쪽에 素像이 있었다는 기록이 대표적이다.⁶⁸⁾ 목탑 이외에 금당에도 소조상이 봉안되었지만 대형, 중형에 속하는 크기의 상들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원오리 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높이가 20cm가 되지 않는 극소형에 속

64) 小泉顯夫, 1938, 앞의 글, 63~68쪽.

65) 李炳鎬, 2005, 앞의 글, 64쪽 <표 2> 참조.

6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22쪽; 宿白, 1999, 앞의 글, 47쪽 注 1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2003, 앞의 글, 5~6쪽; 大同市博物館, 2007, 앞의 글, 15~16쪽; 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앞의 책, 30쪽.

67) “太平眞君七年(446)夏四月戊子, 鄴城毀五層佛圖, 於泥像中得玉璽二”(『魏書』卷四下「世祖紀」第四下的 기록, 1995,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01쪽).

68) “長沙寺 …… 殿前塔, 宋謙王義季所造. 塔內素像, 初利天工所造”(『法苑珠林』卷三十九「伽藍篇·感應緣」의 기록, 1995, 上海古籍出版社, 309쪽, 구두점은 필자가 임의로 찍은 것임).



〈도 38〉 思遠佛寺 목탑지 전경, 北魏, 탑심체의 동서 잔존 길이 12.2m, 남북 길이 12.05m, 현존 높이 1.25m.



〈도 39〉 永寧寺 목탑지 전경, 北魏, 탑심체의 동서 잔존 길이 19.8m, 동서 길이 19.8m, 현존 높이 3.7m.

하는 상이기 때문에 금당 혹은 불전에 봉안된 본존상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오리 소조상은 중국 북조 목탑지에서 출토된 소형 혹은 극소형 소조상과 마찬가지로 목탑 내부에 봉안된 소조상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문헌기록을 통해 보면 동한대부터 북위 494년까지 중국 북방의 사원 건립과 가람 배치는 불탑이 중심이었다. 북위의 수도 平城에 건립된 七級佛圖는 永寧寺를 의미하였으며, 思遠佛寺는 思遠靈圖를 뜻하였다.⁶⁹⁾ 思燕佛圖는 탑이 가장 중요한 건립 대상이었으며 주위에 배치된 殿堂 역시 탑의 부속적인 의미가 강했다. 다시 말해, 탑을 건립하는 것은 곧 불교 사원의 건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방형의 樓閣式 목탑은 불교 사원지의 건물 배치면에서 중심에 위치했으며 규모 역시 가장 컸다.

사원불사(도 38), 사연불도, 영녕사(도 39), 내몽고 사원지, 업남성 목탑지의 중앙에는 모두 흙으로 축조된 방형의 항토 탑심실체가 있었으며, 특히 영녕사 항토 탑심체의 가장 바깥쪽의 동, 서, 남쪽에서는 길이×깊이×현존 높이가 1.8m×1.3m×0.3m인 불감이 다섯 개 확인되었다. 북쪽에는 위층으로 출입하는 계단시설로 인해 불감은 없었다.

영녕사의 목탑, 사연불도 목탑, 백제 정림 사지 목탑 내부의 구조와 소조상

69) 宿白, 1999, 앞의 글, 33~36쪽.

의 봉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현석굴과 운강석굴의 塔廟窟 내부 모습과 비교하여 복원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⁷⁰⁾ 불교 사원과 석굴은 기능면에서 서로 유사했는데, 불교 사원의 불탑을 동굴 내부에 배치한 것이 탑묘굴이며 地上的 불전(금당)을 그대로 동굴 속에 옮겨놓은 것이 佛殿窟 혹은 佛壇窟이다.⁷¹⁾

원오리 사지 소조상은 6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중국의 5세기 중반~6세기 중반 불전굴과 탑묘굴로 대표적인 석굴인 돈황 막고굴, 운강석굴(도 40), 용문석굴, 공현석굴과 비교가 가능하다.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에 개착된 위의 석굴들에서 가장 성행한 석굴 유형은 바로 탑묘굴이었다.⁷²⁾ 이러한 탑묘굴의 중심 탑주에는 불교조각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중·소·극소형의 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사원불사, 사연불도, 영녕사, 내몽고 사원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크기와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녕사의 발굴내용과 탑묘굴 내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원상을 복원할 수 있다. 소조상들은 목탑 중앙에 설치된 향토 탑심체의 일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형의 소조상은 일층 탑신의 불감 속에 봉안되고 대형 혹은 중형의 소조상은 제2층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도 41). 그리고 그 주위는 소형 혹은 극소형 소조상들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원오리 사지에서는 기타 출토지와 비교하여 대·중·소형의 소조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상, 비천상, 동물상, 불감 등 다양한 소재의 소조상이 출토되지도 않았다. 이는 발굴 당시 이미 대부분의 유물이 소실되었던 이유와 유구의 파괴와 교란, 제한된 범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의 조사로 인해

70) 松浦正昭, 1998, 「永寧寺塔內塑像の世界」, 『北魏洛陽永寧寺』,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237~253쪽; 李炳鎬, 2005, 앞의 글, 59~80쪽; 양은경, 2007, 앞의 글, 99~1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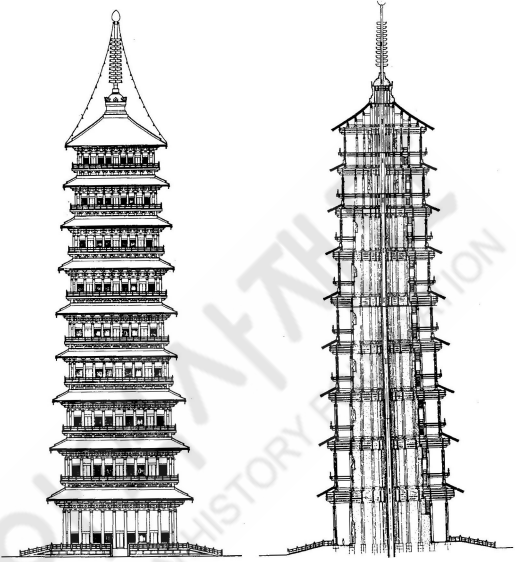
71) 李裕群, 2003, 『古代石窟』, 文物出版社, 4쪽.

72) 양은경, 2004, 「중국 불교석굴의 개념과 분포, 발전사」, 『中國史研究』, 282~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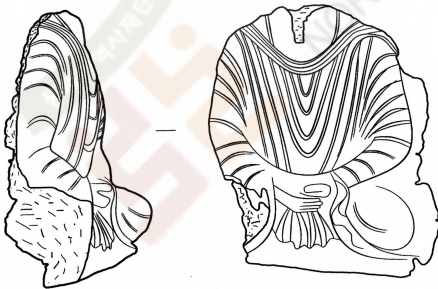
73) 필자가 현지 조사한 유물 중 北塔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는 불좌상, 佛107-2 BT0199호의 예를 견본으로 함.



〈도 40〉 雲岡石窟 제1굴 中心塔柱, 北魏, 山西省 大同市 소재.



〈도 41〉 永寧寺 木塔과 내부 복원도.



〈도 42〉 北塔 출토 소조불좌상의 실측도, 北魏, 높이 16.8cm.



〈도 43〉 思遠佛寺 유적지 출토 塑造像片, 北魏, 흙, 높이 9.2cm, 폭 7.3cm.

출토유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의 뒷면이 편평한 사실과 대좌 아래쪽에 있는 원형 구멍은 소조상의 봉안원형을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백제에서 출토된 소조상과 영녕사를 제외한 북조 목탑지 출토 소조상의 뒷면 역시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이는 소조상을 벽면에 부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사원불사, 사연불도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뒷면에는 점토층이 한 겹 더 덧붙여져 벽면에 직접 붙였던 흔적도 확인되었다(도 32, 42).⁷³⁾

사원불사 출토 소조상 중에는 벽면에 부착된 채 결합되어 있는 소조상편들도 출토되어 소조상을 어떻게 벽면에 봉안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도 43).⁷⁴⁾ 사연불도 출토품 중에는 편평한 뒷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예도 있어, 벽면에 직접 걸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도 44).

소조상의 편평한 뒷면과 벽면 부착과의 관계는 도용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북조의 도용은 앞뒷면이 환조로 표현되어 무덤 내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주를 차지했지만, 북위 侯掌墓의 도용 중에는 뒷면이 편평하여 무덤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예도 있다.⁷⁵⁾

이처럼 사연불도, 사원불사의 소조상은 편평한 뒷면에 점토를 다시 붙이거나 심목을 삽입하여 봉안장소의 벽면에 부착하거나 걸었다. 원오리 사지 소조상은 뒷면은 편평하지만 점토를 덧붙였거나 심목의 구멍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부에 뚫려 있는 원형 구멍이 봉안장소에 소조상을 안치하는 데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돈황 막고굴 제259굴, 제251굴, 제260굴, 제280굴, 제432굴 등 북위, 서위대 탐묘굴의 탐기둥 네 면에는 불감이 배치되어 있고, 불감 내외부에는 소조불상, 보살상, 제자상 등이 안치되어 있다(도 45). 불감 위쪽에는 일명 影塑像으로 명명되는 극소형의 소조불좌상 혹은 보살상이 부착되어 있다.⁷⁶⁾ 이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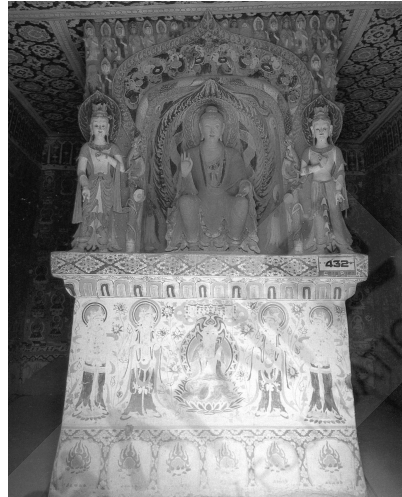
74) 大同市博物館, 2007, 앞의 글, 21쪽의 T061 : 7과 T006 : 1의 예가 있음.

75) 洛陽市文物工作隊, 1991, 「洛陽孟津晉墓, 北魏墓發掘簡報」, 『文物』 8, 54~61쪽.

76) 마쓰창 외 지음, 양은경 역, 2006, 『중국 불교석굴』, 다할미디어, 138쪽.



〈도 44〉 北塔 출토 소조불좌상 뒷면, 北魏
흙, 높이 25cm.



〈도 45〉 敦煌 莫高窟 제432굴 중심탑주
동쪽면, 西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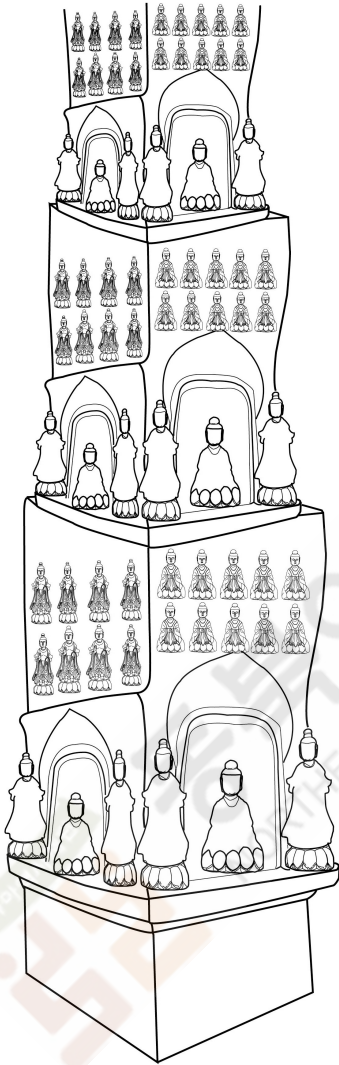
〈도 46〉 키질석굴 제38굴 주실 중심탑주.

소조상의 편평한 뒷면에 진흙을 한 층 더 덧붙여 중심기둥의 벽면에 붙였다. 북주대 개작된 제428굴의 중심주탑 벽면에는 극소형의 소조상을 삽입한 흔적이었던 구멍들이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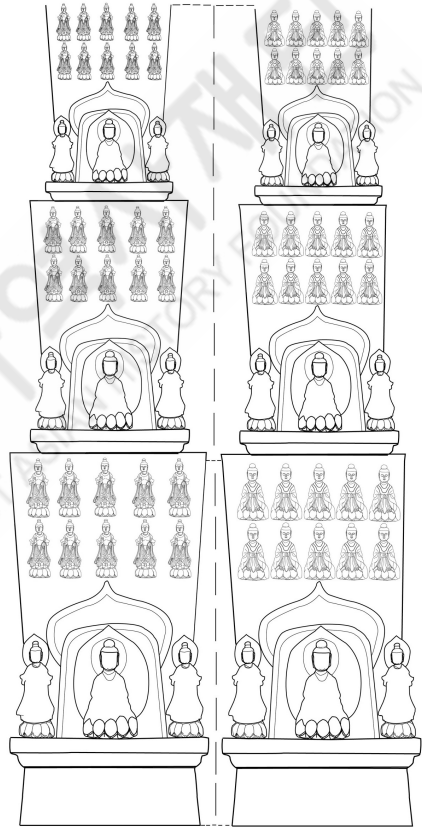
탐묘굴에서 극소형의 소조상을 삽입한 흔적은 키질석굴에서도 확인된다.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키질석굴 제38굴과 제

224굴의 중심주탑 정면 불감의 위쪽에는 원형의 삽입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은 영소상을 걸어둔 흔적들이다(도 46).⁷⁷⁾ 이러한 삽입 구멍들은 뿔자형을

77) 丁明夷·馬世長, 1989, 「圖版說明」, 『中國石窟·新疆克孜爾石窟』一, 文物出版社, 242쪽; 馬世長·晁華山, 1997, 「圖版說明」, 『中國石窟·新疆克孜爾石窟』三, 文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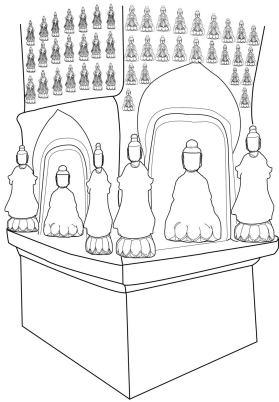


〈도 47〉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의
봉안 추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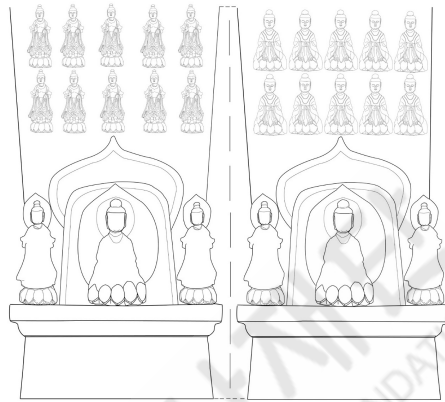


〈도 47-1〉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의
봉안 추정도 2.

出版社, 223쪽. 키질석굴 중심주굴의 개착 연대에 대해서는 宿白, 1997, 「克孜爾部分洞窟階段劃分與年代等問題的初步探索」, 『新疆克孜爾石窟考古報告』, 文物出版社, 151~164쪽의 내용을 참조.



〈도 48〉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의 봉안 추정도 1.



〈도 48-1〉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의
봉안 추정도 2.

형성하며 벽면 안쪽으로 깊게 파여져 있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쬐은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 원오리 출토 소조상의 봉안처와 그 원형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고구려시기 원오리 사지에는 팔각형 혹은 방형의 목탑이 있었을 것이며, 목탑의 내부에는 주춧돌과 주춧돌 위쪽에 나무 기둥들이 여러 겹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⁷⁸⁾ 목탑 내부에 대해서는 다시 출입구가 되는 가장 바깥쪽의 기둥들을 제외한 안쪽의 기둥들 사이 사이에 흙을 쌓아 다져 축조한 夯土 塔心實體가 있었을 가능성과 기둥들 사이를 흙으로 다져 만든 불감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원오리의 목탑이 전자의 예로 존재했다면, 북조대의 목탑과 동일하게 일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향토 탑심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도 47, 47-1), 후자라고 가정하면 남조 목탑에서처럼 일층에만 봉안 대상이 조성되었을 것이다(도 48, 48-1).⁷⁹⁾

78) 주남철은 원오리 사지 목탑에 대해 8각형 기단 위쪽에 8각형 목탑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같은 저서에서 4각형 탑이라고 혼란스럽게 서술하고 있다(주남철, 2002,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63쪽, 65쪽).

79) 북조와 남조에서 목탑을 성행되게 건립한 것은 동일하지만 남조의 목탑은 순수하



〈도 49〉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보살상의 벽면 봉안 모습.



〈도 50〉 金塔寺石窟 中心塔柱 소조상 봉안 모습, 北涼, 甘肅省 張掖市 소재.

원오리 사지 이외에 지금까지 발굴이 이루어졌던 고구려 청암리 사지, 상오리 사지, 정릉 사지의 목탑지는 기단 상부가 철저히 파괴되어 주춧돌 혹은 기타시설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⁸⁰⁾ 그러므로 고구려의 목탑지 내부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추정은 불가능하며, 이후 더욱 많은 발굴자료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

여하튼 원오리에서 출토된 소조불상과 보살상은 대좌의 아래쪽에 삽입되어 있었던 심목을 이용하여 목탑 내부의 중앙에 마련된 향토 탑심체의 불감 혹은 향토 탑심체가 없이 단지 불감만 있는 불감 외부의 위쪽에 꽂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도 47, 48). 그리고 만약 이러한 추측대로 소조상을 삽입하였다면 원오리 소조상의 머리와 상반신은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봉안된다(도 49).

계 나무로 구조된 것이 많았다. 또한 결구방식 역시 চাল주를 먼저 세운 후 층층이 쌓거나 초층을 먼저 건립한 이후 층을 쌓아 올라갔다. 그렇기에 일층에만 불상, 보살상 등 불교조각상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양은경, 2007, 앞의 글, 102쪽; 양은경, 2009. 2, 앞의 글, 13쪽).

80) 리화선, 1986,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39~41쪽; 齋藤忠, 1976a, 『日本古代遺蹟研究—論考篇』, 吉川弘文館, 128~237쪽; 齋藤忠, 1976b,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 유적』, 109~216쪽; 김정기, 1991, 「고구려 정릉 사지 및 토성리 사지 발굴보고 개요와 고찰」, 『佛敎美術』 10, 17~18쪽; 이강근, 2005, 「高句麗 八角形建物址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23, 7~11쪽.

이는 불교 신도들의 예배 시선각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도들이 목탑 내부에서 중앙에 설치된 불감 위쪽에 배치되었을 극소형 불상, 보살상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면 형상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실제 돈황 막고굴, 금탑사석굴 등 중국 중심탑주의 불감 위쪽에 봉안된 소조상들은 머리와 상반신이 약간 앞쪽으로 숙여져 있다(도 50).

V. 맺음말

이상에서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고구려와 중국 소조상의 출토상황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고구려 원오리 사지 소조상은 1937년 日帝의 긴급조사로 인해 유구의 정확한 토층관계와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결여된 채 300여 점의 소조상편과 기와편만이 수집되었다. 당시 출토된 소조상은 불좌상과 보살입상이며, 특징이 동일하여 하나의 제작틀에서 동일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조상들은 형상이 성형된 이후 소성과 채색과정을 거쳤다. 불상과 보살상의 전체 높이는 20cm에 미치지 않는 극소형의 소조상에 속한다. 중국의 사원불사, 사연불도, 내몽고 사원지, 영녕사, 업남성 사원지에서는 발굴을 통해서 소조상이 일괄적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사연불도, 영녕사의 목탑지에서는 대·중·소·극소형의 소조상이 출토되었으며, 불상, 보살상, 제자상, 역사상, 비천상, 공양자상, 연화화생상, 동물상, 불감, 연꽃 장식, 식물문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 제작틀에서 찍어 낸 것과 손빚기로 성형한 방식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소성을 한 예와 자연 건조시킨 예가 모두 존재했다. 최종적으로는 채색이 가해졌다.

제Ⅲ장에서는 소조상이 출토된 지점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원오리 출토 소조상의 제작틀로 추정되는 도범은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리에서 출토되었

다. 낙랑구역은 고구려시기 낙랑문화가 공존한 곳이며, 낙랑 전축분에 사용된 무늬벽돌 역시 중국과는 다른 현지 특징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더욱이 화폐를 주조한 석제 전범과 토제 도가니 등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기에 화폐를 비롯한 무늬벽돌, 명기 등이 현지에서 직접 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낙랑구역에 벽돌, 기와, 화폐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공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토성리에서 도범이 출토된 사실을 통해 이곳에 소조상을 제작하던 공방이 있었고, 성형과 더불어 소성, 채색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오리 소조상은 사원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공반 출토된 연화문 기와의 특징을 통해 평양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당시 불교 사원은 평양과 기타지역에서 건립되었는데, 평양의 사원은 도성지 내부에 소재하였으며 기타지역에서의 불교 사원은 교통의 요충지 혹은 군사 주둔 지역에 소재하였다. 원오리 사원지 역시 인근에 존재하는 운룡리 벽화고분과 더불어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중국에서 소조상이 출토된 남북조시대 사원지는 당시 도성지 혹은 군사요충지의 城址 내부에 위치하였다. 특히 도성지 내부에 건립된 불교 사원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 발원한 예가 많았다. 소조상이 출토된 사원지 주위에는 토기, 벽돌, 기와를 소성한 가마터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소조상의 제작기법을 통한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과 중국 소조상을 비교 연구하고, 더 나아가 중국 소조상의 봉안장소와 봉안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원오리 소조상의 봉안장소와 그 원형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원오리 사지 소조상의 제작기법은 성형, 소성, 채색의 단계를 거쳤다. 성형 과정에서는 제작틀을 이용하여 형상 전체를 한 번에 찍어 낸 기법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기타 비교 예들을 찾아보았으나 중국에서는 사연 불도에서 출토된 극소형의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중국의 소조상은 제작틀을 이용하되 신체부위를 따로 찍어 내거나 혹은 손빛기 성형을 선호했다.

원오리 사지 출토 소조상에서는 성형 이후 소성을 거쳤으나 중국은 사연 불도의 몇몇 예를 제외한 나머지 소조상들은 자연 건조를 했다. 이렇듯 원오리

사지 출토품은 중국에 비해 간단한 성형 제작기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형상의 크기가 중국보다 작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원오리 출토 소조상은 크기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금당에 봉안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목탑 속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현존하는 돈황 막고굴, 운강석굴의 탑묘굴의 내부 상황과 영녕사에 현존하는 목탑 내부의 내용에 기초하여 원오리 사지 소조상은 목탑 내부 중앙에 설치된 향토 탑심체 혹은 불감의 바깥쪽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오리 사지 소조상의 저부에 현존하는 심목의 흔적을 통해 당시 목재 혹은 철재 심목을 이용하여 불감의 위쪽에 삽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오리 소조상의 크기는 극소형이기 때문에 불감의 중앙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은 희소하며 불감의 바깥쪽 상부면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현 원오리 소조상을 벽면에 안치했다면 머리와 상반신이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된다. 이는 예배자들이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착안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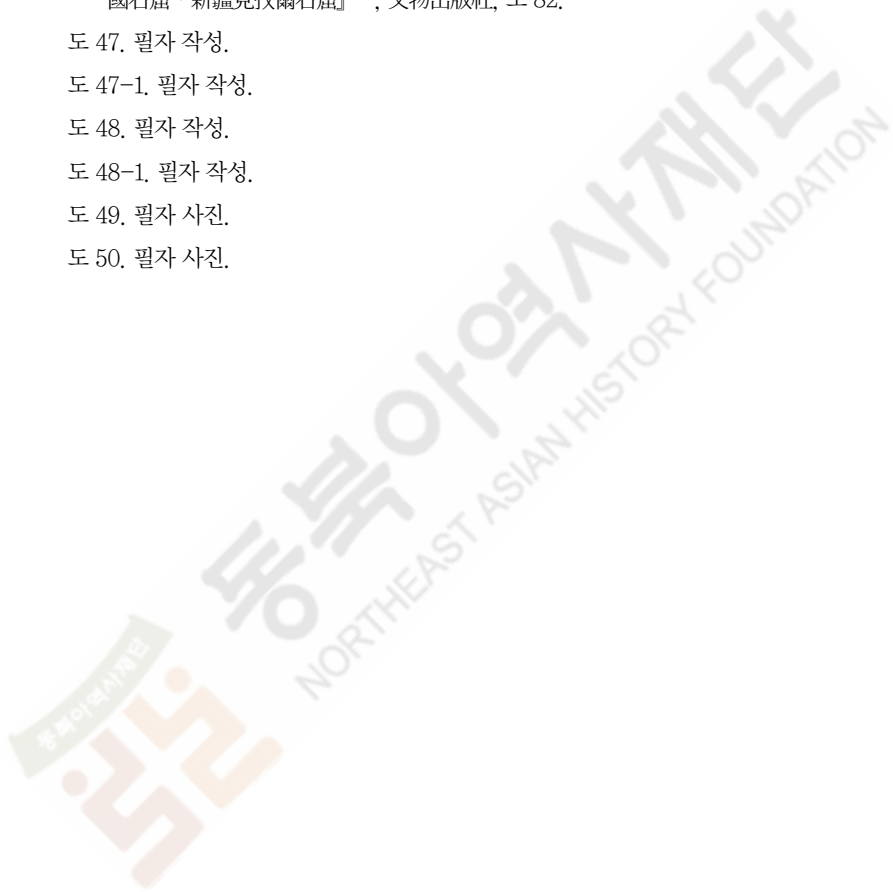
※ 중국 불교 사원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의 실물조사와 유적조사에 큰 도움을 주신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王巍 소장님,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田立坤 소장님, 遼寧省博物館 劉寧 부관장님, 北塔博物館 杜斌 관장님, 山西省文物考古研究所 張慶捷 부소장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工作隊 錢國祥 관장님,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曹建恩 부소장님께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도판 출처

- 도 1. 小泉顯夫, 1938,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圖版第五八.
- 도 2.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래어애만다라』, 18쪽 사진 001).
- 도 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위의 책, 19쪽 사진 002.
- 도 4.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편 2, 민족문화, 265쪽 사진 455).
- 도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앞의 책, 20쪽 사진 003).
- 도 6. 石松 日奈子, 2005, 『北魏佛教造像史の研究』, ブリュッケ, 86쪽.
- 도 7. 大同市博物館, 2007,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 4, 2007, 7쪽 도 5.
- 도 8. 大同市博物館 소장(大同市博物館, 2007, 위의 글, 19쪽 도 40).
- 도 9. 大同市博物館 소장(大同市博物館, 2007, 앞의 글, 19쪽 도 42).
- 도 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5·6쪽, 도 3.
- 도 11. 朝陽市北塔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12. 朝陽市北塔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13. 曹建恩부소장 사진 제공.
- 도 14. 包頭市文管所 소장(內蒙固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1984, 「內蒙古白靈淖城圖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 150쪽 도 7.
- 도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4쪽 도 9.
- 도 1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博物館洛陽分館 소장(필자 사진).
- 도 17. 朱巖石, 2003, 「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遺蹟」, 『2002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98쪽.
- 도 18.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소장(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2003, 「河北臨漳縣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的發現與發掘」, 『考古』 10, 6쪽 도 5).
- 도 19. 南京大學博物館 소장(李炳鎬, 2006,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 系統, 『美術資料』 74, 50쪽 도 7-가).
- 도 20. 필자 작성.
- 도 21. 필자 작성.
- 도 22.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솔, 85쪽 도 70.
- 도 23. 국립중앙박물관, 2001, 위의 책, 191쪽 도 194.
- 도 2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漢魏城隊, 1997, 「漢魏洛陽城發現的東漢燒煤瓦窯遺址」, 『考古』 2, 48쪽 도 2.
- 도 25. 王鐸, 2000, 「北魏洛陽規劃及其城史地位」, 『漢魏洛陽故城研究』, 科學出版社, 498쪽 도 4.
- 도 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필자 사진).
- 도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필자 사진).
- 도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필자 사진).
- 도 29. 遼寧省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30. 遼寧省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31. 朝陽北塔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32. 朝陽市北塔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3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博物館洛陽分館 소장(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29쪽 도 19).
- 도 3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博物館洛陽分館 소장(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彩版 28-2).
- 도 35. 국립부여박물관 소장(국립부여박물관, 2006, 『국립부여박물관』, 84쪽).
- 도 36. 東京대학교박물관 소장(서울대학교박물관·東京대학문학부, 2003,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 41쪽 도 8).
- 도 37. 東京대학교박물관 소장(서울대학교박물관·東京대학문학부, 2003, 위의 책, 41쪽 도 8-1).
- 도 38. 필자 사진.
- 도 3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앞의 책, 彩版 2.
- 도 40. 필자 사진.
- 도 41. 鍾曉青, 1998, 「北魏洛陽永寧寺塔復原探討」, 『文物』 5, 61쪽 도 7, 8.
- 도 42. 朝陽市北塔博物館 소장(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46쪽, 도 15-1).

- 도 43. 大同市博物館 소장(大同市博物館, 2007, 앞의 글, 18쪽 도 36).
- 도 44. 朝陽北塔博物館 소장(필자 사진).
- 도 45. 敦煌文物研究所, 1992,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一, 平凡社, 도 149.
- 도 46.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拜城縣克孜爾千佛洞文物保管所, 1989, 『中國石窟·新疆克孜爾石窟』一, 文物出版社, 도 82.
- 도 47. 필자 작성.
- 도 47-1. 필자 작성.
- 도 48. 필자 작성.
- 도 48-1. 필자 작성.
- 도 49. 필자 사진.
- 도 50. 필자 사진.



참고문헌

〈저서〉

『魏書』, 1995,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法苑珠林』, 1995, 上海古籍出版社.

국립부여박물관, 2006,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슬.

紀兵·王晶辰, 2005, 『遼寧歷代佛教文物集粹—佛教遺寶』, 遼寧人民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敦煌文物研究所, 1992,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一, 平凡社.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래여애반다라』.

杜斌主編, 2006, 『朝陽北塔—中國東北第一塔』, 吉林攝影出版社.

마쓰창 외 지음·양은경 역, 2006, 『중국 불교석굴』, 다할미디어.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養德社.

서울대학교박물관·東京대학문학부, 2003, 『해동성국 발해』, 서울대학교박물관.

石松 日奈子, 2005, 『北魏佛教造像史の研究』, ブリュッケ.

小泉顯夫, 1938,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拜城縣克孜爾千佛洞文物保管所, 1989, 『中國石窟·新疆克孜爾石窟』一, 文物出版社.

王培新, 2007, 『樂浪文化—以墓葬爲中心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北塔博物館, 2007,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遼河文明展—文物集粹』.

龍門石窟研究院·龍門博物館, 2005, 『龍門博物館藏品—佛教藝術卷』, 大象出版社.

熊海堂, 1995,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 南京大學出版社.

劉敦楨, 1981,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李裕群, 2003, 『古代石窟』, 文物出版社.

齋藤忠, 1976, 『日本古代遺蹟研究—論考篇』, 吉川弘文館.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 8권-발해편,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고구려편 2, 민족문화. 曹者社·孫秉根, 1998, 『中國古代俑』, 上海文化出版社.
- 주남철, 2002,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1979~1994年考古發掘報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최무장·임연철, 1990, 『고구려 벽화고분』, 서신원.
- 出光美術館編, 1995, 『北京大學サッカー考古藝術博物館·中國の考古學展-北京大學考古學界發掘成果』圖錄, 平凡社.

〈논문〉

- 金理那,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禮耕.
- 김성구, 2002, 「고대 동아시아의 瓦當藝術-그 변천과 특성」,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 김성구, 2005,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그 변천」, 『고구려 와당』,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김중혁·김지철, 1989, 「신포시 오매리 금산 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2.
- 김중혁·김지철, 1990,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 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
- 김중혁, 1997, 「우리 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 연구논문집』 2, 백산자료원.
- 김정기, 1991, 「고구려 정릉 사지 및 토성리 사지 발굴보고 개요와 고찰」, 『佛教美術』 10.
- 洛陽市文物工作隊, 1991, 「洛陽孟津晉墓, 北魏墓發掘簡報」, 『文物』 8.
- 남일룡, 1987,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 龔國強, 2006, 『隋唐長安城佛寺研究』, 文物出版社.
- 內蒙古文物工作隊·包頭市文物管理所, 1984, 「內蒙古白靈淖城圍圮北魏古城遺址調查」, 『考古』 2.
- 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1978,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 7.

- 大同市博物館, 2007,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 4.
- 丁明夷·馬世長, 1989, 「圖版說明」, 『中國石窟·新疆克孜爾石窟』一, 文物出版社.
- 段鵬琦, 1998, 「漢魏洛陽城」,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考古博物館洛陽分館』, 文化藝術出版社.
- 리화선, 1986,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 馬世長·晁華山, 1997, 「圖版說明」, 『中國石窟·新疆克孜爾石窟』三, 文物出版社.
- 孟凡人, 2000, 「北魏洛陽外郭城開闢初探」, 『漢魏洛陽故城研究』, 科學出版社.
- 文明大, 1981,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高句麗 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 150.
- 박운배, 2008, 「制作技法을 통한 慶州地域 塑造像과 中國 塑造像과의 關係—고신라,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CHINA 연구』 5.
- 발굴소식, 1993, 「폐업사, 쌍계사터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
- 宿白, 1977, 「盛樂, 平城一帶的拓拔鮮卑—北魏遺迹—鮮卑遺迹輯錄之二」, 『文物』 11.
- 宿白, 1997, 「克孜爾部分洞窟階段劃分與年代等問題的初步探索」, 『新疆克孜爾石窟考古報告』, 文物出版社.
- 宿白, 1999, 「東漢魏晉南北朝佛寺布局初探」, 『慶祝鄧廣銘教授九十華誕論文集』, 河北教育出版社.
- 松浦正昭, 1998, 「永寧寺塔內塑像の世界」, 『北魏洛陽永寧寺』,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徐萃芳, 1981, 「中國秦漢魏晉南北朝時代的陵園和空城」, 『文物』 6.
- 徐日範, 2004, 「북한 경내의 발해 유적과 출토 유물」, 『高句麗研究』 6-발해 건국 100주년, 학연문화사.
- 山崎隆之, 1998, 「永寧寺北塔內塑像の製作技法について」, 『北魏洛陽永寧寺』,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朝陽北塔考古勘察隊, 1992, 「遼寧朝陽北塔天宮地宮清理簡報」, 『文物』 7.
- 李炳鎬, 2005,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技法과 奉安場所」, 『美術資料』 72·73.
- 李炳鎬, 2006,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 『美術資料』 74.
- 李相培, 1994, 「塑造佛像의 制作技法」, 『佛教美術研究』 1.
- 이강근, 2005, 「高句麗 八角形建物址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23.
- 임석규, 2005, 「渤海 塑造佛像의 性格과 製作技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7.
- 楊泓, 2000, 「西漢俑의 造型特徵」, 『漢唐美術考古和佛教藝術』, 科學出版社.

- 楊泓, 2000, 「北朝陶俑의 源流, 演變及其影響」, 『漢唐美術考古和佛教藝術』, 科學出版社.
- 양은경, 2004, 「중국 불교석굴의 개념과 분포, 발전사」, 『中國史研究』.
- 양은경, 2007, 「遼寧省 朝陽 北塔 出土 塑造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56.
- 양은경, 2008a,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8.
- 양은경, 2008b, 「북한의 불교 사원지 출토 고구려, 발해 불상의 출토지 문제와 계승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1.
- 양은경, 2009. 2,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에 대한 연구-中國 佛教寺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제연구소 제59회 공개강좌 발표요지문』.
- 양은경, 2009. 3, 「中國 南朝가람 丹陽 皇基寺(皇業寺)에서 百濟 陵寺를 보다」, 『한국의 고고학』 11, 주류성출판사.
- 王鐸, 2000, 「北魏洛陽規劃及其城史地位」, 『漢魏洛陽故城研究』, 科學出版社.
- 王仲殊, 1982, 「中國古代都城概說」, 『考古』 5.
- 久野健, 1992,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
- 淺井和春, 1982,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所收, 朝鮮三國時代の佛像について」, 『MUSEUM』 372.
- 張劍波·王晶辰·董高, 1992, 「朝陽北塔의 結構勘察與修建歷史」, 『文物』 7.
- 錢國祥, 2005, 「北魏洛陽永寧寺塑像의 初步研究」, 『中原文物』 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工作隊, 1981, 「北魏永寧寺塔基發掘簡報」, 『考古』 3.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2003, 「河北臨漳縣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의 發現與發掘」, 『考古』 10.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漢魏城隊, 1997, 「漢魏洛陽城發現의 東漢燒煤瓦窯遺址」, 『考古』 2.
- 朱巖石, 2003, 「鄴城遺址東魏北齊佛寺塔基遺蹟」, 『2002 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 최성은, 2007,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북위 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 賀雲翹, 2003, 「南京鍾山二號寺遺址出土瓦當初探」, 『東亞考古論壇』 장간호.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guryo clay figures and the Chinese ones

Yang, Eungyeng

The representative clay figures in Koguryo are the ones excavated in the temple site of Wonori (元五里), Pyongannam province and the mould excavated in the temple site of Tosungri (土城里), Pyongyang (平壤) supposed to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the clay figures.

The clay figure of Wonori temple site was excavated urgently and roughly in 1937 by the Japanese. For that reason,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y lay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remained unsolved and 300 pieces of clay figures and the roof tiles were collected. The clay figures, statues of the Buddha and the Bodhisattiva, had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were supposed to be made in the same method by using one mould. These were shaped prior to the firing and the painting. They were clay miniatures because their height is limited to the 20cm.

In China, many clay figures were excavated in the various places such as the Siyuan temple (思遠佛寺), Siyan Pagoda (思燕佛圖), temple site of the Inner Mongol, Yongning temple (永寧寺), and Yenancheng (鄴南城) temple site. The clay figures, especially excavated in the Siyan Pagoda and the Ye-nancheng temple site, had the various sizes ; large, medium, small and miniature. And their motifs were various ; the Buddha and the Bodhisattiva, the disciples, the strong man, the

flying Asparas, the offering man, the lotus transformation, the animal, the Buddhist niches, the lotus decoration and the plants. Both the moulding and the hand building were used and the fired and the dried were found together. Finally they were painted.

The mould, supposed to be used for the Won-ori clay figure, was excavated in the Tosungri, Pyongyang. In the Nakrang (樂浪) area flourished Koguryo culture and the carved brick used for the tomb in the Nakrang showed the strong loc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e Chinese one. Furthermore stone mould for the coin and the crucible were excavated in this area. This proved that the carved bricks and the Mingqi were locally produced.

This may suggest the existence of the workshop of the carved bricks and the roof tiles and coins. The excavation of mould in the Tosungri, Pyongyang showed the install of workshop of the clay figure and the whole making process from the firing to the painting including the shaping were supposed to be done together.

The Wonori clay figure was excavated in the temple site and assumed to be made in the period of Pyongyang through the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of lotus design roof tiles which were excavated together with the Wonori clay figure. During that time, the Buddhist temple were established both in the Pyongyang and the suburbs. The temple in the Pyongyang located in the capital while the temple in the suburbs occupied traffic or military important places. The temple in the Wonori was supposed to place the traffic important spot with the mural tomb in the Unyongri (雲龍里).

The Chinese temple site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where the clay figures were excavated, also occupied the military key spot or capital. Especially the most temple in the capital got the

patron from the high society. Near the temple site where clay figure were excavated, was excavated the kiln site for the earthenware and the bricks.

The production technique of the Wonori clay figure were formation, firing and painting in sequence. During the formation the moulding technique was used to press the whole body together. While in China there are scarcely same method except for the Siyan Pagoda one. Most clay figures in China were made by the hand building or separate pressing.

While the Wonori clay figure was fired after formation, most clay figures in China except the ones from Siyan Pagoda were just dried, nor fired. The Wonori clay figures were simpler than the Chinese ones in formation because their size were smaller than Chinese ones.

They were supposed not suitable established in the Hall because of their size. Instead they might be installed in the wooden tower. They were judged to be set in the square column forming the core of the wooden tower according to the examples of the tower of the Dunhwang Mogao Cave and the Yungang cave. The trace of the core in the bottom of the figure showed the possibility of the insertion of the clay figures into the square column forming the core using the wooden or steel core.

Because the Wonori clay figures are too small, they were supposed to be settled in the upper part of the square column forming the core rather than the central part. If the Wonori clay figures were installed on the surface of wall, the head and the bust would lean to the front slightly. This was intentionally aimed after consideration of the worshiper's eyes looking upward.

keywords

Koguryo, clay figures, China, Woodern Pagoda, Wonori temple site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제 1·2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4호(2009. 6)

초판 1쇄 인쇄 2009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6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인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